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총서 83  
사라져가는 제주노동요 기록 사업(2025)

# 사라져가는 제주노동요 1

- 애월읍·한림읍·한경면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총서 83  
사라져가는 제주노동요 기록 사업(2025)

## 사라져가는 제주노동요 1 - 애월읍·한림읍·한경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사라져가는 제주노동요 1  
비매품

ISBN 979-11-995729-4-2



## 일러두기

- 이 책은 2025년 제주시 관할 지역인 애월읍·한림읍·한경면에 속한 8개 마을을 대상으로 제주 노동요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제주민요를 정리한 결과물이다.
- 조사한 마을 8개는 애월읍 유수암리·애월리, 한림읍 금악리·귀덕1리·귀덕2리·귀덕3리, 한경면 저지리·조수1리이다.
- 조사 마을 중 귀덕1리·귀덕2리·귀덕3리는 귀덕리 하나로 정리하였다.
- 제주민요 분류는 노동요·의식요·유희요·전승동요·기타 순이며, 배열은 시간 순으로 정리하였다.
- 제주어 표기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음이 표준어와 동일한 경우는 표준어로 표기하였다.
- 각 제주민요의 제목은 제보자가 사용한 명칭을 우선 제시하고, 이어서 분류와 표준어 제목을 제시한 뒤 간단한 설명을 덧붙였다.
- 같은 지역에서 조사된 민요 중 제목이 같은 경우는 번호를 붙여 구분하였다.
- 민요 제목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차후에 가사와 음원을 일치하기 위해 각 민요마다 자료 코드를 제시하였다.





**노동요는 제주 사람들의  
공동체 문화유산이다.**

**김완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장

제주에서 오랜 세월 전승되어 온 노동요는 지역 공동체의 삶을 지탱해 온 소중한 생활 문화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이러한 귀중한 문화는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제주학연구센터에서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라져가는 제주노동요 기록 사업(2025) 〈사라져가는 제주노동요1-애월읍·한림읍·한경면〉을 발간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연구의 출발점에는 노동요가 더 이상 자연스러운 전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농업·어업·임업 노동 현장의 변화, 공동체 노동의 해체, 지역 사회의 고령화는 노동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삶으로 진행되어 현재는 그 노동요가 들리는 현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록하지 않는다면 수백 년 간 이어져 온 노동의 소리와 기억이 세대 교체와 함께 영영 잊힐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은 이번 사업 추진을 이끈 중요한 동력이었습니다. 이번 연구 과정에서 조사된 노동요 뿐만 아니라 유희요, 의식요, 전승동요 등 다양한 제주의 민요를 분류하고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자료가 더욱 값진 이유는, 제보자들이 단순한 '노래의 주인공'이 아니라 제주의 근현대사를 몸으로 견뎌낸 삶의 증언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해방과 4·3의 비극, 6·25전쟁, 마을 재건과 생업의 수없는 변화 속에서도 그분들은 삶을 이어가며 노동의 현장에서 노래를 지켜 왔습니다. 그 풍파 속에서도 공동체를 일구고 가족을 부양하며, 어둠 속에서도 삶을 살아내려 애쓴 이들의 시간은 그 자체로 귀중한 역사입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그분들의 목소리와 숨결이 오롯이 담겨 있으며, 우리는 그 삶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수집된 증언과 음원, 노랫말, 생활사적 맥락은 단순한 민요 기록을 넘어 제주 노동문화와 근현대 사회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입니다. 지역마다 다른 어휘, 노동 방식이 반영되어 있어 민속학·음악학·언어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도 활용 가치가 큼니다. 무엇보다 기록되지 않았다면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을 소리와 기억이 이 보고서를 통해 후대에 전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사에 협력해 주신 모든 제보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노동요 보고서가 학술 연구는 물론 교육·문화사업, 지역축제 및 재현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조사가 제주 전통문화 아카이브 구축의 밑거름이 되어, 미래 세대가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산을 이해하고 자랑스럽게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구 책임을 맡은 송정희 전문연구원을 비롯하여 공동연구를 함께한 양인정 박사님, 임현정 선생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특히 제주노동요 기록화 사업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책을 정성껏 만들어준 한그루 출판사 관계자분들께도 늘 고맙습니다.

2025. 12.

4 발간사

II. 애월읍

1. 애월읍 유수암리

I. 조사 개요

20	조사 개요	54	1-1. 유수암리 마을 소개
20	문헌 조사 및 조사 범위	58	1-2. 유수암리 제보자
21	연구진	58	강추자
22	사업 수행 일정	61	강노성
28	제보자	63	1-3. 유수암리 노동요
30	정리 방법	63	썩른사데소리1
31	문헌 조사 및 현장 조사 실태	64	출흥애기소리1
45	현장 조사 사진	64	진사데소리1
		66	밧메는소리
		67	권력사데
		68	밧불리는소리1
		69	출흥애기소리2
		70	도리깨질소리
		71	진사데소리2
		73	썩른사데소리2
		74	출흥애기소리3
		75	밧불리는소리2

76	그레그는소리
77	검질메는소리1
79	출흥애기소리
81	낭자를때소리
82	낭개는소리
82	검질메는소리2
83	썩른사데소리3
84	밧가는소리
84	밧불리는소리3
85	쉐모는소리
86	마당질소리
87	돌방에소리
88	1-4. 유수암리 의식요
88	행상소리1
89	달구짚는소리1
90	달구짚는소리2
91	행상소리2
94	1-5. 유수암리 유희요
94	집지영나무베는소리1
95	집지영나무베는소리2
96	성주풀이

98	창부타령
101	1-6. 유수암리 전승동요
101	웁이자랑1
102	끝말이어가는말
105	흔다리인다리1
106	주열재열
106	청청밥주리
107	도롱아도롱아
108	흔다리인다리2
109	비야비야
109	베칠락놀이
110	끝말잇기
112	아기흥그는소리1
113	아기흥그는소리2
115	웁이자랑2
117	웁이자랑3

2. 애월읍 애월리

118	2-1. 애월리 마을 소개
122	2-2. 애월리 제보자

122	김경호	145	밧가는소리2
123	정기생	146	검질메는소리2
124	김숙자	147	ㄱ레 ㄱ는소리2
126	김일수	148	물에드는소리
127	홍민수	152	보리타작하는소리
128	양재선	153	남방에소리2
130	부경애	154	몰방에소리
131	<b>2-3. 애월리 노동요</b>	155	집줄놓는소리
131	노젓는소리1	157	낭개는소리2
131	검질메는소리1	158	낭쓰는소리
133	밧볼릴때부르는소리	159	해녀노래1
135	도깨질소리	160	이어드사나1
136	사데소리	162	이어드사나2
137	보리타작할때노래	163	이어드사나3
138	ㄱ레 ㄱ는소리1	165	검질메는소리3
139	밧볼리는소리1	166	밧볼리는소리3
140	남방에소리1	167	노젓는소리3
141	낭개는소리1	167	테왁지평부르는소리
142	노젓는소리2	168	밧볼리는소리4
143	밧볼리는소리2	169	ㄱ레 ㄱ는소리3
144	밧가는소리1	170	뱃노래

171	ㄱ레 ㄱ는소리4	193	뽕뽕장서방1
172	밧볼리는소리5	194	흔다리인다리2
173	검질메는소리4	194	아기흥그는소리2
174	노젓는소리4	195	흔다리인다리3
175	해녀노래2	196	주열재열2
176	조볼리는소리	197	웁이자랑1
178	멜후리는소리	198	도롱아도롱아2
179	노젓는소리5	198	흔다리인다리4
183	<b>2-4. 애월리 의식요</b>	199	뽕뽕장서방2
183	달구소리1	200	웁이자랑2
183	행상소리	202	웁이자랑3
184	달구소리2	204	아기좁재우는소리
185	상여소리	205	<b>2-7. 기타</b>
187	<b>2-5. 애월리 유희요</b>	205	유야케코유야케
187	노들강변1		
187	노들강변2		
189	<b>2-6. 애월리 전승동요</b>		
189	흔다리인다리1		
190	아기흥그는소리1		
191	주열재열1		
192	도롱아도롱아1		



### Ⅲ. 한림읍

#### 1. 한림읍 금악리

208	1-1. 금악리 마을 소개
212	1-2. 금악리 제보자
212	박순림
214	박미선
216	문영부
218	양서옥
221	1-3. 금악리 노동요
221	방에짚는소리1
222	마당질하는소리
223	검질메는소리
225	사데소리1
227	사데소리2
229	밧가는소리1
230	도리깨질소리1
231	도리깨질소리2
232	그레그는소리1
233	그레그는소리2

235	방에짚는소리2
237	출비는소리1
238	사데소리3
239	출비는소리2
240	그레그는소리3
241	남방에짚는소리
242	밧질리는소리
246	밧가는소리2
247	1-4. 금악리 의식요
247	달구소리1
250	행상소리1
254	달구소리2
257	행상소리2
259	1-5. 금악리 전승동요
259	아기흥그는소리1
262	고무줄놀이노래
262	주열재열
263	왕밥줄이
264	예숙제끼
265	애기흥그는소리
268	아기흥그는소리2

270	아기흥그는소리3
-----	----------

#### 2. 한림읍 귀덕리

272	2-1. 귀덕리 마을 소개
276	2-2. 귀덕리 제보자
276	홍춘화
277	이금순
279	장금자
280	양창순
281	김신녀
282	이명자
283	김유생
285	고순화
286	강춘자
287	김천혜
289	오순희
290	홍화자
291	김원여
293	조임생
294	고민자

296	고정자
300	2-3. 귀덕리 노동요
300	네젓는소리1
301	비양도소리(네젓는소리)
302	사데소리1
303	조블리는소리
304	씨뿌리는소리
304	흥에모시는소리
305	이어도사나1
306	그레그는소리1
307	해녀노래
307	이어도허라
308	네젓는소리2
310	네젓는소리3
312	네젓는소리4
313	네젓는소리5
314	네젓는소리6
317	네젓는소리7
319	네젓는소리8
321	네젓는소리9
323	사데소리2

324	밧불리는소리1	349	사데소리9
325	도리깨질소리	351	밧불리는소리6
326	ㄱ레 ㄱ는소리2	352	도리깨질하는소리
327	물질하러가는소리1	352	ㄱ레 ㄱ는소리6
329	밧불리는소리2	353	방아짙는소리2
330	사데소리3	354	사데소리10
332	사데소리4	356	<b>2-4. 귀덕리 의식요</b>
334	ㄱ레 ㄱ는소리3	356	달구소리1
335	사데소리5	356	넛들라
335	사데소리6	357	달구짙는소리
336	밧불리는소리3	358	어마넛들라
338	사데소리7	359	달구소리2
339	ㄱ레 ㄱ는소리4	360	행상메가는소리
340	방아짙는소리1	362	달구소리3
341	밧불리는소리4	364	<b>2-5. 귀덕리 유희요</b>
342	사데소리8	364	오돌또기
343	이어도사나2	365	양산도
346	밧불리는소리5	366	청춘가
347	ㄱ레 ㄱ는소리5	367	창부타령
347	물질하러가는소리2	368	시집살이(진주난봉가)1
349	물질하러가는소리3	369	시집살이노래1

370	시집살이(진주난봉가)2
373	시집살이노래2
374	회심곡
375	<b>2-6. 귀덕리 전승동요</b>
375	훈다리인다리
376	아기흥그는소리1
376	아기놀아주는소리
377	웁이자랑
378	아기흥그는소리2
380	아기흥그는소리3
381	아노까오데
382	아기흥그는소리4
383	할미꽃
384	<b>2-7. 기타</b>
384	해방의노래

## IV. 한경면

### 1. 한경면 저지리

388	<b>1-1. 저지리 마을 소개</b>
392	<b>1-2. 저지리 제보자</b>
392	김태화
397	김신화
401	변창식
404	고인아
405	김옥화
407	홍영산
409	<b>1-3. 저지리 노동요</b>
409	소뭇쉬물양가는소리
410	밧불리는소리1
411	걸름시짙가는소리
412	조불리는소리1
412	조불리는소리2
413	사데소리1
415	도리깨질소리1

416	방아소리	437	밧볼리는소리3
416	ㄱ레 ㄱ는소리1	439	사데소리6
417	걸름내어볼리는소리	440	남방에소리
418	밧갈때부르는소리	441	ㄱ레 ㄱ는소리5
419	사데소리2	443	검질메는소리
420	조밧볼리는소리1	445	밧볼리는소리4
421	도리깨질소리2	447	방에짚는소리
422	사데소리3	448	밧볼리는소리5
424	ㄱ레 ㄱ는소리2	449	출비는소리
425	방에소리	451	낭깨는소리
426	조밧볼리는소리2	451	사데소리7
428	사데소리4	453	<b>1-4. 저지리 유희요</b>
429	ㄱ레 ㄱ는소리3	453	창부타령
429	방아짚는소리1	455	<b>1-5. 저지리 전승동요</b>
430	도리깨질소리3	455	주열재열
431	사데소리5	456	윙이자랑1
433	밧볼리는소리2	458	윙이자랑2
434	ㄱ레 ㄱ는소리4	459	말이어가기
435	방아짚는소리2		
436	흑병에부수는소리		
436	마당질소리		

<b>2. 한경면 조수1리</b>		491	ㄱ레 ㄱ는소리3
		493	<b>2-4. 조수1리 전승동요</b>
462	<b>2-1. 조수1리 마을 소개</b>	493	아기흥그는소리1
466	<b>2-2. 조수1리 제보자</b>	494	밥주리1
466	조병출	495	흔다리인다리1
468	김정열	496	예숙제끼
469	임선옥	497	아기흥그는소리2
474	<b>2-3. 조수1리 노동요</b>	498	밥주리2
474	ㄱ레 ㄱ는소리1	498	애기흥그는소리
475	밧볼리는소리1	500	흔다리인다리2
476	남방아소리	501	<b>2-5. 기타</b>
477	사데소리1	501	일본애국가
479	쫓른사데소리1		
482	방아소리		
483	ㄱ레 ㄱ는소리2	504	<b>참고문헌</b>
484	도깨질소리		
485	밧볼리는소리2		
486	물 ㄱ레소리		
486	쫓른사데소리(뗏다)2		
489	밧볼리는소리3		
490	사데소리2		





# I

## 조사 개요



## 1. 조사 개요

제주노동요는 제주인의 노동 현장 어디에서든 불리어 왔으나 현재는 노동 현장의 변화로 거의 불리지 않고 있어 멸실 위기에 놓여 있다. 제주노동요는 제주의 자연환경에 맞춰 농업, 어업, 임업, 가사노동 등 삶의 모든 생활 현장을 담아내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노동요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멸실 전 노동요 채록(구술 녹음, 영상, 사진), 채보 등 시급한 조사가 필요하다.

- **사업명:** 사라져가는 제주노동요 기록화 사업
- **조사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한림읍·한경면
- **조사 기간:** 2025년 1월~2025년 12월
- **조사 내용:** 제주도 자연 마을 중심의 노동요
- **조사 방법:** 선행 연구 검토, 문헌 조사, 현장 조사 등

## 2. 문헌 조사 및 조사 범위

문헌 조사는 『한국구비문학대계9-1~9-3』(1979~1981), 『한국민요대전(제주도편)』(1989~1991), 『우리고장 전래민요(남제주군 전래 민요 조사자료)』(1996), 『제주의 향토민요(제주시 향토민요 자료집)』(2000), 『아름다운 전통의 소리(북제주군 전래 민요 악보집)』(2001),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9-4(제주시)①』(2009),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9-5(제주시)②』(2010),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9-6(제주시)③』(2011)을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는 기존 문헌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선행 연구에서 다루

어지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 범위를 설정하였다. 조사 대상지는 애월읍 유수암리·애월리, 한림읍 귀덕리·금악리, 한경면 저지리·조수1리이다.

## 3. 연구진

- 송정희(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책임연구)
- 양인정(문학박사(민속학)·공동연구)
- 임현정(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공동연구)

#### 4. 사업 수행 일정

표1 사업 수행 일정

순번	날짜	장소	제보자	내용	비고
1	2월13일	센터	연구진	연구진 회의 - 사업 설명 및 기본 정리 방법 논의	
2	3월6일	센터	연구진	연구진 회의 - 민요 스터디, 문헌 조사	
		애월리	애월리 이장 장정운	사업 설명 및 협조 요청	-사진 22장
3	3월28일	귀덕1리	-	문이 잠겨있었음	
		금악리	노인회장 안정순	사업 설명(월수금 오전 모임) 김춘자, 박순림, 문영부 추천	
		유수암리	노인회장 강대원	사업 설명 강추자, 강덕심 추천	
		귀덕2리	이성화	사업 설명(마을 이야기) 토요일 일요일 오후 모임	
4	4월9일	애월리	노인회장 문상희	사업 설명	
		저지리	노인회장 사모님 조신자	조사 내용 설명 (매월 1일, 15일 점심식사 제공함.) 김신화 추천	
		조수1리	노인회장 조정남	사업 설명(매일 12시 이후 모임)	
		조수2리	노인회 회원 이승선	사업 설명(월수금 오전 모임) 노인회장 김종욱 연락처 받음	
		귀덕2리	홍춘화 임순자 이금순	제주 노동요, 전승동요 등 조사	
		조수1리	연구진	연구진 회의 -조사 방법 논의, 문헌 조사	

순번	날짜	장소	제보자	내용	비고
5	4월11일	귀덕2리	장금자 이금순 강두교 양창순	제주노동요, 전승동요 등 조사	-사진 30장 -음원 1시간
		귀덕2리	연구진	연구진 회의 -정리 방법 회의, 문헌 조사	
6	4월15일	저지리	김태화 김신화 조신자	제주 노동요, 전승동요 등 조사	-사진 22장 -영상 46분 -음원 47분
		유수암리	강대원	제보자 알아보겠다고 함	
7	4월24일	유수암리 외도동	강추자	외도 절물경로당에서 면담	-사진 13장 -영상 44분 -음원 44분
		귀덕1리	-	경로당 문이 잠겨있었음	
		귀덕3리	-	경로당 문이 잠겨있었음	
		저지리	연구진	연구진 회의 -조사 방법 논의, 문헌 조사	
8	4월25일	금악리	박미순 박순림	박순림, 박미순 생애담 조사 제주 노동요, 전승동요 등 조사	-사진 6장 -영상 21분 -음원 22분
		조수1리	노인회장 조정남	추천할 제보자가 없다고 함(재요청)	
		조수2리	-	경로당 문이 잠겨있었음	
9	4월30일	애월리	김숙자 정기생 김경호 홍민수	제주 노동요, 전승동요 등 조사	-사진 15장 -영상 1시간 7분 -음원 1시간
10	5월1일	저지리	변창식 고인아 김태화	제주 노동요, 전승동요 등 조사	-사진 16장 -영상 1시간 13분 -음원 36분
11	5월2일	금악리	박미선 박순림	박순림 생애담 조사 제주 노동요, 전승동요 등 조사	-사진 11장 -영상 1시간 9분 -음원 1시간 18분



순번	날짜	장소	제보자	내용	비고
12	5월7일	유수암리	강추자	제주 노동요, 전승동요 등 조사	-사진 8장 -영상 1시간 7분 -음원 1시간 10분
13	5월9일	금악리	박미선	생애담 제주 노동요, 전승동요 등 조사	-사진 8장 -영상 1시간 2분 -음원 1시간 3분
14	5월15일	조수1리	임선옥 최진선 조병출 이상하 김정열 김순자 김영자 조정열 김복수	제주 노동요, 전승동요 등 조사	-사진 25장 -영상 31분 -음원 32분
		조수1리	연구진	연구진 회의 -정리 방법 논의, 문헌 조사	
15	5월22일	유수암리	강추자	제보자 생애담 조사 제주 노동요, 전승동요 등 조사	-사진 2장 -영상 1시간 38분 -음원 1시간 40분
16	5월29일	애월리	정기생 김경호	김경호, 정기생 생애담 조사 제주 노동요, 전승동요 등 조사	-사진 12장 -영상 1시간 3분 -음원 1시간 4분
17	6월25일	저지리	고인아	제보자 생애담 조사 제주 노동요, 전승동요 등 조사	-사진 16장 -영상 59분 -음원 57분
		귀덕2리	이금순 강두교 홍춘화 김신녀 김유생 장금자	제주 노동요, 전승동요 등 조사	
		귀덕리	연구진	연구진 회의 -조사 방법 논의, 문헌 조사	

순번	날짜	장소	제보자	내용	비고
18	6월26일	귀덕2리	이금순 장금자 홍춘화 김유생 이명자 고순화	제주 노동요, 전승동요 등 조사	-사진 71장 -영상 54분 -음원 1시간
		유수암리	강추자	생애담	
19	6월27일	귀덕1리	노인회장	사업 설명	-사진 10장
		귀덕3리	노인회장	사업 설명	
20	6월30일	애월리	김숙자	제주 노동요, 전승동요 등 조사	-사진 7장 -음원 1시간
			어촌계	사업 설명 (어업요 관련 조사를 위함)	
21	7월1일	애월리	노인회장	사업 설명	-사진 62장 -영상 2시간 30분 -음원 2시간 42분
		귀덕1리	오순희 조임생 고민자 김원녀	제주 노동요, 전승동요 등 조사	
		저지리	홍영산 김옥화	제주 노동요, 전승동요 등 조사	
		귀덕리	연구진	연구진 회의 -조사 방법 논의	
22	7월22일	애월리	김숙자 홍민수	제주 노동요, 전승동요 등 조사	-사진 19장 -음원 2시간
23	7월26일	유수암리	강노성	제주 노동요, 전승동요 등 조사	-사진 7장 -음원 1시간
24	8월28일	애월리	양재선 부경애 홍민수	제주 노동요, 전승동요 등 조사	-사진 33장 -음원 1시간 30분
25	9월15일	애월리	김숙자	제보자 생애담 조사	-사진 24장
26	9월18일	귀덕1리	고민자 김천혜	제주 노동요, 전승동요 등 조사	-사진 32장 -영상 1시간 38분 -음원 2시간 5분

순번	날짜	장소	제보자	내용	비고
27	9월23일	조수1리	김정열 조병출	제주 노동요, 전승동요 등 조사	-사진 26장 -영상 3시간 3분 -음원 2시간 35분
		금악리	문영부 박미선 양서옥	제주 노동요, 전승동요 등 조사	
28	9월24일	금악리	양서옥	제보자 생애담 조사 제주 노동요, 전승동요 등 조사	-사진 9장 -영상 1시간 16분 -음원 1시간 22분
29	9월25일	애월리	양재선 부경애 김일수 이진보 고명윤	제주 노동요, 전승동요 등 조사	-사진 25장 -음원 1시간
30	9월26일	귀덕3리	강춘자	제주 노동요, 전승동요 등 조사	-사진 5장 -음원 30분
31	9월29일	애월리	김일수	제주 노동요, 전승동요 등 조사	-사진28장 -영상 1시간 9분 -음원 1시간
		저지리	고인아 홍영산 김옥화	제보자 생애담 조사 제주 노동요, 전승동요 등 조사	
		조수1리	노인회 회원	10월1일에 조사하기로 함.	
		조수2리	노인회장	10월1일에 조사하기로 함.	
32	9월30일	애월리	김경호 정기생 김일수	제보자 생애담 조사 제주 노동요, 전승동요 등 조사	-사진 57장 -음원 1시간
		애월리	연구진	연구진 회의 -조사 방법 논의	
33	10월1일	조수1리 조수2리	노인회장	추석 지나서 조사하기로 함.	-사진 3장
		조수1리	연구진	연구진 회의 -조사 방법 논의	

순번	날짜	장소	제보자	내용	비고
	11월10일	센터	연구진 및 자문위원	자문회의 -조사 내용 확인 및 정리 방법 논의	-사진 30장 -음원 1시간
34	11월24일	저지리	김태화 김신화	김태화, 김신화 제보자 생애담 조사	-사진 30장 -영상 3시간 11분 -음원 3시간 13분
		귀덕3리	고정자	제보자 생애담 조사 제주 노동요, 전승동요 등 조사	
		저지리	연구진	연구진 회의 - 조사 정리 방법 논의	
35	11월27일	조수1리	임선옥	제보자 생애담 조사 제주 노동요, 전승동요 등 조사	-사진 6장 -영상 1시간 7분 -음원 1시간 7분
		조수1리	연구진	연구진 회의 -조사 정리 방법 논의	
36	12월1일	저지리	변창식	제보자 생애담 조사 제주 노동요, 전승동요 등 조사	-사진 8장 -영상 1시간 2분 -음원 1시간 3분
		저지리	연구진	연구진 회의 -조사 정리 방법 논의	

- 사진은 핸드폰(Galaxy S23 Ultra / Galaxy S24 Ultra / Galaxy S25+), 영상은 DJI Osmo Pocket3, 음원은 핸드폰(Galaxy S24 Ultra)과 ROME Wireless PRO, SONY ICD-UX570F, IC RECORDER ICD-TX660를 사용하였다.

## 5. 제보자

제보자는 조사 지역 출신이거나 인근 지역에서 조사 지역으로 결혼을 하여 이주하여 오랫동안 살며 생활한 제주 노동요를 구연할 수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부분 마을회관, 노인회관을 방문하여 사업 설명을 하고 제보자를 소개받았다.

표2 제보자 현황

번호	조사 지역	제보자 성명	성별	출생년도	조사 내용
1	유수암리	강추자	여	1944	왕이자랑 외 34곡
2		강노성	남	1939	출흥아기소리 외 11곡
3	애월리	김경호	남	1933	노젓는소리 외 1곡
4		정기생	여	1933	검질메는소리 외 3곡
5		김숙자	여	1939	사데소리 외 29곡
6		김일수	남	1941	노젓는소리 외 5곡
7		홍민수	여	1939	밧가는소리 외 12곡
8		양재선	여	1942	훈다리인다리 외 10곡
9		부경애	여	1958	왕이자랑 외 2곡
10	금악리	박순림	여	1935	아기흥그는소리 외 15곡
11		박미선	여	1943	예숙제끼 외 14곡
12		문영부	남	1942	밧불리는소리 외 3곡
13		양서옥	남	1933	달구소리 외 1곡
14	귀덕리	홍춘화	여	1946	네젓는소리 외 3곡
15		이금순	여	1936	비양도소리(네젓는소리) 외 10곡
16		장금자	여	1944	달구소리 외 7곡
17		양창순	여	1935	왕이자랑 외 5곡
18		김신녀	여	1943	네젓는소리 외 1곡
19		이명자	여	1946	네젓는소리 외 1곡

번호	조사 지역	제보자 성명	성별	출생년도	조사 내용
20	귀덕리	김유생	여	1936	네젓는소리 외 1곡
21		고순화	여	1937	해방의노래
22		강춘자	여	1935	사데소리 외 3곡
23		김천혜	여	1938	밧불리는소리 외 4곡
24		오순희	여	1931	사데소리 외 2곡
25		홍화자	여	1935	사데소리 외 3곡
26		김원여	여	1935	꺾레꺾는소리 외 17곡
27		조임생	여	1932	사데소리 외 2곡
28		고민자	여	1944	꺾레꺾는소리 외 20곡
29		고정자	여	1944	사데소리 외 5곡
30	저지리	김태화	여	1930	밧불리는소리 외 9곡
31		김신화	여	1933	소뭇쉬몰앙가는소리 외 4곡
32		변창식	남	1941	걸름내어불리는소리 외 7곡
33		고인아	여	1937	조밧불리는소리 외 10곡
34		김옥화	여	1937	밧불리는소리 외 5곡
35		홍영산	여	1944	검질메는소리 외 4곡
36	조수1리	조병출	여	1936	아기흥그는소리 외 14곡
37		김정열	여	1938	아기흥그는소리 외 11곡
38		임선옥	여	1932	훈다리인다리 외 6곡

전체 제보자는 38명이고, 이중 남성은 6명으로 전체 15.8%이고 여성은 32명으로 전체 84.2%이다.



## 6. 정리 방법

조사자료는 현장 조사 시 녹음, 녹화를 하여 채록한 내용을 제주방언 전사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제주노동요 뿐만 아니라 제주민요를 개별적으로 정리하였다. 구연 상황과 노동요 설명은 노동요의 종류, 노동 방법 등을 질문하여 가급적 상세히 기록하려고 노력하였다. 현재 조사된 민요는 노동요 뿐만 아니라 유희요, 동요까지 채록이 되었다. 그래서 노동요, 유희요, 동요 등을 포괄하여 지칭한 민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민요의 분류는 체계에 맞게 분류하여 정리하였고 그 순서는 시간 순이다. 민요의 분류는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 전승동요, 기타로 나누고 노동요는 다시 농업요, 어업요, 임업요, 제분요, 관망요, 기타노동요로 나눈다. 의식요는 장례의식요, 무속의식요, 불교의식요로 나눈다. 이는 『제주민요사전』<sup>1)</sup>의 기본 분류를 따랐다. 전승동요 분류는 『제주전래동요사전』<sup>2)</sup>의 기본 분류를 따랐다.

민요 한 곡의 제시 순서는 제목-분류-조사 장소-조사 일시-조사자-제보자-구연 상황-자료 코드-채록된 가사이다. 구연 상황에는 구연 당시의 상황과 민요가 불릴 때의 상황을 소상히 기록하려고 노력하였다. 노동요의 경우는 어떤 노동을 할 때 불렀는지, 노동은 어떤 동작인지, 혼자 불렀는지 여럿이 불렀는지 등 가능한 소상히 기록하였다.

차후 제주학연구센터 홈페이지에 아카이브를 염두하여 자료와 쉽

1) 좌혜경 외 8인, 『제주민요채록집 제주민요사전』,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총서 15, 하나CNC출판, 2015.

2) 윤치부 편저, 『제주전래동요사전』, 민속원, 1999.

게 연계하기 위해 자료코드를 부여하였다. 파일명은 음성은 S, 영상은 V, 사진은 P 알파벳을 파일명 맨 처음에 놓고 자료의 성격을 밝혔다. 그 이후 날짜, 지역, 제보자 이름, 민요 제목을 차례대로 제시하였다.

수록된 민요 제목은 제보자가 말한 것으로 하고, 그 밑에 노동요 분류와 정의를 제시하였다.

### 예) 쉼모는소리

농업요-마소모는소리-말이나 소를 몰고 가면서 부르는 소리.

## 7. 문헌 조사 및 현장 조사 실태

노동요는 말 그대로 노동할 때 부르는 노래로, 일의 고됨을 덜고 노동 효율을 높이는 기능을 가진다. 현장 조사에서 “왜 노래를 부르며 일하느냐?”는 질문을 하면, 제보자들은 대부분 “노래를 부르면 시간이 금방 간다.”고 말한다. 이는 노래가 노동에 대한 몰입을 유도하여 시간적 체감과 육체적 고통을 완화하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이다. 즉, 노동요는 노동의 리듬과 연대감을 형성해 노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노동요는 누군가에게 배우거나 악보를 통해 외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노동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 부르는 노래다. 가사에는 노동 방식, 작업 환경, 개인의 정서와 삶의 희로애락이 자연스럽게 담긴다. 다만 일정한 관용구나 첫 소절이 존재하며, 그 뒤의 내용은 부르는 사람의 상황과 창작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이 때문에 현장

에서 흔히 “나는 곡조가 없어, 경 해부난 못 부르쿠다.(나는 곡조가 없어, 그래서 못 부르겠어요.)” 또는 “곡조를 다 잊어불언.(곡조를 다 잊어 버렸어.)”과 같은 말을 들을 수 있다. 여기서 ‘곡조’란 즉흥 창작 능력과 고유한 음적 감각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현재 노동요는 노동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점차 소멸하고 있다. 과거에는 공동 작업이 많아 노동의 박자와 협동을 위해 노동요가 필요했으나, 현대에는 기계화와 기술 발달로 개인 노동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공동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라디오나 음향기기를 틀어 놓고 노동하는 경우가 많아, 노래를 직접 부르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노동요의 필요성을 약화시켜 현장에서의 기능을 잃게 만들었다.

제주노동요는 밭일, 물질, 벌채 등 제주 고유의 생업 환경 속에서 형성되었다. 제주어의 억양, 지역별 노동 방식, 자연 지형에 따른 생업 구조 등이 반영되어 육지부 노동요와는 다른 독자적 음악 문화를 이룬다. 특히 제주어 발성, 독특한 음계와 선율, 지역마다 다른 가창 방식은 제주노동요가 단순한 민요가 아니라, 지역 생태와 노동 문화가 결합된 토착 예술임을 보여준다.

노동요가 소멸해 가는 현 상황에서, 제주노동요는 생업 문화, 지역 정체성, 언어, 음악을 포함한 종합적 문화유산으로서 기록이 긴급히 필요하다. 단순히 가사를 채록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노동 현장, 동작, 작업 도구, 제보자의 구술 해설, 발성 방식 등을 통합한 기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록은 현재의 제주를 이해하는 근거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문화적 자산이 될 것이다.

우선 예비 조사 통해 기존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민요가 처음 채록되기 시작한 것은 1912년에 조선총독부가 각 도지사

로, 도지사는 군수로, 군수는 다시 보통학교장에게 민요 조사를 시달하여 조사가 시행되었다. 조사된 민요는 다수 1923년부터 근현대잡지인 『개벽』에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엄필진의 『조선민요집』(1924), 김소운의 『조선구전민요집』(1933), 조윤제의 『민요집』(1935), 임화의 『조선민요선』(1939), 최상수·방종현·김사업의 『조선민요집성』(1948), 성경란·장사훈의 『조선의 민요』(1949), 고정옥의 『조선민요연구』(1949)에 이르기까지 많은 민요집이 출간되었다.<sup>3)</sup>

제주도 민요 연구의 시작은 김영돈의 『제주도민요연구 上』(1965) 자료편이라고 할 수 있다. 단편적으로 소개만 되던 제주민요를 본격적으로 조사하여 민요를 분류하여 자료편을 냈다. 구술자료의 제주방언 표기와 표준어 대역까지 되어있으며 현장 조사에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다.

『제주도부락지 I~IV』는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시행한 학술조사 보고서이다. 1편은 1984년~1988년 조사이고, 2편은 1978년, 1981년, 1983년 조사이고, 3편은 1972년~1974년, 1985년 조사이고, 4편은 1975년, 1977년, 1989년 조사 결과물이다. 1972년부터 1989년까지 현장 조사를 한 것이라 그 내용이 방대하여 상세한 문헌 조사를 실행하지 못하였다. 『학술조사보고서』, 『백록어문』, 『국문학보』 역시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가 학술 조사한 보고서로 자료 분량이 방대하고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문헌 조사를 실행하지 못하였다. 차후 상세한 조사를 실행할 계획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9-1~9-3』(1979-1981), 『한국민요대전(제주도편)』

3) 양영자, 『탐라문화학술총서 6-제주민요의 배경론적 연구』, 민속원, 2007, 14쪽.

(1989~1991), 『우리고장 전래민요(남제주군 전래 민요 조사자료)』(1996), 『제주의 향토민요(제주시 향토민요 자료집)』(2000), 『아름다운 전통의 소리(북제주군 전래 민요 악보집)』(2001),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제주시)①』(2009),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제주시)②』(2010),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제주시)③』(2011) 문헌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한국구비문학대계9-1(제주도 북제주군) 1979년 조사

- ▷보고서 작성 방법은 마을별로 마을 소개, 제보자 소개, 설화, 민요, 무가를 수록하고 조사 당시 상황을 소상히 기록함.
- ▷조사 지역은 김녕리, 광령3리, 용담1동, 삼양1동이고, 민요가 조사 된 지역은 김녕리, 광령3리(김녕리 8곡, 광령3리 8곡 총 16곡)임.
- ▷연구진: 현용준, 김영돈

#### 한국구비문학대계9-2(제주도 제주시) 1980년 조사

- ▷보고서 작성 방법은 마을별로 마을 소개, 제보자 소개, 설화, 민요, 무가를 수록하고 조사 당시 상황을 소상히 기록함.
- ▷조사 지역은 노형동, 용담동, 삼도동이고, 민요가 조사 된 지역은 노형동, 삼도동(노형동 1곡, 삼도동 56곡 총 57곡)임.
- ▷연구진: 현용준, 김영돈, 고재환

#### 한국구비문학대계9-3(제주도 서귀포시, 남제주군) 1981년 조사

- ▷보고서 작성 방법은 마을별로 마을 소개, 제보자 소개, 설화, 민요, 무가를 수록하고 조사 당시 상황을 소상히 기록함.
- ▷조사 지역은 서귀포시(대포동, 하원동, 영천동),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안덕면 덕수리, 대정읍 하모리 · 신평리, 남원읍 하례1리, 성

산읍 신천리이고, 민요가 조사 된 지역은 대포동, 하례1리, 덕수리, 하모리, 신평리(성읍리 31곡, 하례1리 8곡, 대포동 5곡, 덕수리 152곡, 하모리 18곡, 신평리 23곡 총 237곡)임.

▷연구진: 현용준, 김영돈, 현길언, 고광민, 강영봉, 변성구

#### 한국민요대전(제주도편)-1989년~1991년 조사

- ▷보고서 작성 방법은 마을별 민요 수록, 마을 소개, 민요 가사, 민요 악보, 현장 상황 간단히 소개하는 방법은 마을, 제보자(나이) 등 기록되어 있음. (민속학적 관점에서 민요 현장 중심으로 조사됨)
- ▷38개 마을 조사를 실행하여 민요 500여 곡 채록하였고, 그중에 36개 마을의 171곡 민요 수록함.
- ▷연구진 서울 13명(기술부분), 제주 8명(조사 및 정리: 한승훈, 김영돈, 문무병, 고광민, 변성구, 한기홍, 양영자)

#### 우리고장 전래민요(남제주군 전래 민요 조사자료)-1996년 조사

- ▷남원읍 거의 모든 마을을 조사하였으나 보고서 작성 방법은 대표곡을 악보화 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음.
- ▷조사기간이 짧아서 책임연구자가 이미 조사한 내용, 한국민요대전(제주도편) 자료, 그 밖의 녹음 자료를 활용하여 보고서 발간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음악적 관점에서 민요 선율 중심으로 악보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음악학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자료임.)
- ▷연구진 책임연구자(조영배), 조사연구원 16명

#### 제주의 향토민요(제주시 향토민요 자료집)-2000년 조사

- ▷제주시 전 지역을 조사하였으나 보고서 작성 방법은 대표곡을

악보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음.

- ▷ 조사기간이 짧아서 현장 조사와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민요 악보화 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음악적 관점에서 민요 선율 중심으로 악보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음악학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자료임.)
- ▷ 연구진 책임연구자(조영배), 조사연구원 18명

#### 아름다운 전통의 소리(북제주군 전래 민요 악보집)-2001년 조사

- ▷ 전체 조사한 목록은 없고 CD 수록 곡 목록만 있어서 확실히 조사된 지역을 알 수는 없음.
- ▷ 조사기간이 짧아서 현장조사와 책임연구자가 이미 조사한 내용, 기존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북제주군 특성을 감안한 표준 악보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음. (음악적 관점에서 민요 선율 중심으로 악보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음악학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자료임.)
- ▷ 연구진 책임연구자(조영배), 조사연구원 12명

####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9-4(제주시)①-2009년 조사

- ▷ 조사 지역은 건입동, 삼도2동, 삼양1동, 영평하동, 해안동, 회천동.
- ▷ 조사 내용은 마을별 설화, 무가, 민요이고 마을 소개, 제보자 소개 등 민속학적 관점에서 현장 중심의 조사 내용을 충실히 기록하였음.
- ▷ 민요가 조사된 지역은 삼양1동, 영평하동, 해안동, 회천동(삼양동 23곡, 회천동 15곡, 영평하동 10곡, 해안동 17곡 총 65곡)임.
- ▷ 연구진 책임연구자(허남춘), 연구원 3인(강정식, 강소전, 송정희)

####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9-5(제주시)②-2010년 조사

- ▷ 조사 지역은 구좌읍 동북리, 조천읍 북촌리, 구좌읍 송당리, 조천읍 신흥리.
- ▷ 조사 내용은 마을별 설화, 무가, 민요이고 마을 소개, 제보자 소개 등 민속학적 관점에서 현장 중심의 조사 내용을 충실히 기록하였음.
- ▷ 민요가 조사된 지역은 조천읍 북촌리, 구좌읍 송당리(북촌리 22곡, 송당리 39곡 총 65곡)임.
- ▷ 연구진 책임연구자(허남춘), 연구원 3인(강정식, 강소전, 송정희)

####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9-6(제주시)③-2011년 조사

- ▷ 조사 지역은 한경면 고산리, 한림읍 명월리, 애월읍 상가리, 애월읍 수산리, 애월읍 장전리.
- ▷ 조사 내용은 마을별 설화, 무가, 민요이고 마을 소개, 제보자 소개 등 민속학적 관점에서 현장 중심의 조사 내용을 충실히 기록하였음.
- ▷ 민요가 조사된 지역은 한경면 고산리, 애월읍 장전리(고산리 39곡, 장전리 14곡 총 53곡)임.
- ▷ 연구진 책임연구자(허남춘), 연구원 3인(강정식, 강소전, 송정희)

기존 문헌을 검토한 결과, 제주도 노동요 관련 연구는 주로 현장 조사를 기반으로 수행되었으나, 그 조사 목적이 노동요의 종류, 가사 내용, 그리고 악보화 작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노동요가 노동을 매개로 형성·기능하는 음악적 실천 물이라는 본질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노래 자체의 채록

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노동요가 생성되는 과정과 조건을 규정하는 노동의 실태, 구체적 노동 동작, 작업 도구 및 환경 요소는 대부분의 조사에서 체계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또한 실제 노동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음에도 공동체 내에서 공유·전승되는 노동요가 존재한다는 점 역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노동요의 기능적·문화적 특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 간과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노동요의 유형과 수량이 매우 다양하며 지역별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를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은 상당한 난이도를 지닌다. 이번 조사에서도 실제 노동 장면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하였으며, 특히 제보자의 고령화로 인해 세부 노동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재현이 제한되었다는 점은 현장 연구의 실질적 제약으로 지적된다.

조사 내용을 정리한 방법으로 앞서 밝힌 바와 같이『제주민요사전』과『제주전래동요사전』의 기본 분류를 따랐다. 다음은 민요 설명을 정리한 것이다.

**노동요: 노동요는 노동이 수반된 민요로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

- 농업요-따비질소리: 따비를 이용하여 밭을 일굴 때 부르는 소리.
- 농업요-밭 가는 소리: 소나 말에 쟁기를 매여 밭을 갈 때 부르는 소리.
- 농업요-곰방메소리: 따비질이나 혹은 밭을 갈고 나서 일어난 커다란 흙덩어리를 곰방메로 내리쳐 두드리면서 부르는 소리.
- 농업요-씨레질소리: 논을 갈고 물을 댄 후 씨레를 소나 말에 매여

논을 고를 때 부르는 소리.

- 농업요-밀레질소리: 씨레질을 한 후 다시 ‘밀레’로 논을 다시 고를 때 부르는 소리.
- 농업요-밭 밟는 소리: 주로 조농사를 할 때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밭을 밟으면서 부르는 소리.
- 농업요-김매는 소리: 김매 때 부르는 소리.
- 농업요-마당질소리: 밭 구석이나 마당에서 도리깨를 이용하여 곡식을 타작할 때 부르는 소리.
- 농업요-마소 모는 소리: 소나 말을 일정 장소로 이동할 때 부르는 소리.
- 농업요-거름 밟는 소리: 주로 보리농사를 할 때 보리 씨앗을 거름에 섞고, 그 후 소나 말을 이용하여 거름이 씨앗에 골고루 섞이도록 밟으면서 부르는 소리.
- 어업요-해녀노래: 해녀 노 젓는 소리: 해녀들이 배를 타고 물질을 나갈 때 노를 저으며 부르는 소리.
- 어업요-해녀노래-해녀 테왁 짚고 부르는 소리: 해녀들이 ‘테왁’을 짚고 헤엄치며 부르는 소리.
- 어업요-해녀노래-물질 소리: 해녀들이 물질 장소로 걸어가면서 부르는 소리.
- 어업요-떼 젓는 소리: 어부들이 떼 위에서 노를 저으며 부르는 소리.
- 어업요-떼 만드는 소리: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떼를 만들 때 부르는 소리.
- 어업요-멸치 잡는 소리: 멸치 그물을 후리는 작업을 할 때 부르는 소리.
- 어업요-갈치 낚는 소리: 갈치를 낚으면서 부르는 소리.



- 임업요-대톱질소리: 대톱을 이용하여 나무를 켜고 오릴 때 부르는 소리.
- 임업요-나무 내리는 소리: 자른 나무를 산에서 끌고 내려오면서 부르는 소리.
- 임업요-나무 오리는 소리: 자귀를 이용하여 나무를 깎으면서 부르는 소리.
- 임업요-나무 쪼개는 소리: 도끼를 이용하여 나무를 쪼갤 때 부르는 소리.
- 임업요-꼰 베는 소리: 벌낫, 호미 등을 이용하여 꼰을 베면서 부르는 소리.
- 제분요-맷돌질소리: 맷돌에 곡식을 넣고 갈면서 부르는 소리.
- 제분요-방아질소리: 방아에 곡식을 넣고 찼으면서 부르는 소리.
- 관망요-양태소리: 대나무를 이용하여 양태를 걸으면서 부르는 소리.
- 관망요-탕건소리: 말총이나 머리카락을 이용하여 탕건을 걸으면서 부르는 소리.
- 관망요-망건소리: 말총을 이용하여 망건을 걸으면서 부르는 소리.
- 기타노동요-방앗돌 끌어내리는 소리: 산이나 들에서 방앗돌을 제작하고 마을로 끌어내리면서 부르는 소리.
- 기타노동요-손풀무질소리: 손풀무질을 하면서 부르는 소리.
- 기타노동요-발풀무질소리: 발풀무를 디디면서 부르는 소리.
- 기타노동요-줄 꼬는 소리: 짚을 꼬아 줄을 만들면서 부르는 소리.
- 기타노동요-흙 이기는 소리: 흙을 이길 때 부르는 소리.
- 기타노동요-집터 다지는 소리: 집을 짓기 위해 터를 다지면서 부르는 소리.

- 기타노동요-새벽질소리: 벽에 흙을 바르면서 부르는 소리.
- 기타노동요-물레질소리: 물레를 이용하여 면실을 뽑으면서 부르는 소리.

**의식요: 의식요는 장례의식, 불교의식, 무속의식에서 불리던 소리를 말한다.**

- 장례의식요-행상소리: 상두군이 상여를 매고 가면서 부르는 소리.
- 장례의식요-진토군 파는 소리: 봉분에 쌓을 흙을 ‘진토’라 하고 이를 파는 장소를 ‘진토군(진토구덩이)’이라고 하는데 이때 흙을 파면서 부르는 소리.
- 장례의식요-달구질소리: 장례 때 시신을 묻고 봉분을 만들 때 달구대로 흙을 다지면서 부르는 소리.
- 장례의식요-빈 상여를 매고 부르는 소리: 상여가 떠나기 전날 꽃상여나 빈 상여를 매어 마을을 도면서 부르는 소리.
- 무속의식요-탐벌소리: 무속의례 시 불리던 무가가 민요화된 소리.
- 불교의식요-회심곡: 부모의 은공을 노래하며 효를 전하고, 망자의 명복을 빌며 부르던 불가의 회심곡이 민요화된 소리.

**유희요: 유희적 성격이 강한 민요로 놀이를 위해 부르거나 또는 노래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해 부르는 민요.**

- 창민요: 관에 속한 관기들에 의해 불리던 민요로 점점 민중에서 활발히 전승되고 있는 민요.
- 창민요-오돌또기
- 창민요-산천초목
- 창민요-봉지가
- 창민요-동풍가

- 창민요-용천검
  - 창민요-신목사타령
  - 창민요-중타령
  - 창민요-너영나영
  - 창민요-영주십경가
  - 창민요-계화타령
  - 창민요-사랑가
  - 창민요-이야홍
  - 창민요-질군악
  - 기타: 성주풀이와 서우제소리는 무속의례 시 불리던 의식요인데  
그 기능이 음악적 흥겨움으로 민간에 전해져 민요화 된 소리.
  - 기타-성주풀이
  - 기타-서우제소리
- 유희요의 기타에는 육지 민요, 가요 등도 포함하였다.

**전승 동요: 전승 동요는 아이들이 놀 때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

- 유희요: 나무에 있는 매미를 내려오게 하여 잡을 때 부르는 노래.
  - 유희요: 언어 유희요로 끝말을 이어가면서 부르는 노래.
  - 유희요: 아이들이 잠자리 잡을 때 부르는 노래.
  - 유희요: 아이들이 앉아서 다리를 세면서 부르는 노래.
  - 유희요: 언어 유희요로 아이들이 놀 때 문답으로 부르는 노래.
  - 자장가: 아기 재울 때 아기 바구니를 흔들면서 부르는 노래.
  - 아기 어르기 노래: 아기를 어르면서 놀릴 때 부르는 노래.
  - 기타.
- 전승 동요의 기타에는 일본 동요도 포함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조사된 제주민요는 280곡이며, 애월읍 111곡, 한림읍 102곡, 한경면 67곡이다. 다음 표는 조사 지역에 따른 제주민요 현황이다.

**표3** 조사 지역에 따른 제주민요 현황

구분	지역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	전승동요	기타
애월읍	유수암리	24	4	4	14	-
	애월리	42	4	2	16	1
한림읍	금악리	18	4	-	8	-
	귀덕리	46	7	9	9	1
한경면	저지리	39	-	1	4	-
	조수1리	14	-	-	8	1

조사된 제주민요 중 노동요는 183곡, 의식요는 19곡, 유희요는 16곡, 전승동요는 59곡이다. 기타 분류로 3곡은 애월리에서 조사된 ‘유야케코유야케’는 일제강점기 당시 교과과정에서 배운 것이라고 한다. 이 노래가 수반하고 있는 놀이는 없다고 하여 기타로 분류하였다. 귀덕리에서 조사된 ‘해방의노래’는 1895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관찬 교과서인 『국민독본』에 실린 노래이다. 조수1리에서 조사된 ‘일본애국가’가 있다. 그러나 귀덕리에서도 일제강점기 당시 유행하였던 일본 가요인 ‘아노까오데’가 조사되었지만 고무줄놀이를 할 때 불렀다고 하여 전승동요로 분류하고 그중 다시 기타로 분류하였다.

조사 지역에 따른 노동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4 조사 지역에 따른 노동요 현황

구분	지역	농업요	어업요	임업요	제분요	관망요	기타노동요
애월읍	유수암리	16	-	6	2	-	-
	애월리	17	14	3	7	-	1
한림읍	금악리	10	-	2	6	-	-
	귀덕리	21	17	-	8	-	-
한경면	저지리	26	-	2	11	-	-
	조수1리	8	-	-	6	-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유수암리, 금악리, 저지리, 조수1리에서는 어업요가 조사되지 않았다. 이는 중산간 지역적 특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해안 지역인 애월리, 귀덕리에 경우는 반농반어의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다에서 금채기 기간에 물질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농사를 짓는 일을 병행하며 생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을 알 수 있다.

사라져가는 제주노동요 조사를 통해 노동요만이 아니라 제주민요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사된 제주노동요 현황에서 제주 지역의 특색을 확인할 수 있었다.

## 8. 현장 조사 사진



그림1 2025.4.9. 귀덕2리노인회관



그림2 2025.4.11. 귀덕2리노인회관



그림3 2025.4.15. 저지리노인회관



그림4 2025.4.24. 절물노인회관



그림5 2025.4.25. 금악리노인회관



그림6 2025.4.30. 애월리노인회관





그림7 2025.5.1. 저지리노인회관



그림8 2025.5.2. 금악리 제보자 자택



그림13 2025.5.29. 애월리 제보자 자택



그림14 2025.6.25. 귀덕2리노인회관



그림9 2025.5.7. 절물노인회관



그림10 2025.5.9. 금악리 제보자 자택



그림15 2025.6.25. 저지리 제보자 자택



그림16 2025.6.26. 귀덕2리노인회관



그림11 2025.5.15. 조수1리노인회관



그림12 2025.5.22. 절물노인회관



그림17 2025.6.26. 절물노인회관



그림18 2025.6.30. 애월리 제보자 자택





그림19 2025.7.1. 청수리 제보자 자택



그림20 2025.7.1. 저지리 제보자 자택



그림25 2025.8.28. 애월리 제보자 자택



그림26 2025.9.18. 귀덕1리노인회관



그림21 2025.7.1. 귀덕1리노인회관



그림22 2025.7.1. 귀덕1리 제보자 자택



그림27 2025.9.18. 귀덕1리 제보자 자택



그림28 2025.9.18. 금악리 제보자 자택



그림23 2025.7.22. 애월리 제보자 자택



그림24 2025.7.26. 유수암리 제보자 자택



그림29 2025.9.23. 조수1리 제보자 자택



그림30 2025.9.23. 금악리 제보자 자택





그림31 2025.9.24. 금악리 제보자 자택



그림32 2025.9.25. 애월리 제보자 자택



그림37 2025.11.24. 귀덕3리 제보자 자택



그림38 2025.11.24. 저지리 제보자 자택



그림33 2025.9.25. 애월리 제보자 자택



그림34 2025.9.29. 저지리 제보자 자택



그림39 2025.11.24. 저지리 제보자 자택



그림40 2025.11.27. 조수1리 제보자 자택



그림35 2025.9.29. 조수1리 옛 초등학교



그림36 2025.9.30. 애월리 제보자 자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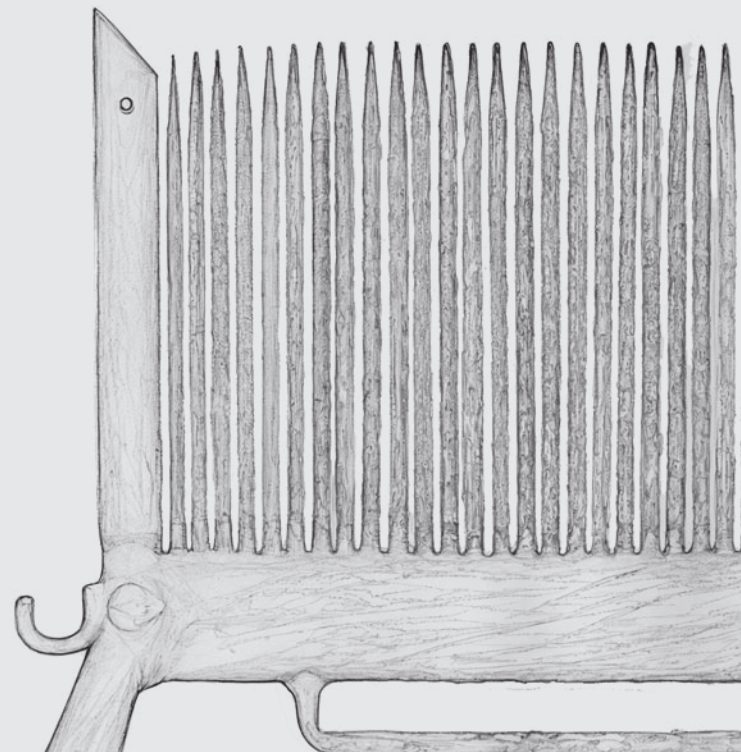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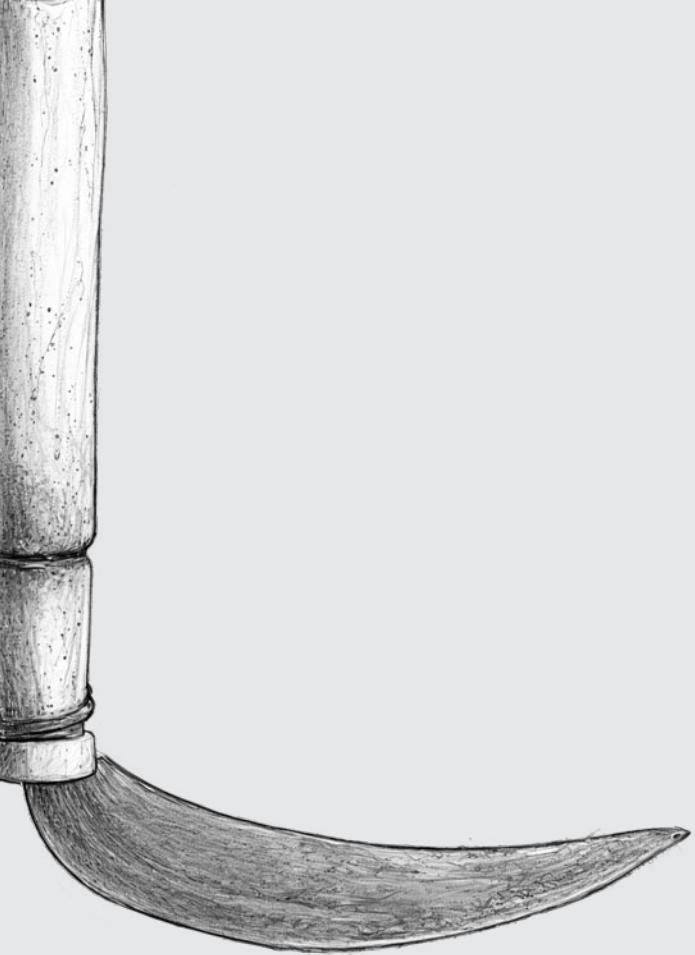
그림41 2025.11.27. 귀덕3리노인회관



그림42 2025.12.1. 저지리노인회관

## II

애월읍





## 1. 애월읍 유수암리

### 1-1. 유수암리 마을 소개<sup>4)</sup>

유수암리는 제주시 애월읍에 속한 마을로, 해발 200~250m의 중산간 지대에 자리하고 있다. 행정구역상 동쪽으로는 고성리, 서쪽으로는 소길리, 남쪽으로는 봉성리, 서북쪽으로는 장전리, 동북쪽으로는 상귀리가 위치한다. 마을은 전반적으로 동서로는 좁고 남북으로 긴 형태이다.

마을 안에는 ‘노리오름’을 비롯해 ‘큰오름(큰녹고메)’과 ‘죽은오름(작은녹고메)’이 있다. 마을 중앙에는 용천수인 ‘유수암천’이 흐른다. ‘유수

암천’ 주변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된 무환자나무와 팽나무군락지가 분포하고 있다. 또한 마을에는 ‘오천(五川)’과 ‘오석(五石)’이라고 명명한 명물이 있다. ‘오천’은 ‘홀이물(訖怡水)’, ‘극락물(極樂水)’, ‘고다리물(古達水)’, ‘고조물(孤釣水)’, ‘큰물(泰岩水)’이라고 하며, ‘오석’은 ‘동선돌(東立石)’, ‘서선돌(西立石)’, ‘모남돌(牟南石)’, ‘북왕돌(北旺石)’, ‘솔동산돌(申黃石)’이라고 한다.

유수암리에는 고려 원종 12년(1271년)에 지은 절이 있었던 기록이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시기부터 사람이 거주했음을 알 수 있다. 원나라의 탐라복속 이후에는 ‘금문덕’ 일대에 말 사육을 위한 목자(牧子)가 집단 거주하면서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전한다. 1590년경 지방 토호



그림43 유수암리 마을회관 전경

4) 제주도 애월읍 유수암리, 국토정보맵 통합지도검색 <https://map.ngii.go.kr>(검색일 2025. 07. 11), 유수암리 편찬 위원회, 『流水岩里誌』, 유수암리지 편찬위원회, 2010., 제주도·북제주군·애월읍, 『邑誌』, 애월읍지 편찬추진위원회, 1997., 제주의 마을 유수암리. <https://www.jeu.go.kr/vill/yusuam/index.htm>. (검색일 2025.06.01.), 참조.



그림44 유수암리

있던 홍덕수가 다수의 주민을 유수암으로 이주시켰고 스스로도 일가를 이끌고 이주함에 따라 마을의 규모가 커졌다.

‘유수암(流水岩)’이라는 지명은 ‘물이 끓이지 않고 흐르는 언덕’을 의미한다. 마을 이름이 구한말 고종 31년(1894년) 지방제도 개혁령에 따라 ‘금덕리(金德里)’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금덕리 1구와 2구로 분리되었다. 이후 1995년 ‘옛 지명 찾기 운동’의 추진에 따라 1996년 1월 1일부터 마을의 행정명과 법정명으로 ‘유수암(流水岩)’이란 옛 이름으로 복원되었다.

2024년 유수암리의 인구는 남성 1,161명, 여성 1,036명으로 총 2,197명이며, 1,099세대가 거주한다. 1780년대 인구를 확인할 수 있는 『濟州邑誌』에 따르면 당시 ‘금물덕리’의 인구는 103호, 남성 282명, 여성 328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금물덕리’는 현재 유수암리의 일부에 해당하며, 당시 ‘납읍리’ 126호 612명에 이어 신우면에서 두

번째로 큰 마을이었다.

유수암리는 예로부터 농업과 축산업이 발달한 마을이다. 과거에는 산도, 보리, 밀, 조, 콩, 팥, 참깨, 들깨, 유채, 메밀, 감자, 고구마, 목화, 피, 대죽, 기장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였다. 그리고 마을이 형성되면서 가내공업도 발달하였으며, 면직공, 목공, 죽세공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넓은 목장지대를 활용한 말총 수공업이 성행하였으나, 4·3 이후 말 사육이 거의 중단되면서 말총 공예는 전수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마을 주민 대부분은 감귤 농사에 종사하며, 콩, 감자, 참깨 등 밭작물 재배와 양돈, 한우 사육에도 참여하고 있다.

## 1-2. 유수암리 제보자

### 1-2-1.

#### 강추자, 여, 1944년생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령6길 16-8, 501호

제보일시: 2025. 4.24. / 2025. 5. 7. / 2025. 5.22. / 2025. 6.26.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강추자는 1944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물거리’에서 2남 1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고,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농사일을 도왔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빠들과 함께 장전초등학교에 다니기도 하였으나 졸업은 하지 못했다.



어린 시절, 농한기에는 어머니를 도와 솥을 사서 제주시 시장에 판매하거나, 땔감을 마련해 애월장이나 한림장에서 판매하였다. 십대 중반에는 육지로 가서 방직공장에서 일하고자 했으나 키가 작아 고용되지

못했다. 이후 가정에 입주하여 아기를 돌보는 일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 열여덟 살이 되던 해 제주로 다시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농사일을 했다. 주로 콩, 고구마, 보리 등을 하였고, 보리첼에는 고사리를 꺾어 삶아 말린 후 상인에게 판매하기도 하였다.

26세에 유수암리 출신 남성과 결혼하여 1남 2녀를 두었다. 결혼하고 난 뒤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일을 부지런히 하여야 했다. 그러던 중 잔칫집에서 일을 돕다가 크게 화상을 입어 죽을 고비를 넘긴 후 후유증으로 인해 일을 하기 어려워졌다. 약 20년 전, 딸의 육아를 돕기 위해 외도동으로 이주하였고,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외도절물경로당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강추자는 25년 전부터 시조창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전국 시조가사 및 가곡 경창대회에서 ‘국창부 장원’에 올랐다. 이후 시조 교육과 심사위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농사를 지으며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동네 어른들과 어머니가 부르던 노래를 자주 들으며 성장하였고 동네 대소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노동요 및 다양한 노래를 경험하였다.

#### 제공 자료 목록

S\_20250424\_유수암리\_강추자\_왕이자랑  
S\_20250424\_유수암리\_강추자\_끝말이어가는말  
S\_20250424\_유수암리\_강추자\_흔다리인다리  
S\_20250424\_유수암리\_강추자\_주열재열  
S\_20250424\_유수암리\_강추자\_쫓른사데  
S\_20250424\_유수암리\_강추자\_출흥애기소리  
S\_20250507\_유수암리\_강추자\_청청밥주리



S\_20250507\_유수암리\_강추자\_도롱아도롱아  
 S\_20250507\_유수암리\_강추자\_흔 다리인다리  
 S\_20250507\_유수암리\_강추자\_비야비야  
 S\_20250507\_유수암리\_강추자\_배칠락놀이  
 S\_20250507\_유수암리\_강추자\_끝말잇기  
 S\_20250507\_유수암리\_강추자\_아기흥그는소리  
 S\_20250507\_유수암리\_강추자\_집지영나무베는노래  
 S\_20250507\_유수암리\_강추자\_진사테소리  
 S\_20250507\_유수암리\_강추자\_땃메는소리  
 S\_20250507\_유수암리\_강추자\_권력사데  
 S\_20250507\_유수암리\_강추자\_땃칠 리는소리  
 S\_20250507\_유수암리\_강추자\_출흥애기소리  
 S\_20250507\_유수암리\_강추자\_도리깨질소리  
 S\_20250522\_유수암리\_강추자\_진사테  
 S\_20250522\_유수암리\_강추자\_권력사데  
 S\_20250522\_유수암리\_강추자\_쫓른사데  
 S\_20250522\_유수암리\_강추자\_아기흥그는소리  
 S\_20250522\_유수암리\_강추자\_집지영나무베는소리  
 S\_20250522\_유수암리\_강추자\_행상소리  
 S\_20250522\_유수암리\_강추자\_달구짚는소리  
 S\_20250626\_유수암리\_강추자\_출흥애기소리  
 S\_20250626\_유수암리\_강추자\_성주풀이1,2  
 S\_20250626\_유수암리\_강추자\_달구짚는소리  
 S\_20250626\_유수암리\_강추자\_행상소리  
 S\_20250626\_유수암리\_강추자\_왕이자랑

S\_20250626\_유수암리\_강추자\_ㄱ레 ㄱ는소리  
 S\_20250626\_유수암리\_강추자\_땃칠 리는소리  
 S\_20250626\_유수암리\_강추자\_검질메는소리

## 1-2-2.

### 강노성, 남, 1939년생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군길 40, 3층

**제보일시:** 2025. 7. 26.

**조사자:** 양인정, 임현정

강노성은 1939년에 10남매 중 다섯 번째로 태어났다. 부모는 콩, 보리, 팥, 피 등 밭농사를 평생 지었으며 제보자 역시 농사를 생업으로 삼았다. 강노성은 형과 함께 장전 목장과 소길 목장을 개간하였고, 밭갈이 일을 하며 자가 소유의 농지를 마련하였다.

아버지와 형이 목청이 좋았고, 가족과 함께 농사일을 하며 소리를 익혔다. 강노성 역시 뛰어난 소리 실력으로 하

귀2리의 「귀리겉보리농사일소리」가 2005년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통령상을, 「가문동 아끈코지 원담역시」가 2015년 같은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데 기여하였다.



## 제공 자료 목록

S\_20250726\_유수암리\_강노성\_출흥아기소리  
S\_20250726\_유수암리\_강노성\_낭자를때소리  
S\_20250726\_유수암리\_강노성\_낭개는소리  
S\_20250726\_유수암리\_강노성\_검질메는소리  
S\_20250726\_유수암리\_강노성\_땃가는소리  
S\_20250726\_유수암리\_강노성\_쫓른사데  
S\_20250726\_유수암리\_강노성\_쉐모는소리  
S\_20250726\_유수암리\_강노성\_땃블리는소리  
S\_20250726\_유수암리\_강노성\_마당질소리  
S\_20250726\_유수암리\_강노성\_물방에소리  
S\_20250726\_유수암리\_강노성\_윙이자랑  
S\_20250726\_유수암리\_강노성\_창부타령

## 1-3. 유수암리 노동요

---

노동요는 노동이 수반된 민요로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

### 쫓른사데소리1

- 농업요-김매는 소리: 김맬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5길 21, 절물경로당

**조사 일시:** 2025. 4. 24.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강추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김맬 때 부르는 소리를 기억하는지 묻자, 제보자는 ‘진사데소리’와 ‘쫓른사데소리’가 있다고 소개하였다. 먼저 기억이 나는 ‘쫓른사데소리’를 구연하였으며 중간에 잠시 멈춘 뒤 기억을 더듬어 이어서 불렀다. ‘진사데소리’와 ‘출흥아기소리’ 등 다른 민요는 갑자기 부르려 하니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424\_유수암리\_강추자\_쫓른사데소리

앞명에랑 들어나 오라

뒷명에랑 뒤물러 가라

칠성 ㄱ치<sup>5)</sup> 버려진 자손

---

5) ㄱ치: 같이.

다물<sup>6)</sup> 7치 모여나 들라  
그럭저럭 앞명에 다 왔저.<sup>7)</sup>

## 출흥애기소리1

- 임업요-꿀 베는 소리: 벌낫, 호미 등을 이용하여 꿀을 베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5길 21, 절물경로당

조사 일시: 2025. 4. 24.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강추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진사데 소리'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제보자가 '출흥애기소리'는 생각나는 만큼만 해보겠다고 하여 일부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424\_유수암리\_강추자\_출흥애기소리

벗름은<sup>8)</sup> 건들건들 흔 게 아아하아오~ 어허어허어~ 어허어 출  
흥애기로구나

## 진사데소리1

- 농업요-김매는 소리: 김매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5길 21, 절물경로당

6) 다물: 자그만 벌들이 한 곳에 뱅뱅하게 모여 반짝이는 벌자리.

7) 왔저: 왔다.

8) 벗름은: 바람은.

조사 일시: 2025. 5. 7.

조사자: 송정희, 임현정

제보자: 강추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진사데'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여 구연하였다. 제보자는 어머니 세대가 불렀던 노래라고 하였으며, 직접 배우거나 현장에서 직접 부른 적은 없으나 풍월로 들은 기억이 있다고 말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507\_유수암리\_강추자\_진사데소리

사데 불~렁 검질메자  
어어형 어야~에 사데로구나  
어어형 어어허 어어형 어이도 오랑 사데로구나  
(요거 후렴)  
검질 짓고 굴느즌<sup>9)</sup> 밧디  
어어형 어야 에~ 사데로구나  
앞명에랑 들어나 오라  
어어형 어야~에 어어형~ 어어형 어이도랑~ 사데로구나  
뒷명에랑 물러나 가라  
어어형 어야~에 어어형~ 어어형 어어형 어이도레랑 사데로구나  
곱이곱이 청청 곱이  
어어형 어야에~ 어어형 어어형 어어형 어이도랑 사데로구나  
우리 어멍 날 낳던 날은 어떤 날에 나를  
어어형 어어형 어어형 어이도랑 사데로구나  
으흐흐 낳던고 요 검질메나 사데로구나

9) 굴느즌: 넓은. 굴은 동산이 아니 좁고 평퍼짐한 땅을 말한다.

## 밧메는소리

- 농업요-김매는 소리: 김매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5길 21, 절물경로당

**조사 일시:** 2025. 5. 7.

**조사자:** 송정희, 임현정

**제보자:** 강추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쯔른사데’를 요청하자 ‘밧메는소리’라고 하고 ‘어기여랑 사데로다’라고 말로 먼저 하고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507\_유수암리\_강추자\_밧메는소리

검질 짓고 굴느진 밧디	
사데 불령 요 검질메자	
사데로나 우기명 메게	어기여랑 사데로다
앞명엘랑 들어 오라	어기여랑 사데로다
뒷명에랑 물러나 가라	어기여랑 사데로다
브름에 뜰광 <sup>10)</sup> 지세어명은 <sup>11)</sup>	어기여랑 사데로다
동글당도 살을메 난다 <sup>12)</sup>	어기여랑 사데로다
요 늪으 첩광 <sup>13)</sup> 소낭게 브름은 <sup>14)</sup>	어기어랑 사데로다
소린 나도 살을메 없다	어기어랑 사데로다

10) 뜰광: 딸과.

11) 지세어명은: 지어미는.

12) 살을메 난다: 살 방법이 생긴다.

13) 첩광: 첩과.

14) 소낭게 브름은 : 소나무의 바람은.

나 인생에 얼마나	어기어랑 사데로다
유월영청 즈작벧 <sup>15)</sup> 디	어기어랑 사데로구나
요 검질을 나 혼자 메리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질 7 집이 구실낭 <sup>16)</sup> 싱경 <sup>17)</sup>	어기어랑 사데로다
쓰다 드냐 맛 볼 때도 <sup>18)</sup>	어기여랑 사데로다
남 시킬 일 하나도 없다	여기여랑 사데로다

## 권력사데

- 농업요-김매는 소리: 김매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5길 21, 절물경로당

**조사 일시:** 2025. 5. 7.

**조사자:** 송정희, 임현정

**제보자:** 강추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권력사데’, ‘추침사데’를 할 수 있는지 묻자, 제보자는 준비한 종이를 보면서 빠르게 읽어야 하므로 틀릴 수도 있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후 노래를 구연하였다. 조사자가 ‘권력사데’를 언제 부르냐고 물으니 ‘진사데소리’ 중간에 부른다고 하였다. 제보자는 ‘권력사데’를 부르는 이유를 받아 크면 김매면서 부르는 노래

15) 즈작벧: 땡벌.

16) 구실낭: 먹구슬나무.

17) 싱경: 심어서.

18) 밧 볼릴 때도: 밧 밟을 때도.

에 변화를 주어야 힘이 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권력사데’는 음이 있는 노래 형식이 아니고 엮음 형식으로 부른다. 엮음은 많은 사설을 촘촘히 엮어 나가는 방식이다.

**자료 코드:** S\_20250507\_유수암리\_강추자\_권력사데

천지건곤 일월동아 학도 뜨고 봉도 뜨고 광주 남산 줄불 부르  
는 소리로구나 얼싸 얼싸  
쥐똥 배똥 빼아피는 완방 진방 들어오고 비옥 간장 썩은 물은  
골골마다 누리는 소리구나 얼싸 얼싸  
창은 창이요 명은 명이요 제일 명창은 호령창이로구나 얼싸 얼싸  
밭담은 미루세기 잣담은 추리세기 논물은 모루세기 더슨 물은  
거르 돈는 물은 거르세기 얼싸 얼싸 (아이고 좋다.)

## 밧블리는소리1

- 농업요-밧 밧는 소리: 주로 조농사를 할 때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밧을 밧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5길 21, 절물경로당

**조사 일시:** 2025. 5. 7.

**조사자:** 송정희, 임현정

**제보자:** 강추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밧을 밧으면서 부르는 소리를 기억하는지 묻자, 제보자는 ‘한 줄만이라도 해본다’고 답하고 구연을 시작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507\_유수암리\_강추자\_밧블리는소리

어양하랑 어~로로로로로로 와와 어디레 감시니

요 산 중에 놀던 물덜 들랑들랑 걸으라

어어러로로로로로로로로 어러러러러 와 와와와와아아

노픈 데랑 늦이 뵈고 낮은 데랑 노피 불랑 흔저흔저 걸으라 들  
랑들랑 걸으라

저 산에 일낙서산 해는 점시네 흔저흔저 걸으라

어로로로로로로로로로 돌돌돌 돌돌 돌돌돌 어어

아이고 착하다 흔저덜 걸으라 걸으라 걸으라 흔저 불라동 집이  
가게 산에 올라 가게

## 출흥애기소리2

- 임업요-꿀 베는 소리: 벌넛, 호미 등을 이용하여 꿀을 베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5길 21, 절물경로당

**조사 일시:** 2025. 5. 7.

**조사자:** 송정희, 임현정

**제보자:** 강추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꿀 벨 때 부르는 소리를 요청하자 제보자는 한 번 연습하고 해보겠다고 하고 구연하였다. 조사자가 구연 중 ‘끼이~’하고 내는 소리는 무엇인지 물으니, 제보자가 꿀이 있는 곳에 꿩이 있다 보니 꿩소리 흉내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제보자는 직접 꿀을 베며 불렀던 적은 없고 이 소리를 귀 넘어 들은 적이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507\_유수암리\_강추자\_출흥애기소리

어어흥~ 어어어~어~어어허흥 어 어 어허야 아아흥~ 흥애기로  
 구나  
 서르릉 서르릉 호미도 잘 드나 돈다도  
 어어흥~ 어허야 아 어허야 아아흥~ 흥애기로구나  
 끼이~~~ (아고 저디 꿩 놀아감저<sup>19)</sup> 심으라<sup>20)</sup>)  
 하늬 브름도 건들건들 흥 게도  
 어어흥~ 어어허~ 어 어허어~야~ 아아흥~ 흥애기로구나

## 도리깨질소리

- 농업요-마당질소리: 밭 구석이나 마당에서 도리깨를 이용하여 곡식을 타작할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5길 21, 절물경로당

**조사 일시:** 2025. 5. 7.

**조사자:** 송정희, 임현정

**제보자:** 강추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마당질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제보자가 한두 마디만 해보겠다고 답하고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507\_유수암리\_강추자\_도리깨질소리

에야흥아, 에야흥아

19) 놀아감저: 날아간다.

20) 심으라: 잡아라.

내뜨리라<sup>21)</sup> 내뜨리라  
 노픈 데랑 늦이<sup>22)</sup> 뜨리곡  
 야픈 데랑 늦이 뜨리고  
 에야 흥아 에야 흥아  
 내뜨리고 내뜨리고  
 에야 흥아 에야 흥아

## 진사데소리2

- 농업요-김매는 소리: 김매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5길 21, 절물경로당

**조사 일시:** 2025. 5. 22.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강추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진사데소리’를 불러 줄 것을 요청하여 구연하였다.

‘진사데소리’와 ‘권력사데’ 번갈아 불렀다. ‘권력사데’는 김매다가 중간에 추임새처럼 부르며 흥을 돋우는 소리이다. 제보자는 ‘권력사데’는 ‘추침사데’라고도 하며, 부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부를 경우에는 신이 난다고 설명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522\_유수암리\_강추자\_진사데소리

**자료 코드:** S\_20250522\_유수암리\_강추자\_권력사데

21) 내뜨리라: 내려 때리라.

22) 늦이: 낮게.



(진사데소리)

사데 불렁~ 검질메자

어어형~ 어야에~ 어어형~ 어허 어이도랑 사데로구나

검질 짓고~ 굴느진 밭에

어어형~ 어야에~ 어어형~ 어형 어허~ 어이도랑 사데로구나

앞명엘랑~ 들어 오라

어어형~ 어야에~ 어어형~ 어형 어허~ 어이도랑 사데로구나

뒷명엘랑~ 물러나 가라

어어형~ 어야에~ 어어형~ 어형 어허~ 어이도레 사데로구나

(권력사데)

천지건곤 일월동아 학도 뜨고 봉도 뜨고 광주 남산 줄불 부뜨

는 소리로구나 얼싸 얼싸

쥐똥 배똥 빼아피는 완방 진방 들어나고 비옥 간장 찍은 물은

골골마다 느리는 소리가구나 얼싸 얼싸

(진사데소리)

고비 고비 청청 고비

어어형~ 어야에~ 어어형~ 어허 어이도레랑 사데로구나

우리 어멍 날 낳던 날은 어떤 날에 나를

어어형~ 어어형~ 어어형~ 어이도레랑 사데로구나

흐흥 낳던고 요 검질메나 사데로구나

(권력사데)

창은 창이요 명은 명이요 제일 명창은 호령창이로구나 얼싸 얼싸

밭담은 미루세기 잣담은 추리세기 눈물은 눈물은 이루세기 돈  
는 물은 거두세기로구나 얼싸 얼싸

## 쫓른사데소리2

- 농업요-김매는 소리: 김매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5길 21, 절물경로당

조사 일시: 2025. 5. 22.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강추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권력사데'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522\_유수암리\_강추자\_쫓른사데소리

검질 짓고 굴느진 밭디

어기여랑 사데로다아

사데로낭 우기멍 매게

사데로다아

앞명에랑 들어나 오라

뒷명에랑 물러나 가라

어기여랑 사데로다

보름에 톨광 지세어멍은

어기여랑 사데로다

등글당도 살을메 난다

어기여랑 사데로다

요놈이 첩광 소낭게 브름은

어기여랑 사데로다

소린 나도 살을메 없다

어기여랑 사데로다

나 인생에 얼마나

어기여랑 사데로다

유월영청 조작벤티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요 검질을 나 혼자 메니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질것집이 구실낭 싱경      어기어랑 사데로다  
 쓰다 ㄷ나 밥 볼 때도      어기여랑 사데로다  
 남 시킬 일 하나도 없다      어기여랑 사데로다

### 출홍애기소리3

- 임업요-꿀 베는 소리: 벌낮, 호미 등을 이용하여 꿀을 베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5길 21, 절물경로당

**조사 일시:** 2025. 6. 26.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강추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노동요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니 제보자는 ‘출홍애기 소리’를 구연하였다. 제보자는 미리 준비해 온 가사를 보면서 참고 하여 구연하였다. 제보자는 큰오빠가 부르는 것을 보고 따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626\_유수암리\_강추자\_출홍애기소리

아아아~홍 어~~ 어어형~ 어어허야 아아형~ 홍애기로그구나.  
 아이고야 호미도 스르릉 스르릉 잘도나 든다  
 아아아홍~ 어~~~ 어어허야 아아허~ 홍애기로그구나  
 끼이~~~(아이고 저레 핑 놀아간다 심영오라)  
 하늬 브름은 건들건들헛 게 시원도 ㅎ구나  
 아아아~홍 어어어야 아아허홍~ 홍애기로그구나  
 요 산 앞에 놀던 요 출덜 오늘날도 다 비어 자친다 도라  
 아아아허~ 어허~어허~야 아아허홍~ 홍애기로그구나

일락서산에 해는 지어간다도 혼저혼저들 비라도 아아허~ 홍애  
 기로그구나

### 밧볼리는소리2

- 농업요-밭 밟는 소리: 주로 조농사를 할 때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밟을 밟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5길 21, 절물경로당

**조사 일시:** 2025. 6. 26.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강추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는 조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연하였다. 구연 후에는 어머니와 자신 모두 소리가 좋아, 그 당시 서로 경합하듯 소리를 하고 는 했다고 회상하였다. 밟 밟을 때 소나 말 대여섯 마리가 필요했으 며, 어머니는 맨 앞에서 이끄는 선두를 맡고 자신은 뒤에서 따라가 며 뒤쪽을 맡았다고 하였다. 고랑과 이랑을 고르게 밟기 위해 소나 말을 원을 그리며 돌렸으며, 띄약별 아래에서 사람과 동물 모두 더 위와 피로를 달래기 위해 소리를 했다고 덧붙였다. 말로 ‘우리 몰덜 이영 얼랑절랑 돌랑돌랑’이라고 하고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626\_유수암리\_강추자\_밧볼리는소리

(우리 몰덜이영 얼랑절랑 돌랑돌랑)  
 어러러러러러~로로~ 어~돌돌돌~ 어러로로로 혼저혼저 뽕으라  
 어려~려려~려려 ㄹ 말덜아 혼저혼저 걸으라두  
 어려려~로로~ 돌돌 와와 어드레 어드레 감시니 ㄹ 몰들아

모다들엉 뽀으라 흥정 흥정 뽀으라들 어러러러러러러~ 돌돌  
 돌 돌돌 흥정 걸으라  
 노픈 데랑 낮이 밝고 야픈 데랑 노피 불랑 돌랑돌랑 걸으라 어  
 러러러러로로~ 어랑 하랑  
 아이고 잘도 뽀는다 아이고 착하다  
 일낙서산 해는 지젠 흥염시네 흥정 흥정 뽀아 두엉 산에 올라  
 가게  
 어러러러러~로로~ 어~돌돌돌~ 어랑 하랑  
 아아고 착하다 요 몰덜아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흥정  
 흥정 뽀아동 가게~ 착하다 어러러러러~로로~ 어~돌돌돌

## ㄱ레ㄴ는소리

- 제분요-맷돌질소리: 맷돌에 곡식을 넣고 갈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5길 21, 절물경로당

**조사 일시:** 2025. 6. 26.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강추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준비한 소리가 있는지 질문하자, 제보자는 ‘ㄱ레 ㄴ  
 는 소리’를 현장에서 불러본 적은 없으나 한번 불러보겠다고 하여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626\_유수암리\_강추자\_ㄱ레ㄴ는소리

이영 이영 이영 이영도 허라  
 이영 이영 이영 이영도 허라  
 니네 아버진 날마다 영 병 들영 눕고

흥저 요 ㄱ레 ㄱ라사 느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식사 지어 놀<sup>23)</sup>  
 거 아니가  
 이영 이영 이영 이영도 허라  
 이영 이영 이영 이영도 허라  
 이영 이영 이영 이영  
 니네 아버진 날마다 영 병 들영 눕고  
 흥저 요 ㄱ레 ㄱ라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식사 지어 놀 거여  
 이영 이영 이영 이영도 허라  
 흥저흥저 ㄱ라지라 요 ㄱ레야

## 검질매는소리1

- 농업요-검매는 소리: 검매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5길 21, 절물경로당

**조사 일시:** 2025. 6. 26.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강추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강추자는 자료로 남길 것인데 후렴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우  
 려하였다. 조사자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담 없이 편안하  
 게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다. 제보자는 미리 정리해 온 가사를 보며  
 ‘진사테소리’, ‘쯔른사테소리’, ‘추침사테’를 연이어 구연하였다.

23) 놀: 농을.

자료 코드: S\_20250626\_유수암리\_강추자\_검질메는소리

(진사데소리)

사데 불령~ 검질메자

어어형 어야에~ 어형~ 어형~ 어이도레~랑 사데로구나

검질 짓고 굴느즌 밧에

어어형 어야에~ 어형~ 어형~ 어이도레~랑 사데로구나

앞명에랑 들어나 오라

어어형 어야에~ 어형~ 어형~ 어이도레~랑 사데로구나

뒷명에랑 물러나 가라

어어형 어야에~ 어형~ 어형~ 어이도레~랑 사데로구나

고비 고비 청청 고비

어어형 어야에~ 어형~ 어형~ 어이도레~랑 사데로구나

우리 어멍 날 낳던 날은 어떤 날에 나를

어어형 어야에~ 어형~ 어형~ 어이도레~랑 사데로구나

흐~ 낳던고 요 검질메나 사데로구나

(쫄른사데소리)

어기여랑 사데로다

검질 짓고 굴느진 밧디

사데 불령 요 검질메자

사데로나 우기멍 메게

앞명에랑 들어나 오라

브름에 풀광 지세어멍은

둥글당도 살을메 난다

어길여랑 사데로다

어길여랑 사데로다

어길여랑 사데로다

어길여랑 사데로다

늪이 첩광 소남게 브름은

소린 나도 살을메 없다

나 인심이 얼마나 허멘

유월영청 즈작벧데

요 검질을 나 혼자 메니

질 7 집이 도실낭<sup>24)</sup> 싱경

쓰다 드냐 맛 볼 사이도 없이

남 지킬 일 하나도 없다

어기여랑 사데로다

어기여랑 사데로다

어기여랑 사데로다

어기여랑 사데로다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어길여랑 사데로구나

어길여랑 사데로다

어길여랑 사데로다

(추침사데)

천지건곤 일월동아 학도 뜨고 봉도 뜨고 광주남산 줄불 부르는

소리로구나 얼싸 얼싸

쥐똥 배똥 빼아피는 완방 진방 들어오고 오복 비옥 간장 썩은

물은 골골마다 느리는 소리구로나 얼싸 얼싸

창은 창이요 명은 명이요 명은 명창이요 제일 명창은 호령창이

로구나 얼싸 얼싸

발담은 미루세기 잣담은 추리세기 눈물은 거루 이루세기 돈는

물은 거두세기로구나 얼싸 얼싸 좋다

## 출흥아기소리

- 임업요-꿀 베는 소리: 벌낮, 호미 등을 이용하여 꿀을 베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보자 자택

24) 도실낭: 복숭아나무.

**조사 일시:** 2025. 7. 26.

**조사자:**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강노성, 남, 1939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는 애월읍 대표로 선발되어 하귀2리를 도와 2005년 대통령상을 수상할 당시, '출홍아기소리'를 했었다며 구연하였다. 구연 후 조사자가 꼴을 베는 작업 상황에 대해 질문하자, 남자들은 앞에서 베고, 여자들은 뒤에서 이를 걷어 가는데 원을 그리며 이동해 가는 방식으로 작업했다고 설명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726\_유수암리\_강노성\_출홍아기소리

뚜렷~ 뚜렷히고도

오호오~~오오 오호오~ 오호오 어허어허야~ 아아호~ 출홍아기  
덜 험시다~

야~흥~ 오오~ 오호오~ 오호호~ 어허어허야~ 오호오~ 출비  
는 홍아기로구나

바람은 간들간들 좋은 날이여~

오호오~~오오 오호오~ 어허어어야~ 아아~ 출홍아기덜 험  
시다~

호미도 좋고 장남덜도 좋다

오호오~오오 오호오~ 오호오~ 어허어허야~

끄으윳

뚜렷~ 뚜렷히고도

오호오~오오 오호오~ 오호오~ 어허어허야~ 오호오~ 출비는  
홍아기로구나~

바람은 간들간들 좋은 날이여~

오호오~오오 오호오~ 어허어허야~ 오호오~ 출홍아기덜 험시다  
호미도 좋고 장남덜도 좋다

오호오~오오 오호오~ 오호오~ 어허어허야~ 오호오~ 출비는  
홍아기로구나~

끄으윳

## 낭자를때소리

- 임업요-나무 자르는 소리: 톱을 이용하여 나무를 자를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26.

**조사자:**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강노성, 남, 1939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나무를 자를 때 부르는 노래가 있는지 묻자, 강노성은 '뚜렷, 뚜렷'이라고 불렀다고 답하였다. 조사자가 불리달라고 요청하자 구연하였다. 구연 후 톱질할 때 부르는 노래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장작으로 사용할 나무를 준비할 때, 혼자 나무 앞에 앉아 톱질하면서 이 소리를 불렀다고 한다.

**자료 코드:** S\_20250726\_유수암리\_강노성\_낭자를때소리

뚜렷 뚜렷히고도 으 낚으 낭 오닐랑은에 드러누라

떠렷아 떠렷아 아~ 오닐날~랑~ 썰어라~



## 낭개는소리

- 임업요-나무 쪼개는 소리: 도끼를 이용하여 나무를 쪼갤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26.

조사자: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강노성, 남, 1939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나무할 때 부르는 소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물으니, 제보자가 무언가를 내리치는 동작을 하며 '낭개는소리'가 있다고 답하였다. 제보자는 도끼로 내리치는 동작을 하며 구연하였다. 조사자가 주로 어떤 나무를 하러 가냐고 묻자, 제보자는 소나무를 하러 많이 갔다고 하고 쪼갠 나무는 판매하거나 땔감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나무 스무 개 이상을 마련해 마차에 실어 나르기도 했으며,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처가와 처남댁까지 장작을 준비했기 때문에 나무를 자르고, 쪼개는 경험이 많았다고 한다.

자료 코드: S\_20250726\_유수암리\_강노성\_낭개는소리

어야도 흥아(허멍(하면서)) 으것도 깨어지라

## 검질메는소리2

- 농업요-김매는 소리: 김멜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26.

조사자: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강노성, 남, 1939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는 스스로 '검질메는 소리'를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726\_유수암리\_강노성\_검질메는소리

사데 불령 요 검질메게

어허~ 어허허~ 어허어허어~ 어형~ 어~야~ 어허어형~ 얼~ 노래~라~

비 온 날 웨상제<sup>25)</sup> 올듯

어허~ 어허허~ 어허어허어~ 어형~

## 쪼른사데소리3

- 농업요-김매는 소리: 김멜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26.

조사자: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강노성, 남, 1939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는 '검질메는 소리'를 이어 '쪼른사데소리'도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726\_유수암리\_강노성\_쪼른사데소리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뒷명에랑 물러나가라

25) 웨상제: 외상주(外喪主).

## 밧가는소리

- 농업요-밧 가는 소리: 소나 말에 쟁기를 매여 밧을 갈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26.

**조사자:**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강노성, 남, 1939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소로 밧을 갈 때 어떤 소리를 하는지 묻자, 제보자는  
‘밧 갈 때’라고 말하고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726\_유수암리\_강노성\_밧가는소리

머싯게 으눔 자속 머싯게  
이 똑바로 안 헤엇당 때 맞아이  
머싯게  
아앙  
(문 메가민(모두 메가민))  
아앙 와앙  
(돌려 돌려낭은에게(돌려 돌려놔서))  
머싯게

## 밧블리는소리3

- 농업요-밧 밧는 소리: 주로 조농사를 할 때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밧을 밧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26.

**조사자:**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강노성, 남, 1939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밧 블리는 소리’를 요청하자 구연하였다. 밧 밧을  
때 말은 대여섯 마리, 소는 서너 마리를 이용한다고 하였다. 조사자  
가 말과 소를 어떻게 마련하는지 묻자, 필요한 경우 소만 빌려오거  
나, 소 주인들도 함께 같이 밧을 밧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726\_유수암리\_강노성\_밧블리는소리

어랑 하랑 어려~ 어려어~ 어료~ 어려~ 어려려~ 어~ 어어어  
어려~

## 쉐모는소리

- 농업요-마소 모는 소리: 소나 말을 일정 장소로 이동할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26.

**조사자:**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강노성, 남, 1939년생

**구연 상황:** 강노성은 소와 말을 목장에서 몰고 올 때 ‘쉐 모는 소리’를 한  
다고 하였다. 조사자가 요청하자 구연하였다. 목장에서 살면서 소  
를 돌보는 ‘쉐테우리’가 있었고 밧 밧을 때는 소나 말을 목장에서 몰  
고 와 사용한 뒤, 다시 목장으로 몰아갔다고 설명하였다. 유수암리  
목장이 꽤 넓었다고 덧붙였다. 말총을 구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판매하기도 했었다.

**자료 코드:** S\_20250726\_유수암리\_강노성\_쉐모는소리

어려~어어 어려~ 이려러~ 이려~ 이려~  
 요 산 중에 놀던 쉼덜 흔저 글라 내려강 밧디 듯 걸름 시꺼 가게  
 이려~ 이려~ 어려~ 어어어~  
 그럭저럭 몰앙 오단 보난 하жат 알러레 문 노력오라점구나  
 흔저덜 내려강 통싯담 헤싼 걸름 내영  
 걸름 밧디 시꺼 가게  
 이려~ 이려~ 이려~ 어어 오오~ 어려~

## 마당질소리

- 농업요-마당질소리: 밭 구석이나 마당에서 도리깨를 이용하여 곡식을 타작할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26.

**조사자:**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강노성, 남, 1939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콩을 마당에 널어 타작할 때 부르는 소리에 대해 묻자, 제보자는 '마당질소리'라고 하고 구연하였다. 이어 도리깨에 관한 질문에 제보자는 도리깨를 윤노리나무로 제작했으며, 길이는 사용자의 키에 맞춰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리깨는 으름 줄기로 묶어 마감하며, 한 번 제작하면 3~4년 정도 사용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자료 코드:** S\_20250726\_유수암리\_강노성\_마당질소리

어야도 홍아

요것도 쟁곡<sup>26)</sup>이여

저것도 쟁곡이여

뜻리고 뜻려보자

어야도 홍아

어야도 홍아

## 물방에소리

- 제분요-연자방아소리: 소나 말을 이용하여 연자방아를 돌리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26.

**조사자:**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강노성, 남, 1939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연자방아 작업 과정에 대해 묻자, 강노성은 '물방에 소리'를 짧게 구연하였다. 유수암리에는 연자방아가 다섯 곳 정도 있었으며, 주민들은 도착한 순서대로 기다렸다가 차례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자료 코드:** S\_20250726\_유수암리\_강노성\_물방에소리

머싯게 뭐이 머싯게 흔저 글라 걸으라

26) 쟁곡 : 쟁곡. 쟁곡은 익하지 아니한 곡식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탈곡하지 않은 곡식을 말한다.

#### 1-4. 유수암리 의식요

의식요는 장례의식, 불교의식, 무속의식에서 불리던 소리를 말한다.

##### 행상소리1

- 장례의식요-행상소리: 상여를 메고 갈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5길 21, 절물경로당

**조사 일시:** 2025. 5. 22.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강추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강추자는 준비한 가사를 보면서 일부 수정하여 불렀다.

**자료 코드:** S\_20250522\_유수암리\_강추자\_행상소리

어놀 어놀 어거리닝창 어화로다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공동묘지로 어서 가자  
어놀 어놀 어거리닝창 어화로다  
저승 질이 멀다 해도 창문 앞에 저성이여  
어놀 어놀 어거리닝창 어화로다  
오는 날에 당혹여 보난 대문 밖이 저성이여  
어놀 어놀 어거리닝창 어화로다  
죽어지민 허사로다 공동묘지로 어서 가자  
어놀 어놀 어거리닝창 어화로다  
어린 자식 등에 놓고 처가속을 다 버리고

어놀 어놀 어거리닝창 어화로다  
서러워라 서러워라 공동묘지 가기 설레  
어놀 어놀 어거리닝창 어화로다  
늙은 부모 뒤에 두고 나혼자만 공동묘지  
어놀 어놀 어거리닝창 어화로다  
노세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리라  
어놀 어놀 어거리닝창 어화로다  
불쌍하신 가족님네 어서 편히 살다 오라  
어놀 어놀 어거리닝창 어화로다  
간다간다 나는 간다 공동묘지로 나는 간다  
어놀 어놀 어거리닝창 어화로다

##### 달구짚는소리1

- 장례의식요-달구소리: 봉분을 달구로 두드리며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5길 21, 절물경로당

**조사 일시:** 2025. 5. 22.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강추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달구소리를 요청하자, 제보자는 ‘달구 짚는 소리’라고 답하였다. 제보자는 달구소리를 불러본 적이 별로 없어 잘하지 못한다고 하며 구연하였다. 미리 가사를 적어 놓으려 했는데 잘 생각이 나지 않아 많이 못 썼다고 하였다. 달구소리는 달곳대로 흙을 다질 때 부르는데 장지에서 관을 묻고 땅을 다지거나 집터를 다지며 부르기도 한다. 땅을 다지는 작업은 개개인이 막대기를 가지고



땅을 치면서 다져 나가기도 하고 몇 사람이 한 팀이 되어 다지기도 한다. 장례가 끝나면 상여를 해체하여 상여집에 갖다 놓았다고 한다. 유수암리에 상여게가 있었다고 하고 상여집도 있었다고 한다. 경조사에 쓰는 상과 그릇 등의 계도 있었다고 한다.

**자료 코드:** S\_20250522\_유수암리\_강추자\_달구짚는소리

어허 달구야	어허 달구야
영허야 달구	어허야 달귀야
어허야 달귀야	어허 달구야
어허야 달구	어허야 달귀야
어허 달귀야	

## 달구짚는소리2

- 장례의식요-달구소리: 봉분을 달구로 두드리며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5길 21, 절물경로당

**조사 일시:** 2025. 6. 26.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강추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는 제주교육대학교에서 3년간 민요 관련하여 수업을 받은 적이 있으며, 그때 배운 내용을 참고하여 ‘달구짚는소리’의 가사를 보완했다고 설명한 뒤 구연하였다. 봉분에 때를 입히기 전에 달구로 흙을 다질 때 불렀다고 한다.

**자료 코드:** S\_20250626\_유수암리\_강추자\_달구짚는소리

어허 달구야 어허 달구야 영허야 달구 어허야 달구 원달귀야  
 어허 달귀야 어허 달귀야 삼시~번체랑 들러 달구 어허 달귀야  
 천추만년 사를 집을 어허 달귀 어허 달귀야 어허 달구  
 석곽으로나 다 이어주소 어허 달구 어허야 달구야  
 은곽 7치 다려주소 어허 달구 영허야 달구야 어허야 원달귀야  
 저승질이 멀다 허여도 어허 달구 영허야 달구야 어허야 원달귀야  
 창문 밖에 저승이로구나 어허야 달구 어허야 원달귀야  
 인간 이별 만사 중에 어허야 달구 어허야 원달귀야  
 부모 공덕을 갚았느냐 어허야 달구야 어허야 원달귀야  
 인간 이별 만사 중에 어허야 원달귀야  
 부모 공을 갚으젠 허난 어허야 달구 어허야 원달구야  
 멍이 졸란<sup>27)</sup> 못 갚읍데다 어허야 달구 어허야 원달귀야

## 행상소리2

- 장례의식요-행상소리: 상여를 메고 갈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5길 21, 절물경로당

**조사 일시:** 2025. 6. 26.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강추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는 준비한 가사를 보며 ‘행상소리’를 구연하였다. 유수암리에서는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공동묘지로 어서 가자”를 위주로

27) 졸란: 짧아서.

불렀고 짧게 부른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집안이나 동네 안에서는 부르지 않고, 동네를 벗어나 장지까지 가는 길에 불렀다. 보통 상여를 한쪽에 세 명씩 여섯 명이 메고, 친척이 아닌 마을 청년들이 이를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자료 코드: S\_20250626\_유수암리\_강추자\_행상소리

어허 어허 어거리영창 어화로다  
어놀 어놀 어거리영창 어화로다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공동묘지로 어서 가자  
어놀 어놀 어거리영창 어화로다  
저승 질이 멀다 해도 창문 앞에 저싱이여  
어놀 어놀 어거리영창 어화로다  
오는 날에 당후여 보난 대문 맞기 저싱이여  
어놀 어놀 어거리영창 어화로다  
죽어지민 허사로다 공동묘지로 어서 가자  
어놀 어놀 어거리영창 어화로다  
어린 자식 등에 놓고 처가속을 다 버리고  
어놀 어놀 어거리영창 어화로다  
서러워라 서러워라 공동묘지 가기 설레<sup>28)</sup>  
어놀 어놀 어거리영창 어화로다  
늙은 부모 뒤에 두고 나혼자만 공동묘지  
어놀 어놀 어거리영창 어화로다

---

28) 설레: 싫어.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리라  
어놀 어놀 어거리영창 어화로다  
불쌍허신 가족님네 어서 편안히 살다 오라  
어놀 어놀 어거리영창 어화로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공동묘지로 나는 간다  
어놀 어놀 어거리영창 어화로다

## 1-5. 유수암리 유희요

유희적 성격이 강한 민요로 놀이를 위해 부르거나 또는 노래 그 자체를 즐기  
기 위해 부르는 민요를 말한다.

### 집지영나무베는소리1

- 기타: 성주풀이는 무속의례 시 불리던 의식요인데 그 기능이 음악적 흥겨움으  
로 민간에 전해져 민요화된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5길 21, 절물경로당

**조사 일시:** 2025. 5. 7.

**조사자:** 송정희, 임현정

**제보자:** 강추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집을 새로 지었을 때 부르는 노래를 요청하자 제보  
자는 책을 보면서 구연하였다. 제보자는 이 노래를 직접 부른 적은  
없으며 구경을 자주 다녔기 때문에 노래를 자주 들어보았다고 하  
였다. 심방(무당)이 도끼로 나무 자르는 흥내를 내면서 부른다고 설  
명하고 도끼로 대나무 막대기를 자를 때 딱 잘려야 좋은 징조라고  
덧붙였다. 이 노랫말의 의미는 한라산에 덕이 든 나무를 베자는 뜻  
이라고 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507\_유수암리\_강추자\_집지영나무베는노래

영등산에 덕 덜 남<sup>29)</sup> 베자    영등산에 덕 덜 남 베자

29)    덕 덜 남: 덕 든 나무.

이 집 지영<sup>30)</sup> 삼 년 만에    등산에 덕 덜 남 베자

### 집지영나무베는소리2

- 기타: 성주풀이는 무속의례 시 불리던 의식요인데 그 기능이 음악적 흥겨움으  
로 민간에 전해져 민요화된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5길 21, 절물경로당

**조사 일시:** 2025. 5. 22.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강추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성주 소리’를 요청하자 ‘집 지영 나무 베는 소리’라  
고 답하고 구연하였다. 오늘은 생각난 노랫말을 써 놓은 것이 여기  
까지라서 다음에 더 준비하여 부르기로 하였다. 제보자는 영등산  
은 한라산이며, 마을 근처에 참나무나 소나무는 있지만 집을 지을  
만한 나무를 구하려면 한라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와야 한다고 설  
명하였다. 한라산에서 마련한 나무로 초가집을 지었고 특히 덕이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지어야 복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522\_유수암리\_강추자\_집지영나무베는소리

영등산에 덕 덜 남 베자

이 집 지영 삼 년 만에    영등산에 덕 덜 남 베자

이 집 지영 삼 년 만에    영등산에 덕 덜 남 베자

30)    지영: 지어서.

아들은 나민 효자 낳고      영등산에 덕 덜 남 베자  
 딸은 나민 효녀로다      영등산에 덕 들 남 베자

## 성주풀이

- 기타: 성주풀이는 무속의례 시 불리던 의식요인데 그 기능이 음악적 흥겨움으로 민간에 전해져 민요화된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5길 21, 절물경로당

**조사 일시:** 2025. 6. 26.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강추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민요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니 구연하였다. 제보자는 성주풀이할 때 살림마다 도끼로 찍는 것은 잡신을 내쫓기 위한 것 같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집을 짓고 난 뒤 3년이 고비이며, 3년 동안 무탈하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626\_유수암리\_강추자\_성주풀이

영등산에 덕 덜 남 베자	영등산에 덕 덜 남 베자
이집 지영 삼 년 만에	영등산에 덕 덜 남 베자
아들은 나민 효자 낳고	영등산에 덕 덜 남 베자
딸은 나민 열녀로다	영등산에 덕 덜 남 베자
몰은 길령 역마 되고	영등산에 덕 덜 남 베자
소는 길령 황쇄로다	영등산에 덕 덜 남 베자
앞이망에는 청사초롱	영등산에 덕 덜 남 베자
뒷이망에는 흑사초롱	영등산에 덕 덜 남 베자

남을 비고 영구가자	영등산에 덕 덜 남 베자
아래로 들어가민	영등산에 덕 덜 남 베자
곶은 낭도 찍고 나가자	영등산에 덕 덜 남 베자
천장 널판도 찍고 나가자	영등산에 덕 덜 남 베자
문입쟁이도 비고 나가자	영등산에 덕 덜 남 베자
아랫널도 비고 나가자	영등산에 덕 덜 남 베자
부엌으로 들어가민	영등산에 덕 덜 남 베자
싱크대도 찍고 나가자	영등산에 덕 덜 남 베자
화장 밑에도 찍고 나가자	영등산에 덕 덜 남 베자

영등산에 덕 덜 남 베자	
이 집 지영 삼 년 만에	영등산에 덕 덜 남 베자
아들은 나민 효자 낳고	영등산에 덕 덜 남 베자
딸은 나민 열녀로다	영등산에 덕 덜 남 베자
몰은 길령 역마 되고	영등산에 덕 덜 남 베자
쉐는 길령 황소 되고	영등산에 덕 덜 남 베자
앞이망에는 청사초롱	영등산에 덕 덜 남 베자
뒷이망에는 흑사초롱	영등산에 덕 덜 남 베자
몰은 비고 넘고 나가자	영등산에 덕 덜 남 베자
아래로 들어가민	영등산에 덕 덜 남 베자
곶은 낭도 찍고 나가자	영등산에 덕 덜 남 베자
천장 널판도 찍고 나가자	영등산에 덕 덜 남 베자
문입쟁이도 빼고 나가자	영등산에 덕 덜 남 베자
아랫널도야 찍고 나가자	영등산에 (찍고 나가자) 덕 덜 남 베자



부엌으로 들어가민      영등산에 덕 덜 남 베자  
 화장 밑에도 찌고 나가자      영등산에 덕 덜 남 베자  
 화장 문도 찌고 나가자      영등산에 덕 덜 남 베자

## 창부타령

- 기타: 경기 민요의 하나로 무당 소리에서 유래되었고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5길 21, 절물경로당

**조사 일시:** 2025. 7. 26.

**조사자:**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강노성, 남, 1939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는 창부타령을 부르겠다고 하고 구연하였다. 처음 시작은 창부타령으로 시작하고 음은 창부타령을 유지하면서 중간 가사부터는 진주난봉가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자료 코드:** S\_20250726\_유수암리\_강노성\_창부타령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며 열녀 되나  
 아니나 쓰면 부자 되나  
 열녀 효자 아니될 바엔  
 놀고픈대로나 놀아보자  
 홀머명도 이십 세요  
 살아나봄도나 삼십 세요  
 이삼십 넘어가면  
 놀아봄도나 그만 저만

살아나봄도나 그만 저만  
 울도 담도 없는 집에  
 시집 들어서 삼 년 만에  
 시어머님 하시는 말씀  
 애야 아기야 며느리야  
 너의 남군 보고 싶거든  
 진주 남강에 빨래 가라  
 진주 남강에 빨리나 오니  
 산도 좋고 물도 맑아  
 오복 복에나 빨고 가자  
 난데없는 말밥굽 소리가  
 왈그락 잘그락 들려온다  
 그 소리 들어 며느리는  
 하늘 같은 백마를 타고  
 구름같은 갓을 쓰고  
 못 본 듯이나 지나간다  
 그것을 본 며느리는  
 검은 빨래를 검게 빨고  
 하얀 빨래를 희게 빨아  
 집이라고 돌아오니  
 시어머님 하시는 말씀  
 애야 아가야 며느리야  
 너의 남군을 보려거든  
 사랑 방문을 열고 보라  
 사랑 방문을 열고나 보니

오색가지 불을 넣고  
기생첩을 옆에 끼고  
못 본 듯이 술만 먹네  
그것을 본 며느리는  
사랑방을 뛰어나와  
명주 석자에 목을 메어  
잠든 듯이나 죽어 간다  
그 소식을 들은 낭군은  
버선발로나 뛰어나와  
너 죽을 아예 몰랐네  
너 죽을 줄은 내 몰라 닳네  
하루의 사랑이 십 년이면  
본처의 사랑은 백 년이라  
얼화등등 내사랑아  
큰 각시 죽어  
뒷동산에 묻고  
장사 지내어 삼 년 만에  
매화꽃이나 피었구나  
얼화등등 내사랑아

## 1-6. 유수암리 전승동요

---

전승동요는 아이들이 놀 때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

### 왕이자랑1

- 자장가: 아기 재울 때 아기 바구니를 흔들면서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5길 21, 절물경로당

**조사 일시:** 2025. 4. 24.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강추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는 표준어와 타지역 방언을 섞어 사용하였다. 조사자가 제주방언으로 말해줄 것을 요청하자 제주방언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제보자는 시조창 ‘녹양이’ 평시조를 부르고 그 뜻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담소를 나눈 후, 조사자가 ‘아기흥그는소리’를 요청하자, 강추자는 “왕이자랑 왕이자랑”이라고 말하며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424\_유수암리\_강추자\_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저레<sup>31)</sup> 가는 검둥개야  
우리 아기 재와도라<sup>32)</sup>

---

31) 저레: 저리.

32) 재와도라: 재워주라.

느네<sup>33)</sup> 아기 재와주마  
아니 재와주민 질긴 질긴 총베로  
손모가지 발모가지 뽕뽕 무꿍<sup>34)</sup>  
지픈<sup>35)</sup> 지픈 천지소레<sup>36)</sup>  
들이첫닥<sup>37)</sup> 내첫닥<sup>38)</sup> 헉키어<sup>39)</sup>  
웁이자랑 뽁이자랑

## 끝말이어가는말

- 유희요: 언어 유희요로 끝말을 이어가면서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5길 21, 절물경로당

**조사 일시:** 2025. 4. 24.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강추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기억 나는 전승동요가 있는지 묻자, 끝말을 이어가는 것을 안다고 하며 구연하였다. ‘끝말 이어가는 말’ 구연을 마친 뒤, 이번에는 빠르게 하겠다고 말하고 자진하여 다시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424\_유수암리\_강추자\_끝말이어가는말

- 
- 33) 느네: 너희.  
34) 무꿍: 묶어서.  
35) 지픈: 깊은.  
36) 천지소레: 깊은 못으로.  
37) 들이첫닥: 들이첫다가.  
38) 내첫당: 내첫다가.  
39) 헉키어: 하겠어.

저 산 앞 밧디<sup>40)</sup> 꼬박꼬박 흐는 게 뽁고  
미뿌쟁이<sup>41)</sup> 미뿌쟁인 흰다  
희민 하레비<sup>42)</sup> 하레빈 등 굽나<sup>43)</sup>  
등 굽으민 쉼질막가지<sup>44)</sup> 쉼질막가진 니<sup>45)</sup> 구멍 난다  
니 구멍 나민 시리여<sup>46)</sup> 시린 검나  
검으민 가마기<sup>47)</sup> 가마긴 눅뜬다<sup>48)</sup>  
눅뜨민 심방이여<sup>49)</sup> 심방은 두드린다  
두드리민 철쟁이<sup>50)</sup> 철쟁인 줍진다<sup>51)</sup>  
줍지민 공이여<sup>52)</sup> 공인 붉나  
붉으민 대추요 대춘 든다<sup>53)</sup>  
들민 엇이요 엇은 훑은다<sup>54)</sup>  
훑으민 기러기요 기러긴 보리 먹나

- 
- 40) 밧디: 밭에.  
41) 미뿌쟁이: 억새꽃.  
42) 하레비 : 할아버.  
43) 등굽나 : 등굽는다  
44) 쉼질막가지 : 소 등에 엮는 길마.  
45) 니: 네.  
46) 시리여: 시루여.  
47) 가마기: 까마귀.  
48) 눅뜬다: 날뛰다.  
49) 심방이여: 무당이여.  
50) 철쟁이: 대장장이.  
51) 줍진다: 집는다.  
52) 공이여: 게.  
53) 든다: 단다.  
54) 훑은다: 훑다.

보리 먹으믄 쉼여 쉼 뿔 돈나  
뿔 돈으민 깍록이여<sup>55)</sup> 깍록은 뿔다  
뛰민 베틀이요<sup>56)</sup>베틀은 문다  
물민 개요 멍멍

(빠르게)

저산 앞 밧디 꼬박꼬박 흐는 게 뭐냐  
미뿌쟁이 미뿌쟁인 흰다  
희민 하레비 하레빈 등 굽나  
등 굽으민 쉼질막가지 쉼질막가진 니 구멍 난다  
니 구멍 나민 시리여 시린 검나  
검으민 가마기여 가마긴 눅뚱다  
눅뜨민 심방이여 심방은 두드린다  
두드리민 철쟁이여 철쟁인 좁진다  
좁지민 공이여 공인 붉나  
붉으민 대추 대춘 돈다  
돌민 엇이요 엇은 훑은다  
훑으민 기러기요 기러긴 보리 먹나  
보리 먹으믄 쉼여 쉼 뿔 돈나  
뿔 돈으민 깍록이여 깍록은 뿔다  
뛰민 베틀이여 베틀은 문다  
물민 개여 멍멍

55) 깍록이여: 시습이여.

56) 베틀이여: 벼룩이여.

## 흔다리인다리1

- 유희요: 아이들이 앉아서 다리를 세면서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5길 21, 절물경로당

조사 일시: 2025. 4. 24.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강추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다리세기’ 노래를 부르며 놀이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제보자는 조사자와 마주 앉아 ‘다리세기’ 놀이를 시작하였다. 제보자는 ‘결정 날 때까지’라고 말하며 노래를 계속 부르고 놀이를 이어갔다.

자료 코드: S\_20250424\_유수암리\_강추자\_흔다리인다리

(자이랑 협서. 자이랑.(저 아이하고 하세요. 저 아이하고.))

흔다리 인다리 게청대 시자 노자 물마께 딱려 딱려 고노 새금 돌깅  
(앗, 걸렸어.)

(한 번만 더 해줍서(해주세요.). 한 번만 더 해줍서.)

흔다리 인다리 거청대 시자 노자 물마께 딱려 딱려 고노 새금 돌깅  
(한 번만 더, 이제 이제 결정날 거 아니. 결정)

(내가 질 거 같은데.)

흔다리 인다리 거청대 시자 노자 물마께 딱려 딱려 고노 새금 돌깅  
(제가 졌네요.)

흔다리 인다리 거청대 시자 노자 물마께 딱려 딱려 고노 새금 돌깅

## 주열재열

- 유희요: 나무에 있는 매미를 내려오게 하여 잡을 때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5길 21, 절물경로당

**조사 일시:** 2025. 4. 24.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강추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주열재열’을 알고 있는지 묻자, 제보자가 가사를 읊었다. 조사자가 한 번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제보자가 구연하였다. 제보자는 어렸을 때 ‘오재미’와 ‘땅 뽕아 먹기’와 ‘이시키리’<sup>57)</sup>를 하였고 매미 잡는 것은 자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자료 코드:** S\_20250424\_유수암리\_강추자\_주열재열

주열재열<sup>58)</sup> 내려오라<sup>59)</sup>

쉐똥범벅 개똥범벅 내려주마

주열재열 내려오라

개똥범벅 쉼똥범벅 햅여주마

## 청청밥주리

- 유희요: 아이들이 잠자리 잡을 때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5길 21, 절물경로당

---

57) 이시카리: 오징어 게임.

58) 주열재열: 매미매미.

59) 내려오라: 내려오라.

**조사 일시:** 2025. 5. 7.

**조사자:** 송정희, 임현정

**제보자:** 강추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는 기억을 더듬어 여러 가지 민요를 준비해 왔다고 하였다. 예전에 배웠던 민요 가사를 찾아서 가져오기도 하고 직접 적어 오기도 하였다. 옛날 놀이에 관하여 놀이 방식과 노래가 기억나는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잠자리를 잡을 때 부르는 노래를 구연하였다. 제보자는 나뭇가지에 거미줄을 뱅뱅 감아 잠자리를 잡는 채로 삼고 이 채를 들고 다니면서 잠자리가 돌맹이 위에 앉았을 때 거미줄에 붙여 잡으며 잠자리는 앉았던 곳에 잘 앉는 습성이 있어서 ‘앉아난 방석에 앉아라’라고 노래를 부른다고 설명했다.

**자료 코드:** S\_20250507\_유수암리\_강추자\_청청밥주리

청청밥주리 앉아난<sup>60)</sup> 방석에 앉아라

청청밥주리 앉아난 방석에 앉이라

## 도롱아도롱아

- 유희요: 아이들이 벌레 잡을 때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5길 21, 절물경로당

**조사 일시:** 2025. 5. 7.

**조사자:** 송정희, 임현정

---

60) 앉아난: 앉았던.



**제보자:** 강추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가 조사자에게 ‘도롱아 도롱아’도 아냐고 하며, 자진하여 구연하였다. 제보자는 흙 마당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에 술있을 담아서 이 노래를 부르다가 술있이 달랑달랑 흔들릴 때 술있을 빼면 벌레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자료 코드:** S\_20250507\_유수암리\_강추자\_도롱아도롱아

도롱아<sup>61)</sup> 도롱아 나오라  
근밥<sup>62)</sup> 주마 근밥 주마

## 흔다리인다리2

- 유희요: 아이들이 앉아서 다리를 세면서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5길 21, 절물경로당

**조사 일시:** 2025. 5. 7.

**조사자:** 송정희, 임현정

**제보자:** 강추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다리세기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구연하였다. 제보자는 ‘흔다리인다리’는 ‘다리’라고 설명하였다. 다른 가사의 정확한 의미는 모른다고 했다. 조사자가 다른 가사가 있는지 묻자 다른 가사는 없다고 답했다.

**자료 코드:** S\_20250507\_유수암리\_강추자\_흔다리인다리

---

61) 도롱아: 애벌레야.

62) 근밥: 쌀밥.

흔다리 인다리 거청대 시자 노자 물마개 뜯려 뜯려 고노 새금 돌깍

## 비야비야

- 유희요: 아이들이 비가 올 때 비가 오지 않기를 바라며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5길 21, 절물경로당

**조사 일시:** 2025. 5. 7.

**조사자:** 송정희, 임현정

**제보자:** 강추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전승동요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구연하였다. 유수암리에 ‘고장뱃’동네가 있는데 비가 크게 올 때 뽕동네 아이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자료 코드:** S\_20250507\_유수암리\_강추자\_비야비야

비야 비야 오지 말라 장통뱃디 물 골랏저<sup>63)</sup> 고장뱃디 내 느렴저<sup>64)</sup>  
비야 비야 오지 말라 고장뱃디 물 골랏저 장통뱃디 내 느렴저  
비야 비야 오지 말라 고장뱃디 내 느렴저 장통뱃디 물 골람저

## 베칠락놀이

- 유희요: 아이들이 줄넘기 놀이할 때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5길 21, 절물경로당

---

63) 물 골랏저: 물이 가득 찼다.

64) 내 느렴저: 내가 내리고 있다.

**조사 일시:** 2025. 5. 7.

**조사자:** 송정희, 임현정

**제보자:** 강추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는 ‘베칠락 놀이’ 노래를 부른다고 하였다. 조사자가 ‘베칠락’<sup>65)</sup>이 무엇인지 물었고 제보자는 줄을 돌리는 동작을 하며 놀이 방식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베칠락놀이’ 노래는 동네마다 노랫말이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507\_유수암리\_강추자\_베칠락놀이

꼬마야 꼬마야 들어오라  
꼬마야 꼬마야 땅을 짚어라  
꼬마야 꼬마야 악수를 하여라  
꼬마야 꼬마야 만세를 불러라  
꼬마야 꼬마야 나가주세요

## 끝말잇기

- 유희요: 언어 유희요로 끝말을 이어가면서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5길 21, 절물경로당

**조사 일시:** 2025. 5. 7.

**조사자:** 송정희, 임현정

**제보자:** 강추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끝말잇기’를 요청하자 구연하였다. 조사자가 “엮은

---

65) 베칠락: 줄넘기.

훅은다”의 의미를 묻자, 기러기가 떼를 지어 날아가는 모습이 엮이  
늘어지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기러기는 보리밭  
에 자주 앉으며 기러기가 보리를 먹는지는 모른다고 하였다. 보리  
단어가 ‘소’를 연상시켜 이어간다고 설명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507\_유수암리\_강추자\_끝말잇기

저산 앞 밭디 꼬박꼬박 흐는 게 뭐냐  
미뿌쟁이 미뿌쟁인 흰다  
희민 하레비 하레빈 등 굽나  
등 굽으민 쉼질막가지 쉼질막가진 니 구멍난다  
니 구멍나민 시리 시린 검나  
검으민 가마기 가마긴 눅튼다  
눅뜨민 심방이여 심방은 두드린다  
두드리민 철쟁이 철쟁인 좁진다  
좁지민 공이여 공인 붉나  
붉으민 대추요 대춘 돈다  
돌민 엮이요 엮은 훅은다  
훅으민 기러기요 기러긴 보리 먹나  
보리 먹으민 쉼여 쉼 뿔 돈나  
뿔 돈으민 깍록이여 깍록은 뿔다  
뿔민 베록이여 베록은 문다  
물민 개요 개는 주꾼다<sup>66)</sup> 멍멍

---

66) 주꾼다: 짚는다.

## 아기흥그는소리1

- 자장가: 아기 재울 때 아기 바구니를 흔들면서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5길 21, 절물경로당

**조사 일시:** 2025. 5. 7.

**조사자:** 송정희, 임현정

**제보자:** 강추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아기 흥그는 소리’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자, 책을 참고하여 적어 온 내용을 보면서 구연하였다. 노래를 부르고 나서 옛날에 이 가사로 부른 적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507\_유수암리\_강추자\_아기흥그는소리

웁이자랑 웁이자랑  
자랑자랑 웁이자랑  
어서 자라 어서 자라 누웁 자라  
어멍 흘 일 만만 한디  
어서 자라 누웁 자라  
세엽<sup>67)</sup> 엇인 요 애기야  
어서 자라 웁이 자랑  
웁이 자랑 우리 아기  
저레 잘도 잔다  
저레 가는 검둥개야  
느네 아기 재와주마

---

67) 세엽: 셀.

우리 아기 재와드라  
아니 재와주민 질긴 질긴 총베로  
손모가지 발모가지 뽕뽕 무꿍  
지픈 지픈 천지소레  
들이청 내청 헉키여  
웁이자랑 웁이자랑  
자랑자랑 웁이자랑  
은을 준들 너를 사며  
금을 준들 너를 사라  
웁이자랑 웁이자랑  
돈밥 맥영 키워 줍서  
돈물 먹영 키워 줍서<sup>68)</sup>  
나라에는 충신동아  
일가방산 화목동아  
부모에는 효자동아  
웁이자랑 웁이자랑  
자랑자랑 웁이자랑

## 아기흥그는소리2

- 자장가: 아기 재울 때 아기 바구니를 흔들면서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5길 21, 절물경로당

---

68) 키와줍서: 키워주세요.

**조사 일시:** 2025. 5. 22.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강추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아기 흥그는 소리’를 요청하자 구연하였다. 제보자는 노래의 끝부분에서 눈물을 흘렸다. 조사자가 왜 우는지 묻자, 소리를 하다 보면 슬픈 감정이 올라와서 그렇다고 설명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522\_유수암리\_강추자\_아기흥그는소리

웁이자랑 자랑자랑 웁이자랑  
어서 자라 어서 자라 누웁 자라  
어멍 흘 일 만만흔디  
어서 자라 누웁 자라  
세염 엇인 요 애기야 어서 자라  
웁이자랑 웁이자랑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저레 가는 검둥개야  
느네 아기 재와주마  
우리 아기 재와도라  
은을 주면 너를 사면  
금을 준들 너를 사랴 웁이자랑  
돈밥 먹영 키워줍서  
돈물 먹영 키워줍서  
나라에는 충신동아  
일가방상 화목동아  
부모에는 효자동아

웁이자랑 웁이자랑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웁이자랑

## 웁이자랑2

- 자장가: 아기 재울 때 아기 바구니를 흔들면서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5길 21, 절물경로당

**조사 일시:** 2025. 6. 26.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강추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는 ‘웁이자랑’을 구연하겠다고 하고 미리 작성해 온 가사를 참고하여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626\_유수암리\_강추자\_웁이자랑

웁이자랑 웁이자랑  
자랑자랑 웁이자랑  
어서 자라 어서 자라 누웁 자라  
어멍 흘 일 만만흔디  
어서 자라 누웁 자라  
세염 엇인 요 애기야 어서 자라  
웁이자랑 웁이자랑  
우리애기 잘도 잔다  
저레 가는 검둥개야  
우리 애기 재와도라

느네 애기 재와주마  
 아니 재와주민 질긴 질긴 총배로  
 손모게기<sup>69)</sup> 발모게기<sup>70)</sup> 쫑쫑 무쫑  
 지픈 지픈 천지소레 들이청 내청 헉키어  
 뽕이자랑 뽕이자랑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은을 주멘 너를 사며  
 금을 준들 너를 사랴  
 뽕이자랑 뽕이자랑  
 돈밥 맥영 키워줍서  
 돈물 맥영 키워줍서  
 우리 애기 재와줍서  
 뽕이자랑 뽕이자랑 뽕이자랑  
 나라에는 충신동이  
 일가방상 화목동아  
 부모에는 효자동아  
 자랑자랑 뽕이자랑  
 뽕이자랑 뽕이자랑  
 우리애기 잘도 잔다  
 우리애기 잘도 잔다

69) 손모게기: 손목아지.

70) 발모게기: 발목아지.

### 뽕이자랑3

- 자장가: 아기 재울 때 아기 바구니를 흔들면서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26.

**조사자:**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강노성, 남, 1939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어린 시절 불렀던 노래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제보자는 ‘뽕이자랑’을 구연하였다. 제보자는 동생을 돌보며 자연스럽게 익힌 노래라고 설명했다.

**자료 코드:** S\_20250726\_유수암리\_강노성\_뽕이자랑

뽕이자랑 뽕이자랑  
 우리애기 재와도라  
 느네 애기 재와주마



## 2. 애월읍 애월리

### 2-1. 애월리 마을 소개<sup>71)</sup>

애월리는 제주시 서북쪽에 위치하며, 애월읍의 행정 중심지를 형성하고 있다. 마을 내에는 초·중·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으며, 읍사무소와 연안항이 위치해 지역 행정 및 해양 활동의 중심 기능을 수행한다. 지리적으로는 동쪽으로 고내리, 서쪽으로 곽지리, 남쪽으로 남읍리와 접하며, 남동쪽으로는 고내봉을 경계로 상가리, 하가리와 맞닿아 있다. 북쪽은 바다와 접해 있다.

마을 남부와 남서부지역은 완만한 구릉과 농경지가 발달해 있으

71) 『우리 고장 이야기 제주시V애월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4., 제주의 마을 애월읍 애월리 (<http://www.jeju.go.kr/vill/aewol/index.htm> 검색일 2025. 06.01.), 『애월리 향토지』, 애월리지 편집위원회, 202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4년 주민등록인구 통계표 (<https://jumin.mois.go.kr/> 검색일 2025.06.01.) 참조.



그림45 애월읍사무소 앞 애월리 표지석.

며, 토질이 비옥하여 밭농사에 적합하다. 마을 안팎에는 ‘하물’, ‘장공물’ 등 수질이 우수한 용천수가 있다. 주거지는 한라산 방향 ‘과오름’을 등지고, 생활용수 확보가 용이한 애월포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평지는 주로 경작지로 이용되며, 일부 지역은 암반지대와 ‘설덕’<sup>72)</sup>이 있다. 특히 ‘숙구미’ 일대는 바위와 자갈이 많은 지형이다. 과거 임야가 마을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비옥한 농토가 존재하지만 면적은 넓지 않은 편이다.

마을 서북쪽 해안가에 위치한 소금밭 ‘배무송이’는 약 400~700년 전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승에 따르면, 애월에 군사 진지가 설

72) 설덕: 돌들이 엉기정기 쌓이고 잡초와 나무가 우거진 곳.



그림46 애월리

치되면서 진에 소금을 공급하기 위해 조성된 인공 소금밭이었다. 애월리 해안선은 길고 수심이 깊어 연안 항구가 발달했다. ‘도룡여’, ‘진여’, ‘납작여’, ‘섯동네알원’, ‘뒷개’, ‘거문여’, ‘쇠머리코지’, ‘베락코지’, ‘너븐여’, ‘배무송이원’, ‘죽든원’, ‘등여’, ‘작지알원’, ‘새아리부리’, ‘애월코지’, ‘가린돌’ 등 다양한 지명이 전해진다.

애월리 지명은 고려 원종 12년(1271년) 목성 축조 기록과 고려 충렬왕 26년(1300년) ‘涯月縣’ 설치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조선 숙종 28년(1702년) 이형상 목사가 제작한 『탐라순력도』 「애월조점」에는 포구 주변의 성곽과 주거지가 묘사되어 있다. 이를 통해 당시 마을은 포구를 중심으로 주거지가 밀집한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해안 접근성과 포구 중심 생활 구조가 마을 형성의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보여준다.

일제 강점기 동안 애월항이 발달하면서 마을의 경제 및 해양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1914년에는 면소재지가 신엄리에서 애월리로 이전되었다. 인구는 1904년 244명에서 1928년 1,303명으로 증가하였다. 2024년 말 기준 인구는 남성 1,193명, 여성 1,110명으로 총 2,303명이며, 1,186세대가 거주한다.

애월리의 주요 산업은 농업과 수산업이다. 농업 부문에서는 취나물, 양배추, 쪽파, 마늘, 양파 등 다양한 밭작물이 재배되며, 지역 경관과 농업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수산업 부문에서는 약 50여 척의 어선이 운영되며, 오징어, 갈치, 잡어 등을 어획한다. 또한 2019년 10월에는 애월항에 천연가스 기지가 완공되어 제주 전역에 천연가스를 공급함으로써 현대적 에너지 기반 시설로서 지역 산업과 생활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 2-2. 애월리 제보자

### 2-2-1.

#### 김경호, 남, 1933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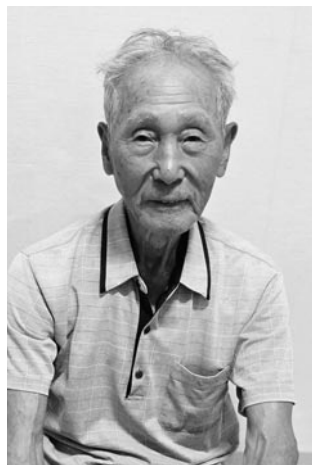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139-9

**제보일시:** 2025. 5.29.

**조사자:** 송정희, 임현정

김경호는 1933년 애월리에서 출생하였다. 조부가 귀덕에서 애월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애월리에 거주하고 있으며, 3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해상 지리에 정통한 어부로 옥돔, 고등어, 갈치가 주로 서식하는 장소를 잘 알아 고기 잡는 어획량이 많았다고 한다. 김경호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도와 농사를 지었으며, 중학교 졸업 후에는 양복점에서 재단 견습공으로 근무하였다. 이모의 학비 지원으로 사범학교(교원양성소)에 입학하여 학업을 이어갔다. 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교사로 근무하였다. 27세에 동갑인 정기생과 결혼하였고,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다.



## 제공 자료 목록

S\_20250529\_애월리\_김경호\_노젓는소리

S\_20250529\_애월리\_김경호\_유아케코유아케

### 2-2-2.

#### 정기생, 여, 1933년생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139-9

**제보일시:** 2025. 5.29.

**조사자:** 송정희, 임현정

정기생은 애월읍 신엄리에서 태어났으며 6남매 중 셋째이다. 농사와 물질을 하며 살아왔고 27세에 김경호와 결혼하였다. 정기생은 결혼 당시 신엄리에서 가마를 타고 시댁으로 가 혼례를 올렸으며,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다.

환갑을 맞은 이후 방앗간에서 손을 크게 다치는 사고로 인해 물질을 그만두었다. 정기생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기억을 최대한 되살리며, 한 소절이라도 더 제보하려고 노력하였다.



## 제공 자료 목록

S\_20250529\_애월리\_정기생\_검질메는소리

S\_20250529\_애월리\_정기생\_흔다리인다리

S\_20250529\_애월리\_정기생\_땃불릴때부르는소리  
 S\_20250529\_애월리\_정기생\_도깨질소리

### 2-2-3.

#### 김숙자, 여, 1939년생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13길 18

**제보일시:** 2025. 6.30. / 2025. 7.22.

**조사자:** 임현정

김숙자는 1939년에 광령2리 유신동에서 1남 4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23세에 봉성리 출신의 배우자와 결혼한 뒤 같은 해 12월 애월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결혼 이후에는 줄곧 보리, 조 등 농사를 지었고 한동안 장사 일을 병행하기도 했다. 민요는 광령리에서 성장하는 동안 부모에게 배우거나 일상적으로 들으며 자연스럽게 익혔다.



#### 제공 자료 목록

S\_20250630\_애월리\_김숙자\_사태소리  
 S\_20250630\_애월리\_김숙자\_보리타작할때노래  
 S\_20250630\_애월리\_김숙자\_ㄴ레ㄴ는소리

S\_20250630\_애월리\_김숙자\_땃불리는소리  
 S\_20250630\_애월리\_김숙자\_아기흥그는소리  
 S\_20250630\_애월리\_김숙자\_남방애소리  
 S\_20250630\_애월리\_김숙자\_낭개는소리  
 S\_20250630\_애월리\_김숙자\_달구소리  
 S\_20250630\_애월리\_김숙자\_주열재열  
 S\_20250630\_애월리\_김숙자\_도롱아도롱아  
 S\_20250630\_애월리\_김숙자\_뽕뽕장서방  
 S\_20250630\_애월리\_김숙자\_흔다리인다리  
 S\_20250722\_애월리\_김숙자\_땃불리는소리  
 S\_20250722\_애월리\_김숙자\_땃가는소리  
 S\_20250722\_애월리\_김숙자\_검질메는소리  
 S\_20250722\_애월리\_김숙자\_ㄴ레ㄴ는소리  
 S\_20250722\_애월리\_김숙자\_노들강변  
 S\_20250722\_애월리\_김숙자\_보리타작하는소리  
 S\_20250722\_애월리\_김숙자\_남방애소리  
 S\_20250722\_애월리\_김숙자\_물방애소리  
 S\_20250722\_애월리\_김숙자\_집줄놓는소리  
 S\_20250722\_애월리\_김숙자\_낭개는소리  
 S\_20250722\_애월리\_김숙자\_낭쑈는소리  
 S\_20250722\_애월리\_김숙자\_홍민수\_노들강변  
 S\_20250722\_애월리\_김숙자\_행상소리  
 S\_20250722\_애월리\_김숙자\_흔다리인다리  
 S\_20250722\_애월리\_김숙자\_달구소리  
 S\_20250722\_애월리\_김숙자\_주열재열

S\_20250722\_애월리\_김숙자\_왕이자랑

S\_20250722\_애월리\_김숙자\_도롱아도롱아

####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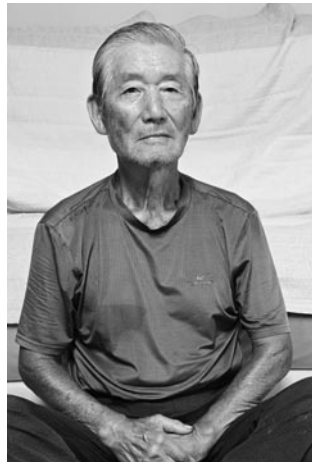
#### 김일수, 남, 1941년생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36-3

제보일시: 2025. 7. 2. / 9.25. / 9.30.

조사자: 임현정

김일수는 1941년 애월리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3남 1녀 중 셋째이다. 삼형제 모두 뱃일에 종사했다. 그는 초등학교 5~6학년 무렵부터 뱃일을 돕기 시작하여 중학교 시절에는 능숙하게 일을 해냈다. 성인이 된 후에는 농사를 지으며 뱃일을 병행했다. 이후 세탁소 운영, 양계장 관리 등 다양한 일을 했으며, 35세부터는 어업에 집중해 지금까지 50년 넘게 바다에서 일하고 있다. 김일수는 한때 애월리 어민회장을 맡아 지역 어업에 기여한 바 있다.



#### 제공자료 목록

S\_20250702\_애월리\_김일수\_노젓는소리

S\_20250930\_애월리\_김일수\_조팻블리는소리

S\_20250930\_애월리\_김일수\_멜후리는소리

S\_20250930\_애월리\_김일수\_노젓는소리

S\_20250930\_애월리\_김일수\_아기즙 재우는소리

S\_20250930\_애월리\_김일수\_상여소리

#### 2-2-5.

#### 홍민수, 여, 1939년생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애월로 13길 30

제보일시: 2025. 7.22. / 8.28.

조사자: 임현정

홍민수는 1939년에 고내리에서 3남 3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14세까지 물질을 하며 지냈고, 15세에는 조·보리 밭에서 검질을 매는 등 농사일을 주로 맡았다. 16세에는 천안으로 올라가 광목을 짜는 일을 시작했으며, 약 1년간 경력을 쌓은 뒤 안양의 공장으로 이직해 광목 짜기와 실뿔기 일을 했다.

24세에 제주로 돌아온 뒤 다시 물질을 시작했고, 이후 애월리 출신 남성과 중매로 결혼해 3남 3녀를 두었다. 결혼 후에는 농사와 물질을 병행하며 살았으며, 79세에 해녀 활동을 마무리했다. 어머니와 언니 역시 해녀였으며, 물질





은 어린 시절 고내 성담과 배가 드나드는 곳에서 헤엄치고 놀며 자연스럽게 익혔다. 애월리 동하동 해녀 반장을 맡아 활동하기도 했다.

#### 제공자료 목록

S\_20250722\_애월리\_홍민수\_뱃가는소리  
S\_20250722\_애월리\_홍민수\_물에드는소리  
S\_20250722\_애월리\_홍민수\_해녀소리  
S\_20250722\_애월리\_홍민수\_아기흥그는소리  
S\_20250722\_애월리\_홍민수\_집줄놓는소리  
S\_20250722\_애월리\_홍민수\_행상소리  
S\_20250722\_애월리\_홍민수\_해녀노래  
S\_20250828\_애월리\_홍민수\_노젓는소리  
S\_20250828\_애월리\_홍민수\_이어도사나  
S\_20250828\_애월리\_홍민수\_뱃불리는소리  
S\_20250828\_애월리\_홍민수\_ㄱ레ㄴ는소리  
S\_20250828\_애월리\_홍민수\_검질메는소리  
S\_20250828\_애월리\_홍민수\_뱃노래

#### 2-2-6.

#### 양재선, 여, 1942년생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4길 17

제보일시: 2025. 8.28. / 9.25.

조사자: 임현정

양재선은 1942년에 애월리에서 3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조·보리·콩·깨·면화 농사일을 하며 성장했다. 애월리 출신 남성과 결혼해 1남 1녀를 두었다.



물질은 어린 시절 한담에서 돌을 물 속에 숨겨 찾아오는 ‘보물찾기’ 같은 놀이를 하며 자연스럽게 익혔다. 한담 물이 좋아 물질이나 물놀이 후에는 ‘용드랑물’, ‘엉덩물’, ‘방엿통물’, ‘고망물’, ‘큰물’, ‘빌렛물’, ‘월착’ 등지에서 몸을 씻곤 했다.

14세부터 본격적으로 해녀 일을 시작해 스무 살 무렵에는 상군해녀가 되었으며, 한동안 전라남도도 출가 물질을 나가기도 했다. 2025년 초 해녀 활동을 마무리했다.

양재선은 평생 반농반어의 삶을 살았으며, 초기에는 조·보리·콩 등을 재배하다가 이후 양배추, 마늘, 취나물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했다.

#### 제공 자료 목록

S\_20250828\_애월리\_양재선\_흔다리인다리  
S\_20250828\_애월리\_양재선\_핑핑장서방  
S\_20250828\_애월리\_양재선\_이어도사나  
S\_20250828\_애월리\_양재선\_검질메는소리  
S\_20250828\_애월리\_양재선\_뱃불리는소리  
S\_20250828\_애월리\_양재선\_부경애\_왕이자랑  
S\_20250925\_애월리\_양재선\_ㄱ레ㄴ는소리

S\_20250925\_애월리\_양재선\_땃불리는소리

S\_20250925\_애월리\_양재선\_검질메는소리

S\_20250925\_애월리\_양재선\_노젓는소리

S\_20250925\_애월리\_양재선\_해녀노래

## 2-2-7.

### 부경애, 여, 1958년생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15길 3

제보일시: 2025. 8.28. / 9.25.

조사자: 임현정

부경애는 1958년에 평대리에서 3남 7녀 중 아홉째 딸로 태어났다. 10대 시절 부산에서 일을 하였으며, 2003년에 애월로 이주하였다. 현재 애월리 해녀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상군해녀이다. 물질 경력은 약 40년에 이른다.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 제공 자료 목록

S\_20250828\_애월리\_부경애 양재선\_왕이자랑

S\_20250828\_애월리\_부경애 양재선\_이어도사나

S\_20250828\_애월리\_부경애\_이어도사나

## 2-3. 애월리 노동요

노동요는 노동이 수반된 민요로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

### 노젓는소리1

- 어업요-노 젓는 소리: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며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5. 29.

조사자: 송정희, 임현정

제보자: 김경호, 남, 1933년생

구연 상황: 김경호는 아버지가 어부였다고 언급하였고, 이에 조사자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노를 저으며 부르던 소리를 기억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는 두 손으로 노 젓는 동작을 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어부들이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노를 저으면서 노래를 부르다고 설명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529\_애월리\_김경호\_노젓는소리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우리 배 잘도 간다   이어도 사나

### 검질메는소리1

- 농업요-검매는 소리: 김매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5. 29.

**조사자:** 송정희, 임현정

**제보자:** 정기생, 여, 1933년생

**구연 상황:** 남편 김경호가 제보자에게 “검질 메는 노래를 불러보라.”고 권유하였고, 조사자 역시 구연을 요청하였다. 제보자는 잠시 망설인 뒤 ‘검질 메는 소리’의 가사를 읊기 시작했으나, 가사가 기억나지 않아 곧 멈추었다.

조사자는 기억을 돕고자 ‘흔다리 인다리’와 같이 비교적 쉽게 떠올릴 만한 어릴 적 노래를 요청하며 옛이야기를 나누었다. 조사자와 김경호가 어린 시절 놀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옆에서 계속 기억을 더듬고 있던 제보자는 갑자기 ‘검질 메는 소리’가 떠오른 듯 구연하였으나 곧 멈췄다.

이때 조사자가 ‘앞મે랑 들어’라고 선창하자, 제보자는 자연스럽게 노래를 이어 부르기 시작했으나 또다시 멈추었다. 이후 조사자가 다시 한번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제보자는 ‘검질메는 소리’를 이어 부르고 사람마다 부르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529\_애월리\_정기생\_검질메는소리

앞મે랑 들어나오라  
뒷મે랑 무너나가라 물러나사라  
아이 요 놈으 검질은 멍 놔두믄

우리 엄니 나 날 적에  
요 검질메렌 날 낫던가

(조사자가 ‘앞મે랑 들어’라고 선창하자)

들어나 오라

뒷મે랑 물러나 가라.

흔저흔저 부지런히 메라.

이놈이 아기덜아.

앞મે랑 들어나 오라

뒷મે랑 무너나 사라

요놈의 아기덜

부지런히 흔저 메라

이 검질 메어사

농스될 거 아니가

## 밧블릴때부르는소리

- 농업요- 밧 밟는 소리: 주로 조농사를 할 때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밧을 밟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5. 29.

**조사자:** 송정희, 임현정

**제보자:** 정기생, 여, 1933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밧 블릴 때 부르는 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니 구연하였다. 한편, 김경호는 조 파종 시기와 당시의 노동 환경을 설명하였다. 조 파종은 6월 초순 경에 이루어졌으며, 작업은 무더운 날 씨 속에서 진행되었다. 조는 파종 후 그대로 둘 경우 말라 죽기 쉽

기 때문에, 뿌리가 흙에 자리를 잘 잡도록 밭을 밟아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파종 작업에서는 김경호의 조모가 선창하면 뒤따르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복창하는 방식으로 노래가 이어졌으며, 여름철 농사일의 지루함을 덜기 위해 노동 중에 자연스럽게 노래를 만들어 불렀다고 한다.

**자료 코드:** S\_20250529\_애월리\_정기생\_밭볼릴때부르는소리

어러러러 돌돌 요놈이 망아지덜 부지런히 걸으라  
 담구석마다 돌라진 디 엇이<sup>73)</sup>, 즈근즈근 잘 불라야  
 씨 잘 남은에<sup>74)</sup> 농스 된다 빨리빨리 걸으라 해가 다 넘어감저.  
 부지런히 걸으라 혼저 어러러러러러 돌돌  
 이놈으 망아지덜아 노픈 디만 좇이멍<sup>75)</sup>  
 박 난 디 엇이 잘 불라줘야 씨 잘 난다

허랑 가랑 돌돌돌 이놈의 망아지덜아 빨리 걸으라  
 노픈 디만 좇이멍 잘 즈근즈근 불라사 씨 잘 난다  
 담 구석 구석 구석 좇이멍 잘 불라주라  
 해가 넘어감시난 부지런히 빨리빨리 걸으라  
 이놈으 망아지덜아 어러러러러 돌돌  
 어러러러 어러러 어러러

73) 돌라진 디 엇이: 빠진 곳 없이.

74) 잘 남은에: 잘 나와서.

75) 좇이멍: 찾으면서.

## 도깨질소리

- 농업요-마당질소리: 밭 구석이나 마당에서 도리깨를 이용하여 곡식을 타작할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5. 29.

**조사자:** 송정희, 임현정

**제보자:** 정기생, 여, 1933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는 마당질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이에 조사자는 마당질할 때 하는 소리를 기억하는지 질문하고 ‘이어도 흥아’하고 선창하며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왔다. 제보자는 마당질하는 동작을 하면서 ‘이어도 흥아’하고 한마디하고는 못하겠다고 하였다. 조사자가 다시 ‘뜨리라, 뜨리라’하고 선창하니깐 제보자가 자연스럽게 이어서 불렀다.

정기생은 4·3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마당에서도 마당질을 하였다고 회상하였다. 그 당시 자식들에게 명석을 만들어주었으며, 명석에 보리를 넣고 마당질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529\_애월리\_정기생\_도깨질소리

ㄱ리라<sup>76)</sup> 올로<sup>77)</sup> ㄱ리라  
 절로 들어사멍 ㄱ리라  
 들어상 불르라 아!  
 들어상 두드리라 절로

76) ㄱ리라: 갈기라.

77) 올로: 여기로.

저거 둘라젓저<sup>78)</sup> 저레<sup>79)</sup>

두드리라 이레 두드리라

## 사데소리

- 농업요-김매는 소리: 김매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6. 30.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김숙자, 여, 1939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보리와 조농사를 지을 때 부르는 소리를 요청하자 제보자는 어릴 때 아버지가 노래를 잘하셔서 가르쳐 주었지만 애월로 이사 온 이후에는 부를 일이 없어 잊어버렸다고 했다. 제보자는 어머니가 부른 노래를 들은 것이라고 하면서 김매는 소리를 구연하였다. 구연 후에는 ‘농사도 잘되라’라는 노랫말도 있다고 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소리는 상황에 따라 노랫말을 붙여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630\_애월리\_김숙자\_사데소리

이여니여 사데로고나

앞명에랑 들어오라

뒷명에랑 물러나라

---

78) 둘라젓저: 빠트렸다.

79) 저레: 저리.

이여니여 사데로고나

(이 겹, 아니, 겹질이랑 어떻 메곡, 허여.(이 겹, 아니, 김이랑 어떻게 매고, 한다.))

앞명에랑 들어오라

뒷명에랑 물러나라

이여니여 사데로고나

어야 어야

어이야디어여라

## 보리타작할때노래

- 농업요-마당질소리: 밭 구석이나 마당에서 도리깨를 이용하여 곡식을 타작할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6. 30.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김숙자, 여, 1939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마당질할 때 부르는 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니 구연하였다. 조사자가 여러 사람이 부르는지 묻자, 여러 사람이 서서 함께 부르는 소리라고 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630\_애월리\_김숙자\_보리타작할때노래

어야동 흥에야 어야동 흥에야 (응)



도깨 아들 두 개 떼려 놓고 어야동 흥에야

어야동 흥에야 어야동 어야동

어야동 흥에야 (허믄, 또 그쪽에서)

어야동 흥에야

## ㄱ레 ㄱ는소리1

- 제분요-맷돌질소리: 맷돌에 곡식을 넣고 갈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6. 30.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김숙자, 여, 1939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가 맷돌을 돌리면서 부르는 소리가 있다고 설명하자 조사자는 기억나는 만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제보자는 예전에는 방아로 곡식을 찧은 뒤 다시 맷돌에 갈아 먹었다고 설명하고 노래를 구연하였다. 구연을 마친 그는 어머니가 이 노래를 부르던 모습이 멋있었다고 회상하며, ‘ㄱ레 ㄱ는 소리’의 모든 노랫말을 기억하지 못해 아쉬움을 표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630\_애월리\_김숙자\_ㄱ레 ㄱ는소리

이여니여 ㄱ레로고나

얼른얼른 삭삭 굴아지라

이여니여 ㄱ레로구나

## 밧블리는소리1

- 농업요-밧 밟는 소리: 주로 조농사를 할 때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밧을 밟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6. 30.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김숙자, 여, 1939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밧 블 리는 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니 구연하였다. 조사자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는 어린 시절 어른들이 일하며 부르던 소리를 들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보였다. 밧을 밟을 때 뒷사람이 재빨리 걷지 않으면 “꽤키어 (꽤버린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자료 코드:** S\_20250630\_애월리\_김숙자\_밧블 리는소리

어려려러 워량 하량 돌돌 걸으라

이 므쉬야 덜렁 덜렁 걸으라

아 빨리빨리 걸으라

어러러 돌돌

덜렁덜렁 걸엉 빨리빨리 불러져야 저 곡석이 졸 거<sup>80)</sup> 아니냐

(소를 탁 때려서 돌아갈 때 부른다고 설명한 후)

---

80) 졸 가: 좋을 거.

빨리 빨리 걸으라  
 어러러 돌돌돌  
 (돌릴 때) 위랑하랑 돌돌돌 (허영은에.(하면서))  
 어러러 돌돌돌 이 ㅁ쉬들아 덜렁덜렁  
 빨리 재게재게 걸으라 재게재게 걸으라  
 빨리빨리 덜렁덜렁 걸으라 아니 걸으민 회초리로 확확 때리마  
 회초리로 와삭와삭 때리마  
 덜렁덜렁 걸으라 이 ㅁ쉬들아 어러러 돌돌  
 덜렁덜렁 얼른얼른 걸으라 경 안 흐믄 회초리로 와삭와삭 패키어  
 회초리로 패키어 확확 때리켜

## 남방에소리1

- 제분요-방아질소리: 방아에 곡식을 넣고 찢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6. 30.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김숙자, 여, 1939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방엿돌 굴리는 소리’와 ‘집줄 놓는 소리’를 아는지 묻자, 김숙자는 ‘남방에소리’를 안다고 답하고 조사자의 요청으로 구연하였다. 구연 중에는 “둘이 서이 통당통당 짝어.(둘이 셋이 통당통당 찢어.)”라고 설명하였다. 방아를 찢다가 곡식이 부서져 가루가 되면 떡을 해서 먹었다고 덧붙였다. 셋이 함께 방아를 찢으면 재미있었다고 회상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630\_애월리\_김숙자\_남방에소리

콩당콩당 잘도 짝어라<sup>81)</sup>

통당통당 잘도 짝어라  
 흔저 짝엉 밥 아 떡 헤영 먹게  
 통당통당 덜덜 짝어라  
 통당통당 방에야  
 어서어서 짝어저라  
 떡 헤영 먹게  
 풍당풍당 짝어저라

풍당풍당 잘도 짝나  
 풍당풍당 잘도 짝나  
 어서어서 풍당풍당 짝어지라  
 떡 헤영 먹게

## 낭개는소리1

- 임업요-나무 쪼개는 소리: 도끼를 이용하여 나무를 쪼갤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6. 30.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김숙자, 여, 1939년생

---

81) 짝어라: 찢어라.

**구연 상황:** 조사자가 ‘낭 깨는 소리’를 아는지 묻자, ‘낭 깨는 소리’는 남자가 하는 소리라고 설명하고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630\_애월리\_김숙자\_낭깨는소리

탁 도끼로 찍으른 잘도 벌러진다  
탕 찍엉 잘도 깨어진다

## 노젓는소리2

- 어업요-노 젓는 소리: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2.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김일수, 남, 1941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는 소리를 연이어 하지 않고 가사를 한두 소절 말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그리고 다시 노래로 부르는 듯하다 다시 말로 설명하였다. 제보자는 노를 저을 때 만드시 타령하는 소리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바람이 불 때는 배가 쉽게 나아가지만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힘겨워 힘을 보태기 위해 소리를 한다고 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702\_애월리\_김일수\_노젓는소리

우리 배는 잘도 간다  
이어도 사나 이어도사나  
우리 어머니 날 나올 때

어떤 날에 나가지고  
나를 배를 하게 허는고

이어도 사나 어기여차  
어기여차(허믄) (또) 어기여차  
우리 배는 잘도 간다  
이어도사나 어으흥  
이어도사나 어으흥  
어기여차 이어도사나 어으흥  
(뒷사람이) 어기여차(하면) (거기서도) 어기여차(허곡)  
우리배는 잘도 간다 (허믄(하면))  
우리배는 잘도 간다 (뒀)  
이어도사나 어으흥 (허영이네(하면서))  
이어도사나 (하면은 앞에 사람도) 이어도 사나  
우리배는 잘도 간다(허믄(하면))  
우리배는 잘도 간다

## 밧불리는소리2

- 농업요-밧 밟는 소리: 주로 조농사를 할 때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밧을 밟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22.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김숙자, 여, 1939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는 조사자의 요청에 따라 ‘뭇 불리는 소리’를 구연하였다.  
다. 제보자는 6월에 조밭을 밟을 때 부친이 이 소리를 하곤 했다고 회상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722\_애월리\_김숙자\_뭇 불리는소리

어려려 돌돌 어랑하랑 돌돌  
이 모쉬덜아 돌랑돌랑 걸으라  
흔저 재게 불령 꽃네우게 어러려 돌돌  
이 쉼덜아 이 몰덜아 덜렁덜렁 어서 걸으라  
어러려 돌돌 어러러려  
어랑하랑 돌돌 이 모쉬덜아 돌랑돌랑 어서 걸으라  
흔저 재게 더운디 불려근에 꽃넵게  
어러려 돌돌

어러려돌돌 이모쉬덜아 돌랑돌랑 걸으라  
흔저 재게 불려지게 어러러려 돌돌  
어랑 하랑 돌돌 흔저 재게 불라사  
얼른얼른 불려질 거 아니가  
어러려 돌돌

## 뭇가는소리1

- 농업요-뭇 가는 소리: 소나 말에 쟁기를 매여 밟을 갈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김숙자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22.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홍민수, 여, 1939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는 김숙자의 집에 마실을 왔다가 우연히 조사에 함께 하게 되었다. 조사자가 김숙자에게 ‘뭇 가는 소리’도 했는지 묻는 것을 지켜보던 홍민수는 손에 무언가를 권 듯 주먹을 쥐고 소를 치는 동작을 하며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722\_애월리\_홍민수\_뭇가는소리

어랏 어시식식식식

## 뭇가는소리2

- 농업요-뭇 가는 소리: 소나 말에 쟁기를 매여 밟을 갈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22.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김숙자, 여, 1939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농사 작업의 순서에 따라 노래해 달라고 요청하자, 제보자는 남자가 소를 몰아 밟 가는 과정까지 필요하냐고 물었다. 조사자가 그렇다고 답하자, 그렇다면 밟 가는 것부터 해야 한다며 구연하였다. 제보자는 소를 채찍으로 치며 작업한다고 설명하였고, 구연 중 “어시키, 어시키”라고 외치며 오른손으로 짧게 두 번, 이어 “어시키”라고 하며 왼손으로 한 번 치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보였다.

조사자가 설명을 생략하고 소리만 들려 달라고 하자, 제보자는

두 손을 번갈아 사용해 소를 치는 동작을 하며 구연하였다. 이때 홍민수는 도입부에서 “흔저 걸으라.”라고 말하며 함께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722\_애월리\_김숙자\_밧가는소리

어시키

어라 식식 흔저 재게 걸으랑

얼른 얼른 갈아사 조 불리곡 혈 건디

이 췌야 어서 걸으랑 어시키 어시키 어시키 어시키

어러식식 헛

(흔저 걸으라.(어서 걸어라.))

어러식식 어서 걸으라 어 식식 이 췌야 얼른 걸으라 석석

## 검질메는소리2

- 농업요-검매는 소리: 김멜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22.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김숙자, 여, 1939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는 이제 밭을 갈고 밭아 조가 났으니 김을 매야 한다면, 농사 순서에 따라 구연을 이어갔다. 구연하며 양손을 앞뒤로 움직

이며 김을 매는 동작을 함께 보였다. 그는 ‘검질메는 소리’를 잊었다며 한차례 중단하였다가 다시 이어 불렀다.

홍민수는 ‘검질메는 소리’에 대해, 여럿이 함께 밭에서 김멜 때 부르는 소리로 노랫말이 길지 않으며 같은 내용을 반복해 부르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722\_애월리\_김숙자\_검질메는소리

이여이여 사대로고나

얼른 재게 박박 메영

앞명에랑 들어오곡

뒷명에랑 물러가라

이여이여 사대로고나

박박 흔저 메영

앞명에랑 들어오곡

뒷명에랑 물러나라

## 그레그는소리2

- 제분요-멧돌질소리: 멧돌에 곡식을 넣고 갈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22.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김숙자, 여, 1939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는 멧돌을 갈 때 한쪽 팔이 아프면 다른 팔로 바꿔 가며



노래를 부른다고 설명하면서, 왼팔과 오른팔을 번갈아 힘차게 돌리는 동작을 보여주었다. 구연할 때에도 두 팔을 번갈아 돌려 맷돌을 가는 동작을 함께 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722\_애월리\_김숙자\_ㄹ레ㄹ는소리

이여니여 ㄹ레로구나  
 이여니여 보리쫄 재게 ㄹ라지라  
 이여니여 ㄹ레로구나  
 삭삭 돌령 빨리 재게  
 삭삭 돌령 재게 고라사  
 밥해영 먹을거 아니가

## 물에드는소리

- 어업요-해녀노래: 해녀들이 물질 장소로 걸어가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22.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홍민수, 여, 1939년생 / 김숙자, 여, 1939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여러 차례 ‘물에 드는 소리’를 요청하자, 제보자 홍민수는 자신은 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이에 제보자 김숙자는 ‘물에 드는 소리’가 처음 어떻게 시작되는지 물으며 제보자 홍민수가 구연하도록 권유하였다. 제보자 홍민수가 두 손을 내밀어 노 젓는 동작을 하며 “이어도사나”로 시작하자, 제보자 김숙자는 그를 바라보

며 노 젓는 동작을 함께 하며 받는 소리를 했고, 제보자 홍민수는 자연스럽게 이어서 구연하였다.

제보자는 자신이 ‘졸갱이(초보) 해녀’였으며, ‘큰줌녀(실력이 최고로 좋은 해녀)’를 따라 먼바다에 갈 때 이 소리를 불렀다고 설명하였다. 구연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노를 젓는 동작을 함께하였다. 그는 ‘큰줌녀’들이 한번 큰 숨을 들이마시고 바다로 들어가지만, 어린 해녀는 깊은 바다에 들어가지 못해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날 낳았는가.” 하고 한탄하곤 했다고 설명하였다. 제보자는 말하듯이 소리를 구연하며, 어릴 적 울면서 일을 했다고 회상하였다. 제보자는 ‘해녀소리’는 따로 배운 것이 아니라 다른 해녀들이 부르는 것을 보고 익혔다고 설명하였다. 제보자는 ‘큰줌녀’가 물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따라 다녔다고 덧붙였다.

**자료 코드:** S\_20250722\_애월리\_홍민수\_물에드는소리

**자료 코드:** S\_20250722\_애월리\_홍민수\_해녀소리

(홍민수)	(김숙자)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우리배는	
잘도간다	간다
이어도사나	사나 이어도사나
우리 배는	
마치와근에	
흔저 글라	
우리 배는	

떨어점저  
 흔저 글라            이어도사나  
 우리 어머니  
 날 날 적에  
 이런 거를  
 베와 노와  
 허도 못히고  
 헉는 책은  
 따라 감만<sup>82)</sup>  
 허염수다  
 흔저 글라  
 흔저 글라  
 (아이고 재게 글라 다왓저.)  
 이여샤 이여샤  
  
 어여샤 어여샤  
 흔저 글라  
 저 할망덜  
 가기 전에  
 이여샤 이여싸샤

---

82) 감만: 가는 것만.

흔저 글라  
 우리 어머니  
 날 날 적에  
 무슨 날 (그거 깬 허여저.(그거까진 할 수 있어.))  
 무슨 날에  
 날 나근에  
 한강 바당에  
 오렌도  
 (크게 불러.)  
 쫓아 뎡기멍  
 헉엿자  
 물에도 못 들고  
 들어가믄  
 숨 쫓르고  
 저 할망들 7치  
 헉도 못히는디  
 이디 쫓아완  
 난 그냥 갈로구나  
 (우리 어머니 무슨 날에 날 낭 이 바당에 날 드리청 이거 허렌  
 험신고.(우리 어머니 무슨 날에 날 낳아 이 바다에 날 드리쳐서 이거 하라고 하는가.))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크게 불러)  
 우리 배는 잘도 간다  
 이여샤 이여샤  
 앞이 가는 저 배 마추왕

저 배 미청<sup>83)</sup> 꺾치 가게

이여샤 이여샤

(어디로 가지 마랑 일로만 곧작 ‘저 할망 쫓아가게이 하믄.’  
‘예.’ 혼저 불러 나 불리지크냐게 목아지도 아프고.(어디로 가지 말  
고 이쪽으로만 곧게 저 할머니 쫓아가자. 하면. 예. 어저 불러 나 부를 수 있겠어. 목도 아  
프고.))

이어샤 혼저 글라

우리 배는 혼저 글라

저 배 마주왕

저 배 따랑 혼저 글라

이어샤 이어샤

우리 배는 잘도 간다

허영 글라

(허영 글라 허믄 이디 사름 ‘허여게. 혼저게 불러게. 아이 성님  
만이 못 불러. 못 불러도 저 배 미쳐사 갈 거 아니.’(하면서 가자 하  
면 여기 사름 ‘해라. 어서 불러라. 아니 형님만큼 못 불러. 못 불러도 저 배 이르러야 갈  
거 아니.’))

## 보리타작하는소리

- 농업요-마당질소리: 밭 구석이나 마당에서 도리깨를 이용하여 곡식을 타작할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

83) 미청: 이르러서.

조사 일시: 2025. 7. 22.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김숙자, 여, 1939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는 조사자가 ‘남방에 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니, ‘남  
방에 소리’를 하기 전에 ‘보리타작 하는 소리’를 먼저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722\_애월리\_김숙자\_보리타작하는소리

허야도 흥에야

이 도깨야 세게 두드리라

재게 부서지게

허야도 흥

허야도 흥에야

이 도깨야 도깨 아덜 맛앙

어서 보리대加里 부서지라

허야도 흥 허야도 흥

## 남방에소리2

- 제분요-방아질소리: 방아에 곡식을 넣고 찼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22.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김숙자, 여, 1939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는 타작한 곡식으로 떡을 할 순서이므로 이제 ‘남방에

소리'를 해야 한다면, 스스로 순서를 정해 구연하였다. 그는 등굣이를 잡고 바닥에 찢는 동작을 하며 구연하였다. 세 사람이 함께 방아를 찢으면서 부른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두 번째 구연에서는 '모듬이떡'을 해 먹기 위해 좁쌀을 물에 담갔다가 방아를 찢었다고 설명한 뒤, 다시 등굣이로 바닥을 찢는 동작을 하며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722\_애월리\_김숙자\_남방에소리

흔저 남방에덜 찢으라  
꺾레 부서정  
으야니야 으야  
이여니여 남방에야  
어서 찢어지라  
떡해영 먹게  
떡은 돌레떡 만들영 먹곡  
돌레떡 만들영 먹게  
찢어지라  
오메기떡 해영 먹키어  
얼릉얼릉 부서지라  
오메기떡 해영 숯앙 먹게 툽

## 물 방에소리

- 제분요-연자방아소리: 소나 말을 이용하여 연자방아를 돌리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22.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김숙자, 여, 1939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말방에소리'를 아는지 묻자, 제보자 김숙자는 연자방아에 소를 매어 두고 한 사람은 빗질을 하고 한 사람은 소를 때리며 작업한다고 설명한 뒤 구연하였다. 제보자는 조사자를 '소'에 비유해 재연 동작을 하였고, 제보자 홍민수는 조사자를 가리키며 "이건 쉼라.(이것이 소야.)"라고 말하고, 제보자 김숙자는 자연스럽게 소를 모는 동작을 하며 구연하였다. 제보자 김숙자는 비를 사용한다고 동작과 함께 설명하였고, 어릴 적 집 앞에 방아가 있었다고 회상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722\_애월리\_김숙자\_물방에소리

어 걸으라 얼른 지어지게  
헛 쫑쫑쫑쫑 허시키 쫑쫑쫑쫑 흔저  
헛 시키 쫑쫑쫑쫑 걸어 허  
어식식 헛 재게 걸으라 얼른 지어지게

## 집줄농는소리

- 기타노동요-줄 꼬는 소리: 짚을 꼬아 줄을 만들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22.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김숙자, 여, 1939년생 / 홍민수, 여, 1939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이 마을에 ‘집줄 놓는 소리’가 있는지 묻자, 제보자  
홍민수는 ‘집줄’을 놓는 법은 알지만 노래는 모른다고 답하였다. 제  
보자 김숙자는 노래가 있다며 두 손으로 ‘집줄’을 놓는 동작을 보여  
주며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722\_애월리\_김숙자\_집줄놓는소리

**자료 코드:** S\_20250722\_애월리\_홍민수\_집줄놓는소리

(김숙자)

흔저 박박 둘러라

재게 (가게) 나가게

(줄을 가정 가른 난 여기서 놓든(줄을 가지고 가면 난 여기서 놓으면))

빨리 빨리 둘러라

흔저 삭삭 놓게

흔저 비라 삭삭 물러사라

얼른 얼른 물러사라

(는 영영 비어 가고 난 줄 놓고(너는 이렇게 이렇게 부벼 가고 난 줄 놓고))

얼른 재게 얼른 얼른

(게난 느가 뒤걸음을 행 가는 거라.(그러니깐 너가 뒷걸음을 해서 가는 거  
야.))

얼른 얼른 물러사라

얼른 삭삭 비어지게

(홍민수)

흔저 비라게 흔저 재게 나글라 재게 나글라 이디 어울려 완저

재게 글라 재게 글라게

## 낭개는소리2

- 임업요-나무 쪼개는 소리: 도끼를 이용하여 나무를 쪼갤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22.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김숙자, 여, 1939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낭 개는 소리’를 아느냐고 묻자, 제보자는 등긱이로  
도끼질하는 동작을 하면서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722\_애월리\_김숙자\_낭개는소리

벌어지라 벌어지라

지들낭 깨어져사 불 땔 거 아니가

깨어지라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지들낭 깨어사 불 땔 거 아니가

허이 도끼야

이 도끼야 찍어지라

어따 도끼도 잘 찍어점저

## 낭썩는소리

- 임업요-대톱질소리: 대톱을 이용하여 나무를 켜고 오릴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22.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김숙자, 여, 1939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나무 관련 노래를 기억하는지 묻자, 제보자 김숙자가 선풍기 기둥을 나무 기둥에 비유하고 등굣길을 툇치럼 사용해 나무를 자르는 시늉을 하며 구연하였다. 구연 중 홍민수가 추임새를 넣었다. 김숙자는 ‘썩지라’가 나무를 ‘자른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고 조사자가 다시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한 차례 더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722\_애월리\_김숙자\_낭썩는소리

얼른 얼른 썩지라 (헝여지라.(해라))

얼른 얼른 썩지라 이 낭아

실강 실강 썩지라

얼른 얼른 썩지라

얼른 얼른 썩지라

얼른 드리눅정<sup>84)</sup>

가지치기 허키여

---

84) 드리눅정: 드리눅혀서.

## 해녀노래1

- 어업요-노 젓는 소리: 해녀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저을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22.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홍민수, 여, 1939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해녀 노래를 한 번 더 요청하자, 홍민수가 구연하였다. 구연을 마친 후, 노랫말에 관탈섬이 나오자 주변 사람들이 그 섬까지 물질하러 갔는지 물었다. 이에 홍숙자는 관탈섬은 매우 깊어 실력이 아주 뛰어난 해녀들 물질하는 것을 구경하러 갔는데 바다가 너무 깊어 바닥까지는 반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회상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722\_애월리\_홍민수\_해녀노래

이에도사나 이에도사나

우리 배는 잘도 간다

이어사나 이에도사나

우리 배는 가쟁 허믄

언제 갈 것과 이어사나

이에도 사나

흔저 글라<sup>85)</sup>

저 배 마칭 가사 흔디 오느니

흔저 글라

---

85) 흔저 글라: 어서 가자.



우리 어머니 날 날 적에  
무슨 날에 날 나서  
언제든지 물에 들레만 가렌 허곡  
어떻허른 살코게<sup>86)</sup>  
(‘느네들 굴아보라 굴아지크냐. 언니 굴아. 나도 못허여.’ 경 행  
설리나서(‘너네들 말해봐라 말할 수 있겠냐. 언니 말해봐. 나도 못하겠어.’ 그렇게 해  
서 끝냈어.))

흔저 글라 관탈<sup>87)</sup>지  
가젠 허른 언제 가니  
저 할망덜 미쳐사<sup>87)</sup>  
저 바당 강 메역 꼴렁이라도 보양 올 거 아니가  
이어싸나 잘도 간다 우리 배는  
할망네 배보다는 우리 배가 잘도 감저  
관탈 다 왓저 내릴 준비허라 흔저

## 이어도사나1

- 어업요-노 젓는 소리: 해녀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저을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양재선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8. 28.

---

86) 살코게: 살겠니.

87) 미쳐사: 이르러야.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부경애, 여, 1958년생 / 양재선, 여, 1942년생

**구연 상황:** 부경애가 스스로 구연하였다. 양재선은 ‘백말여’는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멀다고 설명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828\_애월리\_부경애 양재선\_이어도사나

(부경애)

이어도사나 아아  
이어도싸나 아아  
이 놀<sup>88)</sup> 젓엉  
어딜 가리  
이어도싸나 이어도싸나  
우리 엄마 나 날 적에

(양재선)

해도 달도  
없는 날에  
나를 낳나  
이어짜  
한질 두질 내려가니  
요게 정말 저싱길이로구나  
한 착 손에 비창 들고

(부경애)

무슨 날에  
날 낳던고  
이어도사나  
이어짜

---

88) 이 놀: 이 노를.

한 착 손에 호미 들고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용궁 요왕 할머니  
 메역 좋은 여 곳트로<sup>89)</sup>  
 득라다 줍서  
 전복 한 딜로<sup>90)</sup> 데려다 줍서 이어도 사나  
 우리 어멍 날 날적에  
 무슨 날에 날 나시고 이어짜  
 우리 어멍 날 날적에  
 해도 달도 없는 날에 나를 낳나  
 요 물질 시길라고 나를 낳나

## 이어도사나2

- 어업요-노 젓는 소리: 해녀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저을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양재선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8. 28.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부경애, 여, 1958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 양재선 일행이 ‘이어도사나’하고 선창하자 제보자 부경애가 구연하였다. 요즘은 안 불러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89) 여 곳트로: 여 끝으로.

90) 전복 한 딜로: 전복 많은 곳으로.

**자료 코드:** S\_20250828\_애월리\_부경애\_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우리 어멍 날 날적에  
 무슨 날에 날 낳던고  
 이어짜 이어도 사나  
 요 노 젓엉 어딜 가리  
 이어짜나 이어도짜

## 이어도사나3

- 어업요-노 젓는 소리: 해녀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저을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양재선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8. 28.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양재선, 여, 1942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해녀노래’를 다시 한번 더 불러달라고 요청하니 제보자 양재선이 구연하였다. 제보자 부경애는 음표도 없고 음정도 없이 뉘두리로 부르는 것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부르고 목청이 좋은 사람은 구슬프게 잘 부른다고 설명하였다. 조사자가 이 노래 제목이 ‘해녀노래’냐고 묻자, ‘해녀노래’는 다른 것이고 ‘이어도사나’라고 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828\_애월리\_양재선\_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우리 어멍 날 날적에  
 무슨 날을 나를 나서  
 해도 달도 없는 날에  
 나를 낳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용궁 요왕 할마니  
 메역 좋은 여 곳트로  
 가게 허여 줍서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용궁요왕 할마니  
 전복 붙은 여 곳데리  
 가게 허여 줍서  
 이어~

용궁 요왕님  
 메역 좋은  
 메역 좋은 여 곳으로  
 데려다 줍서  
 용궁 요왕 할마니  
 전복 하영 부튼 여로  
 데려다 줍서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한 착 손에 비창 들고  
 한 착 손에 호미 들고  
 이어도사나 이어도사

한 질 두 질 내려가난  
 요것이 저싱 길이로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 검질메는소리3

- 농업요-김매는 소리: 김맬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8. 28.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양재선, 여, 1942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는 ‘검질메는 소리’가 있다고 하며 구연하였다. 조사자가 ‘멍에’가 무엇인지 묻자, 제보자는 고지의 머리와 끝이라고 설명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828\_애월리\_양재선\_검질메는소리

앞명에랑 들어 오라  
 앞명에랑 들어 오라  
 뒷명에랑 나아가라  
 이어도사

앞명에랑 들어 오라  
 뒷명에랑 나아가라

아아야 어어야

어어야

아아양 어어양

앞명에랑 들어오라

뒷명에랑 나가라

이에어허 어어야

### 밧블리는소리3

- 농업요-밧 밧는 소리: 주로 조농사를 할 때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밧을 밧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양재선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8. 28.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양재선, 여, 1942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는 '검질메는 소리' 구연 후 이어서 스스로 구연하였다.

옛날 할머니들이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였다. 사람들이 밧을 밧으며 불렀다고 한다. 이 소리는 중산간 지역이 최고라고 설명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828\_애월리\_양재선\_밧블리는소리

위량하량 돌돌돌

밧 잘 불령

조랑 나커들랑

덩드령만씩

고고리가

### 노젓는소리3

- 어업요-노 젓는 소리: 해녀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저을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8. 28.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홍민수, 여, 1939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노 젓는 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구연하였다.

제보자는 물질을 배워야 하니 어머니 따라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며 관탈섬에 갔었다고 한다. 관탈여는 물이 파래서 무서워 미역만 메고 나오곤 했다고 회상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828\_애월리\_홍민수\_노젓는소리

이어도 사나 이어도산나

흔저 글라 우리도 관탈꺾지

구경 감저

이어도 사나 이어도사나

### 테왁지평부르는소리

- 어업요-테왁 짚고 헤엄치며 부르는 노래: 해녀들이 바다로 뛰어들어 테왁을 가슴에 짚고 물질을 할 바다 지경까지 헤엄쳐 갈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8. 28.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홍민수, 여, 1939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해녀들이 배를 타지 않고 그냥 해엄을 쳐서 갈 때는 노래를 안 부르냐고 하니, 홍민수가 구연하였다. 홍민수는 ‘큰증녀’였던 어머니가 박으로 만든 태왁 하나에 의지하여 물질할 때 불렀던 노래라고 회상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828\_애월리\_홍민수\_태왁지평부르는소리

이어싸나 이어싸나  
흔저 글라 흔저 글라  
흔저 글라 흔저 글라  
우리 갈 때 가사주기

#### 밧블리는소리4

-농업요-밧 밧는 소리: 주로 조농사를 할 때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밧을 밧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8. 28.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홍민수, 여, 1939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밧 블리는 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구연하였다. 제보자는 옛날에는 집에 있는 아이들 모두 다 불러다가 밧을 밧게 했다고 한다. 소와 말 뒤에 따라다니며 밧 밧는 일을 했다고 회상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828\_애월리\_홍민수\_밧블리는소리

어러러 흔저 글러 이거 밧 불려사  
흔저 불려사 집이 갈 거 아니가  
이러 이러 이러 어러러 어러러

어러러~ 어러러~ 어식키 어식키 어시키 시키  
재게 글라 재게 글라 형  
똑바로 걸으라 온바로 걸으라 어시키  
어러러~ 어어러 어러~ 어러러러러

어러러~ 흔저 글라 흔저 글라  
즈름에 쉼 몰덜 왓저 흔저 글라 어러러

#### ㄱ레 ㄱ는소리3

- 제분요-맷돌질소리: 맷돌에 곡식을 넣고 갈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8. 28.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홍민수, 여, 1939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ㄱ레 ㄱ는 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구연하였다. 제보자는 어머니가 물질 가면 맷돌질을 했다고 한다. 제보자가 힘들어서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머니가 고운 옷을 해주겠다고 해서 거의 매일 보리쌀을 맷돌에 갈았다고 회상하였다.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검질메는 소리’를 요청하였으나 노래로 부르지 않고 ‘흔저 글라 흔저 글라 앞이 메어가게 뒤터레 가지마랑 앞

더레 나글라 혼저 글라 혼저 제게 글라 혼저 글라 이거 앞더레 메글  
라 뒤터레 메지마랑 앞터레 메글라 ㄴ쿨히 메라'라고 말로 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828\_애월리\_홍민수\_ㄴ레ㄴ는소리

**자료 코드:** S\_20250828\_애월리\_홍민수\_검질메는소리

이에도사나 이어사나  
우리 어머니 나만 골렌 허곡  
어드레 가지도 못허게 허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  
(나 이젠 안허크라 따신. '아이고 혼저 허라. 혼저 허라.'(나 이제  
는 안 하겠어. 다시는. '아이고 어서 해라. 어서 해라.'))

## 뱃노래

- 어업요-뱃노래: 배를 타고 가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8. 28.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홍민수, 여, 1939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는 '이거 뱃노래라.'라고 말하고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828\_애월리\_홍민수\_뱃노래

어기여라 차라  
어기여차  
혼저 글라 (이거 뱃노래라)

어기여차  
어기여라 어기여라  
혼저 글라 혼저 글라  
오늘 가문  
관탈 구경ㅎ곡 좋키여덜(허믄 야 좋키여.(하면 야 좋겠다.))

## ㄴ레ㄴ는소리4

- 제분요-땃돌질소리: 땃돌에 곡식을 넣고 갈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9. 25.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양재선, 여, 1942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가 자진하여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925\_애월리\_양재선\_ㄴ레ㄴ는소리

이여 이여짜  
이여이여 이여이여  
이여 이여  
으 ㄴ레 ㄴ랑 혼저 ㅎ영  
아기덜 밥 ㅎ영주게  
이여짜 이여짜

이여사 이여짜  
이 ㄴ레 ㄴ랑은에 혼저 ㅎ영



아기덜 밥 햅영 뎡여사 허켜  
이여짜 이여짜  
이에도사나 이여짜

## 밧블리는소리5

- 농업요-밧 밧는 소리: 주로 조농사를 할 때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밧을 밧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9. 25.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양재선, 여, 1942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지난 조사를 언급하며 ‘위랑하랑’이라고 말을 꺼내자마자 제보자 양재선이 구연하였다. 중간에 제보자 부경애가 추임새를 넣었다. 제보자 부경애는 동쪽은 말로 밧을 밧았다고 하자, 제보자 양재선이 서쪽은 소로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조사자가 가사의 의미를 묻자, 제보자 부경애가 뜻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제보자 부경애가 동쪽 혹은 ‘후’하면 날아가니까 꼭 밧을 밧았다고 설명하였으며, 제보자 양재선은 밧을 밧는 동안 할아버지가 밧을 나무막대기로 꼭꼭 찌르면서 잘 밧아졌는지 확인했다고 회상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925\_애월리\_양재선\_밧블리는소리

(조사자: 위랑하랑)  
돌돌돌 돌아가라 이어 어랑 하랑  
하랑 하랑 돌돌돌 돌아가라 게하랑

조랑 나건 덩드랑<sup>91)</sup>만 씹 조코고리<sup>92)</sup> 뒹곡  
보리랑 나건 잘 뵙뵙 음양<sup>93)</sup> 잘 뒹라  
어랑 하랑  
감저랑<sup>94)</sup> 들건 대가리만씩 들라  
(부경애: 어려려려)  
어려려려 돌돌돌돌 돌아라 아

어랑하랑 돌돌돌 돌아가멍 즈근 즈근 잘 불랑  
고고리  
조랑 뒹건 덩드렁마께<sup>95)</sup> 만씩 조코고리 음양 크라  
이어짜 이어짜

## 검질메는소리4

- 농업요-검매는 소리: 검멜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9. 25.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양재선, 여, 1942년생

- 
- 91) 덩드랑: 돌판. 매끄럽고 둥그런 돌판을 말한다.  
92) 조코고리: 조이삭.  
93) 음양: 여물어서.  
94) 감저랑: 고구마랑.  
95) 덩드렁마께: 방망이. ‘덩드렁’ 위에 짚 같은 것을 놓고 두드리는 방망이를 말한다.

**구연 상황:** 조사자가 ‘검질메는 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제보자 양재선이 구연하였다. 제보자 양재선은 많이 불러보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제보자 부경애는 발에 한 명이 선창하여 나가면 여러 사람이 쫓아서 불렀다고 설명하였다. 제보자 양재선도 여럿이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자료 코드:** S\_20250925\_애월리\_양재선\_검질메는소리

앞명에랑 들어오라  
뒷명에랑 나가라  
이어싸 아 혼저덜 메라

앞명에랑 들어오라  
뒷명에랑 나가라  
이어싸 이어싸

## 노젓는소리4

- 어업요-노 젓는 소리: 해녀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저을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9. 25.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양재선, 여, 1942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노 젓는 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니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925\_애월리\_양재선\_노젓는소리

이어싸 이어싸  
이어싸나 이어싸  
요 배 혼저 글라  
이어싸 이어싸

## 해녀노래2

- 어업요-테왁 짚고 헤엄치며 부르는 노래: 해녀들이 바다로 뛰어들어 테왁을 가슴에 짚고 물질을 할 바다 지경까지 헤엄쳐 갈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9. 25.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양재선, 여, 1942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해녀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니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925\_애월리\_양재선\_해녀노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싸  
흔착 손엔 빗창 들고  
흔착 손엔 호미 들렁  
여 꽃트로 가결랑  
용궁 요왕 할머니  
전복 좋은 여 꽃트로  
데려다 줍서 이어싸  
우리 어멍 날 날적에

## 조블리는소리

- 농업요-밭 밟는 소리: 주로 조농사를 할 때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밭을 밟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9. 30.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김일수, 남, 1941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조 불리는 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니 구연하였다. 제보자가 “조 불리는 소리 하겠습니다.”하고 미리 종이에 가사를 적어 놓은 것을 보면서 구연하였다. 외숙과 함께 불렀었다고 회상하였다. 사전 조사 때는 노래로 부르지 않고 가사만 말해주었다. ‘그 건들건들 건들 바람 좀 조 불리는 바람 건들바람 불렌 행이네 건들건들 건들 바람 시원하게 불어주라 우리췌 이제 조 불리는 디 건들건들 불르게 해줍서 어랑 하랑 건들건들 건들 바람 마파람 불어줍서 우리 조 마가지 되게 해주세요 어랑 하랑 건들건들 건들 바람 건들건들 건들 바람 마파람 불어줍서 우리 조 마가지 되게 해줍서 어랑 하랑’

제보자는 조를 밟을 때는 이 노래를 꼭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자료 코드: S 20250930 애월리 김일수 조블리는소리

저 산 중에 놀던 모쉬 우리 밭에 모여드렁  
조팏 뵙아주면 좋겟구려 어어랑 하아랑  
어려려려려려 돌돌돌돌돌 잘 뵙아가네  
건드렁 건드렁 마가지 바람 불어오네  
부로복년이 조풍년이 똬겟구려 어랑 하아랑  
어려려 돌돌돌 거싯거싯 제게 뵙아간다

## 멜후리는소리

- 어업요-멸치 잡는 소리: 멸치 그물을 후리는 작업을 할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9. 30.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김일수, 남, 1941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멜 후리는 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제보자는 미리 준비한 가사를 보면서 구연하였다. 아버지가 불렀던 것을 기억해 본 것인데 가사는 자신이 지은 것이라고 하였다. 가사에 나오는 상선과 종선은 제보자가 15세까지 있었다고 한다. 같이 줄을 당기는 일을 한 사람에게 멸치를 나눠서 주었다고 회상하였다.

제보자는 멸치잡이를 하려면 반드시 모래가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애월리에는 한담에만 모래가 있어서 한담에서 두 군데 했다고 하였다. 밤이 되면 모래 위에 멸치가 거뿔게 보이고 ‘테우(떼)’를 타고 나가서 빨리 당겨야 멸치가 도망가지 않았다고 회상하였다. 아버지는 주로 ‘가린돌’<sup>96)</sup>에서 멸치잡이를 했다. 한담 바다의 동쪽과 서쪽 두 군데에서 했다. ‘테우’를 타고 가서 멸치를 잡는 방식은 15세 정도까지 하다가 이제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꼭지, 이호 등 모래 해수욕장이 있는 곳은 거의 다 멸치잡이를 했다고 한다. 불도 없이 눈으로 직접 멸치를 찾았다. 달밤에 ‘뽕직뽕직(반짝반짝)’하면 ‘이건 멸치다’해서 최소 20여 명 많으면 30명의 장정이 둘러싸서 양쪽에서 그물을 손으로 당겨 잡았다고 한다. 나무 열 개를 이어 만

96) 가린돌: 애월리 지명.

든 테우를 타고 가서 ‘이여싸, 이여싸’하며 당겼다고 회상하였다. 멸치가 적게 나면 ‘멜젓(멸치젓갈)’으로 만들거나 말려서 먹고 많이 나면 밭에 거름용으로도 사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930\_애월리\_김일수\_멜후리는소리

상선에다 그물 실코 종선에 밧줄 심어  
동녘 가달 이어주고 서녘 가달 이어주어  
모다들영 줄 동깍서 어기영차 어기영차  
멸치 만선 허려면 역군들 살림살이 보테갯네  
어영차 어영차 모다들영 줄 동깍서

상선에 그물 실코 종선에 밧줄 심어  
동녘 가달 이어주고 서녘 가달 이어주어  
모아들영 줄 동깍서 여기여차 여기영차  
멸치 만선허면 역군들 살림 살이 보테갯네  
어영차 어영차 모다들영 줄 동깍서

## 노젓는소리5

- 어업요-노 젓는 소리: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며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36-3.

조사 일시: 2025. 9. 30.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김일수, 남, 1941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노 젓는 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니 김일수가 미

리 준비한 가사를 보면서 구연하였다. 제보자는 노 젓는 것이 힘들  
어 노래를 부르면서 갔고 서로 ‘어기 영차’ 하면서 앞사람과 뒷사람  
이 노 젓는 호흡을 맞췄다고 설명하였다. 사전 조사 때는 ‘갈치 나  
끄는 소리’를 노래로 하지 않고 ‘멧지바당 와가지고 저 큰 갈치 물게  
해줍서 허는 사람도 있곡, 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날에 날 우리 어  
머니 날 낳아 가지고 보제기렌 허여 이 보제기<sup>97)</sup>를 하계끔 만들었  
습니까 허멍 한탄허는 소리도 허곡’라고 가사만 말하였다. 제보자  
는 바람이 불 때는 돛이 있어 바람 따라 나가서 다닐 수 있었고 바  
람이 없을 때는 노를 저으면서 나무배를 타고 다녔다고 회상하였  
다. 당시는 낚시줄을 구하기 어려울 때라서 줄에 돼지 피나 감물을  
발랐다고 설명하였다. 갈치를 잡으려고 밤새 줄을 올렸다가 내렸  
다가 해야 해서 잠을 자지 않으려고 소리를 하였다고 한다.

‘새착갈치(해착갈치)’는 해가 질 때 잡는 갈치이며, 세 시에 출발하  
여서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정도 노를 저어서 ‘다남드리’, ‘고리물’,  
‘고넷개’, ‘남드리<sup>98)</sup> 밖으로 나가면 ‘물미오름(수산봉)’ 쪽 ‘물미 세는  
바당’이 갈치 바다라고 설명하였다. 수심은 오륙십 미터이며 아침  
일찍 해가 뜰 때, 물이 바뀔 때, 저녁에 해가 질 때 등 하루 세 번 정  
도 갈치가 잘 잡혔다고 한다. 바닷일이 위험하여 뱃사람들은 칠성  
판을 등에 진다고 하며, 칠성판은 죽으면 목을 메는 나무를 말한다.  
항상 걱정하면서 바다를 다녔다고 설명하였다. 밤에 심심하면 옛  
말도 말하고 ‘우리 어멍 날 낳을 때 이추록 고생 허멍, 날 낳았는고’

97) 보제기: 어부.

98) 다남드리, 고리물, 고넷개, 남드리: 애월리 바다 지명.

등 한탄하는 소리를 하기도 했다고 회상하였다. 파도가 세면 노를  
덜 젓고 파도 없이 ‘멧지바당(잔잔한 바다)’이 되면 노를 저어야 해서 장  
단점이 각각 있다고 하였다. 작은 아버지를 따라서 어릴 때 배를 탔  
을 때 부른 적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930\_애월리\_김일수\_노젓는소리

여기 여차 형형

여기여차 흥흥

여기여차 뒤기 여차

우리 배는 잘도 가네

갈치 바당 가젠 허믄

해착갈치 낚으려고

어 해지기전에 가야 하네

이어도 사나 형형

이어도 사나 흥흥

오늘은 멧지바당 되어

배멀미도 안허겠네

여기여차 여기여차

갈치바당 다가온다

여기 여차 뒤기 여차

우리 배는 잘도가네

갈치 바당 가젠 하면

해착갈치 낚으려고

해지기전에 가야 하네

이어도 사나 흐 이어도 사나 형형

오늘은 날씨 좋앙  
땡지바당 되어서  
배멀미도 안하겠네  
여기여차 으아 이어도 사나  
갈치바당 다가온다  
어기여차 어기여차

## 2-4. 애월리 의식요

---

의식요는 장례의식, 불교의식, 무속의식에서 부르는 소리를 말한다.

### 달구소리1

- 장례의식요-달구소리: 봉분을 달구로 두드리며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6. 30.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김숙자, 여, 1939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달구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니 구연하였다. 제  
보자는 사람들이 봉분이 단단해지도록 빙빙 돌며 달구질을 할 때  
이 소리를 부른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어릴 적에 아이들이 떼를 지  
어 봉분을 오르락 내리락하며 산싸움을 하였다고 회상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630\_애월리\_김숙자\_달구소리

에헤야 달구로구나 잘도 잘도 다려지라

### 행상소리

- 장례의식요-행상소리: 상여를 메고 갈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22.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홍민수, 여, 1939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행상소리'를 할 수 있는지 묻자, 제보자가 기억나는 만큼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722\_애월리\_홍민수\_행상소리

어영차나 어영차나

허영차 행상이로구나  
이산 저산 넘었으네

## 달구소리2

- 장례의식요-달구소리: 봉분을 달구로 두드리며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13길 18

**조사 일시:** 2025. 7. 22.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김숙자, 여, 1939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달구소리를 요청하자 제보자는 등굣이를 잡고 땅을 다지는 동작을 하며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722\_애월리\_김숙자\_달구소리

헤야 달구

에헤야 달구야 즈근 즈근 잘 찍어지라 테<sup>99)</sup> 입지게

---

99) 테: 잔디.

에헤야 달구야 즈근 즈근 잘 찍으라 어어야 달구야  
얼른얼른 찍어지라 테 입지게  
(마 다 뻬저이.(마 다 뻬어.))

## 상여소리

- 장례의식요-행상소리: 상두군이 상여를 매고 가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9. 30.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김일수, 남, 1941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상여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미리 준비한 가사를 보면서 구연하였다. 애월리에서는 공동묘지를 갈 때 고내봉이라 남읍리와 '새큰이길'과 만나는 갈림길에 이르면 꼭 쉬었다 갔다고 하였다. 선소리를 하는 사람이 종을 치면서 하고, 부너자 20~30명이 '어영차 어화로다'라고 하며 '설배'<sup>100)</sup>를 당긴다고 설명하였다. 옛날에는 마을마다 선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며 애월리는 양성녀, 강창기 등이 선소리꾼이었다. 장사가 나면 '설배'를 매는 사람도 양쪽 열 명씩 서서 줄을 당겼다고 과거를 회상하였다. 줄은 한쪽에 20~30미터 정도였다. 제보자는 최소 50세까지 상여를 매었으며 서른 번 넘게 매었다고 하였다. 일 년에 두세 번, 하루에 두 번 맨 적도 있었다고 하였다. 마을마다 상여가 있었으며, 상여는

---

100) 설배: 운상할 때 상여에 매어 앞으로 잡아당기게 된, 삼이나 쉼 따위로 세 가닥을 지어 굵다랗게 드린 줄.

키가 큰 사람이 앞에 서고 재력이 있는 사람은 만국기를 달기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930\_애월리\_김일수\_상여소리

가세가세 북망 산천으로 가세  
인생이 한 번 가면 영영 못 오는 곳으로 가세

(선소리를 하면 상여꾼들이)  
어영차 어화로다 (허곡)

(선소리로)  
천하일색 양귀비도 꽃진다고 서러워마오  
저승길이 얼마나 멀어 한 번 가면 못 오는고 (허문)

(역군들은)  
어영차 어화로다

## 2-5. 애월리 유희요

---

유희적 성격이 강한 민요로 놀이를 위해 부르거나 또는 노래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해 부르는 민요를 말한다.

### 노들강변1

- 기타: 1934년에 발표한 신불출 작사, 문호월 자곡, 박부용 노래의 신민요.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22.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김숙자, 여, 1939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는 앞서 여러 곡의 민요를 불렀으니 이제 노래 한 곡을 하겠다며 자진하여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722\_애월리\_김숙자\_노들강변

노들강변 봄버들  
무성세월 한허리를 칭칭 동여 메어나 볼까  
에헤요 봄버들도 못믿으리로다  
흐르는 저기 저물만 흘러 흘러서 가노라

### 노들강변2

- 기타: 1934년에 발표한 신불출 작사, 문호월 자곡, 박부용 노래의 신민요.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22.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김숙자, 여, 1939년생 / 홍민수, 여, 1939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 김숙자는 어린 시절 어른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 자신이 춤을 추곤 했다고 회상하였고, 제보자 홍민수도 함께 노래를 따라 불렀다.

자료 코드: S\_20250722\_애월리\_김숙자 홍민수\_노들강변

노들강변 봄버들

무정세월 한허리를

칭칭 동여 메어나 볼까

에헤요 봄버들도 못 믿으리로다

## 2-6. 애월리 전승동요

---

노동요는 노동이 수반된 민요로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

### 흔 다리 인다리1

- 유희요: 아이들이 앉아서 다리를 세면서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5. 29.

조사자: 송정희, 임현정

제보자: 정기생, 여, 1933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흔 다리<sup>101)</sup> 인다리<sup>102)</sup>’ 놀이 동작을 해 보이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는지 질문하자, 제보자 정기생은 무릎 위를 손으로 번갈아 치는 동작을 하며 구연을 시작하였다. 그는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기억이 한 번에 떠오르지 않아 중간에 잠시 멈추기도 했다. 그러나 기억을 더듬으며 구연을 마쳤다.

제보자 김경호는 장난감이 거의 없던 옛날에는 ‘다리세기 놀이’를 자주 했다고 설명하였다. 놀거리가 부족해 ‘풀새각시 놀이’ 등을 하며 놀았다고 덧붙였다.

자료 코드: S\_20250529\_애월리\_정기생\_흔 다리 인다리

---

101) 흔 다리: 넓적다리.

102) 인 다리: 넓적다리.

흔다리 두다리 동네 방네 (동네 방네) 거청 대청

## 아기흥그는소리1

- 자장가: 아기 재울 때 아기 바구니를 흔들면서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6. 30.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김숙자, 여, 1939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자장가’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제보자는 어떤 노

라인지 모른다고 답했다. 조사자가 다시 ‘아기 흥그는 소리’를 말하

자 제보자는 동생들을 키워서 잘 안다며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630\_애월리\_김숙자\_아기흥그는소리

웁이자랑 웁이자랑

우리 애기 잘도 잔다

눔이 애긴 잘도 운다

자랑자랑 웁이자랑

우리 애긴 군밥<sup>103)</sup> 먹고 잘도 잔다

눔이 애긴 잘도 운다

웁이자랑 웁이자랑

---

103) 군밥: 쌀밥.

잘도 잘도

우리 애긴 잘도 잔다

웁이자랑 웁이자랑 웁이자랑

우리 애긴 잘도 잔다

눔이 애긴 잘도 운다

자랑자랑 웁이자랑

우리 아긴 군밥먹고 잘도 잔다

## 주열재열1

- 유희요: 나무에 있는 매미를 내려오게 하여 잡을 때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6. 30.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김숙자, 여, 1939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주열재열 내려오라’를 부르며 매미도 잡았었는지

질문하자, 제보자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잡았었다고 답하며 매미

를 잡던 상황을 설명하며 구연하였다. 그는 주열은 조금 날쎈한 매

미이고, 재열은 납작한 매미라고 설명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630\_애월리\_김숙자\_주열재열

주열재열 내려오라

군밥 햅영주마.

주열재열 내려오라

근밥 흥영주마  
주열재열 내려오라

## 도롱아도롱아1

- 유희요: 아이들이 벌레 잡을 때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6. 30.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김숙자, 여, 1939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어릴 적 도롱이<sup>104)</sup>를 잡으며 놀았었는지 묻자, 제보자가 그렇다고 답하고 구연하였다. 도롱이를 잡는 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 노래를 부르면 도롱이가 진짜 나온다고 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630\_애월리\_김숙자\_도롱아도롱아

도롱아 도롱아 나오라  
도롱아 도롱아 나오라

도롱아 도롱아 나오라  
도롱아 도롱아 나오라  
도롱아 도롱아 나오라

---

104) 도롱이: 애벌레

## 핑핑장서방1

- 유희요: 언어 유희요로 아이들이 놀 때 문답으로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6. 30.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김숙자, 여, 1939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핑핑장서방’을 아는지 묻자, 제보자는 안다고 하며 구연하였다. 중간에 모르겠다고 하면서 중단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630\_애월리\_김숙자\_핑핑장서방

핑핑장서방	어디까지 가느냐
핑핑장서방	

핑핑장서방	핑핑장서방
어찌어찌 사느냐	그리 저리 사노라
삼 년 된 콩밭에서	스년 된 풋밭에서
오독또기 <sup>105)</sup> 주서 먹고 사노라	

핑핑장서방	
어찌어찌 사느냐	그럭저럭 사노라
사년 된 콩밭에	오년 된 풋밭에서
오독또기 주서 먹고 사노라	

---

105) 오독또기: 딱딱한 무언가를 씹을 때 나는 소리로 의성어이다.

## 흔다리인다리2

- 유희요: 아이들이 앉아서 다리를 세면서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6. 30.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김숙자, 여, 1939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흔다리 인다리’도 아는지 묻자, 제보자는 예전에 불렀었다고 답하며 조사자와 자신의 다리를 번갈아 두드리면서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630\_애월리\_김숙자\_흔다리인다리

흔다리 인다리 거청대 오님 스설 행경 밧디 지등에 척

흔다리 인다리 거청대 오님 스설 행경 밧디 지등에 척

## 아기흥그는소리2

- 자장가: 아기 재울 때 아기 바구니를 흔들면서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22.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홍민수, 여, 1939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아기 흥그는 소리’를 아는지 묻자, 제보자가 구연하였다. 그는 아기를 업고 가서 바구니에 눕혀 두고 물에 들어가면, 다른 ‘줌네’가 구덕을 흔들며 이 소리를 불렀다고 설명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722\_애월리\_홍민수\_아기흥그는소리

자랑자랑 아기자랑

웁이자랑 웁이자랑

울지 마랑 흔저 자라

느네 어머니 저디 왁저

울지마랑 자라이

흔저 자라이

아이고 울지말라

느네 어머니네 저디 왁저

흔저자라 흔저자라

## 흔다리인다리3

- 유희요: 아이들이 앉아서 다리를 세면서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22.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김숙자, 여, 1939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흔다리 인다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니 구연하였다. 제보자 집에 방문한 세 사람이 다리를 서로 엇갈리게 놓고 실제로 ‘흔다리 인다리’ 놀이를 진행하며 반복 구연하였다. 두 다리 모두 제외된 제보자 김숙자가 일등이 되자 “나 일등이여”라고 외쳤다. 이어 한 번 더 구연하며 마지막 남아 있는 다리를 치면서 제보자 김숙자가 꼴등이라고 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722\_애월리\_김숙자\_흔다리인다리



흔다리 인다리 거청대 으님 서설 행경 바티 지동에 척

흔다리 인다리 흔다리 인다리 거청대 으님 서설 행경 바티 지  
동에 척

## 주열재열2

- 유희요: 나무에 있는 매미를 내려오게 하여 잡을 때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22.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김숙자, 여, 1939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주열재열’을 아는지 묻자, 제보자는 망설임 없이 여러 차례 구연하였다. 이렇게 노래하면 매미가 ‘벌벌벌’ 아래로 내려 온다고 설명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722\_애월리\_김숙자\_주열재열

주열재열 내려오라

근밥 허영 주마

주열재열 내려오라

근밥 허영 주마

주열재열 내려오라

## 왕이자랑1

- 자장가: 아기 재울 때 아기 바구니를 흔들면서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22.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김숙자, 여, 1939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가 ‘왕이자랑’을 자청하여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722\_애월리\_김숙자\_왕이자랑

자랑자랑 왕이자랑

우리 아긴 근밥 먹영 잘도 잔다

늪이 애긴 ㄱ치 먹언 잘도 운다

자랑 자랑 왕이 자랑

명명개야 주끄지<sup>106)</sup> 말라

꼬꼬닭아 울지말라

우리 아기 줌 깰다

자랑자랑 우리아기

착훈아기 줌도 잘도 잔다

---

106) 주끄지: 짓지.

## 도롱아도롱아2

- 유희요: 아이들이 벌레 잡을 때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22.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김숙자, 여, 1939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는 도롱이 구멍에 보리 이삭을 넣고 오른쪽으로 세 번, 왼쪽으로 세 번 돌리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 도롱이가 붙어서 나온다고 설명하며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722\_애월리\_김숙자\_도롱아도롱아

도롱아 도롱아 나오라

근밥 ㅎ영주마

도롱아 도롱아 나오라

도롱아 도롱아 나오라

## 흔다리인다리4

- 유희요: 아이들이 앉아서 다리를 세면서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8. 28.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양재선, 여, 1942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와 제보자가 ‘흔다리 인다리’ 놀이를 함께 하며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828\_애월리\_양재선\_흔다리인다리

흔다리 인다리 무수테 녀기 삼춘 어디가 기장 밧디 총늑레가  
무수테헤헝  
(너가 이겼다. 저리가)

흔다리 인다리 메우테 녀기 삼춘 어디가 기장 밧디 총늑레가  
무수테헤헝

흔다리 인다리 메우테 녀기 삼춘 어디가 기장 밧디 총늑레가

흔다리 인다리 메우테 녀기 삼춘 어디가

흔다리 인다리 메우테 녀기 삼춘 어디가 기장 밧디 총늑레가  
무수테헝

## 핑핑장서방2

- 유희요: 언어 유희요로 아이들이 놀 때 문답으로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4길 17

**조사 일시:** 2025. 8. 28.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양재선, 여, 1942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핑핑장서방’이 있냐고 묻자, 제보자가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828\_애월리\_양재선\_핑핑장서방

핑핑장서방 어디 어디 갔나

핑핑 장서방

핑핑 장서방

콩 혼 방울 꿀 혼 방울

주서 먹고 어디 갔느냐

## 왕이자랑2

- 자장가: 아기 재울 때 아기 바구니를 흔들면서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8. 28.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부경애, 여, 1958년생 / 양재선, 여, 1942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왕이자랑’을 요청하자 제보자 양재선이 제보자 부

경애에게 ‘왕이자랑 해봐’라고 하자 제보자 부경애가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828\_애월리 부경애\_양재선\_왕이자랑

(부경애)

왕이자랑 왕이자랑

우리아기 잘도잔다

왕이자랑 왕이자랑

(양재선) 은자동아

(부경애가 같이 불렀다.)

금자동아

은을 준들 너를 사라

금을 준들 너를 사라

왕이자랑 왕이자랑

물웨 크듯 춤웨 크듯

모락모락 커불라

왕이자랑 왕이자랑

은을준들 너를사라

금을준들 너를사라

왕이자랑 왕이자랑

은자동아 금자동아

왕이자랑 왕이자랑

춤웨크듯 물웨크듯

모락모락 커불라

왕이자랑 (부경애:왕이자랑)

우리집이 복둥이

자랑자랑

끼

은자동아 금자동아

은을준들 너를사라

금을준들 너를사라

왕이자랑 왕이자랑

물웨 크듯 춤웨 크듯  
므락므락 커불라  
웃  
쭈

### 웁이자랑3

- 자장가: 아기 재울 때 아기 바구니를 흔들면서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8. 28.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양재선, 여, 1942년생 / 부경애, 여, 1958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아이를 재울 때 부르는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자, 제  
보자 양재선이 구연하였다. 제보자 양재선은 발로 ‘아기구덕’을 흔  
들면서 손으로는 바느질을 하든 다른 일을 하면서 불렀다고 한다.

**자료 코드:** S\_20250828\_애월리\_양재선 부경애\_웁이자랑

은자동아 금자동아  
웁이자랑 웁이자랑  
은을 준들 너를 사라  
금을 준들 너를 사라  
웁이자랑 웁이자랑  
든 밥 먹곡 든 줌 자라  
웁이자랑 웁이자랑  
우리 \*\* 잘도 잔다

웁이자랑 웁이자랑  
흔저 흔저 물웨 크듯 춤웨 크듯  
모락모락 자랑 커불라  
웁이자랑 웁이자랑(부경애와 함께)  
웁이자랑 웁이자랑  
웁이자랑 웁이자랑  
웁이자랑 웁이자랑  
은을 주면 너를 사라  
금을 준들 너를 사라  
웁이자랑 웁이자랑  
웁이자랑 웁이자랑  
웁이자랑 잘도 잔다  
잠이랑 마랑 가달 둘락 둘락

웁이자랑  
든밥먹고 든 줌자라  
우리 \*\* 자랑자랑  
자랑 웁이 자랑  
영 아까운거 금을 준들 사지라  
은을 준들 사지라  
웁이자랑 웁이자랑  
웁이자랑 웁이자랑

물웨크듯 춤웨크듯  
므락므락 커불라

윙이자랑 윙이자랑

윙이자랑 윙이자랑

## 아기줍재우는소리

- 자장가: 아기 재울 때 아기 바구니를 흔들면서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9. 30.

**조사자:** 임현정

**제보자:** 김일수, 남, 1941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윙이자랑’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니 아기를 재울 때 꼭 ‘윙이자랑’이라고 한다고 설명하며 구연하였다. 제보자는 동생을 재울 때 이 노래를 불렀다고 회상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930\_애월리\_김일수\_아기줍재우는소리

윙이자랑 윙이자랑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윙이자랑 윙이자랑

## 2-7. 기타

---

## 유야케코유야케

- 일본 동요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5. 29.

**조사자:** 송정희, 임현정

**제보자:** 김경호, 남, 1933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국민학교 시절에 배운 일본 노래를 들려줄 수 있는지 요청하자, 그는 ‘유야케코유야케<sup>107)</sup>’를 구연하였다. 제보자는 해당 노래가 “손을 잡고 집으로 가는데 까마귀와 함께 간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529\_애월리\_김경호\_유야케코유야케

유야케코야케 오데오스나이데미나가에요 가라스토이쇼니가  
에리마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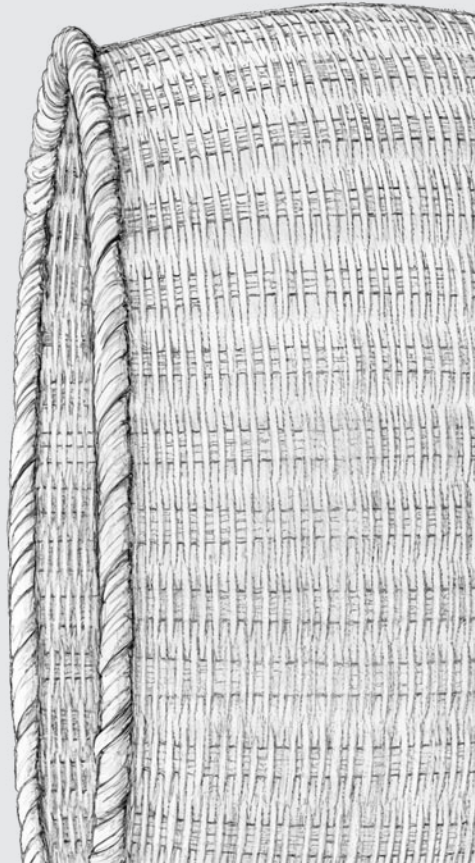
오데오스나이데미나가에요 가라스토이쇼니가에리마쇼

---

107) ‘유야케코야케’(夕焼け小焼け)는 일본 동요이다. 1919년 작곡되어 1923년 문화악사 발간 악보집인 『새동요』에 수록되었다. 가사는 “夕焼け小焼けて 日が暮れて 山のお寺の 鐘が鳴る お手々つないで 皆帰ろ 鳥と一緒に 帰りましょう 子供が帰った 後からは 円い大きな お月さま 小鳥が夢を見る頃は 空にはキラキラ 金の星”이다.

# III

## 한림읍





## 1. 한림읍 금악리

### 1-1. 금악리 마을 소개<sup>108)</sup>

금악리는 제주시 한림읍에 속한 법정리로, 한림읍 내에서 가장 높은 산간 지대에 위치한다. 동쪽으로는 애월읍 봉성리, 서쪽으로는 상명리와 한경면 저지리, 남쪽으로는 안덕면 서광리, 북쪽으로는 명월리와 상대리와 접해 있으며, 한라산 중산간 지역에 속한다. 마을은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짧은 형태를 이루고 있다. 지역 내에는 여러 개의 오름이 분포하며, 지형은 비교적 완만하고 평탄하다. 험준한 바위 지대나 깊은 계곡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금악리에는 주변 산

108) 제주도·북제주군·한림읍, 『한림읍지』, 한림읍편찬위원회, 199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가 펴낸 우리 고장 이야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4.; 디지털 제주문화대전(<https://jeju.grandculture.net/jeju> (검색일 2025.05.09));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24년 주민등록인구 통계표(<https://jumin.mois.go.kr/> (검색일 2025.06.19)) 참조.



그림47 금악리 금오름과 뽕디못

세와 오름, 중산간 지역의 초지 및 밭지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과거부터 목축과 농업이 함께 이루어져 온 산간 농촌 지역이다.

금악리의 고유 지명인 ‘거말창’은 본래 ‘거만창’이라 불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명은 금악리 동쪽 지역에 위치하며, 과거 많은 죄인을 수용하던 장소와 관련이 있다. 해당 지역에는 큰 창고나 지붕이 없는 헛간 형태의 건물이 있었으며, 명나라 시대 왕의 칙명에 따라 체포된 죄인을 수용하였다고 전해진다.

금악리에는 소규모 동네들이 다수 존재하며, 각 동네의 명칭은 지형, 지물, 입주자 등의 특성을 기준으로 명명된 것으로 추정된다. 마을 내 사람이 거주했던 동네 이름으로는 ‘병두가름동네’, ‘뒗동네’, ‘웨 처남왓동네’, ‘일동이뭇동네’, ‘상머들동네’, ‘동카름동네’, ‘중카름동



그림48 금악리

네’, ‘셋카름동네’, ‘웃동네’, ‘오소로기동네’, ‘별진밭동네’, ‘덧남도동네’ 등이 있다.

2024년 기준 금악리의 인구는 총 1,042명이며, 536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인구 구성은 남자 538명, 여자 504명으로 남성이 다소 많은 편이다. 1997년 기준으로는 383세대에 총인구 1,113명(남자 551명, 여자 562명)이었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인구는 감소한 반면에, 세대수는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세대당 평균 인구는 줄어들었으며, 가구 단위의 분화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과거 금악리는 명월리, 한경면 두모리, 안덕면 사계리 일대에 논밭을 소유할 정도로 일정한 경제적 기반을 갖춘 마을이었다. 축산업 또한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는 강제 공출로 인해 농축산 자산이 크게 손실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 수준에도 변화가 있었다. 1946년 제주도 전 지역에 콜레라

가 발생하여 금악리에도 콜레라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근 마을과의 왕래가 전면 금지되었다. 1948년 제주4·3이 발발하면서 금악리는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같은 해 11월 18일부터 20일 사이에는 소개령에 따라 마을이 전소되었으며, 주민들은 강제 이주를 당했다. 1950년부터 주민들은 제1차 복귀지였던 명월리 상동 고림동 일대에 함바집(임시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약 3년간 거주하였다. 1953년 8월, 주민들은 본래 마을 터로 복귀하여 재건을 시작하였다. 이후 이시돌 목장이 조성되면서 축우, 양돈, 면양 등 축산업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4·3 이후 약 5~6년간 이어진 유랑과 재정착 과정이 마무리되었다.

1968년까지 금악리는 대여곡(貸與穀)에 의존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1969년에는 유채 재배가 본격화되면서 소득 작물 중심의 농업 기반이 형성되었고 같은 해 어승생 상수도가 준공되면서 농업 환경이 개선되었다. 1970년에는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도로 정비와 배수로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축산업이 확대되었다. 1972년 5월 30일에는 전기 점화식을 통해 생활 전기가 공급되었고, 1973년에는 한림리와 이시돌을 연결하는 도로가 포장되어 생활 기반 및 문화시설 정비가 시작되었다. 1978년에는 농기계가 보급되었으며, 1980년대부터는 축산, 감귤, 채소 등을 포함한 복합 영농 체계가 정착되었다.

## 1-2. 금악리 제보자

### 1-2-1.

#### 박순림, 여, 1935년생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로 29-1

제보일시: 2025. 4. 25. / 2025. 5. 2.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박순림은 1935년 금악리 ‘증카름’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금악리에 거주하고 있다. 25세에 금악리 ‘하데왓’동네 출신 배우자와 혼인하였다. 결혼 후 줄곧 금악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였고, 남편은 약 30년 전 작고하였다. 농사가 주요 생업이었기 때문에, 밭일을 하러 나갈 때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다녔다. 주요 경작 작물은 조, 보리, 콩, 고구마, 유채 등이었다. 과거 재배한 곡식은 주로 주곡이나 집안의 대소사에서 소비되어 판매 소득은 적었다. 반면 유채는 약 60년 전부터 재배하기 시작하였으며, 상인이 직접 찾아와 수매해 가는 구조였기 때



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금악리는 중산간 지역으로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어 해산물을 채취하기 어려웠다. 박순림은 한 번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한 경험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 울면서 마을 길을 올라왔다고 회고하였다. 현재 금악리에서는 감귤 재배가 활발하지만, 과거에는 기온이 낮아 재배가 어려웠다.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 감귤 농사가 가능해졌다고 한다. 박순림은 박미선과 사촌지간이다.

#### 제공 자료 목록

S\_20250425\_금악리\_박순림\_아기흥그는소리  
S\_20250425\_금악리\_박순림\_방에짓는소리  
S\_20250425\_금악리\_박미선 박순림\_마당질소리  
S\_20250425\_금악리\_박순림 박미선\_검질메는소리  
S\_20250502\_금악리\_박순림 박미선\_예숙제끼  
S\_20250502\_금악리\_박순림 박미선\_땃가는소리  
S\_20250502\_금악리\_박순림 박미선\_사데소리  
S\_20250502\_금악리\_박순림 박미선\_흔다리인다리  
S\_20250502\_금악리\_박순림\_ㄹ레ㄹ는소리  
S\_20250502\_금악리\_박순림\_고무줄노래(일본노래)  
S\_20250502\_금악리\_박순림\_사데소리  
S\_20250502\_금악리\_박순림\_에야도흥  
S\_20250502\_금악리\_박순림\_예숙제끼  
S\_20250502\_금악리\_박순림\_왕밥줄이  
S\_20250502\_금악리\_박순림\_주열재열  
S\_20250502\_금악리\_박순림\_출비는소리

## 1-2-2.

### 박미선, 여, 1943년생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로2길 46-2

제보일시: 2025. 4. 25. / 2025. 5. 2. / 2025. 5. 9.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박미선은 1944년에 금악리에서 2남2녀 중 맏딸로 태어났다. 1950년생 남동생과 1960년생 여동생, 1967년생 남동생을 두고 있다. 형제가 터울이 큰 것은 제주4·3의 영향이 크다.

1948년 제주4·3이 일어나자, 소개령으로 웅포리로 내려가 겨울을 났다. 이듬해 봄, 명월리 고린동 일대에 세 개 마을이 함께 성을 쌓고 마을을 조성하면서, 제보자의 가족도 그곳으로 이사하였다. 다섯 살이 되던 해, 마을에 정착한 후 7월에 아버지가 연행되었고, 가족은 아버지의 소식을 알기 위해 고린동을 떠날 수가 없었다. 다음 해 남동생이 태어나면서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돌보며 생계까지 책임지기 어려웠다. 산양리 수릉동 외가에서 식량을 마련해 주는 등 도움을 주었으나 생활은 매우 고단하였다.

아버지가 육지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가족은 사망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외가에 의탁하여 지냈다. 어머니는 친정에 살면서도 명절과 제사, 소상(小祥)·대상(大祥)을 빠뜨리지 않고 치렀다. 여덟



살이 되던 해, 마을 재건 소식이 들려왔고 주민들은 마을 주변에 성을 허물고 각자 담을 둘러 집을 다시 지었다. 가정 대소사를 돌보기 어려워 다시 금악리로 돌아왔다.

박미선은 열아홉 살에 중매로 동네 사람과 혼인하여 당시 시택이었던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 처음 시집왔을 때는 오막살이였으나 차차 손을 보아 양옥으로 크게 지었다. 두 아들을 낳고, 고구마·보리·유채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갔으나,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다. 소를 키우기도 했으나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이후 젖소를 들여 10년 동안 키우며 아이들 교육과 주택 마련에 힘썼다. 젖소를 키우는 일이 어려워지자, 굴 농사로 생계를 전환하였고, 지금은 건강이 좋지 않아 농지를 일부 임대하고 약 1,700평 규모만 직접 경작하고 있다.

노동요를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하느냐는 질문에 박미선은 “그냥 이 노래 저 노래 갖다가 말다리 췌다리 엮어가면서 부르니까 부른다.”며 소리 내어 웃었다. 노래가 일정한 틀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노랫말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엮어 부른다고 하였다. 박미선은 문영부 아내이다.

#### 제공 자료 목록

S\_20250502\_금악리\_박순림 박미선\_예숙제끼

S\_20250502\_금악리\_박순림 박미선\_밧가는소리

S\_20250502\_금악리\_박순림 박미선\_사데소리

S\_20250502\_금악리\_박순림 박미선\_흔다리인다리

S\_20250502\_금악리\_박미선\_사데소리

S\_20250502\_금악리\_박미선\_애기흥그는소리

S\_20250502\_금악리\_박미선\_ㄱ레ㄴ는소리  
 S\_20250502\_금악리\_박미선\_방에짓는소리  
 S\_20250502\_금악리\_박미선\_도리깨질소리  
 S\_20250509\_금악리\_박미선\_사데소리  
 S\_20250509\_금악리\_박미선\_아기흥그는소리  
 S\_20250918\_금악리\_박미선\_고민자\_아기흥그는소리  
 S\_20250918\_금악리\_박미선\_고민자\_ㄱ레ㄴ는소리  
 S\_20250918\_금악리\_박미선\_고민자\_남방에짓는소리  
 S\_20250923\_금악리\_박미선\_문영부\_땃블리는소리

### 1-2-3.

#### 문영부, 남, 1942년생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로2길 46-2

**제보일시:** 2025. 9.18. / 2025. 9.23.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문영부는 한림읍 금악리 ‘큰송이동산’에서 3남1녀 중 위로 누나를 두고 둘째로 태어났다. 4·3 당시 가족과 함께 한림1리로 소개되어 내려갔다. 이후 금악리 마을 재건 때 돌아왔다.

16세에 초가를 지어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23세에 결혼하여 두 아들을 두었다. 생계는 고구마·보리·유채 등의



농사를 통해 유지하였으나 생활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소유한 밭이 없어 타인 소유의 밭을 빌려 농사를 지었고 이후 여윌돈이 전혀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밭 주인의 권유로 밭을 구입하게 되었다.

경제적 여건이 부족해 한때 남의 소를 맡아 키우기도 하였다. 이후에는 저지리에 거주하는 문씨 가문의 말을 열 마리 맡아 기르게 되었고, 겨울에는 꽃자왈에서 여름에는 목장에 방목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였다. 말과 소를 맡아 기르는 과정에서 새끼가 태어날 경우 두 마리 중 한 마리를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이었기에 자산을 형성해 갈 수 있었다.

이처럼 가축을 사육한 경험을 통해 점차 여유가 생기자 말 열 마리를 직접 구입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을 때는 서른 마리까지 사육하였다. 이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발농사는 과수원으로 전환하였고 말과 소의 사육은 젃소 사육으로 바뀌었다. 문영부는 제보자 박미선의 남편이다.

#### 제공 자료 목록

S\_20250923\_금악리\_박미선\_문영부\_땃블리는소리  
 S\_20250923\_금악리\_문영부\_땃가는소리  
 S\_20250923\_금악리\_문영부\_달구소리  
 S\_20250923\_금악리\_문영부\_행상소리



#### 1-2-4.

#### 양서옥, 남, 1933년생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남1길 46로

제보일시: 2025. 9.24.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양서옥은 금악리 ‘세가름’에서 육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출생 당시 부모는 일본에 거주 중이었으나, 어머니가 입덧이 심해 먼저 귀국하면서 금악리에서 출산하였다.

1948년 제주 4·3 당시, 16세였던 양서옥은 소개령에 따라 금악리를 떠나 시집간 사촌누이가 있던 명월리로 내려갔다. 피난 도중 형들과는 헤어져 행방을 알 수 없었으며, 어머니와 동생만 데리고 이동하였다. 같은 해, 아버지는 한림리에 주둔 중이던 군인들에게 붙잡혀 한림매일시장에서 총살당했다.

피난지였던 명월리 역시 군인들의 포위와 명령으로 마을을 비우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36명의 마을 주민이 총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양서옥은 당시 대나무밭에 몸을 숨겨 목숨을 건졌다. 이후 명월리에서 옹포공장으로 끌려가던 중, 둘째 형이 몰래 찾아와 “옹포로 가면 죽는다.”며 어머니와 동생을 구출하였다. 피난민 무리 약 80명과 함께 다시 금악리로 향했지만, 돌아온 고향은 모두 불에 타



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금악리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눈이 많이 쌓인 한겨울이었고, 함께 이동하던 사람들도 흩어지면서 양서옥 일행은 총성이 울리는 가운데 눈구덩이에 숨어 지냈다. 이후 우연히 아기를 업은 할머니를 만나 동행하게 되었고, ‘새별오름’이 보이는 지점까지 도달하여 굴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곳에서 미리 숨겨두었던 양식을 찾아 목숨을 부지하였다. 이후 살기 위해 보초, 경비, 토벌대 등 다양한 일을 경험했다고 회고하였다.

제보자는 주로 농사를 지었으며, 콩·팥·보리·조·고구마 등을 재배하였다. 최근까지는 브로콜리·양배추·무 등의 작물을 재배했으나, 아내가 사망한 뒤 약 10년간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 말과 소를 사육한 경험도 있었으나, 조밭을 밟아 본 적은 없었다고 한다.

양서옥은 27세에 결혼하였다. 배우자는 금악리 ‘골왓’ 출신으로 칠남매 중 장녀인 25세 여성이었다. 두 사람은 아들 넷과 딸 하나를 두었다. 제보자는 혼기를 한참 넘긴 당시에 집도, 땅도, 돈도 없는 상태였으며, 나이가 맞는 혼인 상대도 마을에는 없었다. 당시 남성은 25세 이전, 여성은 18~19세에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에, 27세의 혼인은 늦은 편이었는데 미혼인 상황에서 군 복무 기간을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이었다.

군 복무 중 장기 복무를 선택하면 숙식이 해결되었지만, 양서옥은 고향 금악리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제대하였다. 고향은 잿더미가 되어 있었고, 돌아온 후에는 잘 곳도, 먹을 것도 없어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제대 당시 입고 있던 군복 한 벌만을 가진 채 집을 짓기 위한 목재를 마련하려고 40일간 한라산을 오르내렸다. 어렵게 오막살이를 지은 뒤 기진맥진한 상태로 잠이 들어버렸었다.



이때 꿈에서 키가 작고 하얀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맨발에 고무신을 신은 처녀가 나타나 “무슨 고민을 그렇게 하느냐? 내가 있다.”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제보자는 이 처녀가 하늘에서 내려준 인연이라 생각하고, 일주일 넘게 누구였는지 기억해 내려 애썼다. 결국 23세 무렵 모슬포에서 훈련 중 금악리로 돌아오던 길에 우연히 마주친 모녀가 생각났다. 그 딸이 바로 꿈속의 처녀였음을 깨닫고 수소문 끝에 그 처녀가 ‘골왓’에 살고 있으나 당시 부산에 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처녀에게는 해병대 출신의 성정이 괴팍한 오빠가 있어 직접 청혼하기는 어려웠고, 통혼을 위해 큰아버지에게 중매를 부탁하여 혼약을 성사시켰다. 결혼 후, 양서옥은 신부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큰절을 하며 미안함을 전하자, 신부는 일으켜 세우며 “늘 옆에 있으면서 돕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과거 타작이나 나무를 할 때 여럿이 모여 일을 하면 노래를 부르기도 했지만, 혼자 일할 때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 어릴 적 들었던 농업요에 대한 기억은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 제공 자료 목록

S\_20250924\_금악리\_양서옥\_달구소리

S\_20250924\_금악리\_양서옥\_행상소리

### 1-3. 금악리 노동요

노동요는 노동이 수반된 민요로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

#### 방에짚는소리<sup>1)</sup>

- 제분요-방아질소리: 방아에 곡식을 넣고 짚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능길 39 금악리경로당.

**조사 일시:** 2025. 4. 25.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박순림, 여, 1935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ㄹ레 ㄹ는 소리’를 기억하는지 묻자, 기억난다며 바로 ‘이여 이여 ㄹ레야 혼저 들라 이어’라고 구연하였다. 그러나 이 노랫말은 ‘ㄹ레 ㄹ는 소리’가 아니라 ‘방에짚는소리’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다시 불러보려 했으나 바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사자가 다시 ‘방에 짚는 소리’를 들려달라고 요청하자 구연하였다. 구연을 마친 뒤 다시 ‘ㄹ레 ㄹ는 소리’를 부탁했으나 제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때 제보자 박미선은 ‘방에 짚는 소리’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자료 코드:** S\_20250425\_금악리\_박순임\_방에짚는소리

이여 이여 이어도 ㅎ라

혼저 혼저 이 방에 짚게<sup>109)</sup>

<sup>109)</sup> 짚게: 짚어.

어 어

이어 이어 이어도 헉라

세콜방에<sup>110)</sup> 세글렀더라<sup>111)</sup>

가지낭으론<sup>112)</sup> 세감<sup>113)</sup> 아래 세글렀더라.

이어 이어 이어도 헉라

이어 이어 이어 이어도 헉라

## 마당질하는소리

- 농업요-마당질소리: 밭 구석이나 마당에서 도리깨를 이용하여 곡식을 타작할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능길 39 금악리경로당.

**조사 일시:** 2025. 4. 25.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박순림, 여, 1935년생 / 박미선,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도리깨질소리’를 부탁하자 제보자 박미선은 바로 구연을 시작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구연을 멈췄다. 제보자 박민선은 ‘마당질소리’가 여러 가지 소리가 있

110) 세콜방에: 방아 하나에 세 사람이 둘러서서 절구공이가 부딪치지 않게 간격을 맞추어 방아를 찧는 일.

111) 세글렀더라: 사이가 어긋나다. 서로 호흡이나 리듬이 잘 맞지 않다.

112) 가지낭으론: 가지나무에도.

113) 세감: 썰기. 방아의 틀목에 ‘셋낭’을 꼽았을 때, 그것이 빠지지 못하도록 박는 썰기.

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제보자 박순림에게 ‘마당질소리’를 요청하자 제보자 박미선과 같다면서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425\_금악리\_박미선 박순임\_마당질소리

(박미선)

어야도 홍아 어야도 홍

요놈도 뜯릴 놈 저놈도 뜯릴 놈

(박순림)

에야도 도깨

에야도홍 에야홍 어야도홍

요놈도 때릴 놈아 맞아 보라

에야홍 요놈도 맞을 놈이여

에야홍 에야홍

요놈 저놈 맞일 놈아

에야도홍 에야도홍

## 검질메는소리

- 농업요-검매는 소리: 김매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능길 39 금악리경로당.

**조사 일시:** 2025. 4. 25.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박순림, 여, 1935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검질 메는 소리’를 요청하자 구연하였다. 제보자 박

순림은 가사가 생각이 나질 않아 제보자 박미선에게 묻고 그걸 다시 부르기를 반복하였다.

제보자 박순림은 “자주 불러야 생각이 나는데, 60년 동안 부르지 않은 노래”라며 웃으며 농기계와 농약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이러한 노동요를 부르지 않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에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밭을 매줄 때 심심풀이로 ‘사데소리’를 불렀으며, 노래를 부르다 보면 김매기가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고 회고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425\_금악리\_박순임\_검질매는소리

어기노랑 사데로구나

(아니 처음에)

요 밭 검질 흔저 메라

앞명에랑<sup>114)</sup> 들어나오라

뒷명에랑 무너나라

어기요랑 사데로구나

어기요랑 사데로구나

(아 딱시 땀고?(아 다시 뭐냐?))

(제보자 박미선이 ‘사데 불령 요 검질’이라고 말하였다.)

사데 불령 요 검질 메자

어기노랑 사데로구나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뒷명에랑 무너나나라

114) 앞명에랑: 밭머리에는.

흔 콜 두 콜 햅염시난

명에도 와점저

어기노랑 사데로구나

(것 뵈기 더 모르크라.(그것 밖에 더 모르겠어.))

(제보자 박미선이 ‘굴러진 밭디 못햅신게’라고 말하였다.)

(게난 생각도 못허크라. 굽이진 밭도 못햅신게.(그러게 생각도 못하겠어. 굽이진 밭도 못하네.))

어기노랑 사데로구나

어기요랑 사데로구나

흔저 메라 명에 강

정심 먹고 햅게 어서 가게

어기노랑 사데로구나

굽이진 밭 명에진 밭 명에 가게

어기노랑 사데로구나

굴러진 밭<sup>115)</sup> (굴너진 밭 아이고 모르켜.(넓은 밭 아이고 모르겠다.))

## 사데소리1

- 농업요-김매는 소리: 김맬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박미선 자택.

**조사 일시:** 2025. 5. 2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115) 굴너진 밭: 넓고 평평한 밭. ‘굴’은 동산이 아닌 좀 얇고 평평잡하 땅을 말한다.

**제보자:** 박순림, 여, 1935년생 / 박미선,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사데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니 제보자 박순림과 박미선이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으나, 두 사람의 노랫말이 서로 달라 박미선이 노래를 멈추었고, 이후 박순림 혼자 노래를 이어 불렀다. '사데소리'를 더 빠르게 부르는 방식이 있는지 질문하자, 박순림은 빠르게도, 느리게도 부를 수 있다고 답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502\_금악리\_박순림 박미선\_사데소리

(함께)

어기여라 사데로구나

(빨리 해봅서.(빨리 하세요.))

사데불러 요 검질 메게

검질 짓고 골 너른 밧디

곱은 췌로<sup>116)</sup> 여의명 메자

(박순림)

고비<sup>117)</sup> 첩첩 돌아간 명에

혼적 메라 오닐날 혼적 메라 명에 가게

앞명에야 들어오라 뒷명에야 무너나라

혼적메라 이날로 저날 허명 밧디만 덩기당 보민 시간은 다 가켜

(밧은 너른 너른 밧디 메날 밧디만 덩기젠 허난 스몫 싹증나게

시리 덩기젠 허믈 아이고 혼저 메라 혼저 메라 어기녀랑 사데

116) 곱은 췌로: 곱은 쇠로. 김을 매는 농기구.

117) 고비: 길 따위에서는 꾸부러진 곳.

로구나.(밧은 넓은 넓은 밧에 매일 밧에만 다닌다고 하니깐 사몫 싹증나게 다닌다고

하면 아이고 어서 메라 어서 메라 어기녀랑 사데로구나.))

어기녀랑 사데로구나

사데 불령 요 검질 메게

어기요랑 사데로구나

사데 불령 요 검질 메고

앞명에야 들어오라

뒷명에야 무너나라

굴러진 밧디 곱은 췌로 여의명 메명

어기요랑 사데로구나

어기요랑 사데로구나

앞명에야 들어오라

뒷명에야 무너나라

어기요랑 사데로구나

## 사데소리2

- 농업요-김매는 소리: 김맬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박미선 자택.

**조사 일시:** 2025. 5. 2.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박미선, 여, 1943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사데소리'를 다시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구연하였다. 여러 명이 가로로 줄지어 밧에서 김을 매면서 불렀다고 설명했다.

자료 코드: S\_20250502\_금악리\_박미선\_사데소리

어기녀랑 사데로구나  
사데불령 요 검질 메게  
검질 짓고 굴러진 밧디  
곶은 췌로 여의명 메게  
어기노랑 사데로구나  
멧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서러마라  
내년 춘삼월 봄 돌아오면  
꽃과 잎은 피건마는  
우리 인생 한번 가면  
다시 올 줄 왜 모른가  
어기노랑 사데로구나  
어기노랑 사데로구나  
어젯날은 청춘이랴더니  
오늘날은 백발이여  
바늘같이 쇠약한 몸에  
칼날 같은 병이 드난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는 것이 냉수로다  
약방약을 써봐도  
약효과가 없어지고  
무녀 불러 곶을 해도  
곶덕도 없어지고

판스불러 경 읽은들  
경의 덕이 있을소나  
저승길이 멀다 해도  
대문밖이 저승이라  
어기노랑 사데로구나

## 밧가는소리1

- 농업요- 밧 가는 소리: 소나 말에 쟁기를 매여 밧을 갈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박미선 자택.

조사 일시: 2025. 5. 2.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박순림, 여, 1935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보리농사 때도 김을 매었는지 질문하자, 제보자는

“예전에는 김을 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고 답하였다. 씨보리는 어떻게 보관했는지 묻자, 가마니에 담아 잘 챙겨 두었다가 사용했다고 하였다. 또한, 보리를 보관하는 뒤횥이 방 안에 있었는지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잘 사는 집에만 뒤횥이 있었고, 살림이 넉넉지 않은 집에는 뒤횥이 없었다.”고 답하였다. 조사자가 보리씨 뿌릴 때도 노래를 했는지 물어보자, 씨앗을 뿌릴 때 따로 부르는 노래는 없었다고 회상하였다. 좁씨를 뿌릴 때는 씨앗을 뿌린 후 밧을 밟는 과정을 거쳤다. 오늘날에는 비료가 있어 밧을 밟을 필요가 없지만, 과거에는 지금의 사정과는 달랐다. 보리씨를 뿌릴 때는 미리 사람과 돼지의 분뇨를 섞은 거름을 ‘통시’에 담아두었다가, 이를 마당에 꺼내어 보리씨를 섞고 소와 사람이 밟았다. 그렇게 만들

어진 거름과 보리씨 혼합물을 밭에 가져가 뿌렸으며, 씨가 겉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흙을 덮어 마무리하였다. 봄철 보리농사를 시작하며 밭을 갈 때 부르던 소리가 있었는지 물었더니, 박순림과 박미선은 동시에 ‘어쉬’라는 소리를 내며 당시 들었던 소리를 짧게 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502\_금악리\_박순림, 박미선\_밧가는소리

어쉬기 어쉬게 이 췌야 이레 돌아사라

## 도리깨질소리1

- 농업요-마당질소리: 밭 구석이나 마당에서 도리깨를 이용하여 곡식을 타작할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박미선 자택.

**조사 일시:** 2025. 5. 2.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박순림, 여, 1935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콩을 두들겨서 털었던 적이 있었는지 질문하자 제보자는 콩, 메밀을 마당에 두고 도리깨로 두드렸다고 했다. 이어 도리깨로 콩을 두들길 때 불렀던 노래를 묻자, 제보자는 ‘에야도 흥’이라고 답하고 노래를 불렀다. 제보자는 ‘에야도 흥’ 노랫말을 거의 잊어 버려서 다 부르지 못하겠다고면서 소리 내어 웃었다.

**자료 코드:** S\_20250502\_금악리\_박순림\_도리깨질소리

에야도 흥 어야 흥  
에야도 흥

요것도 맞을 놈이여  
맞아보라 흥 와작작<sup>118)</sup>  
에야도 흥 어야 흥  
에야도  
요것도 맞을 놈이여  
에야도 흥

## 도리깨질소리2

- 농업요-마당질소리: 밭 구석이나 마당에서 도리깨를 이용하여 곡식을 타작할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박미선 자택.

**조사 일시:** 2025. 5. 2.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박미선, 여, 1943년생

**구연 상황:** 도리깨로 콩을 털었을 때 불렀던 노래가 있으면 불러 달라고 요청하니 바로 불렀다.

**자료 코드:** S\_20250502\_금악리\_박미선\_도리깨질소리

어야도 흥아 어야도 흥아  
요 콩남을 두드려사

118) 와작작: 채찍이나 회초리 따위로 힘껏 갈길 때 나는 소리를 흥내 낸 꼴. 또는 힘껏 때리는 꼴.



잔치혈 때 준비허컬  
 어야도 흥아 어야도 흥아  
 어야도 흥아 어야도 흥  
 올라사명 두드리고  
 물러사명 두드립서  
 어야도 흥 어야도 흥  
 곱딧 걸랑<sup>119)</sup> 올려놓고  
 먼디 걸랑 들이칩서<sup>120)</sup>  
 어야도 흥 어야도 흥 어야도 흥  
 뻬사<sup>121)</sup> 터뜨리곡 가룟사<sup>122)</sup> 터뜨리곡  
 허염시난 다 두드려졌저  
 어야도 흥 어야도 흥

## ㄱ레 ㄱ는소리1

- 제분요-맷돌질소리: 맷돌에 곡식을 넣고 갈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박미선 자택.

**조사 일시:** 2025. 5. 2.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박순림, 여, 1935년생

119) 곱딧 걸랑: 가까운 것은.

120) 들이칩서: 들이치다.

121) 뻬싸: 뒤집어.

122) 가룟사: 갈라.

**구연 상황:** 조사자가 ‘ㄱ레 ㄱ는 소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바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맷돌을 돌려 마련한 가루로 제사에 쓸 ‘산메떡’을 만들었다. ‘산메떡’<sup>123)</sup>을 만들 때 감자를 넣으면 색깔도 맛도 좋아진다고 설명했다. ‘산메떡’을 만들 막걸리도 밀 또는 보리로 누룩을 만들어 집에서 담갔다고 한다.

**자료 코드:** S\_20250502\_금악리\_박순림\_ㄱ레 ㄱ는소리

이어 이어 이어도 허라  
 이어 이어 흔저 굴아사  
 밀 닷 말 굴아사 식게<sup>124)</sup> 두 번 헤영 먹고  
 이어도허라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어도 허라 이어 이어

## ㄱ레 ㄱ는소리2

- 제분요-맷돌질소리: 맷돌에 곡식을 넣고 갈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박미선 자택.

**조사 일시:** 2025. 5. 2.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박미선, 여, 1943년생

123) 산메떡: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증편이라고 한다.

124) 식게: 제사. 특히 조상을 모시는 밤에 지내는 제사를 가리키는 말.

**구연 상황:** 겨울 제사는 메밀가루로 떡을 하고 여름 제사는 밀가루로 ‘기주떡’을 만들었다고 한다. 메밀가루로는 ‘세미떡’<sup>125)</sup>과 ‘세미인절메떡’<sup>126)</sup>을 만들었다. 제사를 지내려면 메밀과 밀농사를 필연적으로 지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노래를 다시 불러줄 것을 요청하여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502\_금악리\_박미선\_ㄱ레ㄴ는소리

이어도 허라 이어도 허라  
 덕석 태왕<sup>127)</sup> ㄱ레 앓정<sup>128)</sup>  
 ㅁ물<sup>129)</sup> 뎃 말 곶아사  
 식게 멩질<sup>130)</sup> 허영 먹컬  
 이어도 허라 이어도 허라  
 ㄱ렌 벤벤허고<sup>131)</sup> 풀은 아프고  
 이 ㅁ물을 어느제민 다 곶리  
 이어도 허라  
 밤은 짚어 가고 이 ㅁ물 곶아사  
 쏘 멘들영 식게 멩질 허야사컬

125) 세미떡: 메밀가루로 반죽해서 소를 넣어 삶은 떡.

126) 세미인절메떡: 메밀가루 반죽을 밀어서 자른 후 삶은 떡으로 고물은 문히지 않는 것을 말한다.

127) 태왕: 태워서.

128) 앓정: 앉혀서.

129) ㅁ물: 메밀.

130) 멩질: 명절.

131) 벤벤허고: 무겁디 무겁다.

이어도 허라 이어도 허라  
 이어도 허라 이어도 허라  
 덕석 배왕<sup>132)</sup> ㄱ레 앓정  
 ㅁ물 뎃 말 곶아사 할컬  
 이어도 허라 이어도 허라  
 이 ㅁ물을 곶아사 식게 멩질 헐 것인디  
 ㄱ렌 벤벤허고 풀은 아프고  
 이 ㅁ물을 어느제민 다 곶리  
 이어도 허라 이어도 허라  
 곶단 보난 다 곶아졌저  
 제 푸는체 거려단 치고 푸고 허염시난  
 쏘 나오랏저

## 방에짚는소리2

- 제분요-방아질소리: 방아에 곡식을 넣고 짚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박미선 자택.

**조사 일시:** 2025. 5. 2.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박미선, 여, 1943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방아소리’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니 ‘ㄱ레 ㄴ는 소리’와 동일한 음으로 구연하였다. 제보자는 방아로 밭벼를 짚어 제사

132) 배왕: 보여서.

에 쓸 쌀을 마련했다고 설명하였다. 예전에는 메밀 농사를 짓고 난 후 밭벼를 했으며, 밭벼 농사를 할 때 김을 매는 일이 매우 고된 작업이었다고 한다. 밭벼 농사는 조농사보다 노동 강도가 훨씬 높아, 특히 배로 품을 들여야 했다고 설명하였다. 육지에서 쌀을 들여오기 전에는 쌀을 구할 수 없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계속해서 밭벼 농사를 이어갔다. 밭벼 나락을 ‘방엿혹<sup>133)</sup>에 넣어 찢을 때는 어깨가 빠져버릴 듯이 힘들었다고 한다. 밭벼는 아기 밥을 하거나 보리밥을 잘 넘기지 못하는 아픈 남편을 위해 보리와 섞어 밥을 지었으며, 기계가 도입되면서부터는 더 이상 방아를 찢는 일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자료 코드:** S\_20250502\_금악리\_박미선\_방에짓는소리

이어도 허라 이어도 허라  
산디<sup>134)</sup> 지영 쏘 멘들아  
이어도 허라 이어도 허라  
이어 이어 이어도 허라  
산디 저사 식게 혈 꺾  
이어도 허라 이어도 허라  
고운 쌀랑 매 청 올리고  
스레기쌀랑<sup>135)</sup> 떡허영 올리고

133) 방엿혹: 절구의 가운데에 박아 놓는 것으로 돌을 우묵하게 파서 만든 것을 말한다.

134) 산디: 밭벼.

135) 스레기쌀: 부서진 쌀알을 말함.

이어도 허라 이어도 허라  
이 산디 저사 쏘 만들영  
떡 허영 식게혈 거로구나  
이어도 허라

## 출비는소리1

- 임업요-꿀 베는 소리: 벌낫, 호미 등을 이용하여 꿀을 베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박미선 자택.

**조사 일시:** 2025. 5. 2.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박순림, 여, 1935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는 꿀을 베는 일은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모두 다 하었다고 설명하였다. 장갑이 없었던 때라 꿀을 베다 보며 손을 수시로 다쳤다고 한다. 그래서 손이 이 모양이 되었다고 했다. 조사자가 ‘출비는 소리’ 들었었는지 물어보니 옆 밭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딱 두 마디 안다고 하면서 불렀다.

**자료 코드:** S\_20250502\_금악리\_박순림\_출비는소리

뚜럼아~<sup>136)</sup> 에야 흥 어 뚜럼아~ 어야 흥 뚜럼아~

136) 뚜럼아: 뚜러메다. 둘러메다. 제보자는 낮을 둘러메서 하는 것이라서 ‘뚜럼아’라고 했다.

### 사데소리3

- 농업요-김매는 소리: 김매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박미선 자택.

**조사 일시:** 2025. 5. 9.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박미선, 여, 1943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다시 사데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여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509\_금악리\_박미선\_사데소리

어기녀랑 사데로구나  
사데 불령 요 검질 메게  
검질 짓고 굴러진 밧디  
곶은 췌로 여의명 메게  
어기노랑 사데로구나  
멧사십리 해당화야  
꽃 진다고 서러마라  
내년 춘삼월 봄 돌아오면  
곶과 잎은 피건마는  
우리 인생 한번 가면  
다시 올 줄 왜 모른가  
어기노랑 사데로구나  
어기노랑 사데로구나  
어젯날은 청춘이랴더니  
오늘날은 백발이여  
바늘같이 쇠약한 몸에

칼날 같은 병이 드난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는 것이 냉수로다  
약방약을 쓰어 봐도  
약효가 없어지고  
무녀 불러 곳을 해도  
굿덕도 없어지고  
판서 불러 경 읽은들  
경의 덕이 있을소냐  
저승길이 멀다 해도  
대문 밖이 저승이라  
어기노랑 사데로구나

### 출비는소리2

- 임업요-꿀 베는 소리: 벌낫, 호미 등을 이용하여 꿀을 베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박미선 자택.

**조사 일시:** 2025. 9. 18.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고민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어렸을 때 동무를 만났으니 생각나는 노래가 있으면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제보자는 ‘출비는 소리’를 조금 부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알작지’<sup>137)</sup>에서 아주 많이 불렀다고 했다.

137) 알작지: 제주시 내도동 지명.

자료 코드: S\_20250918\_금악리\_고민자\_출비는소리

두렵히고 더럽하야 어허어  
두렵히고 더럽하고 어허어  
생출बाट 놀타는 소리는  
생출왔디 놀타는 소리는  
어어어어어어어  
두렵히고 더럽하여 어허어

### ㄱ레 ㄱ는소리3

- 제분요-맷돌질소리: 맷돌에 곡식을 넣고 갈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박미선 자택.

조사 일시: 2025. 9. 18.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박미선, 여, 1943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ㄱ레 ㄱ는 소리’를 요청하자 제보자가 구연하였다.

제보자 고민자의 어머니는 ‘ㄱ레 ㄱ는 소리’와 ‘방에 짓는 소리’를 잘 했으나 자신은 부를 줄 모른다고 했다. 제보자 박미선의 어머니는 ‘ㄱ레 ㄱ는 소리’를 잘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기억한다고 했다. 제보자 고민자는 ‘흐루 저녁 밀 닛 말 골안 시 아주방 몇 개 주고 시아버지 몇 개 주고 먹단 보난 기주떡인가 산메 떡인가 두 개가 남더라.’라고 옛날 ‘할망’들이 부르던 내용이 기억이 난다며 웃었다. 조사자가 노래로 불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보자 고민자는 노래로 부르지는 못한다고 했다.

자료 코드: S\_20250918\_금악리\_박미선\_ㄱ레 ㄱ는소리

이어이어이어도허라  
요 ㅁ 물 골앙 식게 멩질헐 꺼여  
이어도허라 이어도허라  
이어이어이어도허라  
그만 허난 ㅁ 물 닛 말 다 골아졌저  
이어이어이어도허라  
이어도허라 이어도허라  
식게 멩질헐 꺼 엇언  
골아사 식게 멩질헐 꺼여  
이어이어이어도허라

### 남방에짚는소리

- 제분요-방아질소리: 방아에 곡식을 넣고 짚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박미선 자택.

조사 일시: 2025. 9. 18.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박미선, 여, 1943년생 / 고민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 고민자와 박미선이 ‘남방에 짚는 소리’를 하라고 서로 권하였고 제보자 고민자가 부르기 시작하였다. 제보자 고민자가 한 소절을 부르고 멈추자 제보자 박미선이 이어서 불렀다. 제보자 박미선이 부르다가 멈추고는 미리 생각해 두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제보자 고민자는 누가 말해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

이 나냐며 그제 옛날 들은 풍월로 부르는 것이라고 했다.

**자료 코드:** S\_20250918\_금악리\_박미선 고민자\_남방에짚는소리

(고민자)

이어도허랑 이어도허랑

(박미선)

이어이어이어도허라

시콜방에 세글럼서라

이어이어이어도

## 밧 불리는소리

- 농업요-밧 밟는 소리: 주로 조농사를 할 때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밧을 밟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박미선 자택.

**조사 일시:** 2025. 9. 23.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박미선, 여, 1943년생 / 문영부, 남, 1942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밧 불리는 소리’를 요청하자 제보자 문영부는 말을 다루는 방식과 어떤 노랫말이 있었는지 설명했다. 설명이 길어지자 제보자 박미선이 먼저 노래를 시작했고 제보자 문영부가 이어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제보자 문영부는 조밭을 밟을 때 말들을 이용했다고 설명하였다. 밧을 밟을 때는 목장에 있는 말을 끌고 와 사용했으며, 보통 2,000평에서 3,000평 규모의 밧을 밟는 데에는 약 서른 마리 정도의 말을 동원하였다. 말들을 목장에서 데려올 때는 주인이 부르면 말들이 알아서 다가왔으며, “어러러 와와” 등의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달래며 몰았다고 한다. 집집마다 소와 말이 있어서 낙인을 찍어서 구별했다. 낙인의 모양은 집마다 다른데 문씨는 ‘고무레 정자’, 박씨는 ‘일천 천자’였다. 말과 소는 개별 행동을 하지 않고 떼를 지어서 다녀서 잃어버리는 일은 거의 없었다.

말을 몰며 조밭을 밟을 때는 혼잣말처럼 다양한 소리를 내며 말을 다루었는데, 말은 사람의 말을 자주 들으며 움직여야 잘 따르기 때문에 말을 계속 걸어야 한다고 했다. 제보자는 당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말하며 말들을 몰았다고 회상하였다.

‘하늘에 비가 오면 강물이 돼언 바다가 돼구나. 인간이 살젠 허면 천태만상 가지각색 살아간다. 인간 사름이 천제 만제 사는 가지가지다. 인생이 한 생각 생각하면은 욕심은 내도 소용없구나. 한평생 한 번 잘살아도 한평생, 못살아도 한 평생이다.’

이와 같이 말들을 몰며 하는 말은 노동요적 성격을 띠며, 말에게 신호를 주는 동시에 일하는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제보자 문영부의 설명에 따르면 자신이 소리를 할 때는 음율이 없이 그냥 말하듯이 하기도 했다고 한다.

조밭을 밟는 일은 품삯을 주고 하는 일이 아니라, 말주인의 밧에 김을 매주는 방식으로 상호 교환하였다. 이러한 노동 교환 방식은 공동체 내 상부상조의 한 형태로 기능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923\_금악리\_박미선 문영부\_밧불리는소리

(박미선)

어러러러러어러 어랑하랑 어러러

이 산 중에 놀던 말아 저 산 중에 놀던 말아

돌랑돌랑 돌랑돌랑 걸어사 이 조팏 불령



조 허영 먹영 느도 살고 나도 살고 할 꺼 아니가  
 어량하량 어러러 어러러러  
 천지지왕 제석할마님 이 조 불령 돌앙 나건  
 땅이랑 나건 왕대왓 할마니 우나게 협서  
 고고리랑 나건<sup>138)</sup> 멍석 멍덩시리로 우나게<sup>139)</sup>협서  
 어러러러 어러돌돌 어러러  
 어량하량 어러러 돌랑돌랑 걸으라  
 어러러러 어러러러  
 와와와와 어러러러 돌돌

(문영부)

어러러러 돌돌 돌라돌라 빙빙 돌라돌라  
 어러러돌라돌라 어러러러러러러러  
 어러러러러러 어라라라  
 뒤로 마찰 돌리라  
 어러러러러러  
 올돌돌돌 올돌돌돌돌  
 어 돌돌돌 한바퀴 돌고 또 한바퀴 돌자  
 돌돌돌돌  
 세상살이 살다 보면은 이렇게 돌르고  
 인간사 천제만제 가지 각자 산다

138) 고고리랑나건: 이삭은나거든. 고고리. 이삭.

139) 우나게: 위로 나오게.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욕심내봤자 소용 없다  
 죽어도 혼평생 살아도 혼평생이다  
 어돌 돌라돌라 어돌돌돌  
 돌돌돌돌 돌돌돌라  
 하늘아 비가 내리멘 강이 뚝고 바다가 뚝고로고  
 인간 세상에 시계게 나가 초가 짓엉 천년 만년 짓엉 살아 보자  
 한번 돌자 돌돌돌돌 어 돌돌돌돌 돌아라 돌아라  
 빙빙빙 돌돌돌  
 청년 뚝면은 춤도 추고 노래도 불러 보자  
 돌돌 돌돌돌돌돌  
 어러러러러러러러 돌돌 돌라돌라  
 인간 사름이 살다 살다 보면은 죽을 디도 살 디도 있는 거고  
 한평생 살자면 얼마나 살 건고  
 우리 살면 재미있게 살당 죽어 불고 재미있게 살아보자  
 어 돌돌돌 돌아 세월이 흘러가듯 잘도 돌아간다  
 인간 생애 살다 보면 이력저력도 있고  
 한평생 살멘 그럭저럭 사는구나  
 잘살아도 한평생 못살아도 한평생이다  
 한번 삭삭 돌아 보자 돌돌돌돌돌 놀아 보자  
 와아 와아아아아아 와아 와아아

## 밧가는소리2

- 농업요-밧 가는 소리: 소나 말에 쟁기를 매여 밧을 갈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박미선 자택.

**조사 일시:** 2025. 9. 23.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문영부, 남, 1942년생 / 박미선, 여, 1943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밧을 갈 때고 소리를 했었는지 물었다. 제보자 문영부는 밧을 갈 때 말을 쓰는 곳도 있었는데 예전부터 금악리는 소로 밧을 갈았다고 한다. 소로 밧을 갈 때는 ‘식식식’ 하면서 몰았다. 말은 살살 달래면서 ‘와와와’ 해야 하지만 소 모는 소리는 ‘왕왕왕’했다. 소를 몰 때 왼손에 잡는 고삐는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

**자료 코드:** S\_20250923\_금악리\_문영부\_밧가는소리

솔솔 돌아 글라 안 쉬멍 천천히 글라  
이쪽더레 돌아 사라 저쪽더레 돌아 사라  
천천히 돌아가라 솔솔 글라  
이쪽으로 돌아가라 솔솔 돌아가라  
빨리 가문 안 켜다  
바로 으식으식<sup>140)</sup> 글라

140) 으식으식: 주로 밧갈이 할 때, 소를 몰면서 내는 소리.

## 1-4. 금악리 의식요

의식요는 장례의식, 불교의식, 무속의식에서 불리던 소리를 말한다.

### 달구소리1

- 장례의식요-달구소리: 봉분을 달구로 두드리며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박미선 자택.

**조사 일시:** 2025. 9. 23.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문영부, 남, 1942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달구소리’를 했었는지 묻자, 제보자는 몇 번 불러본 적이 있다고 답하며 소리를 시작하였다. 노래를 부르던 중 제보자는 ‘에 달구여’라고 하면 사람들이 달구를 잡고 봉분 주위를 돌며 ‘달구소리’에 맞춰 흙을 다진다고 설명하였다. ‘달구소리’를 하면 듣고 있던 사람들이 노랫말에 귀를 기울이고, 노래에 호응하는 말을 건네기도 한다고 하였다. 제보자는 ‘달구소리’를 마치고 나면 사람들이 기뻐하며 박수를 치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923\_금악리\_문영부\_달구소리

에 달구여 요 세 번 직한<sup>141)</sup> 듣고 노라  
뒷산에는 청산이요 앞산엔 녹수로다

141) 요 세 번 직한: 제보자는 ‘달구소리’ 처음 세 번 듣고 달구를 찍는다고 했다.

이 산에는 백성들이 만성허게 되겠다  
 이멏돌멘은<sup>142)</sup> 삼대 멏 자손들도 창성할 거고  
 이제 계속 번성하겠다.  
 에야 달구야 달구야  
 세번직 달구야  
 달구야 세번직허단 노라  
 뒷산엔 청산이요 앞산엔 녹수로다  
 청룡백호가 이렇게 썤잇고<sup>143)</sup>  
 백호가 이렇게 싸잇고  
 앞에는 명산 앞에는 문막 좋아요  
 이 산에는 멏대 멏 자손이 날 꺼다  
 창성할 꺼다 삼대면 창성할 꺼다  
 오젠 하믄 장군도 날 꺼다  
 이제 육대면은 판사도 나고 신사도 내겠다  
 달구야 달구야  
 에야 달구야  
 야 산도 좋긴 좋네  
 이렇게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펜펜도<sup>144)</sup> 하고 앞이도 좋고  
 뒷산도 좋고 청백호가 좋고  
 멏대 나면 즈손 일대 나면 이 즈손나

142) 이멏돌멘은: 이 멏 대면은, 제보자의 잘못된 발화.

143) 썤잇고: 쌓잇고, 제보자가 '산처럼 쌓여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144) 펜펜도: 평평도, 울퉁불퉁한 곳 없이 평평한.

삼대믄 즈손 나가다 오촌 나면 판검사도 나가고  
 대통령 남직하다  
 에헤야 달구야 세 번 노단 찍어보라  
 앞바다가 창창 좋고  
 에헤에 달구  
 세 번 세상 지금 눕시다  
 달구야  
 세 번 부뜨당 세 번 부뜨당  
 달구 찍읍서 달구  
 달구야 달구야  
 청산에는 녹수로다  
 뒷산에는 청산이고  
 청룡백호가 청성하고  
 여기가 명산이로다  
 에헤야 달구야  
 에헤야 달구야  
 자손이 나면 첫째는 장관도 날 것이고  
 두번째는 가숙도 날 것이고  
 대통령 날 수가 있다  
 달구야 달구  
 태평허게 잘 집도 지어점다  
 달구야 달구야  
 달구 달구  
 참만 평탄하게 잘도 지나간다 좋다  
 이런 좋은 날에 이렇게 집도 잘 짓어점저 좋다

달구야 달구  
천하절에 이렇게 좋은 날에  
집도잘도 지어진다  
달구야 달구야  
참말 좋다 펜펜하게  
이렇게 좋은 날  
최고 좋은 날 뽑았다  
달구야 달구야

## 행상소리1

- 장례의식요-행상소리: 상여를 메고 갈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박미선 자택.

**조사 일시:** 2025. 9. 23.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문영부, 남, 1942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행상소리’를 요청하자 제보자 문영부는 행상을 메기도 하고 부르기도 했다고 답했다. 조사자와 박미선이 ‘행상소리’ 몇 소절을 부르는 것을 듣고는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923\_금악리\_문영부\_행상소리

(문영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놀고 가고 쉬고 가자  
어허야어허야

어서 가자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저 산으로 넘어 가자  
요 산으로 넘어 가자  
가다 못하민 읍로 쉬당 가까  
어떠하코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죽어도 혼세상  
살아도 혼세상  
이 세상에 살아도 혼세상  
못 살아도 혼세상  
가자 가자 혼세상 넘어  
존세상으로<sup>145)</sup> 가자  
천상으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에헤야 가자 가자 가자  
어서 가자  
하늘 천당으로가자  
물결도 좋고 절도 좋네  
영 좋은 세상 때 좋은 질로 찾아갑시다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에헤야 에헤야  
어서 가자

---

145) 존세상으로: 좋은 세상으로.

(박미선)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 진다고 서러마라  
꽃과 잃은 피련만은  
내년 춘삼월 돌아오면  
꽃과 잃은 피련만은  
우리 인생 한번 가면  
다시 오기 만무로다  
어어 어허야  
죽영 가면 테역 단풍<sup>146)</sup>  
썩고 가면 고사리 단풍  
어어어 어허야  
어어허 어허야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다시 못 올 요 길이여  
어어허 어허야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 진다고 서러마라  
내년 춘삼월 봄 돌아오면  
꽃과 잃은 피련만은  
우리 인생 한번 가면  
다시 오기 만무로다

---

146) 테역단풍: 금잔디.

어허어 어어야  
죽영 가면 고사리 단풍  
썩영 가면 테역 단풍  
어허어 어어야  
저승길이 멀다 해도  
대문 밖이 저승이라  
어어어 어어야  
대문 밖이 저승이라  
어어어 어허야  
죽영 가져 대문  
대문 뱃젓디 나가면은  
저승길iero다  
어허야 어허야  
어허야 어허야  
살다 보면은 청산도 구경혈 거고  
어허야 어허야  
하늘과 땅사이에는  
븍름 뵈인 없고 구름도 없구나  
어허야 어허야  
청산이로구나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인생살이 혼번 살앙  
혼번 가는 것이 저싱이로다  
어허야 어허이로다

## 달구소리2

- 장례의식요-달구소리: 봉분을 달구로 두드리며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양서옥 자택.

**조사 일시:** 2025. 9. 24.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양서옥, 남, 1933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달구소리’를 요청하며, 어떤 때에 부르는 소리인지 질문하자 제보자는 그림을 그리면서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하였다.

예전에는 대부분 가정에서 사람이 돌아갔으며, 음택을 한 뒤 시신을 운구하여 하관 시간에 맞춰 하관을 진행했다. 관 위에 명정을 덮고, 그 위에 개판을 덮으면 ‘달구’를 시작하는데, 이를 ‘평토’라고 불렀다. 평토는 땅을 단단히 다져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작업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한다.

제보자는 사람이 죽으면 세 번 벼락을 맞는다고 하였다. 관뚜껑이 썩어 무너질 때, 개판이 썩어 무너질 때, 개판이 무너지면서 봉분까지 내려앉을 때, 이 세 번을 벼락 맞는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자손이 정성을 다하면 개판만 썩고 봉분은 무너지지 않아 한 번의 벼락으로 끝낼 수 있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개판을 잘 만들고 평토도 잘하면 봉분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천년만년 간다.’는 의미로 ‘평토’라 부른다고 설명하였다.

달구질은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선소리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훗소리를 따라 부르며 봉분을 다졌다. 이 때 사용하는 도구는 상여 구조물의 일부였던 ‘물켓낭’으로, 이를 하나씩 들고 봉분 주위를 둘러선다. ‘물켓낭’은 여덟 개로 구성되어 있

어 보통 여덟 명이 달구질을 하고, 소리를 부르는 사람은 달구질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달구소리’는 작업 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긴 노래가 아니었으며, 같은 소리를 두세 번 반복하는 정도로 짧게 불렀다. 이는 장례 절차가 모두 정해진 시간 안에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달구질이 끝나면 모두 함께 앉아 ‘즈침떡’, ‘돌레떡’을 나누어 먹었다.

제보자는 제주4·3 당시 마을의 남자 어른들이 많이 희생되어, 자신은 열한 살 무렵부터 달구질에 동원되었고, 열다섯 살부터는 본격적으로 달구질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달구질을 시작하기 전에는 “자, 이제 봉분 다지게!”, “물켓낭 가져오게!” 등의 말로 준비를 알렸고, 평토 시간이 되면 “평토 시간 돌아왔다!”, “물켓낭 하나씩 들고 모여라!”라고 외치며 달구질을 시작하였다. 또한, “벌려 사라!”, “돌아서라!”, “벌령 사라!” 등의 구호에 따라 봉분 주위를 원형으로 둘러섰다고 설명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924\_금악리\_양서옥\_달구소리

(자. 평토할 시간이 돌아왔다. 다덜 모여서 들어사라)

어~ 허어어어 달구

어~ 허어어어 달구

삼식 번체는 들고 놓자

어~ 허어어어 달구

어~ 허어어어 달구

돌아라 돌아라 어허어 달구

어~ 허어어어 달구

돌아라 돌아라 어허어 달구

어~ 허어어어 달구  
 어~ 허어어어 달구  
 삼세 번째는 들고 놓자  
 어~ 허어어어 달구  
 돌아라 돌아라 어허어  
 어~ 허어어어 달구  
 어~ 허어어어 달구  
 삼세 번째는 들고 놓자  
 어~ 허어어어 달구  
 돌아라 돌아라 어허어 달구  
 그만허게!

(여러 상원님! 펑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 몰켓낭<sup>147)</sup> 하나씩 들고 모여 삽서!

어~ 허어어어 달구  
 어~ 허어어어 달구  
 삼세 번째는 들고 놓고  
 어~ 허어어어 달구  
 돌아라 돌아라 어허어 달구  
 그만 허자!

147) 몰켓낭: 상여를 짊 때, 나란히 놓인 두 개의 긴 '대팻목'의 밑에 가로로 얹어 놓아 그 위에 관을 얹힐 수 있게 한 나무.

## 행상소리2

- 장례의식요-행상소리: 상여를 메고 갈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양서옥 자택.

조사 일시: 2025. 9. 24.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양서옥, 남, 1933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행상소리'를 아는지 묻자, 제보자는 상여 운구 행렬의 구성과 위치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보자의 설명에 따르면 상여 앞에는 '혼백'을 든 사람이 서는데, 이 역할은 고인과 가까운 자녀나 며느리가 맡는다. 그 앞에는 '행상소리'를 부르는 사람이 서고, 약 30미터 앞에는 '명전'을 든 사람이 위치한다. '명전'을 본 사람들은 장례 행렬을 피하는데, 장례 행렬에 마주치거나 참여하게 되면 '몸을 비린다'고 하여, 서로 마주칠 때는 간단히 고개만 돌려 피하는 것으로 여긴다. 제사나 혼례와 같은 중요한 의례를 앞둔 사람들은 몸을 비리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금기가 있다. 상여 뒤쪽에는 상주가 서며, 장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행상소리'의 길이나 내용도 달라진다. 장지가 먼 경우에는 중간에 잠시 쉬기도 하고, 약주를 한 잔씩 마시며 가기도 한다. '행상소리'는 저승길과 인간 세계가 분리되는 과정을 노래하는 소리이다. 상여를 들기 전에 축문을 하면 여덟 명이 상여를 멘다.

제보자는 선두를 서 본 적은 없다고 한다. 그래서 노래를 말로 설명하였다. '영이귀가 왕직유탕<sup>148)</sup> 재진전례 영결종천<sup>149)</sup>'라고 선두

148) 영이귀가靈輻既駕 왕직유탕往卽幽宅

149) 재진전례載陳遣禮 영결종천永訣終天



가 말을 하면 모두 일어서고 ‘어 허어어 허~’ 세 번 부른다고 한다. 제보자는 정해진 노랫말은 없고 선두가 그때 그때 생각나는 데로 노랫말을 지어 부른다고 하였다. 노랫말은 ‘부모 형제 두고 이제 내가 간다. 처자식 두고 내가 간다. 친구덜 두고 이제 내가 간다. 북망산천이 멀다더니 창문 뺏게(밖에) 저승이다.’ 주로 이런 노랫말로 불렀다고 한다. 제보자는 후렴만 기억이 난다고 하고 세 번 불러주었다.

**자료 코드:** S\_20250924\_금악리\_양서옥\_행상소리

어허 동창에 어허로다  
어허 동창에 어허로다  
어허 동창에 어허로다

## 1-5. 금악리 전승동요

---

전승동요는 아이들이 놀 때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

### 아기흥그는소리1

- 자장가: 아기 재울 때 아기 바구니를 흔들면서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능길 39 금악리경로당.

**조사 일시:** 2025. 4. 25.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박순림, 여, 1935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는 ‘아기 흥그는 소리’를 해달라는 요청에 구연하였다.

노래가 끝난 뒤 제보자 박미선이 제보자 박순림에게 노랫말을 다 잊어 버렸다면서 ‘아니 재와주당 질긴 질긴 총베<sup>150)</sup>로 발목다리 손목다리 무경 들이첫당 내첫당 허켄’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순림도 잊어버린 노랫말이 많다며 기억나는 대목을 다음과 같이 말로 들려주었다.

“흔저 자랑 아니 자민 우리 아기 재와드라 아니 재와주민 질긴 질긴 총베로 발모가지 홀모가지 지폰 지폰 천지소레 들이첫당 내첫당 허당 보민 죽어진다. 경”

조사자가 노래로 다시 들려달라고 요청하자 제보자는 말로 들려

---

150) 총베: 말의 갈기나 마소의 꼬리털로 드린 참바. 참바는 삼이나 췌 따위로 세 가닥을 지어 굵다랗게 들니 줄을 말한다.

준 잊었던 노랫말을 더해 구연하였다. 제보자는 과거 바느질을 하면서 발로는 구덕을 흔들며 '아기 흥그는 소리'를 불렀다고 회고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425\_금악리\_박순림\_아기흥그는소리

자랑자랑 뽐이자랑  
흔저 자라 흥정 자라  
자랑자랑 뽐이자랑  
흔저 줍 자라  
줍자사 물도 질레<sup>151)</sup> 가곡  
빨레도 하레 가곡 흘 처리<sup>152)</sup>  
흔저 자라  
자랑자랑 뽐이자랑  
뽐이자랑 자랑자랑  
흥정 자라<sup>153)</sup> 흥정 자라  
자랑자랑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잘도 잔다 어서 자라  
자랑자랑 자랑  
저래 가는 검둥개야  
우리 아기 재와드라

---

151) 물도 질레: 물도 길러.

152) 흘 처리: 할 차례.

153) 흥정 자라: 어서 자라.

느네 아기 재와주마  
자랑자랑 뽐이자랑  
우리 아기 줍 잘 잠저  
자랑자랑 자랑  
(이제랑 흔저 자라이. 나 물질레 가곡이 빨레흔레 가마이.(이제  
어서 자라. 나 물길러 가고 빨래하러 갈게.))  
(경.(그렇게))

자랑자랑 뽐이자랑  
자랑자랑 흔저 자라  
이래 오는 검둥개야  
우리 아기 재와드라  
아니 재와주민  
질긴질긴 춤베로  
발목애기<sup>154)</sup> 홀목애기<sup>155)</sup>  
지픈 지픈 천지소레  
들으첫닥 내첫닥  
허당 보민 죽어진다  
죽기 전에 우리 아기  
재와드라 자랑자랑  
뽐이자랑 자랑자랑  
뽐이자랑

---

154) 발목애기: 발목아지.

155) 홀목애기: 속목아지.

## 고무줄놀이노래

-일본 동요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박미선 자택.

**조사 일시:** 2025. 5. 2.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박순림, 여, 1935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는 “생각하려 했던 것은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떠오른다”며, 고무줄놀이를 했던 기억이 난다고 하며 일본노래를 불렀다.

**자료 코드:** S\_20250502\_금악리\_박순림\_고무줄노래(일본어)

요중까이쥬 요꾸나리도 대끼노효도노센소 논기나리소또 스텐  
소로

## 주열제열

- 유희요: 나무에 있는 매미를 내려오게 하여 잡을 때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박미선 자택.

**조사 일시:** 2025. 5. 2.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박순림, 여, 1935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옛날에 아이들이 매미를 보며 ‘주열이 제열이’라고 하면서 부르던 노래가 있었는지 질문하였다. 제보자 박순림은 망설임 없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노래 도중 기억이 흐려질 때마다 제보자 박미선이 노랫말을 상기 시켜주었고, 제보자 박순림

은 이를 따라 기억을 되살리며 노래를 이어 불렀다. 제보자 박순림은 ‘주열제열 내려오라’ 노래를 부르면 매미가 내려와서 잡았다고 설명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502\_금악리\_박순림\_주열제열

주열제열 내려오라

개똥범벅 허여주마

주열제열 내려오라

개똥범벅 허여주마

## 왕밥줄이

- 유희요: 아이들이 잠자리 잡을 때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박미선 자택.

**조사 일시:** 2025. 5. 2.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박순림, 여, 1935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는 잠자리를 잡기 위해 부르던 노래가 있었는지 질문하였다. 제보자 박미선이 ‘왕밥줄이’<sup>156)</sup>라는 말로 화답하자, 제보자 박순림은 노랫말 일부를 기억해 내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502\_금악리\_박순림\_왕밥줄이

---

156) 왕밥줄이: 왕잠자리.

청청<sup>157)</sup> 앓아난 방석에 앓으라 청청 앓아난 방석에 앓으라

## 예숙제끼

- 유희요: 언어 유희요로 끝말을 이어가면서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박미선 자택.

**조사 일시:** 2025. 5. 2.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박순림, 여, 1935년생 / 박미선,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어린 시절 불렀던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조사자가 ‘저 산 앞에 꼬박꼬박 하는 건 뭇고’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노래가 있었는지 질문하였다. 제보자 박순림이 부르기 시작하였으나, 뒷부분은 잘 떠오르지 않아서 끝까지 부르지 못했다. 이 노래는 특별한 제목 없이 불렸으며, 당시에는 ‘예숙제끼’<sup>158)</sup>라고 했다.

**자료 코드:** S\_20250502\_금악리\_박순림\_예숙제끼

(박순림)

저 산 앞에 꼬박꼬박 하는 거 뭇고

할애비꽃이요 할애비꽃은 전다

쥐문 베여 벤 쥐여 뱀은 문다

물민 기러기여 기러긴 보리 먹나

157) 청청: 앉았던 반석에 툭툭 앉으라는 의미어.

158) 예숙제끼: 수수께끼.

보리 먹으민 눅뜬다<sup>159)</sup>

(박미선)

저 산 앞에 꼬박꼬박 하는 거 뭇고

미우쟁이여<sup>160)</sup> 미우쟁인 힌다

희믄 할에비여 할에빈 등굽나

등굽으민 쉼줄땃가지여<sup>161)</sup> 쉼줄땃가진 닉구멍 난다

닉구멍 나민 시리여 시린 검나

검으민 가마귀여 가마귀 눅뜬다.

(박순림)

눅뜨민 기러기여 기러긴 보리 먹나

보리 먹으민 쉼여

## 애기흥그는소리

- 자장가: 아기 재울 때 아기 바구니를 흔들면서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박미선 자택.

**조사 일시:** 2025. 5. 2.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박미선, 여, 1943년생 / 박순림, 여, 1935년생

159) 눅뜬다: 날뻗다.

160) 미우쟁이: 역새꽃.

161) 쉼줄땃가지여: 소 등에 얹는 길마.

**구연 상황:** 제보자가 어릴 때 어린 동생을 돌보면서 불렀던 자장가라고 하며, 바로 근처에 무당이 살아서 아픈 동생을 봐줄 때 했던 말들을 기억해 불렀다고 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502\_금악리\_박미선 박순림\_애기흥그는소리

자랑 자랑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아이고 아기 아기야 무사 아이고 자당 놀렛구나게 아이고 할  
 망 손지 놀레연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속았저<sup>162</sup>). (아이고 아기 아기  
 야 왜 아이고 자다가 놀렛구나 아이고 할머니 손자 놀렛어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고생  
 했어.))  
 착허다 아이고 자랑 자랑 자랑 자랑  
 녀 낫구나 혼낫구나  
 녀인낭에 녀들이고 혼신낭에 혼들이멍  
 우리아기 재와줍서  
 이레 오는 검둥개야 저레 가는 검둥개야  
 우리 아기 재와도라  
 아니 재와주당 질긴 질긴 춤베로  
 발목다리 손목다리 졸마지영  
 지픈 지픈 천지소에  
 들으첫닥 내첫닥 허키여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우리 아기 잘도 잔다

162) 음울 없이 말로만 하였다.

은자동아 금자동아  
 보모에겐 효자동아  
 동기간에 우애동아  
 효자친척 화목동아  
 동네 이웃 귀운동아  
 나라에는 효자동아  
 권자에는 이웃동아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잘도잔다 잘도 논다  
 우리 아기 잘도 잠저  
 원이자랑 원이자랑  
 원이자랑 원이자랑  
 원이자랑 원이자랑  
 천왕불도 할마님  
 인왕불도 할마님  
 지왕불도 할마님  
 삼불도 멩진국  
 여리불법 할마님  
 우리 아기 키와줍서  
 우리 아기 재와줍서  
 돈물 먹곡 돈잠 재와  
 우리 아기 재와줍서  
 물웨 크듯<sup>163</sup> 키와 줍서

163) 물웨 크듯: 오이 크듯.

춤외 크듯 키와줍서  
 녀들이멍 흔들이멍  
 여름에 호박동지 크듯<sup>164)</sup> 키와줍서  
 원이자랑 원이자랑  
 (아기 재우단 보난 마당에 벨 발랑 날레 널어사큰게.(아기 재우다  
 보니깐 마당에 벨 바라서 곡식 널어야겠다.))

## 아기흥그는소리2

- 자장가: 아기 재울 때 아기 바구니를 흔들면서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박미선 자택.

**조사 일시:** 2025. 5. 9.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박미선, 여, 1943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는 구연을 마치고 자장가를 아기구덕<sup>165)</sup>을 흔들면서  
 불렀다고 설명하고 자신의 아기를 키울 때는 노래를 불러주지 못  
 했다고 하였다. 제보자는 어머니와 주변 어른들이 동생을 잃어버  
 리지 않게 잘 돌보라고 당부의 말을 자주 하여 바로 밑에 남동생을  
 돌보면서 불렀었다고 한다. 제보자가 살던 집 근처에 무당이 살아  
 서 동생이 아플 때마다 ‘할망상’<sup>166)</sup>을 놓아주러 왔었다고 한다.

**자료 코드:** S\_20250509\_금악리\_박미선\_아기흥그는소리

164) 호박동지 크듯: 호박꽃대 크듯.

165) 아기구덕: 아기를 재울 때 쓰는 바구니.

166) 할망상: 아기를 분만한 다음 아기의 생육을 관장한다는 삼승할망에게 감사하  
 고 기원하는 뜻으로 메와 실, 돈 따위를 놓고 방구석이나 벽 위에 두는 상.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잘도 논다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아이고 아기 무사 울지 말라게. 무사 울엄디 무사 울엄디 울지  
 말라. 아이고 녀 낫구나게. 자당 추물락행<sup>167)</sup> 녀 낫구나게. 아  
 이고 녀인낭에 녀들이고 혼신낭에 흔들이멍 아기 키와줍서.(아  
 이고 아기 왜 울지 말라. 왜 우니. 울지 말라. 아이고 녀 낫구나. 자다가 놀라서 녀 낫구나.  
 아이고 녀이 있는 나무에 녀들이고 혼이 있는 나무에 흔들이면서 아기 키워 주세요.))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잘도 논다  
 이레 오는 검둥개야 저레 가는 검둥개야  
 우리 아기 재와도라 느네 아기 재와주마  
 아니 재와주당 질긴 질긴 춤베로  
 발목다리 손목다리 졸라 메영  
 지픈 지픈 천지소에 들으쳤당 네쳤당 허키여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천양불도 할마님 지양불도 할마님  
 인양불도 할마님  
 삼불도 여리불법 멍진국 할마님  
 우리아기 키와 줍서  
 물웨 크듯 키와 줍서 춤웨 크듯 키와 줍서  
 자랑 자랑 자랑 자랑  
 녀인낭에 녀들이고 혼신낭에 흔들이멍

167) 추물락행: 놀라서.

우리 아기 키와 줍서  
장군데기 키와 줍서 훌룡허게 키와 줍서

### 아기흥그는소리3

- 자장가: 아기 재울 때 아기 바구니를 흔들면서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박미선 자택.

**조사 일시:** 2025. 9. 18.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박미선, 여, 1943년생 / 고민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아기 흥그는 소리'를 요청하자 구연하였다. 제보자 박미선과 고민자가 같이 부르다기도 하고 따로 부르기도 하였다. 제보자 고민자는 아주 어릴 때 학교에서 글공부할 때도 자장가 노랫말을 배웠었다며 제보자 박미선이 노래하는 것을 듣다 보니 생각이 난다고 하였다. 제보자 박미선은 최근까지 불렀던 것도 잊어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

**자료 코드:** S\_20250918\_금악리\_박미선 고민자\_아기흥그는소리

자랑 자랑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잘도 크다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이레 오는 검둥개야  
저레 가는 검둥개야  
우리 아기 재와도라  
아니 재와 주다근에

질긴 질긴 춤베로  
발목다리 손목다리  
졸마 메영  
지픈 지픈 천지소에  
드르첫당 내첫당 허키여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잘도 크다

(고민자)  
명명개야 짓지 말라  
고구닭아 울지 말라  
(경도 헤낫네.(그렇게도 했었잖아.))  
웁이자랑 웁이자랑  
할마님이 둔밥 멕영  
둔좁 자게 허여 줍서

(박미선)  
웁이자랑 웁이자랑  
할망 손지 좋게 헉서  
물와 크듯 키와줍서  
춤웨 크듯 키와줍서  
웁이자랑 웁이자랑  
할마님이 둔밥 멕영  
둔좁 자게 허여 줍서



## 2. 한림읍 귀덕리

### 2-1. 귀덕리 마을 소개<sup>168)</sup>

귀덕리는 제주시 한림읍에 속한 마을로, 북쪽 해안가 동쪽으로는 애월읍 금성리, 서쪽으로는 수원리와 접한다. 남쪽으로는 중산간 지역인 대림리와 맞닿아 있으며, ‘어도오름’ 서쪽 사면과 인접해 있다. 지형은 북쪽 해안가가 넓고 남쪽 중산간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형태로, 전반적으로 평탄하다. 바다와 접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예로부터 해양 자원 활용과 농업이 공존하는 반농반어형 마을이다.

귀덕리는 예로부터 ‘석천촌(石淺村)’이라 불렸다. 귀덕 ‘사동(沙洞)’ 해안 근처에는 ‘큰여’와 ‘작은여’라 불리는 바위섬이 있었는데, 이를 ‘석



그림49 귀덕2리 진질동 해안

천도’라고도 하였으며, 마을 이름 역시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고려 숙종 7년(1212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에는 ‘석경현(石鏡縣)’으로 기록되었고, ‘늑커리’와 중동(都舍洞) 지역에 인구가 많았다고 전한다. 고려 충렬왕 16년(1300년)에는 제주도 14현 중 하나로 ‘귀덕현(歸德縣)’이라 기록되었다.

광해군 원년(1609년) 제주판관 김치가 현제(懸制)를 폐지하고 방리제(坊里制)를 실시하면서 ‘귀덕리’로 개칭하였으며, 1832년에는 마홀동(馬屹洞), 다교동(多橋洞), 신서동(新西洞), 사동(寺洞), 사동(沙洞), 장흥동(長興洞), 장로동(長路洞), 라신동(羅新洞) 등 8개 동이 설치되었다. 이후 사동(寺洞)과 사기동(四枝洞)을 합하여 장라동(長羅洞)으로, 도사동(都舍洞)을 중동(中洞)으로 개칭하였다. 귀덕1리는 과거 ‘돌여’ 또는 ‘돌덕’이라 불렸으며, 귀덕2리는 ‘쉐못개’와 ‘진질코지’로 불렸다. 귀덕3리는 ‘머

168) 제주도·북제주군·한림읍 『한림읍지』, 한림읍편찬위원회, 1999.; 귀덕3리 디지털제주문화대전 (<https://jeju.grandculture.net> 검색일 2025.8.5).;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24년 주민등록인구 통계표(<https://jumin.mois.go.kr/> 검색일 2025.6.19) 참조.



그림50 귀덕리

흘왓'과 '한다리'를 통합하여 새로 형성된 마을로, '신흥동'이라 명명되었다.

귀덕리는 1997년 기준 835세대에 2,229명이 거주했으며, 이 중 남자가 1,276명, 여자가 1,313명이었다. 2024년 기준 1,061세대에 1,906명이 거주했으며, 이 중 남자가 968명, 여자가 938명이었다. 전체적으로 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다.

귀덕리는 해안가에 인접한 지리적 조건 덕분에 예로부터 어업에 종사하였다. 농업으로는 쪽파, 양파, 양배추 등의 채소류가 주 작물이다. 특히 귀덕2리에서는 겨울철 농한기에는 '간파 마늘'이라는 상표로 다듬은 쪽파를 서울 가락동 시장을 통해 공급하며 높은 소득을 올렸다. 1900년대 초에는 소금 생산이 활발하여 제주 전역은 물론 내륙지방까지 소금을 공급하였으나, 1973년 새마을운동의 영향으로 염전 대부분이 매립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귀덕3리는 1990년대

이전까지는 보리를 많이 재배하였고 주요 농산물은 감귤이다. 최근에는 고령화와 건강 문제로 일부 농지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굴 농사 등으로 생업의 변화가 있다.

## 2-2. 귀덕리 제보자

---

### 2-2-1.

#### 홍춘화, 여, 1946년생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진질길 21

제보일시: 2025. 4. 9. / 2025. 6.25. / 2025. 6.26.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홍춘화는 1946년에 한림읍 한수리에  
서 태어나고 성장하였다. 17세에 출가  
물질(원정물질)<sup>169)</sup>을 처음 나갔다. 언니  
도 해녀여서 언니를 따라 전라도 여수  
안도에 간 것이 처음 나간 출가물질(원  
정물질)이었다. 이후에도 출가물질(원정물  
질)은 여러 곳을 나갔다. 25세에 귀덕2  
리로 시집왔고 아들 둘과 딸 셋을 두었  
다. 큰아들을 낳고 내리 딸을 셋을 낳고



---

169) 출가물질: 19세기 말 이후 제주해녀들 제주도 밖인 한반도, 일본, 중국, 러시아 등으로 나가서 물질했던 어로작업.

막내아들을 낳았다. 해녀를 오래 했는데 다리도 아프고 ‘물마중’<sup>170)</sup>  
나와 줄 사람도 없어서 지금은 해녀를 은퇴한 상황이다.

#### 제공 자료 목록

S\_20250409\_귀덕2리\_홍춘화\_네젓는소리

S\_20250625\_귀덕2리\_홍춘화\_네젓는소리1

S\_20250625\_귀덕2리\_홍춘화\_네젓는소리2

S\_20250626\_귀덕2리\_홍춘화\_네젓는소리

### 2-2-2.

#### 이금순, 여, 1936년생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해안로 588

제보일시: 2025. 4. 9. / 2025. 4.11. / 2025. 6.25.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이금순은 1936년 한수리 ‘비석동네’에서 태어나 성장하였다. 아버  
지는 한문 선생을 했고 어머니는 남편 뒷바라지를 하면서 집안일을  
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짓지는 않았다. 형제는 여동생이 하나 있다.  
어렸을 때 동생과 놀 때는 바닷가에 가거나 물놀이를 하였다. 열두  
살에 물에서 헤엄치기 시작해서 열일곱 살에 육지로 물질하러 갔다.

---

170) 물마중: 해녀가 채취한 해산물을 그 가족들이 물으로 옮겨 나르는 일.

열아홉 살에 귀덕2리로 시집을 왔다. 시집와서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군입대를 하였다. 시어머니께 남편이 제대할 때까지는 육지에 출가물질(원정물질)하러 다녀오겠다고 했다. 스물세 살에 외아들을 낳았다. 농사는 시어른들이 보리, 감자, 조 농사를 지었다. 특히 서촌은 조농사가 잘됐다. 남편은 제대하고 나서 스물세 살에 남의 배에 화장으로 일했다. 일 년 뒤에 배를 사주니까 배를 탔다. 고기를 낚을 때는 소리를 하지 않았고 그물을 당길 때도 소리를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 제공 자료 목록

S\_20250409\_귀덕2리\_이금순\_비양도소리(네젓는소리)  
S\_20250409\_귀덕2리\_이금순\_사데소리  
S\_20250409\_귀덕2리\_이금순\_흔다리인다리  
S\_20250411\_귀덕2리\_이금순 장금자\_달구소리  
S\_20250411\_귀덕2리\_이금순\_ㄱ레ㄴ는소리  
S\_20250411\_귀덕2리\_이금순\_넛들라  
S\_20250411\_귀덕2리\_이금순\_달구짓는소리  
S\_20250411\_귀덕2리\_이금순\_씨뿌리는소리  
S\_20250411\_귀덕2리\_이금순\_이어도사나  
S\_20250411\_귀덕2리\_이금순\_홍에모시는소리  
S\_20250625\_귀덕2리\_이금순\_이어도사나

#### 2-2-3.

#### 장금자, 여, 1944년생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2리 4044번지

제보일시: 2025. 4.11. / 2025. 6.26.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장금자는 귀덕2리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어렸을 때 부모님은 주로 조와 보리 농사를 지었고, 제보자도 어릴 적부터 농사일을 도왔다. 집에서는 농사에 필요한 소를 키우기도 했다. 25세에 결혼하여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두었고, 본인은 해녀로, 남편은 발동선의 기관장으로 일했다. 부부는 바다에 나가지 않으면 농사를 지으며 생활했다. 어렸을 때 놀면서 불렀던 노래에 대해 묻자, 어린아이였을 때는 기억나지 않으며 처녀였을 때 동네 친구들과 가요를 불렀다고 했다.



#### 제공 자료 목록

S\_20250411\_귀덕2리\_이금순 장금자\_달구소리  
S\_20250411\_귀덕2리\_장금자\_아기놀아주는소리  
S\_20250411\_귀덕2리\_장금자\_아기흥그는소리  
S\_20250411\_귀덕2리\_장금자\_조밎는소리  
S\_20250411\_귀덕2리\_장금자 이금순\_홍에모시는소리

S\_20250626\_귀덕2리\_장금자\_네젓는소리1

S\_20250626\_귀덕2리\_장금자\_네젓는소리2

#### 2-2-4.

#### 양창순, 여, 1935년생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2리 장흥동 5495번지

제보일시: 2025. 4.1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양창순은 한림읍 한림리 신근동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였다. 형제는 아들 다섯 딸 하나인데 그 중 막내딸이다. 스물두 살에 친척 어른들의 중매로 결혼하여 귀덕2리로 와서 현재까지 살고 있다.

친정 부모님은 보리, 조, 벼농사를 지었다. 벼농사를 규모 있게 해서 제사 지낼 것만 놔두고 팔았다. 친정 동네 사람들도 벼농사를 지었다. 시집와서 보니 동네에는 소금밭이 있었다. 소금은 동네 사람들 나눠 먹을 것으로 했고, 소금을 따로 사서 먹어본 적은 없었다. 딸 하나 아들 셋을 낳았다.



#### 제공 자료 목록

S\_20250411\_귀덕2리\_양창순\_왕이자랑

S\_20250411\_귀덕2리\_양창순\_해녀들 노래

S\_20250411\_귀덕2리\_양창순\_이어도허라

S\_20250411\_귀덕2리\_양창순\_달구소리

S\_20250411\_귀덕2리\_양창순\_어마넛들라

S\_20250411\_귀덕2리\_양창순\_넛들라

#### 2-2-5.

#### 김신녀, 여, 1943년생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2리

제보일시: 2025. 6.25. / 2025. 6.26.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김신녀는 귀덕2리 진질동에서 태어나서 22세에 결혼한 후에도 계속 한 동네에서 살고 있다. 슬하에는 2남 2녀를 두었다. 13세부터 물질을 하였고 19세부터 24세까지 뱃물질을 6년동안 했다. 김신녀는 귀덕2리 해녀들의 대상군<sup>171)</sup>이었다.



171) 대상군: 해녀 무리 가운데 물질 기량이 가장 뛰어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공자료목록

S\_20250625\_귀덕2리 경로당\_김신녀\_네젓는소리

S\_20250626\_귀덕2리 경로당\_김신녀\_네젓는소리

#### 2-2-6.

#### 이명자, 여, 1946년생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일주서로 5724

제보일시: 2025. 6. 25.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이명자는 한림읍 대림리에서 일곱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 23세에 귀덕2리로 시집왔다. 슬하에 자녀는 1남 4녀를 두었다. 귀덕2리에 언니 둘이 먼저 시집가 있었다. 19세에 방직공장에 가려고 했으나 사정이 생겨서 가지 못하고 출가물질(원정물질)을 갔다. 처음 경북 양포로 출가물질(원정물질)을 가서 물질하는 법을 배웠다. 그곳은 얇은 바다인데다 해산물도 많았다. 출가물질(원정물질)은



보통 2~3월에 나가서 8월 명절이 넘어서 돌아온다. 강원도 바다는 제주도 바다와 달리 신마지면<sup>172)</sup> 여름이라도 물이 너무 차가워서 도저히 물질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출가물질(원정물질)을 한 번 나가면 일찍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인솔자들이 보내주지 않아서 돌아

올 수가 없었다. 언니들이 시집오고 나서도 출가물질(원정물질)을 계속 다니라고 하였는데 아기가 계속 생겨서 갈 수 없었다고 한다.

집안 어른들이 아들을 바랐지만 계속 딸을 낳다 보니 아기를 낳았을 당시 많이 울었다고 하였다. 넷째가 아들인데 아들 하나를 더 낳아서 벗 삼아 키우라는 어른들의 말을 듣고 또 아이를 가졌으나 또 딸을 낳았다고 한다.

#### 제공자료목록

S\_20250626\_귀덕2리\_이명자\_네젓는소리1

S\_20250626\_귀덕2리\_이명자\_네젓는소리2

#### 2-2-7.

#### 김유생, 여, 1936년생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길 628

제보일시: 2025. 6. 25.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 
- 172) 신마지면: 냉수대 현상이 생기면, 냉수대는 여름철 연안역에 차가운 해수가 출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름철 동해 연안의 깊은 곳에 냉수가 존재하는 것이 정상 해황이지만 남서풍, 남동계절풍이 며칠 이상 지속적으로 불게 되면 연안 쪽 표층의 더운물이 외해측으로 밀려가고 심해에 있던 냉수가 표층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현상이다. 주로 6월 말에 시작하여 일시적으로 소멸과 발생을 반복하면서 8월말 경에는 거의 소멸하게 된다. <냉수대 정보 및 대처방안(해양자료속보, 제3959호, 국립수산물과학원 <https://nifs.go.kr/board>(검색일 2025.7.1.))

김유생은 1933년에 태어났으나 호적에는 1936년으로 등록하였다고 한다. 귀덕2리에서 태어나 성장하여 같은 마을에 시집을 갔다. 친정아버지는 당시 마을에서 비교적 부유하게 지냈으며, 형제로는 언니와 동생들이 있고 김유생은 둘째 딸이다. 동생이 여섯 살이던 해 어머니가 일본으로 떠나면서, 김유생이 집안 살림 대부분을 맡아야 했다. 키가 크고 일솜씨가 좋아 아버지는 “시집갈 때는 특별히 혼수를 잘 챙겨 보내겠다.”고 말하곤 했다고 한다.



언니와 동생들은 학교에 다니고 물질도 했지만, 제보자는 집안일을 책임져야 했기에 집을 비우지 못했다. 물질을 시작한 것은 여덟 살 무렵이며, 열 살이 되던 해에는 어린 동생들을 길가에 앉혀두고 혼자 바닷가로 내려가 ‘보말’<sup>173)</sup>을 잡고는 했다. 열 살 무렵 물질을 수시로 했다. 다만 살림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출가물질(원정물질)은 하지 못하고, 줄곧 귀덕 진질동 바다에서만 물질을 했다.

제보자는 19세에 시집가 다섯 남매를 두었다. 그러나 남편은 막내가 세 살이던 때 마흔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김유생은 물질로 생계를 유지하며 다섯 남매를 키웠고, 그 과정에서 몸이 성치 않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산에 올라가 꿀 베는 일도 했지만, 24일을 일해도 여상에 다니던 두 자녀의 수업료조차 모두 마련하지 못해 한 명 몫만 간신히 낼 정도였다. 반면 물질은 수입이 좋아, 자녀들을 공

173) 보말: 고등.

부시키기 위해 죽기 살기로 물질을 했다고 말했다.

#### 제공자료목록

S\_20250625\_귀덕2리 경로당\_김유생\_네젓는소리1

S\_20250625\_귀덕2리 경로당\_김유생\_네젓는소리2

#### 2-2-8.

#### 고순화, 여, 1937년생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2리 4153

제보일시: 2025. 6. 26.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고순화는 귀덕2리 라신동 태어나 성장하였고 21세에 귀덕2리 진질동으로 시집갔다. 슬하에 자녀는 아들만 넷이다. 남편은 배를 몰아 생선을 낚았는데 33세에 작고하였다. 그래서 막내아들은 유복자이다. 옛날에 이 동네에서는 일반적으로 남편은 배를 몰고, 부인은 물질을 했다.



물질은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그때는 ‘물소중이’<sup>174)</sup>를 입었기 때문에 추워서 물 밖으로 나오면 햇볕에 따뜻해진 바

174) 물소중이: 물질할 때 입는, 오른쪽 옆이 트인 물옷.



위 위에 엎드려서 몸을 녹이고는 했다. 소는 밭을 갈려고 기르고, 말은 타고 다니려고 길렀다. 고순화는 물질하고, 검질 매고, 소와 말을 기르면서 그렇게 세월이 다 가버렸다고 했다.

#### 제공자료목록

S\_20250626\_귀덕2리\_고순화\_해방의노래

#### 2-2-9.

#### 강춘자, 여, 1935년생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3리

제보일시: 2025. 6. 27.

조사자: 양인정

강춘자는 귀덕3리 동카름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귀덕3리 멀왓 웃동네로 시집와서 평생 그곳에서 살았다. 귀덕3리에서 사는 동안 별도의 직업을 가지지 않고 농사만 지었다. 재배한 작물은 고구마, 마늘, 콩, 조, 보리가 있었다. 현재는 농사를 짓지 않으며, 농사를 지었던 시기는 아주 오래전이라고 하였다.



#### 제공자료목록

S\_20250627\_귀덕3리\_강춘자\_사데소리

S\_20250627\_귀덕3리\_강춘자\_땃불리는소리

S\_20250627\_귀덕3리\_강춘자\_도리깨질소리

S\_20250627\_귀덕3리\_강춘자\_ㄱ레ㄴ는소리

#### 2-2-10.

#### 김천혜, 여, 1938년생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 하동 1018번지

제보일시: 2025. 7. 1. / 2025. 9. 18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김천혜는 한림읍 귀덕1리 사동에서 태어나 바로 옆 동네인 하동으로 시집갔다. 결혼 후에 현재까지 같은 마을에서 살아오고 있다. 한 곳에서만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해 “어디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산 것은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어린 시절, 7세 무렵에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어머니는 재가하였다. 이후 조모의 손에 자랐으며, 조부의 보호 아래 성장하였다. 조부는 젊은 시절 무역선을 타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온 경험이 있었으며, 바닷일을 하는 사람들의 거친 행동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조



부모의 교육관이 뚜렷하여 돈을 버는 것보다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항상 가르쳤다. 그 영향으로 친정아버지와 형제들은 일본에서 유학 후 대부분 공무원으로 일했다. 친정아버지는 세무서 직원이었다. 조부모의 가르침에 따라 바닷일에 관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해녀가 되는 것도 금지하였다.

김천혜는 12세 무렵 ‘테왁’을 준비해 물질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조부의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고, 어촌계에도 가입하지 못했다. 대신 조부는 “해업은 반드시 배워야 한다”며 바닷가에서 수영을 가르쳤다. 결국 바다에서의 생업은 이어가지 못했고, 조모와 함께 살며 귀덕1리에서만 생활하게 되었다.

22세에 26세의 남편과 결혼하였으며, 첫째로 아들을 낳았다. 이후 둘째도 아들을 바라며 출산을 이어갔으나, 딸을 연이어 낳게 되었고, 다섯째 자녀로 다시 아들을 얻었다. 총 다섯 명의 자녀를 두었다. 39세에는 남편이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였다. 시댁의 일가친척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였다.

생계는 마을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이어갔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큰잇물머리점빵’으로 불리던 이 가게는, 마을 도로가 새로 생기기 전까지 계속 운영되었다. 김천혜는 귀덕1리에서 가장 먼저 수도관을 설치한 가구로, 당시 최초 설치 가구에 한 해 설치비를 면제받기도 했다. 또한 마을에서 가장 먼저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한 사례이기도 하다.

#### 제공자료목록

S\_20250701\_귀덕1리\_김천혜\_뱃불리는소리

S\_20250701\_귀덕1리\_김천혜\_물질하러가는소리1

S\_20250701\_귀덕1리\_김천혜\_물질하러가는소리2

S\_20250701\_귀덕1리\_김천혜\_물질하러가는소리3

S\_20250918\_귀덕1리\_김천혜\_물질하러가는소리

#### 2-2-11.

#### 오순희, 여, 1931년생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205

제보일시: 2025. 7. 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오순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명월리에서 태어나, 24세에 귀덕1리로 시집갔다. 남편과는 동갑이며, 슬하에 아들 넷을 두었다. 남편은 애월읍 ‘말팓동네(어름배)’ 출신이나, 결혼 후 귀덕1리 ‘절골동네’에 정착하였다. 남편은 제주4·3 당시 폭도로 지목되어 고문을 당했으며, 그 후유증으로 65세에 사망하였다.



오순희는 원래 혼인 적령기였던 19세 무렵 결혼하지 못하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혼인할 수 있었다고 회고하였다. 그 배경에는 친정아버지의 사회적 위치와 제주4·3이 있었다. 친정아버지는 당시 드물게 국민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마을 이장을 맡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제주

4·3 당시 폭도로 지목되어 모욕과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이러한 가족 배경은 딸의 혼사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제보자는 설명하였다. 시집온 이후에는 주로 농사일에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 제공자료목록

S\_20250701\_귀덕1리\_오순희\_사데소리1  
S\_20250701\_귀덕1리\_오순희\_사데소리2  
S\_20250701\_귀덕1리\_오순희\_사데소리3

#### 2-2-12.

#### 홍화자, 여, 1935년생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4길 62

제보일시: 2025. 7. 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홍화자는 애월읍 남읍리 동화동이 고향이고, 귀덕1리 중동으로 시집왔다. 슬하에 1남 4녀를 두었고, 아들이 첫째인데 또 아들을 낳으려 했지만 딸만 계속 낳았다고 한다.

결혼하기 전 친정에서는 농사를 지으며 어머니를 돕기 위해 김을 매기도 했다. 17세에 부산에 가서 지내다가 18세



부터 부산방직에 들어가 8년간 일했다고 했다.<sup>175)</sup> 당시 부산방직에는 부서가 아주 많았고, 조합원만 7,000명이었으며, 자신은 키가 작아서 실을 빼는 부서로 배치되었다고 하였다.

#### 제공자료목록

S\_20250701\_귀덕1리\_홍화자\_사데소리1  
S\_20250701\_귀덕1리\_홍화자\_사데소리2  
S\_20250701\_귀덕1리\_홍화자\_사데소리3  
S\_20250701\_귀덕1리\_홍화자\_사데소리4

#### 2-2-13.

#### 김원여, 여, 1935년생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일주서로 5844

제보일시: 2025. 7. 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김원여는 귀덕2리 진질동에서 태어났다. 가풍이 보수적인지라 할아버지가 아들들은 공부를 해도 딸들은 공부해서 쓸 곳이 없다고 학교를 보내주지 않아 15세에 야학으로 글을 깨쳤다. 29세에 귀덕1리 모살동네로 시집을 왔다. 결혼할 당시 남편은 30세였다. 남편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장터를 돌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

175) 부산방직에서 제작하던 원단으로 '치포, 링고, 와인단, 소곡, 렌즈끼'라고 원단명을 말했다.

다. 슬하에는 3남 3녀를 두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집을 살 자금 13만 원을 구하였고 마침 길가의 초가집을 살 수 있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했다. 이제까지 살면서 장만한 재산이라고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부라고 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물질을 잠깐씩 하기는 했지만 잡화를 싣고 장터를 돌면서 장사를 하느라고 꾸준히 하지는 못했다. 물질은 집에서 먹을 해초를 해오는 정도였고 본격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었다.

남편은 교통사고로 50세에 작고하였다. 남편의 황망한 죽음으로 아이 여섯과 살아가는 것이 막막했으나 그래도 아이들이 있어 살 수 있었다고 했다. 다행히 아이들은 아프지 않고 잘 자라주었다고 하였다.



#### 제공자료목록

S\_20250701\_귀덕1리\_김원여\_ㄹ레ㄹ는소리1  
S\_20250701\_귀덕1리\_김원여\_ㄹ레ㄹ는소리2  
S\_20250701\_귀덕1리\_김원여\_사데소리1  
S\_20250701\_귀덕1리\_김원여\_사데소리2  
S\_20250701\_귀덕1리\_김원여\_뱃불리는소리1  
S\_20250701\_귀덕1리\_김원여\_뱃불리는소리2  
S\_20250701\_귀덕1리\_김원여\_아기흥그는소리1

S\_20250701\_귀덕1리\_김원여\_아기흥그는소리2  
S\_20250701\_귀덕1리\_김원여\_아노까오데1  
S\_20250701\_귀덕1리\_김원여\_아노까오데2  
S\_20250701\_귀덕1리\_김원여\_이어도사나1  
S\_20250701\_귀덕1리\_김원여\_이어도사나2  
S\_20250701\_귀덕1리\_김원여\_이어도사나3  
S\_20250701\_귀덕1리\_김원여\_이어도사나4  
S\_20250701\_귀덕1리\_김원여\_행상메가는소리1  
S\_20250701\_귀덕1리\_김원여\_행상메가는소리2  
S\_20250701\_귀덕1리\_김원여\_행상메가는소리3  
S\_20250701\_귀덕1리\_김원여\_행상메가는소리4

#### 2-2-14.

#### 조임생, 여, 1932년생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 3411

제보일시: 2025. 7. 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조임생은 귀덕1리 웃동네 성로동에 태어나서 21세에 하동으로 시집갔다. 남편은 조임생보다 한 살 많았고, 슬하에 3남 1녀를 두었다. 물질은 하지 않고 줄곧 농사만 지었다. 다른 사람들



에 비해 농사를 많이 지었던 것은 아니라고 했다. 시집와서 보리, 조, 고구마, 콩, 깨 농사를 지었다. 그러다 굴 농사는 59세인 둘째 아들이 3세 되던 해에 시작했으며, 그 아들이 20세 되던 해에 정리했다. 굴 농사가 힘들어서 계속 할 수가 없어 폐원하게 되었다. 이후에는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해서 땅을 모두 빌려주었다.

#### 제공자료목록

S\_20250701\_귀덕1리\_조임생\_사데소리

S\_20250701\_귀덕1리\_조임생 고민자\_밧블리는소리

S\_20250701\_귀덕1리\_조임생\_아기흥그는소리

## 2-2-15.

### 고민자, 여, 1944년생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남5길 7-7

제보일시: 2025. 7. 1. / 2025. 9. 18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고민자는 아버지가 일본에서 유학하던 시기에 일본에서 태어났으며, 3세 때 아버지의 유학이 끝나 금악리로 돌아왔다. 5세 무렵 제주4·3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군경에 의해 연행되어 사망하였다.

이후 할머니는 큰아들을 잃은 충격으



로 화병을 앓다 사망하였고, 할아버지는 남은 두 아들에 의지해 생계를 이어갔다. 어머니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소개령으로 피신하였다가, 금악리가 재건된 이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고민자는 금악리에서 제보자 박미선과 동네 친구로 지냈다고 한다. 이후 24세에 귀덕1리 신서동으로 시집가, 네 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하여 아들 하나, 딸 다섯을 두었다. 시집온 이후에는 조, 콩, 보리, 고구마 농사를 지었다. 한창 농사를 지을 당시에는 과수원 약 3,000평, 밭 약 2,000평 규모로 농사를 지었다. 농사 규모가 점차 커진 이유는 자녀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하며, 그래서 부지런히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하였다.

#### 제공자료목록

S\_20250701\_귀덕1리\_고민자\_ㄴ레ㄴ는소리

S\_20250701\_귀덕1리\_고민자\_밧블리는소리

S\_20250701\_귀덕1리\_조임생 고민자\_밧블리는소리

S\_20250701\_귀덕1리\_고민자\_방에짚는소리

S\_20250701\_귀덕1리\_고민자\_사데소리

S\_20250701\_귀덕1리\_고민자\_아기흥그는소리

S\_20250701\_귀덕1리\_고민자\_출비는소리

S\_20250918\_귀덕1리\_고민자\_물질하러가는소리

S\_20250918\_귀덕1리\_고민자\_사데소리

S\_20250918\_귀덕1리\_고민자\_아기흥그는소리

S\_20250918\_귀덕1리\_고민자\_밧블리는소리

S\_20250918\_귀덕1리\_고민자\_도리깨질하는소리

S\_20250918\_귀덕1리\_고민자\_ㄴ레ㄴ는소리



S\_20250918\_귀덕1리\_고민자\_방아찢는소리  
 S\_20250918\_귀덕1리\_고민자\_오돌또기  
 S\_20250918\_귀덕1리\_고민자\_양산도  
 S\_20250918\_귀덕1리\_고민자\_청춘가  
 S\_20250918\_귀덕1리\_고민자\_창부타령  
 S\_20250918\_귀덕1리\_고민자\_달구소리  
 S\_20250918\_귀덕1리\_고민자\_출비는소리  
 S\_20250918\_귀덕1리\_고민자\_할미꽃

## 2-1-16.

### 고정자, 여, 1944년생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수폴로 267

**제보일시:** 2025. 11. 7. / 2025. 11. 24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고정자의 고향은 한림읍 판포리이며, 친정어머니와 아버지는 조와 밭벼 등 여러 작물을 재배하며 비교적 넉넉한 살림을 꾸렸다. 형제는 모두 여덟 남매로 일곱째이다.

고정자는 12살 무렵, “야학을 시켜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육지로 나가 ‘애기엽게(아기 보모)’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하던 집에서는 세 달이 지나



도록 야학에 보내주지 않아 실망한 끝에 제주로 돌아왔다. 그럼에도 육지 생활이 더 나은 듯하여 다시 일을 찾아 나가게 되었다. 이후 아들 넷을 둔 부유한 집에 양녀로 들어갔으나, 양아버지는 잘 대해 준 반면 양어머니의 냉대가 심했고 어린 동생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 몇 달 만에 그 집을 나왔다. 제주로 돌아가지 않고 영도 일대의 상가를 돌며 제주 사람을 수소문하던 중에 아는 사람을 만나 도움을 얻었고, “애기엽게도 좋고 식모도 좋다.”고 하여 다시 일자리를 구해 부암동의 잘사는 집 식모로 들어갔으나 석 달 만에 나왔다. 부암동에서 고향 친구를 수소문하다가 병원을 운영하는 가정에서 ‘애기엽게’로 일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마침 한림 출신 수간호사가 있어 큰 보살핌을 받았다. 고정자는 이곳에서 보조 간호사로 일하며 16살까지 지냈고, 병원 업무에 능숙해져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았다. 병원이 서울로 이전하면서 일을 그만둔 뒤에는 면도날 공장, 타올 공장, 비단 공장, 고무공장 등 여러 곳에서 일했다. 특히 고무공장에서는 신발 제조에 능숙해 급여도 좋은 편이었다.

18살에 제주로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와 셋째 언니가 병환 중이었다. 20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밭을 갈 사람을 구하지 못해 직접 소를 몰아 ‘머들밭’을 갈았고, 지나친 노동으로 사흘이나 몸져눕기도 했다. 셋째 언니는 해녀였으나 병으로 일을 못하게 된 상황에서 고정자에게 물질을 하라고 권하였다. 늦은 나이에 물질을 배우려다 보니 ‘맥주병’이라며 놀림을 받았고, 해엄을 치지 못해 ‘해경<sup>176)</sup>’ 때 들어갈 표도 받지 못했으나 셋째 언니의 격려 덕분에 물질을 배울 수

176) 해경: 해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채취를 금했다가 합의된 날짜에 금지를 풀고 채취를 시작하는 것.

있었다.

고정자는 “상군<sup>177)</sup>이 되지 못하면 성을 바꾸겠다.”는 각오로 물질을 배웠고 27살에 상군이 되고는 판포리 물질을 그만두었다. 출가물질(원정물질)은 결혼 후 시작했는데, 첫 원정은 경상도 포항 갯바위였으며, 두 번째는 경주 양남바다로 갔다. 제일 멀리는 백령도까지 갔었다. 출가물질을 나갈 때는 전도금을 잡히고 일을 했으며, 물질이 끝나면 그 금액을 제하고 임금을 받았다.

애초에는 일본으로 건너가려 돈을 모았으나, 오빠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일본으로 떠나버려 계획을 접고 27살에 중매로 결혼하게 되었다. 남편은 고정자보다 한 살 많은 귀덕3리 출신이었으며, 결혼 당시에는 한림에 거주하고 있었다. 부부는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두었다.

결혼 후에도 한림에서 살며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다양한 일을 하였고, 시집와서는 마을 어른들과 함께 놀러 다니기도 하며 기운을 북돋아 주기 위해 애썼다. 본래 끼가 많아 춤과 노래를 좋아했으나, 60대 이후 열 번이 넘는 수술을 받으며 건강이 나빠져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게 되었다. 남편의 건강이 악화 되자 남편 고향인 귀덕3리로 돌아와 살고 있다.

#### 제공자료목록

S\_20251107\_귀덕3리\_고정자\_사데소리

S\_20251107\_귀덕3리\_고정자\_시집살이(진주난봉가)

S\_20251107\_귀덕3리\_고정자\_시집살이노래

---

177) 상군: 해녀 무리 가운데 물질 기량이 뛰어난 사람.

S\_20251124\_귀덕3리\_고정자\_시집살이(진주난봉가)

S\_20251124\_귀덕3리\_고정자\_시집살이노래

S\_20251124\_귀덕3리\_고정자\_회심곡



## 2-3. 귀덕리 노동요

---

노동요는 노동이 수반된 민요로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

### 네젓는소리1

- 어업요-노 젓는 소리: 해녀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저을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3길 40 귀덕2리 경로당.

**조사 일시:** 2025. 4. 9.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홍춘화, 여, 1946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는 노 젓는 것을 잘했었다고 한다. 노를 저을 때는 양쪽에 서서 노를 저으면 ‘이어도 사나~’하면 다음 사람이 받아서 ‘이어사’ 하면서 다녔다고 한다.

**자료 코드:** S\_20250409\_귀덕2리\_홍춘화\_네젓는소리

이어도 사나 이어 사~  
우리 배는 잘도 간다  
참나무로 지은 배라  
참새 새끼 나는 듯이  
잘도 간다 잘도 간다  
이목 저목 울담목이  
허리나 알로 당겨들라  
이어사 이어사나 이어사

저라 저라 잘도 간다

이어도사나

### 비양도소리(네젓는소리)

- 어업요-노 젓는 소리: 해녀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저을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3길 40 귀덕2리 경로당.

**조사 일시:** 2025. 4. 9.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이금순, 여, 1936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는 서촌 노래도 좋은데 동촌 노래만 부르고 서촌 노래는 부르지 않아서 서운하다고 하면서 노래를 시작했다. 노래 제목을 ‘비양도’라고 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409\_귀덕2리\_이금순\_비양도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비양도 돌아진 섬에  
삼시 굶어 물질 허나  
한 푼 돈도 돈이로구나  
두 푼 돈도 돈이로구나  
한 푼 두 푼 메와다<sup>178)</sup> 노난

---

178) 메와다: 채워다. 메우다. 재료를 제자리에 채우다.

낭군님 술값에 다 들어갔네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우리 배는 잘도나 간다

## 사데소리1

- 농업요-김매는 소리: 김매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3길 40 귀덕2리 경로당.

**조사 일시:** 2025. 4. 9.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이금순, 여, 1936년생

**구연 상황:** 농사일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었는지를 질문하자, 이금순은 자신이 직접 부른 적은 없지만 여기저기에서 들은 풍월을 기억해 노래해 보겠다고 하며 소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노래 도중 다른 노랫말이 섞여 나오면서 중단하였고, 기억이 나지 않아 더 이상 부를 수 없다고 하였다. 이어 “‘이어도 사나’는 바다 소리다”라고 설명하며, 나이가 아흔에 가까워져 기억이 흐릿하다면서 다른 사람을 추천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409\_귀덕2리\_이금순\_사데소리

앞명에야 무너나사라  
앞명에야 물러나사라  
이밭곳 저밭곳 앞으로 강은에  
우리나 검질 메영 살아나 보자

이어 이어 이어사 사나

## 조블리는소리

- 농업요-밭 밟는 소리: 주로 조농사를 할 때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밟을 밟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3길 40 귀덕2리 경로당.

**조사 일시:** 2025. 4. 1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장금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소로 밟을 갈던 시기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지 질문하자, 곁에 있던 이금순이 “어서 불러 보라”고 권유하였다. 장금자는 “잊어버린 알아지크라.(잊어버려 잘 모르겠다.)”고 말하며 짧게 소리를 하였다. 해당 소리가 매우 짧았기 때문에, 조사자가 소가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소리하였는지 재차 묻자, 제보자는 소리 한 대목을 더 이어 불렀다.

**자료 코드:** S\_20250411\_귀덕리\_장금자, 이금순\_조블리는소리

이러 이러 이러 이러러러러~  
흔저 걸으라 높은 디 불르고 앞은 디랑 말꼭  
이러 이러 이러 이러어~! 허쉬!  
이 놈으 쉼야 흔저 걸으라 무사 영 애간장 탕 쯤게 걸으라 허쉬! 허쉬!

## 씨뿌리는소리

- 농업요-밭 밟는 소리: 주로 조농사를 할 때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밭을 밟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3길 40 귀덕2리 경로당.

**조사 일시:** 2025. 4. 1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이금순, 여, 1936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가 씨를 뿌리면서 하는 소리가 있다고 짧게 불렀다. ‘영 행 씨 뿌리멍(이렇게 해서 씨 뿌리면서)’이라고 말하면서 짧게 소리를 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411\_귀덕2리\_이금순\_씨뿌리는소리.

이러 이러~ 이어 돌 돌 혼저 돌랑돌랑 걸으라

## 흥에모시는소리

- 농업요-흙덩이 부수는 소리: 따비나 소에 쟁기를 달고 땅을 일구면 흙이 덩어리가 저 나오는데, 이 흙을 곱베라는 도구를 사용해 부술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3길 40 귀덕2리 경로당.

**조사 일시:** 2025. 4. 1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이금순, 여, 1936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흙덩어리를 부수면서 부르는 노래에 대해서 물었더니 “흥에 흥에 흥에 모시는 거”라는 말이 제보자 주변의 사람들이 설명이 이어졌다. 제보자는 음이 잘 떠오르지 않는 듯 거의 말하듯

이 노래를 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411\_귀덕2리\_이금순\_흥에모시는소리

이 병에야<sup>179)</sup> 저 병에야 혼저 모상

혼저 밧 부각 부각 허영 혼저 곡석 잘뒤편

경 굴아낫주게 옛날

아이고 요 놈의 멩에야 혼저 보사지라<sup>180)</sup>

어 보사지라

밧이나 보각 보각 허영은에 존디나<sup>181)</sup> 바락 바락 쿡쿡 크게 허여줍서

## 이어도사나1

- 어업요-테왁 짚고 헤엄치며 부르는 노래: 해녀들이 바다로 뛰어들어 테왁을 가슴에 짚고 물질을 할 바다 지경까지 헤엄쳐 갈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3길 40 귀덕2리 경로당.

**조사 일시:** 2025. 4. 1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이금순, 여, 1936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가 해녀 스무 명 정도 줄지어 바닷가에서부터 물질하는 곳까지 헤엄쳐 가면서 부르던 노래가 있었다면서 노랫말을 말

179) 병에야: 밧-병에. 논밭을 쟁기로 갈 때 벼를 따라 넘어간 흙덩이.

180) 보사지라: 부서지라.

181) 존디나: 좋은 데나.

하듯이 했다. 물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노래를 했다고 한다. 뱃물질을 하지 않아서 노 젓는 소리는 많이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자료 코드:** S\_20250411\_귀덕2리\_이금순\_이어도사나

이어도 싸나 이어도 싸나  
어떤 어멍 나는 애긴  
팔제 좋아 고데광실<sup>182)</sup> 높은집이 살고  
우리 어멍 낫는 아긴  
어멍 허난 팔주 곳엉 물에만 들렌

## ㄱ레ㄴ는소리1

- 제분요-맷돌질소리: 맷돌에 곡식을 넣고 갈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3길 40 귀덕2리 경로당.

**조사 일시:** 2025. 4. 1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이금순, 여, 1936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가 어렸을 때 맷돌을 돌리면서 줄면 어머니께서 바가지로 때렸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소리를 짧게 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411\_귀덕2리\_이금순\_ㄱ레ㄴ는소리

이어 이어~ 이어 이눔으 ㄱ레야 달달 혼저 털어나지라  
뱅뱅 돌앙 요 보리 굵 듯 \*\*\* 이어 이어 이어도 ㄱ레야

<sup>182)</sup> 고데광실: 고대광실(高臺廣室).

## 해녀노래

- 어업요-테왁 짚고 해엄치며 부르는 노래: 해녀들이 바다로 뛰어들어 테왁을 가슴에 짚고 물질을 할 바다 지경까지 해엄쳐 갈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3길 40 귀덕2리 경로당.

**조사 일시:** 2025. 4. 1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양창순, 여, 1935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해녀들이 물질을 할 때 부르는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질문하자, 양창순은 짧은 구절을 구술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411\_귀덕2리\_양창순\_해녀노래

이어도 허라  
이어도 허라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어느 제랑 물질 허영 돈 벌으코  
언제랑 혼저 벌영 돈 벌영 가사

## 이어도허라

- 제분요-맷돌질소리: 맷돌에 곡식을 넣고 갈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3길 40 귀덕2리 경로당.

**조사 일시:** 2025. 4. 1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양창순, 여, 1935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ㄱ레 ㄱ는소리’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자, 양창순은 “이어도 허라?”라고 되물었으며, 이에 조사자가 긍정하자 즉시 노래를 이어 불렀다.

**자료 코드:** S\_20250411\_귀덕2리\_양창순\_이어도허라

이어 이어 이어도 허라  
이어 이어 이어도 허라  
흔저 굴앙 흔저 가져사 혈건디  
흔저 굴라 흔저 굴라 잊어불지말앙  
흔저 굴라 흔저 굴라 흔저 굴라

## 네젓는소리2

- 어업요-노 젓는 소리: 해녀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저을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3길 40 귀덕2리 경로당.

**조사 일시:** 2025. 6. 25.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김신녀, 여, 1943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해녀들이 물질을 할 때 부르는 소리를 요청하자 김신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소리를 했다. 이금순은 김신녀가 뱃물질을 했던 해녀라서 역시 소리가 다르다고 했다. 귀덕2리 대상군을 잘 만났다고 했다. 노 저으며 부르는 소리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니 바로 불러주었다. 김신녀는 노래를 끝내고 뱃물질을 5년 동안 했다고 말했다. 지금은 목청이 없어서 잘 부르지 못한다고 했다.

**자료 코드:** S\_20250625\_귀덕2리 경로당\_김신녀\_네젓는소리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요 넬 젓고 어딜 가리  
진도바당 한골로 간다<sup>183)</sup>  
이어도사나 처라 베겨라  
이어도사나  
파도 세고 물 센디  
대마도로 온 가족  
생명줄을 등에 다지고  
대마도로 물질 가서  
하루 종일 허였어라  
변 것은 하나도 없고  
눈에 즙이 아니 온다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요 넬 젓고 어딜 가리  
진도바당 한골로 간다  
이어도사나 처라 베겨라  
이어도사나  
파도 세고 물 센디  
대마도로 온 가족  
생명줄을 등에 다지고  
대마도로 물질 가서

---

183) 한 골로 간다: 한 줄로 간다.

하루 종일 허였어라  
번 것은 하나도 없고  
눈에 즙이 아니 온다

### 네젓는소리3

- 어업요-노 젓는 소리: 해녀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저을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3길 40 귀덕2리 경로당.

**조사 일시:** 2025. 6. 25.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김유생, 여, 1936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 김유생은 뱃물질을 해서 역시 소리를 잘한다고 제보자 장금자가 제보자 김유생의 이력을 말해주었다. 제보자 김유생은 주저하지 않고 노래를 불렀다. 조사자가 이 노래를 테왁 짚고 헤엄치면서 갈 때도 부르는지 물었더니 맞다고 답하였다. 노래가 끝난 후 제보자 장금자가 제보자 김유생은 대상군이고 지금은 나이가 많지만 물질을 잘 한다고 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625\_귀덕2리 경로당\_김유생\_네젓는소리1,  
S\_20250625\_귀덕2리 경로당\_김유생\_네젓는소리2

이어싸~ 이어싸  
이어도사나  
이어싸~ 이어도사나  
우리 물에 들때  
구름 ㄱ지 히어 가고

히어 오고  
물질히단 보난  
백이~ 나누나  
홀수엇이 노인당에  
오란 놀암시난  
노래나 허렌  
노래가 잘허여점신게  
금강산으로 백살난디  
잘도 한다  
이어도사나 이어싸  
쳐라 베겨 잘도 논다  
좋다 좋다  
잘도 좋다

이어싸~ 이어싸  
이어도사나  
흔저 가게 저 바당에  
가고 보면 물건도 많고  
흔 망시리 ㅎ영 오게  
흔저 가게 흔저 가게  
흔저가  
흔 망시리씩 ㅎ영 오게

## 네젓는소리4

- 어업요-노 젓는 소리: 해녀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저을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3길 40 귀덕2리 경로당.

**조사 일시:** 2025. 6. 25.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홍춘화, 여, 1946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네 젓는 소리'를 요청하자 제보자 홍춘화는 불러준 적이 있다면서 왜 또 불러달라고 하는지 물었다. 조사자가 노랫말이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더 길게 불러줄 것을 요청하자 노래를 불렀다.

**자료 코드:** S\_20250625\_귀덕2리\_홍춘화\_네젓는소리1,  
S\_20250625\_귀덕2리\_홍춘화\_네젓는소리2

이어도사나 이어사~  
이어도사나  
산이야 고개 넘고 가자  
아니야 지어 못왓서라  
이어사~ 이어사  
이목 저목 울담목이  
허리나 알로 감겨들라  
이어사~ 이어사~  
우리야 배는 삼나무로  
지은 배라  
참매 새끼 나는 듯이  
잘도 간다 이어사  
이어도사나 이어사

이어도사나 이어사~  
이어도사나  
산이야 고개 넘고 가자  
아니나 지어 못 넘더라  
이어사~ 이어도사나  
이목 저목 울담목이  
허리나 알로 감겨 들라  
이어사~ 이어도사나~  
이목 저목 울담목이  
허리나 알로 감겨 들라  
이어사 이어도사나  
산이야 고개 넘고 가자  
아니나 지어 못 넘더라  
이어사 이어도사나

## 네젓는소리5

- 어업요-노 젓는 소리: 해녀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저을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3길 40 귀덕2리 경로당.

**조사 일시:** 2025. 6. 25.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이금순, 여, 1936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네 젓는 소리'를 재요청하자 이금순은 바로 구연했다.

**자료 코드:** S\_20250625\_귀덕2리\_이금순\_이어도사나



이에도사나 이에도사나  
 우리 배는 잘도 나간다  
 비양도 돌아진 섬에  
 삼시 굶어 물질 허난  
 혼 푼 돈도 돈이로구나  
 두 푼 돈도 돈이로구나  
 혼 푼 두 푼 메와 노난  
 낭군님 술값에 다 들어가네  
 이에도사나 이에도사나  
 우리 배는 잘도 간다

이에도사나 이에도사나  
 우리 배는 잘도 나간다  
 이에도사나 이에도사나  
 비양도 돌아진 섬에  
 삼시 굶어 물질 허난  
 혼 푼 두 푼 메와 노난  
 낭군님 술값에 다 들어갔네  
 이에도사나 이에도사나  
 이어서 이에도사나

## 네젓는소리6

- 어업요-노 젓는 소리: 해녀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저을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3길 40 귀덕2리 경로당.

**조사 일시:** 2025. 6. 26.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이명자, 여, 1946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네 젓는 소리’나 ‘이에도사나’ 해녀노래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제보자 이명자는 노래를 불렀던 것이 생각나지 않는 다며 다른 제보자들이 먼저 노래를 부르기를 원했다. 해녀 했던 시절이 너무 오래 전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제보자 ‘이금순이 노래를 잘한다고 진작부터 소개했다며 얼른 부르라고 재촉하고, 제보자 장금자가 첫 소절을 불러주니 잠시 망설이다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이 받는 소리를 해주었는데 노래를 부르다가 멈추고는 큰 소리로 웃었다. 주변에서는 잘 부른다면서 박수를 쳤지만 다 잊어버렸다면서 웃었다. 조사자가 더 길게 불러 줄 것을 요청하니 바로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

**자료 코드:** S\_20250626\_귀덕2리\_이명자\_네젓는소리1

S\_20250626\_귀덕2리\_이명자\_네젓는소리2

이에도사나 이에도사나아~  
 이에도사나  
 요 넬 젓엉 어딜 가리  
 진주바당 한 골로 가자  
 이에도사나아~ 이에도사나  
 산 돛 들앙<sup>184)</sup> 배질 하긴

184) 산 돛 들앙: 선 돛 달아. 제보자가 돛을 세워 단 배라고 함.

선주 사공 노념이요  
 붓대나 심영 글 잘 쓰긴  
 서울 양반 노념이요  
 이어도사나아~ 이어도사나  
 처라 처라 처라 처라  
 잘 넘어간다 잘 넘어간다  
 처라 베겨라 처라 베겨라  
 쿵쿵 저라 쿵쿵 저라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요 넬 젓엉 어딜 가리  
 진주바당 한 골로 가자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산돛 달앙 배질 하기  
 선주 사공 노념이요  
 붓대나 심영 글 잘 쓰기  
 서울 양반 노념이요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우리 어멍 날 날 적에  
 양주먹 불끈 쥐고  
 구들리기 빙빙 돌며  
 아야자야 낳은 자식  
 중학 대학을 못 시길 망정

해천영업<sup>185)</sup>이 웬말일꼬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저 산천에 풀잎새는  
 해년 마다 파룻파룻  
 이 내 몸은 해년 마다  
 소곡소곡 다 늙어가네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처라 처라 처라 베겨라  
 쿵쿵 저라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잘 넘어간다

## 네젓는소리<sup>7</sup>

- 어업요-노 젓는 소리: 해녀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저을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3길 40 귀덕2리 경로당.

**조사 일시:** 2025. 6. 26.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장금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해녀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를 끝낼 때는 “매기”<sup>186)</sup>라고 외쳐서 주변 사람들의 폭

185) 해천영업이: 해천영업은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을 캐는 일을 생업으로 삼는 이를 말한다.

186) 매기: 물건이 다되어 없음을 뜻한다.

소를 유발했다. 조사자가 “매기”라고 하지 말고 노래를 불러라고 다

시 요청하니 제보자 장금자는 다시 노래를 불렀다.

**자료 코드:** S\_20250626\_귀덕2리\_장금자\_네젓는소리1,

S\_20250626\_귀덕2리\_장금자\_네젓는소리2

이어사~ 이어도사나~

요 넬 젓고 어덜 가리

진도바당 물질 가게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우리 어멍 날 날 적에

대천바당 물질하라고

나를 낫던가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대천바당 요 물 속에

은과 금을 꿀렸어도

이어사나~ 이어사나

건저 내기 못헌 물건

뭘할라고 낫던가만은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우리 어멍 날 날 적엔

요 물 속에 은과 금을

꿀렸어도 못 건저 내겠다

이어도사나

## 네젓는소리8

- 어업요-노 젓는 소리: 해녀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저을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3길 40 귀덕2리 경로당.

**조사 일시:** 2025. 6. 26.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김신녀, 여, 1943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해녀인 제보자를 찾자 여기에 있는 모두가 다 해녀라고 했다. 숨이 차서 노래 부르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길게 이어서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서는 그만 불러도 된다면 제보자의 건강을 걱정했다. 제보자는 노래를 끝내고 70년에서 80년 전에 불렀던 노래들 다 잊어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제까지 이렇게 노래를 부른 적이 없었다고 주변에서도 놀라워했다. 제보자는 일 년에 한 번 동네에 노는 날에도 어버이날에도 노래 한 번 부른 적이 없었다고 했다.

**자료 코드:** S\_20250626\_귀덕2리 경로당\_김신녀\_네젓는소리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요 물 잡고 어디 가리

진도바당 한골로 간다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저 산 중에 풀잎새는

죽었다도 내년 춘삼월

돌아 오면 잎도 돌아 번성이고

꽃도 피어 만발인데

우리나 인생 한번 가면

다시나 못 오나  
 우리 인생 요거구나  
 높은 산 저 산중에  
 외로난 저 솔나무  
 너도나 날 같이  
 외로이 잇누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온 가족 제 생명줄을  
 등어리에다 지고요  
 물색은 파러색 뒤테나  
 두루 돈벌이가요  
 하루 종일 하엿으나  
 버는 것은 이 바닥이요  
 줍도 안 오네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수덕 좋은 서낭님아  
 사서 만리 보는 님아  
 앓아천리 사만리  
 보는 요왕님아  
 생도 고득 주을 일로  
 우리나라 해녀 숨 들게 해여줍서  
 빌엄수다 요왕님께 빌엄수다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저 바다에 든배는

전주사공 \*\*  
 저 바당에 전주사공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높은 낭에 열을 내려  
 짚은 바당 할망바다에  
 불휘업는 낭이 나서  
 가지는 열두가지  
 잃은 세난 삼백예순  
 그 나무에 열매가 여난  
 이러기가 생각헌다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요 넬 젓고 물질허영  
 문도 열영 살젠 허난  
 고생이 만해서

## 네젓는소리9

- 어업요-노 젓는 소리: 해녀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저을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3길 40 귀덕2리 경로당.

**조사 일시:** 2025. 6. 26.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홍춘화, 여, 1946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니 했던 노래를 또 부르거나며  
 의아해 했다. 주변에서는 불렀던 노래라도 다시 부르라고 했다. 주  
 변의 요청에 구연하였다. 노래를 부르던 중에 잊어버렸다면서 잠

시 멈추었다가 곧 이어서 불렀는데 노래를 끝내면서 불렀었던 것도 잊어버렸다면서 안타까워했다.

**자료 코드:** S\_20250626\_귀덕2리\_홍춘화\_네젓는소리

이에도사나~ 이어짜~  
이에도사나~ 이어짜  
저라 저~ 이어짜~  
아니나 지고 못 가더라  
아니나 일러 못 가더라  
우리야 배는  
참나무로 지은 배라  
참매새끼 나는 듯이  
잘도 나간다 이어짜  
이에도사나  
산아 산아 높은 산아  
너 아무리 높다 한들  
우리야 부모 잇을 소냐  
이어짜 이에도사나  
이어짜 저라 저  
저라 배겨 이어짜  
이어짜

## 사데소리2

- 농업요-김매는 소리: 김매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수풀로 337 귀덕3리 경로당.

**조사 일시:** 2025. 6. 27.

**조사자:** 양인정

**제보자:** 강춘자, 여, 1935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예전에 농사일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를 기억하는지 물었더니, 제보자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데 마침 보청기도 끼지 않고 왔다고 하였다. 조사자가 ‘사데소리’를 불러달라고 하자 제보자는 “어기녀라 사데로다?”라고 묻고, 요청한 노래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했다. 그러나 목이 쉬어서 부르지 못하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조사자가 작은 소리라도 좋으니 불러줄 것을 요청 하자, 제보자는 힘들게 기침을 몇 차례 하고 목소리를 가다듬은 뒤, 노랫말을 낮게 읊조렸다. 조사자가 노랫말이 짧다고 더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제보자는 앞서 노랫말에 이어서 다시 읊조렸다. 노랫말을 읊조리다가 멈추고는 작게 소리를 내며 웃었다. 제보자가 읊조림을 마친 후, 조사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밭에서 김을 땀었는지 물어보니 제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자료 코드:** S\_20250627\_귀덕3리\_강춘자\_사데소리

어기녀라 사데로구나  
앞명에야 혼저 오라  
뒷명에야 무너사라  
빨리 가게 어서 가게  
어기녀라 사데로구나

검질 박박 메영 어서 가게  
 뒷명에랑 무너사라  
 앞명에랑 빨리 오라  
 어기녀랑 사데로구나  
 검질메게 흔저 메게  
 아이덜아 빨리 메라  
 흔저 메라 증심시간 텬저  
 밥을 먹게  
 어기녀랑 사데로구나  
 아이덜아 빨리 메라  
 흔저 메라 증심시간 텬저  
 어멍 말을 들어사 한다  
 그리 허민 안 웬다  
 빨리 메라 아이덜아  
 어서어서 흔저 오라

## 밧블리는소리1

- 농업요-밧 밟는 소리: 주로 조농사를 할 때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밧을 밟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수폴로 337 귀덕3리 경로당.

**조사 일시:** 2025. 6. 27.

**조사자:** 양인정

**제보자:** 강춘자, 여, 1935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밧블리는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제보자는

“어러러?”라고 묻고는 노래가 맞는지 확인했다. 조사자가 맞다고 하자, 제보자는 바로 읊조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작게 소리 내 웃고는 읊조림을 멈추었다. 조사자가 말이 말을 안 듣거나 하면 어떻게 하냐고 묻자, 강춘자는 “말 한 마리만 잘 다루면 다른 말들은 줄 줄 따라서 돈다.”고 말했다.

**자료 코드:** S\_20250627\_귀덕3리\_강춘자\_밧블리는소리

어러러 요 몰덜아 빨리  
 어러러 빨리 둘라  
 밧을 불러야 용시가 웬다<sup>187)</sup>  
 흔저 돌돌 둘라 요 몰덜아  
 빨리빨리 둘라  
 흔저 둘라  
 어러러 돌돌 어러러 돌돌

## 도리깨질소리

- 농업요-마당질소리: 밧 구석이나 마당에서 도리깨를 이용하여 곡식을 타작할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수폴로 337 귀덕3리 경로당.

**조사 일시:** 2025. 6. 27.

**조사자:** 양인정

187) 용시가 웬다: 농사가 된다.

**제보자:** 강춘자, 여, 1935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도깨질소리’를 불러달라고 하자 제보자는 바로 읊조리기 시작했다. 읊조림을 멈추고는 작게 소리 내어 웃었다. 조사자가 더 길게 불러줄 것을 요청하자 제보자는 다시 읊조리다가 멈추고 소리 내어 웃었다.

**자료 코드:** S\_20250627\_귀덕3리\_강춘자\_도리께질소리

어야 돌아  
콩도 잘도 까진다  
허야 허야  
허야 뉘야  
잘도 까진다  
어야 뉘야 맞아라  
잘도 까진다  
잘도 돈다  
어야 뉘야  
팡팡 까지라

## ㄱ레ㄱ는소리2

- 제분요-맷돌질소리: 맷돌에 곡식을 넣고 갈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수폴로 337 귀덕3리 경로당.

**조사 일시:** 2025. 6. 27.

**조사자:** 양인정

**제보자:** 강춘자, 여, 1935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ㄱ레 ㄱ는 소리’를 요청하자 제보자는 바로 읊조리기 시작했다. 읊조림을 멈추고는 작게 소리 내어 웃었다.

**자료 코드:** S\_20250627\_귀덕3리\_강춘자\_ㄱ레ㄱ는소리

이어이어 혼저굴라  
이어이어 혼저굴라  
이어이어 이어동아  
이어이어야  
이어이어이어이어야  
잘도 굴아진다

## 물질하러가는소리1

- 어업요-테왁 짚고 헤엄치며 부르는 노래: 해녀들이 바다로 뛰어들어 테왁을 가슴에 짚고 물질을 할 바다 지경까지 헤엄쳐 갈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14길 15 귀덕1리경로당.

**조사 일시:** 2025. 7. 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김천혜, 여, 1938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농사를 지을 때 부르던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제보자는 바닷가에 살아서 잠녀<sup>188)</sup>들이 물질하러 헤엄쳐서 갈 때 부르는 소리는 안다고 하며 바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

188) 잠녀: 해녀.



다. 노래를 끝내고는 소리 내어 웃었다. 제보자는 귀덕1리에서 물질을 하려면 ‘큰여’<sup>189)</sup>와 ‘죽은여’<sup>190)</sup> 넘어까지 헤엄쳐 가야 한다고 했다. 그곳에 가서야 잡을만한 해산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럴 때 테왁을 짚고 헤엄쳐 가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였다. 귀덕1리는 물질을 하기 위해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면서 가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큰여’와 ‘죽은여’가 무척 아름다웠는데 지금은 축항으로 전부 메워져 그 형태를 알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 안타깝다고 덧 붙였다.

**자료 코드:** S\_20250701\_귀덕1리\_김천혜\_물질하러가는소리1

S\_20250701\_귀덕1리\_김천혜\_물질하러가는소리2

S\_20250701\_귀덕1리\_김천혜\_물질하러가는소리3

이에도사나 이에도사나  
우리 어멍 날 날 적에  
무신 날에 나를 나서  
한강바당 요 물질허레  
나를 낳아 놓아신가  
어기어차 어서 가자

어기어차 어서 가자  
우리 어멍 날 날 적에  
무신 날에 나를 나서

189) 큰여: 귀덕리 바다 지명.

190) 죽은여: 귀덕리 바다 지명.

한강바당 요 물질허레  
나를 낳아 놓아신가  
어기어차 어서 가자  
한강바당 물질허레

이에도사나 이에도사나  
우리 어멍 날 날 적에  
무신 날에 나를 나서  
한강바당 요 물질허레  
나를 낳아 놓아신가  
어기어차 어서 가자  
저 한강바당 물질허레  
이에도사나 이에도사나  
어기어차 잘도 간다 어기어차  
이에도사나 이에도사나

## 밧블리는소리2

- 농업요-밧 밟는 소리: 주로 조농사를 할 때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밧을 밟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14길 15 귀덕1리경로당.

**조사 일시:** 2025. 7. 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김천혜, 여, 1938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사데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니 옆에 있던 제보

자 오순희가 ‘사데소리’는 동네마다 소리가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제보자 김천혜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발을 밟는 소리인 ‘밧 불리는 소리’를 해주겠다고 하고는 읊조렸다. 제보자 김천혜가 조발처럼 깨 역시 씨를 뿌리고 밟을 밟았다고 하고는 생각나는 노랫말을 말하듯이 읊고 난 후 깨발을 밟을 때 불렀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자료 코드:** S\_20250701\_귀덕1리\_김천혜\_밧불리는소리

어러 러러러러~  
이 멍에 저 멍에 돌리지 말앙  
밧 고랑 걸르지 말앙  
흔저 밧 불령

이령멜랑 어서 가게  
어서 불리라

### 사데소리3

- 농업요-김매는 소리: 김매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14길 15 귀덕1리경로당.

**조사 일시:** 2025. 7. 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오순희, 여, 1931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사데소리’를 요청하자, 제보자는 ‘사데소리’를 듣기도 하고 해보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바령밧’<sup>191)</sup>에 가서 김을 매면서 불렀던 적이 있다고 했고 바로 노랫말을 읊조렸다. 제보자는 노

랫말은 말해줄 수 있어도 노래를 부르지는 못하겠다고 하였다. 조사자가 첫 소절을 부르고 같이 불러보라고 권하자, 제보자는 불렀던 노래가락을 기억해냈다. 제보자는 세 번째에는 혼자서 노래를 불렀다.

**자료 코드:** S\_20250701\_귀덕1리\_오순희\_사데소리1, 2, 3

어기차 흔저 글라  
눈은 흘긔 베려 보네<sup>192)</sup>  
앙금조춤<sup>193)</sup> 들어오네  
뒷멍에랑 무너나라

앞멍에랑 들어오라  
어기야차 어서 가자  
뒷멍에랑 무너나라  
어기야차  
눈은 흘긔 베려 보네  
어기야차  
흐믓흐믓 흔저 가게

191) 바령밧: 보리를 벤 다음 농사를 한 철 쉬고 거름 대신으로 밤마다 마소똥을 가두어 놀리는 밧. 또는 조 파종을 마친 다음 여름철에 품삯을 받고 목장으로 올려놓아 먹이는 마소똥을 밤에 가둬 놀리는 밧. ‘바령밧’은 마소들의 대소변을 자연스럽게 밧에 뿌려지게 하기 위함이다.

192) 눈은 흘긔 베려 보네: 제보자는 김을 매고 있으면 까마귀가 있어서 흘긔 보게 된다고 설명한다.

193) 앙금조춤: 쪼그려앉은 모습.

앞명에랑 들어오라  
뒷명에랑 무너나라  
앙금조침 들어오네  
눈은 흘긔 베려 본다

## 사데소리4

- 농업요-김매는 소리: 김매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14길 15 귀덕1리경로당.

**조사 일시:** 2025. 7. 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홍화자, 여, 1943년생 / 오맹화, 여, 1933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사데소리'를 요청하자 제보자 홍화자는 구성지게 노래를 불렀다. 조사자가 목소리가 좋다고 하자 제보자 홍화자는 조사자와 흥겹게 농담을 주고 받았다. 조사자가 길게 불러줄 것을 요청하자 제보자 홍화자는 어릴 때는 많이 불렀던 노래지만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어렵다고 하였다. 조사자가 생각이 나는 부분을 불러보다 보면 길게 부를 수 있을 것이라 권하고 제보자 홍화자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제보자 홍화자는 '사데소리'를 부르다가 받는 소리를 하는 부분에서 잠시 멈추고 혼자 부르기는 그렇다면서 받는 소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제보자 오맹화가 받는 소리를 했다.

**자료 코드:** S\_20250701\_귀덕1리\_홍화자\_사데소리1, 2, 3, 4

검질 짓고 굴러진 밧데  
사데 불령 요 검질메자

어기요랑 사데로구나

아아~

사데 불령 요 검질메자  
어기요랑 사데로구나  
앞명에랑 들어나오고  
뒷명에랑 물러나나라  
어기요랑 사데로구나  
사데 불령 요 검질메자  
어기요랑 사데로구나  
사데 불령 요 검질메게  
어기요랑 사데로구나  
사데 불령 요 검질메자  
앞명에랑 들어나 오라  
뒷명에랑 물러나 나라  
어기요랑 사데로구나  
어기녀랑 사데로구나  
사데 불령 요 검질메자  
앞명에랑 물러나 가라  
뒷명에랑 물러나 나라  
어기요랑 사데로구나  
앞명에야 들어나 오라  
뒷명에랑 물러나 나라  
어기요랑 사데로구나  
사데 불령 요 검질메자

어기요랑 사데로구나

### ㄱ레 ㄱ는소리3

- 제분요-맷돌질소리: 맷돌에 곡식을 넣고 갈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14길 15 귀덕1리경로당.

**조사 일시:** 2025. 7. 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김원여, 여, 1938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ㄱ레 ㄱ는 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제보자는 “자신이 큰딸이라 어머니와 같이 일을 하면 서둘러서 하라는 말을 노랫말에 붙여서 불렀었다고 하고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조사자가 길게 불러주기를 요청했으나 제보자는 어머니가 말을 지어가면서 불렀던 소리를 들었던 것이라 길게 부르지 못한다고 했다. 어머니의 노랫말은 일을 시키려고 달래는 소리였다. 유행가처럼 정해진 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부르기 어렵다고 했다.

**자료 코드:** S\_20250701\_귀덕1리\_김원여\_고레고는소리1, 2

이어 이어 이어도 허라

요거 굴앙 밥 헤영 먹고

흔저 허라 흔저 허라

이어 이어 이어도 ㄱ레

요거 굴앙 무신 거 헤영 먹게

### 사데소리5

- 농업요-김매는 소리: 김매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14길 15 귀덕1리경로당.

**조사 일시:** 2025. 7. 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김원여, 여, 1938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사데소리’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니 제보자는 “사디?”라고 되묻고는 노래를 불렀다. 제보자는 어머니와 같이 앉아서 김을 매면서 불렀던 소리를 들었던 것이라 길게 부르지는 못한다고 했다. 노래 소리가 재미있어서 오래 기억하게 되었다고 했다. 어머니가 그때그때 노랫말을 지어서 불렀던 소리인데 자신은 그렇게 못한다고 했다.

**자료 코드:** S\_20250701\_귀덕1리\_김원여\_사데소리1

검질 짓고 골너른 밧디

사디ㅎ멍 검질 멘다

### 사데소리6

- 농업요-김매는 소리: 김매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14길 15 귀덕1리경로당.

**조사 일시:** 2025. 7. 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조임생, 여, 1932년생 / 고민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검질매는 소리’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하자 제보자

조임생은 못 하겠다고 했다. 옆에서 제보자 고민자가 첫 소절을 불러주어서 노래를 시작했다. 제보자 고민자는 ‘어기여랑 사데로구나’라고 하고, 제보자 조임생은 ‘어기어차 사데로구나’라고 불렀다.

**자료 코드:** S\_20250627\_귀덕1리\_조임생\_사데소리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사데 불령 요 검질메자  
앞명에랑 들어나 오라  
뒷명에랑 물러나 가라  
어어야 데에야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사데 불령 요 검질메자  
앞명에랑 들어나 오라  
뒷명에랑 무너나 가라  
어기어차 사데로구나  
(어기녀랑 사데로구나)

### 밧블리는소리3

- 농업요-밧 밧는 소리: 주로 조농사를 할 때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밧을 밧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14길 15 귀덕1리경로당.

**조사 일시:** 2025. 7. 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조임생, 여, 1932년생 / 고민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밧블리는소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제보자 조임생은 ‘어랑하랑’이라고 말하고 제보자 고민자와 같이 노래를 시작하려고 했으나 제보자 고민자만 불렀다. 제보자 고민자의 노래가 짧게 끝나자, 제보자 조국자가 ‘검질메는소리’의 노랫말도 ‘어랑하랑’에 나온다고 더 불러보라고 했다.

**자료 코드:** S\_20250627\_귀덕1리\_조임생 고민자\_밧블리는소리

어랑하랑 어러러러러 어어~ 어~랑 하랑

어러러러러 어러러 한라산 중허리에  
물 모는 소리가 나는구나  
어러러 어랑 하랑 어러러

어랑하랑 어러러러 돌돌  
이 산 중에 놀던 말아  
저 산 중에 놀던 말아  
어러러  
요 놈으 물 재기재기<sup>194)</sup>  
밧을 불러 가자 집이 가자  
어러러 돌돌 어러러 돌돌

---

194) 재기재기: 빨리빨리.

## 사데소리7

- 농업요-김매는 소리: 김매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14길 15 귀덕1리경로당.

**조사 일시:** 2025. 7. 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조임생, 여, 1932년생 / 고민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는 ‘어랑하랑’ 소리를 하다가 ‘사데소리’와 같은 노랫말이 있다는 말을 하다보니 다시 ‘사데소리’를 불러보라고 하였다. 제보자 고민자가 주도적으로 부르고 제보자 조임생이 일부 같이 불렀다. 제보자 조임생과 조국자가 노래를 잘 한다고 박수를 쳤다.

**자료 코드:** S\_20250701\_귀덕1리\_고민자 조임생\_사데소리

어기녀랑 어~ 사데로구나  
사데~ 불령~ 요 검질매자  
앞명엔 곤 앓앙<sup>195)</sup> 앓앙  
흔저 오렌 손을 친다.  
흔저 오렌 눈을 친다.  
눈 치는 딴 밤이나 가고  
손 치는 딴 낮이나 간다  
어기녀랑 사데로구나

195) 곤 앓앙: 곱게 앓아. ‘곤 각시 앓앙(고운 각시 앓아)’의 줄임말로 보인다.

## ㄱ레 ㄱ는소리4

- 제분요-맷돌질소리: 맷돌에 곡식을 넣고 갈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14길 15 귀덕1리경로당.

**조사 일시:** 2025. 7. 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조임생, 여, 1932년생 / 고민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ㄱ레 ㄱ는 소리’를 같이 불러줄 것을 요청하자 제보자 고민자는 기억이 난다고 했다. 제보자 조임생이 베풀어서 같이 부르자고 권하였다. 제보자 고민자가 한 소절을 부르고는 멈추고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제보자 조임생이 노랫말을 지어내서 부르라고 하자 조사자가 동의하며 노래 부를 것을 재요청하였다.

조사자가 제보자 조임생에게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불러달라고 청하자 부르지 못한다고 했다. 제보자 조임생은 나이가 백 살이 되 어가니 다 잊어버렸다고 했고 잠시 생각하더니 여러 소리가 있었는데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제보자 조국자가 맷돌을 돌리면서 ‘ㄱ레 ㄱ는 소리’를 여러 말 했었는데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제보자 고민자는 다시 노랫말을 흥얼거리보다가 빠르게 불렀을 때의 노랫말이 기억이 났다고 했다. 어머니가 했던 것을 듣기만 했었다고 말하고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를 끝내고는 소리 내어 웃었다. 제보자 고민자는 어머니가 했었던 것을 들었는데 노랫말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자료 코드:** S\_20250701\_귀덕1리\_고민자 조임생\_ㄱ레 ㄱ는소리

이어이어 이어도 허라

흐를즈냐<sup>196)</sup> 밀 닷 말 곱아

이어이어 이어도 허라  
어머니사 날 올렌 허라  
나 복력 나 팔즈가  
이만 밋긴 안 뒤엇구나  
이어이어 이어도 허라

## 방아짚는소리1

- 제분요-방아질소리: 방아에 곡식을 넣고 짚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14길 15 귀덕1리경로당.

**조사 일시:** 2025. 7. 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조임생, 여, 1932년생 / 고민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방아를 짚을 때 부르는 노래가 있었는지 묻자 제보자 고민자는 맞다고 대답했다. 제보자 조임생은 그 노래도 불러보라고 청했다. 제보자 조국자도 방아 짚으며 부르는 소리 해보라고 청했다. 제보자 고민자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짧게 노래를 부르고는 소리 내어 웃었다. 조사자가 노랫말에 대해 묻자, 제보자 조임생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자료 코드:** S\_20250701\_귀덕1리\_고민자 조임생\_방아짚는소리

---

<sup>196)</sup> 흐를즈냐: 하룻저녁.

이어 이어 이어도 허랑  
가시오름 강당당칩이  
시출방에<sup>197)</sup> 세글럼서라<sup>198)</sup>  
이어 이어 이어도 허랑

## 밧 불리는소리4

- 농업요-밧 밟는 소리: 주로 조농사를 할 때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밧을 밟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14길 15 귀덕1리경로당.

**조사 일시:** 2025. 7. 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고민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밧 불리는 소리’를 다시 불러달라고 하자 바로 제보자 고민자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제보자 조임생이 같이 불렀다. 조사자가 말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때리기도 하는지 묻자 제보자 조임생이 “목동이 말이 돌지 않으면 막대기로 때리기도 했다.”고 답했다. 제보자 조임생은 그렇게 밧을 밟지 않으면 조가 단

---

<sup>197)</sup> 시출방에: ‘세쿨방에’의 잘못된 발음. ‘세쿨방에’는 세 사람이 둘러서서 서로 절굿공이가 부딪치지 않게 간격을 맞추어 방아를 짚는 일.

<sup>198)</sup> 세글럼서라: 두 사람 이상이 방아를 짚을 때 서로 짚는 간격이 잘 맞지 않다는 뜻. 제보자 조임생의 말에 의하면 세 명이 공이를 들고 박자에 맞추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짚을 때 두 사람의 공이가 한꺼번에 절구에 들어가면 하는 말이라고 했다. 공이가 들어가는 사이가 글렀다는 표현이다.



단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고 했다. 조농사를 지으려면 말들을 빌어다가 밭을 밟게 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노래를 다 부르고 난 후 제보자 고민자는 친구 박미선(금악리 제보자)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궁금해 했다. 조사자가 여러 노래를 길게 불러주었다고 하자 제보자 고민자는 박미선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다.

**자료 코드:** S\_20250701\_귀덕1리\_고민자\_밭불리는소리

어량하량 어러러러 어러러러 돌돌  
이 산 중에 놀던 말아  
저 산 중에 놀던 말아  
어러러러  
요 놈으 몰 제기제게 밭을 불러러 가자 집이 가자  
어러러 돌돌 어러러 돌돌  
돌돌돌돌

## 사데소리<sup>8</sup>

- 농업요-김매는 소리: 김매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김원여, 여, 1938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검질메는 소리’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자 제보자는 소리들이 다 지어내서 부르던 것이라 자신은 못한다고 했다. 조사

자가 그냥 지어내면서 불러줄 것을 요청하자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소리를 짧게 하고 난 후에 노랫말에 나오는 말의 의미도 잘 모르겠고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정도라고 했다. 노랫말 중에 ‘굴러진 밧디’라는 것을 보면 아마도 큰 밭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웃들이 산간 동네에 일하러 갔다가 그곳 사람들이 노래를 잘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제보자가 무슨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지 물어봤더니 ‘사데소리’라고 하였다. 자신은 동네 밖을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기에 말로만 들었다고 하였다. ‘검질메는 소리’와 같은 노래는 어머니 연배의 나이 많은 어른들이 불렀던 것이라고 하였다. 아무나 부르는 소리도 아니라 잘하는 어른들의 소리를 들었던 기억만 있다고 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701\_귀덕1리\_김원여\_사데소리2

검질 짓고 굴러진 밧디<sup>199)</sup>  
검질메멍 여의멍 멘다.

## 이어도사나<sup>2</sup>

- 어업요-테왁 짚고 헤엄치며 부르는 노래: 해녀들이 바다로 뛰어들어 테왁을 가슴에 짚고 물질을 할 바다 지경까지 헤엄쳐 갈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199) 굴러진 밧디: 넓은 밭에. ‘굴’은 동산이 아닌 좀 얇고 평평집한 땅을 말한다.

**제보자:** 김원여, 여, 1938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물질할 때 하는 소리를 요청했고 제보자는 그저 ‘이 어도사나’가 전부라고 하였다. 짧게 노래를 부르고는 웃음을 터뜨리며 이 정도가 전부이고 정해진 노랫말이 없다고 하였다. 바닷가에서 테왁<sup>200)</sup> 짚어서 헤엄쳐 가면서 부르던 노래였다. 멀리 물질을 하러 가는 사람은 노랫말이 더 있겠지만 길게 부를 만큼 헤엄쳐갈 일이 없어서 아는 것은 이 정도이다. 조사자가 지어서 불러주기를 요청하니 그냥 생각으로 ‘서룬 소리’<sup>201)</sup>를 하는 정도라고 했다. 조사자가 이어서 불러주기를 요청했으나 제보자는 웃음을 터뜨리며 길게 이어서 지어내지 못한다고 답했다. 노래를 부르고 난 후 자신이 ‘얼씨구 소리’<sup>202)</sup>라도 조금 하고 그렇게 해서 요 정도 부를 수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701\_귀덕1리\_김원여\_이어도사나1, 2, 3, 4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우리 어멍 날 날 때에  
무슨 날에 나를 낳고  
요 물질을 허염신고

200) 테왁: 물 위에 떠다니는 등그렇게 생긴 도구로 해녀가 물질 장소로 이동하거나 물질 중에 물 위로 올라와 잠시 쉴 때 몸을 의지한다. 과거에는 박 속을 비워만 들었는데 지금은 스티로폼으로 만든다. 테왁 밑에 망사리를 매달아 물질 중에 수확물을 보관하기도 한다.

201) 서룬 소리: 서러운 내용이 있는 노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 얼씨구 소리: 놀 때 부르는 노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 물질 시기젠 나를 난가  
중학대학 못 시길 망정  
요 물질허레 나를 난가

이어사 이어사  
요 바다에 요 물속은  
깊음 얕음 알건만은  
한집 사람 님 속 몰라  
간장 타는 내로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우리 어멍 날 날 때에  
요 물질허러 나를 난가  
중학대학 못 시길 망정  
이 고생을 하고 사네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요 바다에 요 물 속은  
깊음 얕음 알건만은  
한집 사람 임 속 몰라  
간장 타는 내로구나  
이어도사나

## 밧블리는소리5

- 농업요-밧 밧는 소리: 주로 조농사를 할 때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밧을 밧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김원여, 여, 1938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혹시 ‘밧 블리는 소리’가 기억이 나는지 물었더니 제보자가 “밧 블리는 거? 어량하량?”이라고 되물었다. 조사자가 맞다고 하니 제보자는 어렸을 때 조금 들었던 기억이 있다고 하였다. 노래를 짧게 부르고는 들었던 소리를 부르려고 하니 잘 모르겠다고 했다. 다시 불러주기를 요청하니 큰 소는 밧을 갈고 송아지가 밧을 밧았던 것이 생각난다며 노랫말을 지어서 불러주었다. 산간 동네에서나 농사를 크게 하기 때문에 소리를 하지 해변 동네는 이런 노래를 불러가면서 할만한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701\_귀덕1리\_김원여\_밧블리는소리 1, 2

아량 하량~ 돌돌돌돌돌

흔저 볼르라 요레 블랑

어량하량 어어 돌돌돌돌

아이고 잘도 한다

우리 송아지 으랏으랏

## ㄱ레ㄱ는소리5

- 제분요-멧돌질소리: 멧돌에 곡식을 넣고 갈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김원여, 여, 1938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ㄱ레ㄱ는 소리’를 물었는데 김원여는 ‘이어이어이 어’ 정도만 할 수 있고, 길게 부르지 못한다고 했다. 들었던 기억은 있지만 직접 불렀던 경험이 없다고 했다. 조사자가 짧게라도 불러 줄 것을 요청하자 제보자는 어머니와 같이 멧돌을 돌렸을 때 불렀던 소리라며 노래를 시작했다. 짧게 부른 뒤에 오래전에 들었던 것이라 이 소리가 맞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자료 코드:** S\_20250701\_귀덕1리\_김원여\_ㄱ레ㄱ는소리2

이여 이여 이여도하라

흔저 굴앙 양석 하고

이여 이여 이여도하라

## 물질하러가는소리2

- 어업요-테왁 짚고 해엄치며 부르는 노래: 해녀들이 바다로 뛰어들어 테왁을 가슴에 짚고 물질을 할 바다 지경까지 해엄쳐 갈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 14길 15 귀덕1리경로당.

**조사 일시:** 2025. 9. 18.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김천혜, 여, 1938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는 거주지가 바닷가 바로 근처라서 해녀들의 노래를 매일 듣다 보니 물질은 하지 않았어도 노래는 부를 줄 안다고 했다. 물질하러 가는 해녀 일곱에서 여덟 명이 두 줄로 헤엄쳐 나가면서 ‘이어도사나’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매일 보았다고 했다. 예전 바닷가에 ‘큰여’와 ‘작은여’가 있었는데 해녀들이 이 물질을 하려고 하면 이곳까지 헤엄쳐 가야 했다고 회상했다. 조사자가 노랫말을 지어가면서 이어서 불러보라고 요청했다. 제보자 고민자가 지어가면서 불러볼 것을 권하면서 십지 사람들이 노래를 할 때는 ‘어랏차’하고 노랫말에 붙인다고 했다. 제보자 김천혜는 ‘어기어차’하고 노랫말을 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자료코드:** S\_20250918\_귀덕1리\_김천혜\_물질하러가는소리

우리 어멍 날 날 적에  
무슨 날에 나를 나서  
한강바당 요 물질허레  
나를 낳아 놓아신가  
어기어차 어서가자  
저 바당으로  
물질허레 어서나 가자  
어기어차 이어도사나

### 물질하러가는소리3

- 어업요-테왁 짚고 헤엄치며 부르는 노래: 해녀들이 바다로 뛰어들어 테왁을 가슴에 짚고 물질을 할 바다 지경까지 헤엄쳐 갈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 14길 15 귀덕1리경로당.

**조사 일시:** 2025. 9. 18.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고민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물질을 했었는지 묻자, 물질을 하지 않았어도 헤엄칠 수는 있다고 답했다. ‘물질하러 가는 소리’를 아는지 묻자, 어머니의 사촌이 부르는 것을 봐서 안다고 했다. 조사자가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바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으나 노랫말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짧게 마무리했다.

**자료코드:** S\_20250918\_귀덕1리\_고민자\_물질하러가는소리

이어도사나 이어사나  
우리 배는 잘도 간다  
어랏차라 이어도사나 이어사나

### 사데소리9

- 농업요-김매는 소리: 김매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9. 18.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고민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사데소리'를 요청하자 바로 불렀다.

**자료코드:** S\_20250918\_귀덕1리\_고민자\_사데소리

어기녀랑 사데로구나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뒷명에랑 무너나나라  
어기녀랑 사데로구나  
앞명에엔 곤앗앙 앓앙  
흔저오렌 손을친다  
흔저오렌 눈을친다  
어기녀랑 사데로구나  
어기녀랑 사데로구나  
사데 불령 요 검질메자  
저레 가는 청비발아기<sup>203)</sup>  
요 일 흐끔 도와여 도라  
느네 어멍 죽을 적에  
우리 성제 삼성제 들어  
삼시 꼴로 절 꺼겨주마  
어기녀랑 사데로구나

203) 청비발아기: 어린 처녀. '비바리'가 처녀라는 말인데 '비발'은 '비바리'에 줄임말이고, '청'은 '비바리' 앞에 붙여 젊음 강조하는 의미인 조음어이다. '청비바리아기'는 아주 어린 처녀를 의미한다.

## 밧블리는소리<sup>6</sup>

- 농업요-밧 밟는 소리: 주로 조농사를 할 때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밧을 밟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9. 18.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고민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밧 블리는 소리'를 요청하자 바로 불렀다. 노래 부르기를 멈추고 '그만'이라고 말하며 스스로 마무리하였다. 조사자가 다른 노랫말로 계속 불러줄 것을 요청하여 이어서 불렀다.

**자료코드:** S\_20250918\_귀덕1리\_고민자\_밧블리는소리

어량하량 어러러러어러어허  
어량하량 어러러러러어허  
저 산 우에 놀던 말아  
이 산 중에 놀던 말아  
어러러 어량하량  
어량하량 어러러어 어량하량  
우리에 어멍 날 날 적엔  
날 올레는 안허였건만  
나 복력이 나 팔저가  
이만빱이 안 되는구나  
어량하량 어러러러어  
어허허허허허허어  
돌돌 돌돌 돌돌 돌돌

## 도리깨질하는소리

- 농업요-마당질소리: 밭 구석이나 마당에서 도리깨를 이용하여 곡식을 타작할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9. 18.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고민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도리깨질 하는 소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천천히 노래를 부르다가 멈췄다. 무엇이라고 했었는지 생각이 안 난다고 하다가 다시 불렀으나 갑자기 노랫말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다.

**자료코드:** S\_20250918\_귀덕1리\_고민자\_도리깨질하는소리

도리깨질 하는 소리  
어야도흥 어야흥  
어야어러러 흥  
어야어허허  
어야도 흥 어야 흥

## ㄱ레ㄱ는소리6

- 제분요-맷돌질소리: 맷돌에 곡식을 넣고 갈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9. 18.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고민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ㄱ레 ㄱ는 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으나 짧게 마무리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조사자가 ‘ㄱ레 ㄱ는 소리’를 불러본 적이 있는지 묻자, 자신은 불러본 적이 없고 어머니가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조사자가 생각나는 다른 노랫말이 있으면 이어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노래를 이어서 부르기 시작했으나 생각나지 않는다고 탄식했다.

**자료코드:** S\_20250918\_귀덕1리\_고민자\_ㄱ레ㄱ는소리

이어이어 이어도허랑  
이어이어 이어도허랑  
우리 어멍  
이어이어 이어도허랑  
밀 혼 말 곶아

## 방아짙는소리2

- 제분요-방아질소리: 방아에 곡식을 넣고 짙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9. 18.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고민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방아 짙는 소리’를 요청하자 제보자가 바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를 마무리 하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자료코드:** S\_20250918\_귀덕1리\_고민자\_방아짙는소리

이어이어 이어도허랑  
 이어이어 이어도허랑  
 가시오름 강당장칩이<sup>204)</sup>  
 시콜방이 세글럼서라  
 이어이어이어도허랑  
 이어이어이어도허랑

## 사데소리10

- 농업요-김매는 소리: 김매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11. 7.

**조사자:** 양인정

**제보자:** 고정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옛날 농사 지을 때 불렀던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사데소리'를 불렀다. 제보자는 속이 상할 때 밭일을 하면서 혼자 큰소리로 이 노래를 부르면 속도 풀리고 어느새 해가 지고 일도 끝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자료코드:** S\_20251107\_귀덕3리\_고정자\_사데소리

어기녀랑 사데야

204) 가시오름 강당장칩이: 제주 전설에 나오는 인물로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살았다는 대부호를 말한다. 지나친 물욕은 바로 멸망을 부른다는 교훈의 내용이 담겨있다.

사데 불령 요 검질메게  
 앞명에야 들어나 오라  
 뒷명에랑 무너나라  
 어기녀랑 사데야  
 사데 불령 요 검질메게

어기녀랑 사데야  
 먼디 사람 듣기 좋게  
 벅든디<sup>205)</sup> 구경 좋게  
 어기녀랑 사데야  
 사데 불령 요 검질메게  
 한소리에 두 점 반씩  
 한소리에 녀 점 반씩  
 어기녀라 사데야  
 사데 불령 요 검질메게  
 어기녀랑 사데야  
 앞명에야 들어나 오라  
 뒷명에랑 무너나 나라  
 앞이 가는 건 놀랑새야<sup>206)</sup>  
 뒤에 오는 건 똥찰리야  
 어기녀랑 사데야  
 사데 불령 요 검질메게

205) 벅든디: 가까운데.

206) 놀랑새야: 나는새야.



## 2-4. 귀덕리 의식요

---

의식요는 장례의식, 불교의식, 무속의식에서 불리던 노래를 말한다.

### 달구소리1

- 장례의식요-달구소리: 봉분을 달구로 두드리며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3길 40 귀덕2리 경로당.

**조사 일시:** 2025. 4. 1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이금순, 여, 1936년생 / 장금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이금순이 봉분할 때 부르는 노래라고 하면서 소리를 짧게 하는 중에 장금자가 받는 소리를 했다.

**자료 코드:** S\_20250411\_귀덕2리\_이금순 장금자\_달구소리

아~ 달구 천년만년 산디 가자 달구

### 넋들라

- 무속의식요-넋들임: 아이가 놀랐을 때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3길 40 귀덕2리 경로당.

**조사 일시:** 2025. 4. 1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이금순, 여, 1936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무엇에 놀래 넋이 났을 때 하던 ‘넋들라’ 소리를 요청하자, 이금순은 곧바로 소리를 들려주었다. 이후 “반심방이다.(선 무당이다.)”라고 말하며 웃는 모습을 보였다. 아기들이 놀랐을 때 보통 어머니가 간단히 불러주는 소리이며, 소리가 끝나면 물 한 모금을 머금고 허공에 물을 뿜고 아기 정수리에 입김을 ‘코~’하고 불어 준다고 했다.

**자료 코드:** S\_20250411\_귀덕2리\_이금순\_넋들라

어마 넋들라 어마 넋들라

아이고 나 아기 넋났구나 혼났구나

넋인냥에 넋 들여 주고 혼신냥에 혼 들여 줘서.

어 찌어나라.

아이고 아기 오늘 넋 났구나게.

넋인 냥에 넋 들여 줘서. 혼신냥에 혼 들여 줘서.

어마 넋들라 어마 넋들라.

어 찌어나라<sup>207)</sup>

### 달구짚는소리

- 장례의식요-달구소리: 봉분을 달구로 두드리며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3길 40 귀덕2리 경로당.

**조사 일시:** 2025. 4. 1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

207) 찌어나라: 제주 무속에서 악귀를 쫓는 시늉을 하며 내는 소리.

**제보자:** 이금순, 여, 1936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달구소리를 다시 해달라고 했더니 친정아버지는 소리를 잘했는데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며 부르기를 주저했다. 친정아버지는 72세에 작고하였으며, 친정아버지의 소리는 한 시간 넘게 할 정도로 길고 듣기도 아주 좋았다. 어릴 때 아버지가 했던 소리를 들었는데 아버지가 글법으로<sup>208)</sup> 지어가며 소리를 했다. 자신은 잘하지 못한다고 하자 옆에서 장금자가 ‘흥어림’만 하라고 말하자 한 소절을 불러주었다. 달구로 봉분을 찢으면서 단단하게 만들 때 부른다고 설명했다.

**자료 코드:** S\_20250411\_귀덕2리\_이금순\_달구짓는소리

어 어 어 달구여~ 천년만년 살고 가자. 에 에~ 달구

## 어마넛들라

- 무속의식요-넛들임: 아이가 놀랐을 때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3길 40 귀덕2리 경로당.

**조사 일시:** 2025. 4. 1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양창순, 여, 1935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어마 넛들라’와 같은 소리를 아기를 돌보는 중에 사용한 적이 있는지를 묻자, 응답자는 즉각적으로 그 소리를 하였다. 이어 제보자는 자신이 자녀를 양육하던 시기에는 아버지를 두려워

<sup>208)</sup> 글법으로: 문장을 즉흥으로 지어서.

한 탓에 아이들이 오래 우는 일이 드물었다고 언급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411\_귀덕2리\_양창순\_어마넛들라

어마 넛들라 아이고 넛들라 넛들라 아이고 넛들라 어디 다쳐시니 영 허라 아고게 조용허라 조용허라 그만 그만 그만 허라 소리 똑

## 달구소리2

- 장례의식요-달구소리: 봉분을 달구로 두드리며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3길 40 귀덕2리 경로당.

**조사 일시:** 2025. 4. 1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양창순, 여, 1935년생

**구연 상황:** 양창순은 장금자와 이금순이 달구소리를 할 때 장단에 맞게 받는 소리를 해주었다. 그래서 예전에 들었던 것이 있다면 달구소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잠시 망설인 후 소리를 했다.

**자료 코드:** S\_20250411\_귀덕2리\_양창순\_달구소리

아~ 달구

이 세상에 돌아가면은

좋은 디로 가소서소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잘 가고 잘 돌아세요.

## 행상메가는소리

- 장례의식요-행상소리: 상여를 메고 갈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김원여, 여, 1938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는 ‘행상 메 가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서 조금 생각이 난다고 했다. 선소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고 자신이 부른 것 역시 음이 조금씩 틀린 것 같다고 하였다. ‘행상 메 가는 소리’를 여러 차례 불러주었다. 조사자가 받는 소리를 해주겠다고 하자 제보자는 그렇게 하면 선소리를 하는 사람이 여유가 있어 부르기 쉽다고 답하였다. 노래를 세 번째 부르고는 이 노래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불러보니 어젯밤에 어지러웠던 꿈자리가 어렴풋이 생각난다며 웃었다. 제보자는 노래를 끝내고는 원래는 지어내면서 하는 노래인데 지어내서 부르는 것이 잘 안된다고 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701\_귀덕1리\_김원여\_행상메가는소리1, 2, 3, 4

어여녕차 어화로다  
우리 인생 한번 가면  
다시 올 줄 모르는다  
어하용 어헤요  
저 산 앞에 풀잎새는  
해년마다 왔다 갔다  
우리 인생은 한번 가면  
다시 오기가 만무로다

저 산 앞에 풀잎새는  
해년마다 왔다 갔다  
우리 인생은 한번 가면  
또 다시 오기가 만무로다  
어화녕차 어화로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어화녕차 어화녕차  
어화녕차 어화로다  
우리 인생 한번 가면  
어화녕차 어화로다  
또 다시 오기가 만무로다  
어화녕차 어화로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어화녕차 어화로다  
인제 가면은 언자 오나  
어화녕차 어화로다  
내년 춘삼월 돌아오면  
어화녕차 어화로다  
기일제사나 먹으레 올까  
어화녕차 어화로다

### 달구소리3

- 장례의식요-달구소리: 봉분을 달구로 두드리며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9. 18.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고민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달구소리’를 아는지 묻자, 제보자는 몇 소절 부른 뒤 “하르방(할아버지)들이 주로 부르던 소리라 자신은 잘 모른다.”고 하였다. ‘달구소리’는 장례 시 동네 사람들이 봉분을 다질 때 봉분 주위를 돌며 부르는 소리로, “어어허 달구” 하고 선창하면, “어어허 달구” 하고 다 함께 따라 부르는 방식이라고 설명하였다. 제보자는 장례를 치르는 공간인 ‘장 난 곳(葬地)’에서는 다양한 소리를 부르기도 했으며, 이를 회상하며 웃기도 했다.

과거에는 ‘고적’<sup>209)</sup>을 하여 장지로 이동했으며, 가까운 친척은 ‘한말 반’ 정도의 떡을 준비하여 따로 밥을 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의 식사로 대접하였다. 장지로 떠나기 전, 집에서는 형편에 따라 돼지나 소를 잡고 고기 또는 생선국을 끓여 문상객을 맞았다. 이처럼 장례에는 많은 음식을 준비했으며, 이에 대해 제보자는 “살아서는 혼례, 죽어서는 장례로 한 번 크게 호사한다는 말이 있다.”고 덧붙였다. 상복은 미리 명주로 지어 준비하였으며, 과거 여성들의 상복은 혼례복처럼 빨간색 동전을 달아 장만하였다. 입관 시에는 쪽을 찢는 머리에 비녀를 꽂는 대신, 엷은머리로 장례를 치렀다고 한다.

209) 고적: 집안에 초상이 났을 때 친척이 만들어 가는 부조 떡.

**자료코드:** S\_20250918\_귀덕1리\_고민자\_달구소리

어어허 달구 어어허 달구

어서 가자 어서 가자

테역 단풍 좋은 들로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어어허 달구 어어허 달구

## 2-5. 귀덕리 유희요

유희요는 유희적 성격이 강한 민요로 놀이를 위해 부르거나 또는 노래 그 자체를 즐기 위해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

### 오돌또기

- 창민요: 전문 연회에서 주로 부르며 여가를 즐길 때 널리 불리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9. 18.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고민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물방에소리’, ‘연자방아소리’를 아는지 묻던 중에 제보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갑자기 ‘오돌또기’를 불렀다. 조사자가 ‘오돌또기’를 언제 불렀었는지 묻자, 제보자가 아주 어렸을 때 놀러 가면 어른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자료코드:** S\_20250918\_귀덕1리\_고민자\_오돌또기

오돌또기<sup>210)</sup> 저기 춘향이 나간다 달도 밝다 냇가 머리도 갈꺼나  
등그데당실 등그데당실 여도당실 연자버리고 달도 밝다 냇  
가 머리로 갈꺼나  
서귀포 해녀덜 바다에 든송만송 한라산 중허레 시러미<sup>211)</sup> 든송

210) 오돌또기: 무엇을 밟거나 씹거나 할 때 나는 소리로 의성어이다.

211) 시러미: 시로미나무의 열매.

### 만송

등그데당실 등그데당실 여도당실 연자버리고 달도 밝다 냇  
가 머리로 갈꺼나  
초로 밝혀 등불에 불 밝혀들고 춘향이 잠자는데 잠수질하레나  
갈꺼나  
등그데당실 등그데당실 여도당실 연자버리고 달도 밝다 냇  
가 머리로 갈꺼나

### 양산도

- 기타: 경기 민요 선소리의 하나로 세마치장단에 맞추어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9. 18.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고민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옛날 놀러 갔을 때 어른들이 불렀던 노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묻자 ‘양산도’가 있다고 답하고 노래를 불렀다.

**자료코드:** S\_20250918\_귀덕1리\_고민자\_양산도

에헤이여 놀아 놀아 저리나 절마 놀아  
아까운 청춘이 다 늙어진다  
에헤이여 고시랑 머리에 끈 발라 입고  
계수나무 달밤에 임 찾아간다  
이어라 노여라 아니나 못 노리라  
느나능지를<sup>212)</sup> 데줘도 못 노리로구나

## 청춘가

- 기타: 경기 민요의 하나로 청춘을 노래한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9. 18.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고민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옛날 놀러갔을 때 어른들이 불렀던 노래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질문에 노래를 연달아 불렀다. 조사자가 노래제목이 무엇인지 묻자 ‘청춘가’라고 답했다가 ‘창부타령’인가라고 자문했다가 알 수 없다며 웃었다. 옛날에 놀러 가면 노래 제목을 따지지 않고 불렀다고 했다.

**자료코드:** S\_20250918\_귀덕1리\_고민자\_청춘가

저레 가는 저 아주머니  
딸이나 있거든 사위 하소  
딸이 하나 있건만은  
연세가 어려서 못하겠네  
아이구나 아주머니 그 말씀마오  
제비는 작아도 강남가요  
고추는 작아도 맵습니다.  
얼씨구나 절씨구나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

212) 느나능지름: 비단의 한 종류.

아니 놀아 열녀 낫나  
아니 쓰어서 효자 낫나  
열녀 효자 다 덮어두고  
경충거려서 놀아보자

## 창부타령

- 기타: 경기 민요의 하나로 무당 소리에서 유래되었고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9. 18.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고민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창부타령’은 ‘니나노’<sup>213)</sup>로 노랫말이 시작하는 것인지 묻자, 제보자는 바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자료 코드:** S\_20250918\_귀덕1리\_고민자\_창부타령

닐니리야 닐니리야 니나노  
얼싸 좋아 얼씨구 좋다  
별나비 이리저리 훑훑  
꽃을 따라서 날아 든다

---

213) 니나노: 니나노는 ‘닐리리야’를 말하는 것으로 경기 민요의 하나로 후렴구에 ‘닐리리야’라고 하여 민요명이 닐리리야로 된 경우이다. 본래 창부타령이었던 것이 변하여 된 것으로, 굿거리장단으로 부른다.

## 시집살이(진주난봉가)1

- 기타: 경상도 지역에서 길쌈을 하면서 부르는 노동요인데 전국에 걸쳐 널리 분포된 서사 민요.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11. 7.

**조사자:** 양인정

**제보자:** 고정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밭에 김을 땔 때 불렀던 노래를 요청하자 ‘사데소리’ 다음으로 기억이 나는 노래가 있다고 ‘시집살이’를 불렀다. 한창 때는 노래를 잘했었는데 수술만 열 번을 받다 보니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했다. 특히 남편과 다투고 속이 상할 때마다 밭에서 큰 소리로 이 노래를 불렀고 여럿이 어울려 놀 때 장구를 치면서 부르기도 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 노래를 언제 어디서 익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자료 코드:** S\_20251107\_귀덕3리\_고정자\_시집살이(진주난봉가)

울도 담도 없는 집에  
시집 삼 년을 살고 나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  
아가 아가 며늘아가  
이도령을 불러거든  
진주 남강에 빨래를 가라  
이 말을 들은 며느리는  
진주남강에 빨래를 가니  
난데없는 물도 좋고 산도 좋아

난데없는 말방울소리  
옆눈으로 슬쩍 보니  
오마 같은 말을 타고  
양산 같은 갓을 쓰고  
못 본 듯이 지나가네  
이 꼴을 본 며느리는  
검은 빨래는 검게 빨고  
흰 빨래는 희게 빨아  
집이라고 돌아오니  
아가 아가 며늘아가

## 시집살이노래1

- 시집살이노래: 여성들이 시집살이에 대한 애환을 한탄하며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11. 7.

**조사자:** 양인정

**제보자:** 고정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가 ‘시집살이(진주난봉가)’를 부르고 난 후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혼자서만 불렀던 노래가 있다고 ‘시집살이노래’<sup>214)</sup>를 불

---

214) 시집살이노래: 제주 여성들이 다양한 노동 현장 혹은 유흥을 즐기 위해 부르던 민요이다. 경기민요 가락을 자유롭게 차용하여 변화시켜 부른다. ‘창부타령’의 흔적이 보이기도 한다. ‘시집살이노래’는 문답형식으로 묻고 그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의 가사 구조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묻는 가사는 없고 대답하는 가사만 있다.



려주었다. 시집 식구들을 홍보는 노랫말이라서 어디 가서는 부르  
지 못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자료 코드:** S\_20251107\_귀덕3리\_고정자\_시집살이노래.

암둑 ㄱ튼 시어머니에  
장둑 ㄱ튼 시아버지에  
무끄럭 ㄱ튼<sup>215)</sup> 서방님에  
뚜럼 ㄱ튼<sup>216)</sup> 시아지방에  
족제비 ㄱ튼 시누이에  
고추장 단지가 땀단 현들  
나살럼 보단이야 더 메울소나

## 시집살이(진주난봉가)2

- 기타: 경상도 지역에서 길쌈을 하면서 부르는 노동요인데 전국에 걸쳐 널리 분  
포된 서사 민요.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11. 24.

**조사자:** 양인정

**제보자:** 고민자, 여, 1944년생

---

“성님 성님 스춘 성님 시집살이 어땀디까? 아이고 야야 말도 말라 이르도 말라”  
이렇게 문답을 되어있다.

215) 무끄럭 ㄱ튼: 문어 같은.

216) 뚜럼 ㄱ튼: 바보 같은.

**구연 상황:** 조사자가 지금 가장 또렷이 기억에 남는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시집살이(진주난봉가)’를 불렀다. 제보자는 이 노래는 더 이  
어지는 노랫말이 있으나 목이 좋지 않아 끝까지 부르지는 않았다고  
했다.

**자료 코드:** S\_20251124\_귀덕3리\_고정자\_시집살이(진주난봉가)

울도 담도 없는 집에  
시집 삼 년을 살고 나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  
아가 아가 며늘아가  
이도령을 불러거든  
진주 남강에 빨래를 가라  
이 말을 들은 며느리는  
진주남강에 빨래를 가니  
난데없는 말방울소리  
옆눈으로 슬쩍 보니  
양산 같은 갓을 씌고  
호마 같은 말을 타고  
못 본 듯이 지나가네  
이 꼴을 본 며느리는  
검은 빨래는 검게 빨고  
물도 좋고 산도 좋아  
검은 빨래는 검게 빨고  
흰 빨래는 희게 빨아  
집이라고 돌아오니

아가 아가 며늘아가  
 이도령을 보라거든  
 사랑문을 열고나 빠라  
 이 말을 들은 며느리는  
 사랑문을 열고나 보니  
 오색가지 안주에다가  
 오만가지 술에다가  
 기생첩을 옆에다 끼고  
 너 마셔라 네 마셔라  
 이 꼴을 본 며느리는  
 복덕방으로 뛰어들어  
 명지 석자를 목에 걸고  
 잠든 듯이 죽었구나  
 이도령아 이도령아  
 너의 처는 죽었구나  
 이 말을 들은 이도령은  
 면보선발로 뛰어나와  
 어화둥둥 내 사랑아  
 어화둥둥 내 사랑아  
 기생첩은 하루의 처요  
 나의 처는 백년의 천대  
 어화둥둥 내 사랑아  
 어화둥둥 내 사랑아  
 차마 진정 너 죽을 줄은  
 왜 때는 몰랐노 어화둥둥

## 시집살이노래2

- 시집살이노래: 여성들이 시집살이에 대한 애환을 한탄하며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11. 24.

**조사자:** 양인정

**제보자:** 고민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기억나는 노래를 더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시집살이노래'를 불렀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부르던 노래라고 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1124\_귀덕3리\_고정자\_시집살이노래

성님 성님 사촌 성님  
 살럼살이가 어떡데가  
 아이고 애아 말도 말라  
 장둑 ㄱ튼 시아바님에  
 암둑 ㄱ튼 시어머니에  
 뚜럼 ㄱ튼 시아바지방에  
 족제비 ㄱ튼 시누이에  
 무끄력 ㄱ튼 서방님에  
 고추장단지가 맵다헌들  
 나살럼 보단이야 더 메울소냐  
 어리씨구 좋다 저렐씨구  
 아니 노지는 못하리로다

## 회심곡

-기타: 민요 가락에 불교의 교리를 담은 사설을 얹어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11. 24.

**조사자:** 양인정

**제보자:** 고민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는 예전에 종종 불렀던 노래라며 짧게 한 소절을 들려 주었다. 조사자가 이 노래의 곡명이 ‘회심곡’<sup>217)</sup>이 맞는지 묻자 맞다고 답하였다. 제보자는 과거에는 ‘회심곡’ 전곡을 부를 수 있을 만큼 익숙했으나, 시집살이를 하며 각박하게 살아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를 기회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노랫말의 일부는 아직 기억난다고 하였으며, “목소리가 조금만 더 나와 준다면 시원하게 한번 불러주고 싶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자료 코드:** S\_20251124\_귀덕3리\_고정자\_회심곡

세상천지 만물 중에  
사람밖에 또 있어요  
여보시요 시주님네  
이네 말씀을 들어보소

217) 회심곡: 회심곡은 사찰 내 불곡(佛曲)의 일종으로, 시주를 권하는 탁발승의 행각 등을 통해 민간으로 점차 전파되어 연행 담당층이 승려에서 속인으로 확장됨에 따라 무가, 잡가, 민요 등 다양한 장르에 수용되었다. 조선 중기 불교 승려 서산대사 휴정이 만든 『보권염불문』〈회심가고〉가 회심곡의 가사의 유래로 알려져 있다. 같은 내용의 가사가 『조선가요집성』(1934), 『석문의범』(1931), 등에 국한문혼용체로 실리기도 했다.

## 2-6. 귀덕리 전승동요

전승동요는 아이들이 놀 때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

### 흔다리인다리

- 유희요: 아이들이 앉아서 다리를 세면서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3길 40 귀덕2리 경로당.

**조사 일시:** 2025. 4. 9.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이금순, 여, 1936년생

**구연 상황:** 어린 시절 놀이 중 부르던 노래를 요청하자, 이금순은 다리를 짚는 동작과 함께 구연하였다. 같은 노래를 두 번에 걸쳐 불렀으며, 각 차례의 노랫말에는 차이가 있었다.

**자료 코드:** S\_20250409\_귀덕2리\_이금순\_흔다리인다리

흔다리<sup>218)</sup> 인다리<sup>219)</sup> 엉정밧디 엉금 정금 구두네 짱  
인다리 거청 계청 구월 나월 삼정밧디 허두나무 얼룽 절룽 구  
두리 짱

218) 흔다리: 넓적다리.

219) 인다리: 넓적다리.

## 아기흥그는소리1

- 자장가: 아기 재울 때 아기 바구니를 흔들면서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3길 40 귀덕2리 경로당.

**조사 일시:** 2025. 4. 1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장금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장금자는 자장가 불러주면서 아이를 재웠던 기억이 거의 없고 자장가를 잘 부르던 할망들은 다 돌아가셨다고 했다. 노래를 부르던 중간에 잠시 멈췄다가 다시 불렀다.

**자료 코드:** S\_20250411\_귀덕2리\_장금자\_아기흥그는소리

왕이자랑 왕이자랑~

아 개똥이야

왕이자랑 왕이자랑~

흔저 누웠 자라게

무사 줌을 아니 잠디

검질메러 가곡

밧디 가켜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 아기놀아주는소리

- 자장가: 아기 재울 때 아기 바구니를 흔들면서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3길 40 귀덕2리 경로당.

**조사 일시:** 2025. 4. 1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장금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아기와 놀았을 때 불렀던 소리를 요청하니 ‘좀메좀메’, ‘던데던데’, ‘마니마니’<sup>220)</sup>라는 말로 놀아주는 소리를 자장가 음에 얹어 불렀다.

**자료 코드:** S\_20250411\_귀덕2리\_장금자\_아기놀아주는소리

아가야 좀메좀메<sup>221)</sup>

던데던데<sup>222)</sup> 허라

무사 줌을 아니 잠디

누웠자라 누웠자라

왕이자랑 왕이자랑

## 왕이자랑

- 자장가: 아기 재울 때 아기 바구니를 흔들면서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3길 40 귀덕2리 경로당.

**조사 일시:** 2025. 4. 1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양창순, 여, 1935년생

220) 마니마니: ‘도리도리’와 같은 말. 고개를 가로 짓는 모양.

221) 좀메좀메: ‘줍줍’과 같은 말. 손을 쥐는 모양.

222) 던데던데: ‘ 짹짹’과 같은 말. 박수를 치는 모양.

**구연 상황:** 조사자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불러준 노래에 대해 묻자, 양창순은 “빨리 자라 자랑 자랑 왕이자랑”을 불러주었다. 아기에게 젖을 물린 후 “자랑자랑”이라고 반복하면 금세 잠이 들었으며, 그렇게 하던 중 아이가 어느새 훌쩍 자라 있었다고 회상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411\_귀덕2리\_양창순\_왕이자랑

자랑자랑 자랑자랑  
흔저 자라 흔저 자라  
자장자장 자장자장  
잘도 잔다 잘도 자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잘도 잔다 흔저 자라  
자라자랑 자랑자랑

## 아기흥그는소리2

- 자장가: 아기 재울 때 아기 바구니를 흔들면서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14길 15 귀덕1리경로당.

**조사 일시:** 2025. 7. 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조임생, 여, 1932년생 / 고민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아기 흥그는 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제보자 고민자는 바로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노래를 한 소절 부르고는 멈추고는 제보자 고민자는 노래를 멈추고는 박미선(금악리 제보자)이 이런 노래도 불렀는지 물었다. 조사자가 박미선이 노래를 잘 불러 주

었다고 답했고 제보자 조임생은 이 노래를 그냥 ‘흥어리타령’이라고 했다. 제보자 조국자도 옆에서 ‘흥어리타령’이라고 말하며 맞장구를 쳤다. 제보자 조임생은 그 소리를 하면 아기가 정말 잘 잔다고 했다. 제보자 조임생은 아기를 아기구덕에 눕히고 흔들면 아주 잘 잔다고 덧붙였다. 제보자 조국자가 노랫말이 있다고 말하며 골똘히 생각하더니 “우리 아기 재와주라. 느네 아기 재와주마. 아니 재와주당은에 지픈 지픈 한강수에 들이쫓닥 내쫓닥 허키여.” 제보자 고민자는 박미선이 동생들이 많아서 그런 노래를 많이 불러보았을 것이라고 하였고 자신은 동생이 하나밖에 없어서 많이 불러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제보자 조임생이 ‘아기 흥그는 소리’에 대해서 설명하자 조사자는 노래를 다시 불러줄 것을 요청했다. 제보자 조임생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가 바로 멈추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조사자가 더 불러줄 것을 요청하자 제보자 조임생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제보자 조국자는 제보자 조임생에게 천천히 잘 생각해 보면 다음 기회에는 옛날에 불렀던 노랫말이 생각날 것이라고 하였다. 아마도 갑자기 부르려니 노랫말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다.

**자료 코드:** S\_20250627\_귀덕1리\_조임생\_아기흥그는소리

자랑자랑 자랑자랑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잘도 잔다 우리아기

## 아기흥그는소리3

- 자장가: 아기 재울 때 아기 바구니를 흔들면서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김원여, 여, 1938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왕이자랑’을 요청하자 김원여는 “아기 흥그는 것사 왕이자랑.”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제보자는 노래를 시작했으나 잠시 멈추더니 두 번째 소절은 음을 다르게 불러야 한다며 다시 이어 불렀다. 조사자는 노랫말이 길게 이어지지 않아서 다시 불러 달라고 요청했고 제보자는 소리 내 웃고는 노랫말을 지어서 부르는 것이 잘되지 않는다고 했다.

**자료 코드:** S\_20250701\_귀덕1리\_김원여\_아기흥그는소리 1, 2

왕이자랑 왕이자랑  
자랑자랑 왕이자랑  
흔저 자라  
네 재와똥 나는 일허고 할 건디  
아이고 착하다 흔저 자라  
왕이왕이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흔저 자라 우리 착한 아기들아

## 아노까오데

- 기타-고무줄놀이 노래: 일본 가요.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김원여, 여, 1938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귀덕2리 진질동에서 살았던 어린 시절에 불렀던 노래가 있었는지 물었다. 제보자는 7~8세 정도에 고무줄놀이를 하면서 불렀던 ‘아노까오데’<sup>223)</sup>라는 일본노래가 있었다고 답했다. 어릴 때 살던 동네에 일본 아이가 있어서 어울려 놀면서 불렀던 기억이 있다고 했다.

**자료 코드:** S\_20250701\_귀덕1리\_김원여\_아노까오데1, 2

아아 아노까오데 아노꼬에데 데까라다노므도 시나자오까 지기  
레로 오도니

---

223) 아노까오데: 일본 전시선전영화의 주제곡으로 엔카(演歌)를 기본으로 만들어진 가요이다. 1940년 4월 개봉한 일본 전시선전물 영화「曉に祈る」(새벽에 기도하다)의 주제곡이다. 원곡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あああの顔であの声で (아아 그 얼굴, 그 목소리로) / 手柄頼むと妻や子が(공 세우고 오라며 아내와 아이들이 당부하고) / ちぎれる程に振った旗(깃발을 찢어질 듯이 흔들며 배웅하고) / 遠い雲間にまた浮かぶ(그 깃발이 전쟁터에서 구름 사이로 떠올라) / ああ堂々の輸送船(당당히 떠나는 군 수송선) / さらは祖国よ栄えあれ(조국이여 안녕 영광 있으라) / 遥かに拝む宮城の空に(멀리서 경건히 바라본 황궁의 하늘 아래서) / 誓ったこの... (나는 이곳에서 맹세했노라...) 李有姬, 「明治・昭和軍歌にみる近代的特徴」, 大阪大学大学院 言語文化研究科 博士学位論文, 2016, 94쪽.

## 아기흥그는소리4

- 자장가: 아기 재울 때 아기 바구니를 흔들면서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9. 18.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고민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아기 흥그는 소리’를 요청하자 바로 불렀다. 제보자는 노래를 부르다가 노랫말을 다 잊어버려서 부를 수가 없다고 했다. 조사자가 노랫말을 이어서 부르지 못해도 내용을 기억하는지 질문하였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제보자가 ‘아기 흥그는 소리’를 해본 적이 많지 않다고 한다.

**자료 코드:** S\_20250918\_귀덕1리\_고민자\_아기흥그는소리

웁이자랑 웁이자랑  
웁이자랑 자랑자랑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저레 가는 금동개야  
우리 아기 재와도라  
아니 재와주당  
깊은 깊은 한강수에  
드르첫닥 내첫닥 허키여  
웁이자랑 웁이자랑 웁이자랑  
저레 가는 청비발아기  
우리 아기 재와도라  
아니 재와주다근에

춤베<sup>224)</sup>로 걸려 메영

드르첫닥 내첫닥 허키여

웁이자랑 웁이자랑 웁이자랑

저레 가는 금동개야

요레 오랑 앓아 보라

## 할미꽃

- 유희요: 1950년대 구전동요.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제보자 박미선 자택.

**조사 일시:** 2025. 9. 18.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고민자,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노래에 대해 질문하니 제보자는 고민자가 불렀다. 자신은 학교 다닐 때 이 노래를 배웠는데 자녀들은 이 노래를 몰랐다고 한다. 제보자 박미선은 집안 농사일을 돕느라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918\_금악리\_고민자\_할미꽃

할미꽃 마나님 고개 숙이고  
오늘도 무얼 그리 생각하세요  
고개 넘어 시집 보낸 막내딸아기  
잘 있는지 소식 몰라 궁금하대요

---

224) 춤베: 참바. 삼이나 칩 따위로 세 가락을 지어 굵다랗게 드린 줄을 말한다.



### 해방의노래

- 해방가요: 1945년 광복 이후 해방의 의미를 담아 만든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3길 40 귀덕2리 경로당.

**조사 일시:** 2025. 6. 26.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고순화, 여, 1933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해녀들이 불렀었던 노래를 요청했으나 제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해녀의 노래는 아니지만 어릴 때 야학에서 배운 노래<sup>225)</sup>라고 하며 구연하였다. 책으로 배운 노래는 아니라고 하였으나 『국민독본』에<sup>226)</sup> 실린 노래라고 하였다.

어렸을 때 야학을 다녔는데, 석유가 없어서 복쟁이 알을 태워서 나

---

225) ‘해방의노래’는 임화 작사, 김순남 작곡의 노래다. 일제 당국 주도로 민간에 보급했던 선전가요들과 달리 그동안 억눌려 있던 민간인 예술가들의 주도로 창작되었다. 노랫말은 다음과 같다.

‘조선의 대중들아 들어보아라 / 우렁차게 들려오는 해방의 날을 / 시위자가 울리는 발굽 소리와 / 미래를 고하는 아우성 소리 / 노동자와 농민들은 힘을 다하여 / 놈들에게 빼앗겼던 토지와 공장 / 정의의 손으로 탈환하여라 / 제놈들의 힘이야 그 무엇이랴’

주혜진, 「해방가요와 해방가요운동의 발생과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논문, 1998.

온 기름을 숨에 적서서 등불을 희미하게 밝혀서 배웠다. 그때 ‘해방의노래’를 배웠다. 이 노래가 나온 후에 폭도 시절이 되었다고 회상하였다. 1945년 해방 이후 창작된 시기에 불렀던 노래로 해방가요에 해당하고 넓은 의미로 대중가요에 해당한다. 고순화의 설명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일본과 싸움을 해서 해방되어 나온 노래라고 설명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626\_귀덕2리\_고순화\_해방의노래

조선의 대중들아 들어 보아라  
우렁차게 들어오는 해방의 날은  
시비자가 니네는 발굽 소리와  
노동자와 농민들은 힘을 다하고  
농두레기 베였거든 도자 공장  
정의의 손으로 탈환하여라  
제 놈들이 힘이야 그 모시자  
왓샤 왓샤

---

226) 국민독본: 제보자의 말로는 해방 후 야학에서 사용했던 교과서라고 하였다. 해방 전 교과서로 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이 있었다. 1895년 학부 편집국에서 편찬한 우리나라 최초의 관찬 교과서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Article>(검색일 2025. 7. 1))



# IV

## 한경면



## 1. 한경면 저지리

### 1-1. 저지리 마을 소개<sup>227)</sup>

저지리는 제주시 한경면에 속해 있는 마을로, 북쪽으로 한림읍 월림리와 인접해 있고 서쪽으로 조수리, 서남쪽으로 청수리와 접해 있는 중산간 지역이다. 마을 주변에는 마오름, 저지오름(새오름), 마중오름 등 여러 오름이 자리하고 있으며, 저지리 꽃자왈도 있어 자연환경이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

저지리는 저지오름과 마중오름 사이에 성전동, 남동, 중동, 수동, 명리동, 신흥동으로 6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마을은 물이 매우 귀한 지역으로, 생수가 나는 곳이 약 16km 떨어진 명월리 밖에 없어 예로부터 빗물을 받아 사용하는 못을 만들어 생활용수로

227) 제주의 마을 제주시 저지예술마을(<https://www.jeju.go.kr/vill/jeoji/intro/history.htm> 검색일 2025.6.17.). 저지리지발간추진위원, 『제주의 마을②-저지리』, 도서출판 반석, 2002. 참조.



그림51 저지리 마을 입구 전경

이용하였다. 마을에는 물통으로 사용되는 못이 매우 많았는데, 새물, 새굿물통, 조방চিত물, 홍지물, 거슨물, 앞새물, 뒷새물, 돌혹이, 되빌레물, 장왓굿물, 새물통, 방에혹, 안장, 각시물, 쇠눈빌레, 얼챙이물, 안소랭이, 밧소랭이, 어두운물, 용산달리못, 쟁개빌레물 등이 있다. 이 중 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쟁개빌레물 정도이며, 특히 장왓굿물은 저지오름 동남쪽 기슭에 있는 유일한 용천수이다. 이 물은 평소 수량이 매우 적어 일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렵고, 주로 포제나 집안 제사, 토신제 등을 지낼 때만 열을 지어 기다린 뒤, 한 허벅<sup>228)</sup> 정도 길이 사용했다고 한다.

228) 허벅: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 모양이 둥글며 배가 불룩하고 보통은 아가리가 넓은데 허벅은 아가리가 아주 좁은 동이다.



그림52 저지리

저지리는 ‘당마루’ 또는 ‘당물’이라는 속칭으로 불려왔다. 1700년대 까지 ‘당’과 ‘마루’라는 뜻을 합해 ‘堂湄’로 표기되었고, 이후 ‘당’이 닥나무의 ‘닥’과 소리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楮(닥나무 제)’ 자를 사용하여 ‘楮湄里’, 즉 저지리로 불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과거 제주군 구우면 지역에는 닥나무가 많이 자랐다고 한다. 현재의 표기인 저지리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 쓰이기 시작했으며, 1800년대 작성된 제주도 지도에도 ‘저지촌’으로 기록되어 있다.

저지리에 사람들이 언제부터 거주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저지오름 남쪽 기슭의 ‘장왓굿’에는 전주 이씨 입도조인 효령대군(조선 태종의 둘째 아들)의 8세손 광빈의 무덤이 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광빈은 1610년 제주목사로 부임한 사촌형 기관을 따라 제주에 왔다가 저지리 인근의 용선달리(현재는 없어진 마을로, 현 수동 부근에 있었다고 한다)에 터전을 잡았으며, 이후 그 후손이 제주 곳곳으로 퍼져 나갔다고 한

다. 만일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저지리의 설촌은 1600년대 초로 추정될 수 있다.

저지리 일대에는 새오름, 송와오름, 뒷동산, 마오름, 일채동산, 현장이동산, 이계오름, 독달귀동산, 효자동산, 행굴동산, 판이동산 등 다양한 오름과 동산이 분포해 있으며, 마을의 대부분이 숲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밭 지명으로는 넙개왓, 자귀남밭, 지름굴왓, 흑담밭, 함개왓, 조개왓, 사장밭, 돌흑밭, 큰굴왓, 도채비왓, 폭남왓 등이 있다.

2024년 기준 저지리의 인구는 총 664세대 1,384명으로, 남자 671명, 여자 713명이 거주하고 있다. 전형적인 중산간 농촌 마을로 과수와 밭농사가 주를 이루며, 특히 감귤이 농가 소득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주요 농산물로는 보리와 마늘이 있으며, 비닐하우스를 이용해 토마토, 오이, 키위 등을 재배한다. 또한 석창포 재배도 이루어지고 있고, 축산과 화훼 농가도 일부 운영되고 있다.



### 1-2-1.

#### 김태화, 여, 1930년생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12길 11-3번지

제보일시: 2025. 4.15. / 5. 1. / 11.24.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김태화는 1930년에 저지리 성전동에서 태어났다. 성전동은 원래 ‘돌오기물’이라고 불렸는데, 구덩이가 대여섯 개 나란히 있어 ‘돌오기, 돌오기물’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소나무가 많아 ‘소낭밭’이라고도 불렸다. 또 예전에는 ‘츠남밭’이라고도 했는데, 그 밭에서 농사를 지으려 보습이 아홉 개나 꺾어져 사람들이 “아따, 밭도 츠나다!(아따, 밭이 찢어지다)”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일제강점기 당시 이곳에는 소나무가 많았지만, 일본 군인들이 새오름(저지오름) 속에 진지동굴을 만들면서 모두 베어 갔다고 한다. 지금은 소나무는 없고 잡풀만 많다.



김태화는 아홉 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딸 셋을 낳고 그다음 아들 셋을 낳은 뒤, 다시 딸 둘을 낳았다. 소개령<sup>229)</sup>이 내려지기 전에 막내 동생이 다섯 살에 죽었고, 소개령 당시 어머니는 아홉 번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어머니는 마흔다섯 살에 막내아들을 낳았다. 지금은 셋째 여동생과 막내 남동생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세상을 떠났다.

집에서는 주로 콩, 보리, 조, 고구마, 감자 농사지었다. 숲도 구워 오일장에 내다 팔거나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팔았다.

보리농사는 10월이 넘어 시작했다. 먼저 소를 이용하여 밭을 갈고, 보리씨는 거름에 섞어 밭로 밟아 밭에 뿌렸다. 씨를 뿌리고 나면 다시 소로 밭을 갈아 고랑을 덮는데, 이를 ‘고랑막음’이라고 한다. 보리 싹이 나기 시작하면 2월에서 3월 사이에 김매기를 한다. 이르면 4월, 늦으면 5월에 수확을 한다. 망종(6월) 전에는 보리를 모두 수확했다.

수확한 보리는 ‘보리클’에 훑는데, 이때 ‘보리 홀트는 소리’를 한다. 김태화는 자신은 하지 못하지만, 옛날 남자 어른들이 “요놈으 보리가 어느제랑 문 홀타질 거니(요놈의 보리가 언제면 모두 훑아질 거냐)” 하고 노래했다고 기억한다. 훑은 보리는 도리깨로 쳐서 보리쌀을 만들고, 채에 불려 말린다. 이후 ‘믈방아(연자방아)’에 소를 매어 갈아 껌질을 벗긴다. 이렇게 해야 통보리쌀을 만들 수 있는데, 통보리쌀이 있어야 혼례 때 새각시밥을 지을 수 있었다. 평소에는 통보리쌀을 다시 ‘ㄱ레(땃돌)’에 갈아 쪼개서 밥을 지어 먹었다.

229) 소개령: 4·3사건 당시 토벌 작전의 일환으로 주민을 특정 지역으로 강제 이주 시킨 조치.

6월에서 10월까지의 보리농사를 지었던 밭에 콩과 조를 심었다. 조는 밭을 먼저 갈아 놓고 그냥 씨를 뿌렸다. 그리고 이랑과 고랑이 마당처럼 평평하도록 밭을 밟았다. 조가 싹이 나면 수확하기 전까지 김매기를 두 번 했다. 조의 간격이 한 뼘 정도 되면 굵고, 그보다 좁으면 조가 가늘었다. 김매기를 하면서 조 싹을 쏙는 일도 함께 했다. 조는 여름철 농사 중 김매기가 특히 힘들었다고 한다. 조를 ‘물방아(연자방아)’에서 갈면 좁쌀이 나오고, ‘대체(눈이 굵은 체)’로 불려 좁쌀을 장만했다. 이때 나오는 겨는 돼지 먹이로 주었다.

숯은 나무를 잘라 ‘눌(가래)’처럼 쌓고, 밑과 윗부분에 구멍을 내어 불을 지핀 뒤, 나무에 불이 완전히 붙으면 윗구멍을 막아 만든다. 숯은 ‘문도지오름’, ‘남송이오름’, ‘도노리오름’, ‘정물오름’에서 많이 구웠고, 한림·대정 등지에 가져가 팔았다. 숯 한 가마니를 팔면 ‘대죽 썰(수수)’을 받아 등에 지고 돌아왔다. 50세가 넘을 때까지 숯을 구웠다고 한다.

성전동에서 살던 중 4·3<sup>230)</sup> 때 소개령이 내려 외할머니가 사는 한 원리로 내려가 1년쯤 살았다. 그때 아버지와 외삼촌이 콩, 조, 보리 등을 한 섬짜리 항아리에 가득 담아 수레로 옮겼는데, 태풍이 와 담이 무너져 항아리가 모두 깨져 곡식을 먹지 못했다.

230) 4·3사건: 1947년 3월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 [https://jeju43peace.or.kr/kor/sub01\\_01\\_01.do](https://jeju43peace.or.kr/kor/sub01_01_01.do) 검색일 2025.11.30.)

소개령이 해제된 뒤 저지리로 바로 가지 못하고 잠시 조수리에 움막을 짓고 살았다. 그곳에서 저지리 성담과 월림리 성담을 쌓았다. 월림리 성담이 완성되고 폭도<sup>231)</sup>들이 사라지자 그제야 저지리로 돌아갈 수 있었다. 성전동에서는 소도 없어지고 보리도 없어졌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폭도들이 훔쳐갔다’고 했다. 그곳은 원래 살림집이 많지 않았다.

시댁하고는 서로 맞은편에 살아 잘 알고 지냈고, 24세에 두 살 위의 중동 남자와 중매로 결혼했다. 남편은 군대 가기 전 결혼했다가 헤어지고 입대했는데, 군대에서 다리에 총을 맞아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평생 의족에 의존해야 했다. 결혼할 때 가마를 타고 갔으며, 가마에 요강과 이불 두 채도 함께 실었다.

결혼 전 일한 값으로 망아지 한 마리를 받아 키우다 팔아 돼지 두 마리를 샀는데, 시어머니가 그것을 팔아버려 자기에게 남는 것이 없었다고 한다. 결혼 후 집에 가니 시동생들이 모두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 집안일을 혼자 도맡아 해야 했고,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더욱 힘들었다.

자녀는 일곱을 낳았으나 그중 한 명은 한 살 전에 죽었다. 여섯은 모두 잘 키워 결혼까지 시켰으나, 대구에 사는 막내딸이 50세에 세상을 떠나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한다. 슬픔이 너무 커 장례식에 갈 수조차 없었다고 한다.

남편은 63세에 죽었다. 둘째 시아주버니는 49세, 셋째 시아주버니

231) 폭도: 폭도(暴徒)는 무장대 혹은 산사람을 4·3사건 당시 공권력이 사용하던 공식 언어.

는 57세에 죽었다. 셋째 시아주버니 소상 때 육지에 가야 했는데, 김태화는 남편에게 “물 넘어 가민 죽나, 죽나. (바다 건너면 가면 죽는다, 죽는다.)” 하며 가지 말라고 극구 말렸지만, 남편은 동생의 일을 꼭 봐야 한다며 떠났고, 돌아온 뒤 감기처럼 앓기 시작해 다음 해에 죽었다.

남편이 죽고 1990년대 초반에 굴농사를 시작했으나 지금은 굴농사도 접었다. 80세가 넘으면서 농사를 그만 두었다.

김태화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이 가장 편안하고 좋은 세상이라고 말한다.

#### 제출 파일명

S\_20250415\_저지리\_김태화\_땃불리는소리

S\_20250415\_저지리\_김태화\_조불리는소리

S\_20250415\_저지리\_김태화\_도리깨질소리

S\_20250415\_저지리\_김태화\_방아소리

S\_20250415\_저지리\_김태화\_ㄹ레ㄹ는소리

S\_20250501\_저지리\_김태화\_조땃불리는소리

S\_20250501\_저지리\_김태화\_사데소리

S\_20250501\_저지리\_김태화\_ㄹ레ㄹ는소리

S\_20250501\_저지리\_김태화\_방아짙는소리

S\_20250501\_저지리\_김태화\_도리깨질소리

#### 1-2-2.

#### 김신화, 여, 1933년생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12길 57번지

제보일시: 2025.4.15. / 11.24.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김신화는 1933년에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다. 제보자 김태화 동생이다. 김신화의 어머니는 일본에서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밥장사를 했다. 세 살 때 제주도로 돌아왔다. 당시 제주에서는 쌀밥을 먹을 수 없었고 ‘몬드락밥(검은 좁쌀과 보리를 섞어 지은 밥)’을 먹었다. 김신화는 그 밥을 먹지 않겠다고 떼를 쓰곤 했다고 한다.



어머니에게 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동생을 돌보라”며 학교에 가지 못하게 했다. 아홉 형제 중 셋째로 태어나,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다. 집에서는 소를 다섯 마리 키우고, 밭벼, 고구마, 콩, 조, 보리농사를 주로 지었다.

‘산디(밭벼)’는 4~5월에 씨를 뿌려 8~9월에 수확한다. 씨를 먼저 뿌리고 밭을 갈아 뒤섞고, 다시 씨를 뿌려 이랑과 고랑을 모두 씨로 채운 뒤, 밭을 평평하게 밟는다. 이때 “물 에스일곱 개, 여다옴 개 헤여 근에 잘랑잘랑 불리민 이 마리, 이 마당 닭지 뉘. (밭 여섯일곱 개, 여덟아홉 개 해서 잘랑잘랑 밟으면 이 마루, 이 마당 닭지 뉘.)”라며 함께 밭을 밟았다고 한



다. ‘산디’도 김매기를 해야 했는데, 농사를 짓고 나면 그렇게 거들 것이 없어 먹을 것이 많지 않았다고 한다. 김이 많으면 수확이 적었고, 김이 없으면 복 받았다고 여겼다.

15세 때 소개령이 내려 외할머니 집이 있는 한원리로 갔다가, 잠시 조수리에 살고 다시 월림리에서 살았다. 한원리에서 살 때 외할머니 집이 커서 마당이 성담<sup>232)</sup> 밖으로 넘어가 있었고, 성 밖으로 드나들기 위해 ‘개구멍’을 만들어 다녔다고 한다. 당시 동네 사람들 중 일부는 신창리로, 또 어떤 사람들은 고산리로 갔다.

월림리에서 저지리로 돌아와 성전동에서 살았는데, 폭도들 때문에 살기 힘들어 저지리 중동으로 이사했다. 숯 한 가마니를 대정읍에 팔러 가면 ‘대죽썰(수수)’ 한 되를 주었다. 언니와 함께 대정읍에 숯을 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청수리를 지나게 되었는데, 물을 진 사람 하나, 쟁기를 멘 사람 둘, 소를 몰고 온 사람 하나가 먼저 성담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 뒤로 언니와 김신화가 들어가려 하자, 보초를 서던 사람이 “매 열 대 맞고 오늘 밤에 갈 것이냐, 아니면 유치장에서 잤다가 갈 것이냐”라며 위협했다. 언니는 겁이 많아 유치장에서 자고 가자고 했지만, 김신화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죽어도 한마디 허여도 켜찰우파?(오늘 이 자리에서 죽어도 한마디 해도 괜찮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가 “예. 험서.(예, 하십시오.)”라고 해, 김신화는 앞서 들어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매 열 대씩 맞게 할 것이면 자신들도 스무 대라도 달게 맞겠다고 큰소리쳤다. 왜 때리려고 하느냐고 물으니, 대

232) 성담: 4·3사건 당시 방어를 위한 돌담. 소개령 해제 후 주민들이 집단 거주를 위해 축조한 돌담이다.

정읍에서 청수리 오는 길에 폭도들이 사람들을 모아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그 연설을 들었을 것이라고 의심해 때리려 했던 것이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보초는 문을 열어주었고, 성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저지초등학교 근처에서는 또 다른 보초가 나와 암호를 대라고 했다. 당시 암호는 ‘콩—팥’이었다. 성 밖에서 “콩” 하면 성 안에서 “팥”이라고 대답해야 문을 열어 주었다고 한다.

22살에 김신화는 “술 안 먹는 남자면 누구든 좋다”고 하여 술을 마시지 않는 동갑내기, 저지리 동동(작지동네) 사람과 결혼했다.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남편은 군대에 갔다. 해방이 되자 아버지가 성전동을 재건하는 일을 맡아 하였다. 김신화는 아버지에게 “나도 집 혼거리 줘서, 시집 가부난 시아버지 집 엇엉 집 혼거리 줘서.(나도 집 한 채 주세요. 시집을 갔는데 시아버지 집이 없으니 집 한 채 주세요.)”라고 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면사무소 일을 책임지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글을 모르고 제주시로 가야 해 면사무소 일을 할 수 없었다. 김신화는 자신이 하겠다고 하여 집을 얻었다.

면사무소 일은 동네 재건을 맡은 사람들이 배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이었다. 배급을 받으려면 마을 사람들의 도장을 모두 받아야 하며, 배급품을 실어 올 사람도 함께 가야 했다. 일이 만만치 않았다. 도장이 하나라도 없으면 배급을 받을 수 없었다. 당시 배급품은 주로 밀가루와 옥수수가루였다.

재건한 성전동 집에서 33살까지 살다가 현재 사는 곳으로 이사했으며, 살던 집을 헐어 지금 사는 곳으로 가져와 새로 지었다. 결혼 후에는 밭이 없어, 아버지가 밭 한 판을 주었다. 보리농사를 하기 전 한 마지기는 콩, 한 마지기는 고구마, 한 마지기는 ‘산디(밭배)’, 한 마지기

는 조를 심어 농사를 짓고, 10월 전에 모두 수확한 뒤 다시 그 밭에 보리농사를 했다.

결혼 후 자녀는 딸 둘, 아들 셋 다섯 형제를 낳았다. 27살에 첫 아이를 임신했는데 초산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밭에서 일을 하다 양수가 터졌고, 겨우 집까지 걸어왔다. 집에 도착하니 통증이 멈춰서 수돗물 한 항아리 길어 집에 놓았다. 시어머니가 거름을 내어 보리씨와 섞으라고 해서 그 일을 다 하고도 괜찮았다. 다음 날이 되어서 배가 너무 아파 마당에서 방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다. 언니가 보리짚 한 아를 들고 와 방으로 데려가 보리짚 위에 앉혔다. 그 자리에서 사산된 딸을 낳았다. 막내아들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었다. 김신화는 “아이고, 나 적시가 아이 뱃디다. 밤낮 혼 사흘 울영 죽어불언. (아이고, 내 것이 안 되네요. 밤낮 사흘 울더니 죽어버렸어요.)”라고 하며 지금 남은 자식이 삼남매라고 말했다.

40세 무렵 굴농사를 시작했다. 처음 중생 굴나무를 사서 심었고, 중생에 조생을 접붙였으나 농사 형편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80세가 넘어서 다른 농사는 하지 않고 작은아들 몫으로 굴농사만 하고 있다. 김신화는 살아오면서 지금이 가장 좋고 편안한 세상이라고 말한다.

#### 제출 파일명

S\_20250415\_저지리\_김신화\_소뭍쉬물양가는소리

S\_20250415\_저지리\_김신화\_결름시경가는소리

S\_20250415\_저지리\_김신화\_조블리는소리

S\_20250415\_저지리\_김신화\_사태소리

S\_20250415\_저지리\_김신화\_주열재열

### 1-2-3.

#### 변창식, 남, 1941년생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명이3길 9-19

제보일시: 2025.5.1. / 12.1.

조사자: 송정희, 임현정

변창식은 1938년에 태어났으나 호적에는 1941년생으로 올라가 있다. 저지리 명이동에서 삼형제 중 맏이로 태어났다. 11살 때 소개령으로 고산리로 내려갔다. 당시 저지리 사람들이 모두 고산리로 내려가 살 집이 없어 외양간과 비슷한 곳에서 지내야 했다고 한다.

고산리로 내려갈 때 어미소와 송아지를 몰고 갔는데, 얹혀 사는 집에 어미소를 맡겨 키워주는 대신 송아지를 주기로 하고 지냈다. 12살 되던 해 봄, 저지리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모든 집이 불타 없어지고 기와집 한 채만 남아 있었다고 한다. 산으로 들어간 폭도들이 내려와 지낼 수 없도록 경찰이 집들을 불태운 것이라고 들었다.

명이동에서 산으로 올라간 사람이 몇몇 있었는데, 당시 저지리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로 여겨졌다고 한다. 고산리에서 어느 날 학교 마당에 몇 백 명이 모였을 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오라.”는 지시에 명이동 사람 7명이 나갔다가 논밭으로 끌려가 경찰에게 총을 맞고 사살되었다고 한다.



소개령이 풀린 뒤 저지리로 돌아와 남동 지역에 성담을 쌓고 그 안에 움막을 짓고 살았다. 성안이 너무 좁아지자 중동에 더 넓은 성담을 두 번째로 쌓았다. 당시에는 처녀들도 보초를 섰다고 한다.

변창식은 21살 때 한 살 어린 저지리 중동 출신 여성과 결혼했다. 결혼식 때 가마를 타고 말 타고 혼례를 치렀다고 한다. 당시 마을에는 굿은일을 맡아 하던 하인<sup>233)</sup>이 있었는데, 형제 사이였으며 마을 일이면 대부분 그들이 도맡았다. 신부는 꽃가마를 타고 시집갔고, 하인이 가마를 앞뒤로 메고 들고 갔다. 시집이 먼 경우에는 가마를 말에 메고 하인이 말고삐를 잡고 이동했다.

자녀는 3남 2녀, 모두 5남매를 두었다. 군대는 30세에 입대하여 33세에 제대했다. 당시 제2보충역<sup>234)</sup> 제도가 있었는데, 징집 대상이 많을 경우 한꺼번에 징집하지 않고 시차를 두거나 대체복무나 방위병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였다. 대부분 신체검사에서 을중합격 판정을 받아 지역 방위로 바닷가 보초를 섰으며, 두모리, 신창리 바닷가에서 간첩 침투를 감시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지역 방위병으로 편입되었으나, 뒤늦게 신체검사에서 갑중합격이 되어 현역으로 전환되었다. 강원도 지역 부대에서 위생병으로 근무했으며, 당시에는 병원 접근이 어려워 위생병에게 민간 대면 진료가 허가되어 있었다.

부대와 마을을 오가던 중 한 할머니가 머느리가 아파 죽어간다며 도와달라고 해 가보니 유방염이었다. 변창식은 군 입대 전에 아내의

233) 하인: 마을 단위 공동노동, 혹은 특정 가구에 종속된 노동 역할을 수행하는 계층을 지칭.

234) 제2보충역: 구병역제 하에서 예비인력으로 분류된 병역제도.

유방염을 치료한 경험이 있어, 고름이 찬 가슴을 주사기로 고름을 빼고 약을 처방했다. 당시 약은 대부분 미국 원조 의약품이었고, 항생제가 함유된 감기약 정도였지만 일주일 정도 치료하자 병이 나았다고 한다.

굴농사는 30세 무렵 나라에서 나무를 받아 심었으나 제대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나무가 죽었다고 한다. 이후 33세 무렵부터 일본을 오가며 굴나무를 들여오던 사람을 통해 나무를 구입하여 본격적으로 굴농사를 하였다. 굴농사는 2020년쯤 접었다.

주요 농사는 보리, 조, 콩, 밀, 밭벼, 녹두, 목화 등을 지었다. 여름에 비가 잘 오면 밭벼 농사가 잘되지만, 가뭄이 들면 피해가 컸다. 보리와 밀은 가을에 심어 겨울을 지나 6월 이전에 수확했으며, 밭벼는 3월에 심어 9~10월에 수확했다. 밭벼를 심은 밭은 한 번 쉬고, 콩을 심었던 밭에 다음 해 밭벼를 심으면 잘 되었다고 한다.

2015년 무렵부터 농사를 줄이기 시작해 2018년경 완전히 그만두었다. 부인은 2년 전 85세로 세상을 떠났다.

## 제출 파일명

S\_20250501\_저지리\_변창식\_겉름내어불리는소리

S\_20250501\_저지리\_변창식\_밭갈때부르는소리

S\_20250501\_저지리\_변창식\_사데소리

S\_20251201\_저지리\_변창식\_밧불리는소리

S\_20251201\_저지리\_변창식\_출비는소리

S\_20251201\_저지리\_변창식\_낭개는소리

S\_20251201\_저지리\_변창식\_사데소리

S\_20251201\_저지리\_변창식\_말이어가기

#### 1-2-4.

#### 고인아, 여, 1937년생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4길 14

제보일시: 2025.5.1. / 6.25. / 9.29.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고인아는 저지리 명이동에서 태어나 22세에 저지리 남동으로 시집을 갔다. 동갑내기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 넷, 아들 둘을 낳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한다. 4·3 당시에는 밤에는 꽃자왈로 숨어 지내고 낮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곤 했으며, 소개령이 내려 고산으로 피했다가 다시 명이동으로 돌아와 살았다고 한다.



농사는 주로 보리를 심었고, 더러 콩과 조도 재배했다. 또한 소도 많이 키웠다고 한다. 나이가 많아 정확한 시기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느 여름날 남편이 밭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더위 잠시 쉬겠다며 길에 앉았다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다음날 아침, 동네 사람이 밭으로 가던 중 쓰러져 있는 남편을 발견해 알려주었고, 그제야 남편의 죽음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가 가장 허망했다고 회상했다.

시집와서 살고 있는 집은 지금까지 세 차례 고쳤다고 한다. 처음에는 초가집이었고, 이후 양철집을 거쳐 지금은 시멘트로 지은 집에서

살고 있다. 제주 노동요는 결혼하기 전부터 부모와 함께 밭에서 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다고 한다.

#### 제출 파일명

S\_20250501\_저지리\_고인아\_조밭 불리는소리

S\_20250501\_저지리\_고인아\_도리깨질소리

S\_20250501\_저지리\_고인아\_사데소리

S\_20250501\_저지리\_고인아\_ㄱ레ㄱ는소리

S\_20250501\_저지리\_고인아\_방에소리

S\_20250625\_저지리\_고인아\_사데소리

S\_20250625\_저지리\_고인아\_밭 불리는소리

S\_20250625\_저지리\_고인아\_ㄱ레ㄱ는소리

S\_20250625\_저지리\_고인아\_방에짚는소리

S\_20250625\_저지리\_고인아\_흑병에부수는소리

S\_20250625\_저지리\_고인아\_마당질소리

#### 1-2-5.

#### 김옥화, 여, 1937년생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542

제보일시: 2025.7.1. / 9.29.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김옥화는 저지리 명이동에서 태어났다. 제보자 고인아, 홍영산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12살 때 고등학교에 다니는 오빠

의 식사를 챙겨주기 위해 제주시로 가서 살다가, 14살에 다시 명이동으로 돌아왔다. 학교에 다니고 싶었으나 어머니가 보내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스스로 학교를 찾아가 입학하겠다고 하자, 선생님이 나이를 묻기에 14살이라고 했더니 몇 학년으로 들어가고 싶냐고 물었다. 그는 3학년으로 가고 싶다고 답했고, 선생님이 글을 한 줄 읽어보라고 하여 읽자, 3학년에 입학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후 6학년까지 3년 동안 다니고 졸업했다.



당시에도 어머니는 계속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 했지만, 그는 “그때 학교에 가지 않았더라면 지금 글을 읽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21세에는 돈을 벌기 위해 일본 공장에 일하러 가서 1년 동안 지냈고, 22세에 제주로 돌아와 결혼했다. 남편은 본인보다 네 살 많았고, 저지리 남동 출신이었다. 23세에 딸을 낳았으며, 시집온 이후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주로 보리·콩·조 등을 재배했다고 한다. 남편은 82세에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살고 있는 청수리는 저지리와 청수리 경계 지역이고, 제보자 고인아 집에서 일주일이면 3일 정도를 지낸다고 한다.

#### 제출 파일명

S\_20250701\_저지리\_김옥화\_땃불리는소리

S\_20250701\_저지리\_김옥화\_사데소리  
S\_20250701\_저지리\_김옥화\_왕이자랑  
S\_20250701\_저지리\_김옥화\_남방에소리  
S\_20250701\_저지리\_김옥화\_ㄹ레ㄹ는소리  
S\_20250701\_저지리\_홍영산 김옥화\_검질메는소리

#### 1-2-6.

#### 홍영산, 여, 1944년생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명이3길 9-6

제보일시: 2025.7.1. / 9.29.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홍영산은 3남 5녀, 8남매 중 여섯째로 저지리 남동에서 태어났다. 4·3 당시 여섯 살 때 소개령으로 해안가 마을로 내려가 살다가 다시 남동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 시기에는 먹을 것이 없어 겨죽<sup>235)</sup>을 먹으며 지냈다고 기억한다. 가족 중에서는 특히 어머니와 오빠들이 자신을 많이 아껴주었다고 한다.



21살에 명이동 출신의 한 살 위 남편

235) 겨죽: 곡식의 속겨로 쑨 죽.



과 결혼했고, 2남 2녀를 낳았다.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오빠가 찾아와 “아이는 어머니에게 맡기고 놀러 가자”고 하여 자주 놀러 다녔다고 한다. 그는 큰오빠가 자신을 특히 아껴주었다고 회상하였다.

시아버지는 4·3 때 구장이었다. 멧쟁이이었다고 한다. 시어머니가 하얀 중의적삼을 매일 풀 먹여 옷을 장만하면 하루에도 두세 번 갈아 입었다고 한다. 시어머니가 아프면 본인 일이었다고 한다.

8남매 중 지금은 자신과 여동생만 남고 나머지 6남매는 모두 세상을 떠났다. 묘 이장을 한 후 3년 만에 6남매가 모두 죽었다고 한다. 남매들이 잇따라 아프고 죽자, 굿을 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하지 못한 것이 지금도 마음에 걸린다고 한다.

그는 저지리에 살면서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 제출 파일명

S\_20250701\_저지리\_홍영산 김옥화\_검질메는소리

S\_20250701\_저지리\_홍영산\_땃불리는소리

S\_20250701\_저지리\_홍영산\_창부타령

S\_20250701\_저지리\_홍영산\_뽕이자랑

S\_20250701\_저지리\_홍영산\_방에짚는소리

### 1-3. 저지리 노동요

---

노동요는 노동이 수반된 민요로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

#### 소뭍쉬물앙가는소리

- 농업요-마소 모는 소리: 소나 말을 일정 장소로 이동할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675 저지마을회관

**조사 일시:** 2025. 4. 15.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김신화, 여, 1933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옛날에 보리농사를 어떻게 지었냐고 물으니 보리농사를 설명하면서 구연하였다. 보리농사를 지으려면 밭을 갈아 놓고 돼지우리에 있는 거름을 마당으로 내어 거름 위에 보리씨를 뿌려 섞어 놓는다. 이렇게 섞어 놓은 거름을 망태기에 넣어 소를 이용하여 밭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밭에 도착하면 거름을 한 줍씩 잡아 뜯어 밭에 뿌린다. 앞사람이 거름에 섞은 씨를 한 줍씩 잡아 뜯어 고랑에 놓으면 뒷사람이 따라오면서 그 위에 흙을 덮는다. 이 과정에서 ‘고랑골 막아줍서.’ 말하고 이를 ‘고랑막음’이라고 한다. 거름을 밟을 때 부르는 소리가 ‘소뭍쉬 물앙 가는 소리’이다.

**자료 코드:** S\_20250415\_저지리\_김신화\_소뭍쉬물앙가는소리

이러 러 러 이러 러 히이야 혼저<sup>236)</sup> 걸으라

---

236) 혼저: 어서.

바루<sup>237)</sup> 걸으라 요쉐야 어드레 헛걸음 하지말앙 어러러 허이야  
허야 허야

어야 어허허허허 흥저 어허야 흥저 걸으라 흥저 걸으라

## 밧블리는소리1

- 농업요-밧 밧는 소리: 주로 조농사를 할 때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밧을 밧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675 저지마을회관

**조사 일시:** 2025. 4. 15.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김태화, 여, 1930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옛날에 보리농사를 어떻게 지었냐고 물으니 보리농사를 설명하면서 구연하였다. 조농사 때 하는 밧 밧는 소리를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415\_저지리\_김태화\_밧블리는소리

어로로로로로로로로 돌돌 요 몰아<sup>238)</sup> 흥저 불리라<sup>239)</sup> 우리도  
정싱<sup>240)</sup> 먹고 가젠 허난 제게 걸으라 요 몰아 어료료료 허 허  
어허랑 하랑

---

237) 바루: 바로.

238) 요 몰아: 요 말아.

239) 불리라: 밧으라.

240) 정싱: 점심.

어로로로로로로로로 어로로 높으디 불르멍<sup>241)</sup> 흥저 불랑 가게  
요 믱쉬아 어 어어 어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어로로로 돌돌

## 걸름시깡가는소리

- 농업요-마소 모는 소리: 소나 말을 일정 장소로 이동할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675 저지마을회관

**조사 일시:** 2025. 4. 15.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김신화, 여, 1933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옛날에 보리농사를 어떻게 지었냐고 물으니 보리농사를 설명하면서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415\_저지리\_김신화\_걸름시깡가는소리

허야 어허허허허 허야

이러 흥저 걸으라 이 쉼덜아 흥저 이 짐 지엄 밧디가<sup>242)</sup> 강 부  
려사 흥저 가게 흥저 흥저 허야

---

241) 불르멍: 밧으면서.

242) 밧디가: 밧으로.



## 조블리는소리1

- 농업요-밭 밟는 소리: 주로 조농사를 할 때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밭을 밟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675 저지마을회관

**조사 일시:** 2025. 4. 15.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김태화, 여, 1930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옛날에 보리 농사를 어떻게 지었냐고 물으니 보리 농사를 설명하면서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415\_저지리\_김태화\_조블리는소리

어 로로로로로로로로 요 몰덜아 높은 디나 블르라 흔저 가게  
어료료료료료료료료 돌돌

## 조블리는소리2

- 농업요-밭 밟는 소리: 주로 조농사를 할 때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밭을 밟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675 저지마을회관

**조사 일시:** 2025. 4. 15.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김신화, 여, 1933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 김태화에 이어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415\_저지리\_김신화\_조블리는소리

어려어려 어 돌돌 흔저 걸으라 어려어려 어 돌돌 돌돌 요 몰덜  
아 높은 동산 문여<sup>243)</sup> 블르고 이거 허터지지 말아<sup>244)</sup> 흔저 모  
영 걸으라 와 어려려려

(허민 몰덜이 가로 흐터지당도 확확 돌아사 줌 불리는 사름더  
레.(하면 말들이 가로 흠어지려고 하다가도 확확 돌아서 참 밟는 사람쪽으로.))

어려어려 어 돌돌 어려 돌돌 높은 디만 블럼시라 요 몰덜아 어  
려려려려 어려려려 어려려려 돌돌 뱅뱅 돌아사라 어려려려

(훼초리 ㄱ정 ㄱ딱 ㄱ딱 허민 몰덜이 밧디 휘휘 돌아사민.(훼초  
리 가지고 가딱가딱 하면 말들이 밧에 휘휘 돌아서면.))

어따 요 몰덜아 높은 디만 높은 동산에만 블럼시라 고고리랑<sup>245)</sup>  
무신 거 뒹고 낭이랑<sup>246)</sup> 수리대 뒹고 으름이랑<sup>247)</sup> 무시 거 올  
라 허멍

## 사데소리1

- 농업요-김매는 소리: 김매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675 저지마을회관

**조사 일시:** 2025. 4. 15.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김신화, 여, 1933년생

---

243) 문여: 먼저.

244) 허터지지 말아: 흠어지지 말고.

245) 고고리랑: 이삭이랑.

246) 낭이랑: 나무랑.

247) 으름이랑: 열매랑.

**구연 상황:** 조사자가 조농사를 할 때 김매기를 하는지를 물으니 한다고 하며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415\_저지리\_김신화\_사데소리

어기여어랑 서화나데야      어기여랑 서화데야  
요 손 저 손 다 메여 감저      앞명에야 들어나오라  
뒷명에랑 무너나나라      어느제랑 저 명에 가코<sup>248)</sup>  
어기여랑 서화데야      오람 시난<sup>249)</sup> 명에도 왓저  
(난 앞이 오랏저. 느네 제게덜 메라. 마중 메여 주느냐 또시 돌아  
아 왓이민.(난 앞에 왔어. 너네 빨리들 메라. 마중 메여 줄까 다시 돌아 왔으면.))  
올로<sup>250)</sup> 가는 청비발      아기걸음발도 좋아나 빌다  
옆이 들은 구덕<sup>251)</sup> ㅎ정<sup>252)</sup>

올로 가는 청비발      아기구덕 들엉 보기도 좋다  
머리 여진 앞장도<sup>253)</sup> 좋다      어기여랑 서화나데야  
(아이고 거 다음 곶을 말 잊어불어졌저.(아이고 거 다음 할 말 잊어 버렸  
어.))  
머리 여진 뒤창도 좋다      옷 입은 걸음 앞창도 좋다

---

248) 가코: 갈까.

249) 오람 시난: 오고 있으니깐.

250) 올로: 여기로.

251) 구덕: 바구니.

252) ㅎ정: 가지고.

253) 앞장도: 앞모습도.

(미시거연 헛인디 아이고 잊어불언 못 곶으쿠다.(무엇이라고 했는데  
아이고 잊어 버려서 못 말하겠어요.))

## 도리깨질소리1

- 농업요-마당질소리: 밭 구석이나 마당에서 도리깨를 이용하여 곡식을 타작할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675 저지마을회관

**조사 일시:** 2025. 4. 15.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김태화, 여, 1930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보리를 수확하면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보리는 훑  
고 나서 도리깨로 두드려 곡식을 떨어뜨린다고 한다. 조 이삭을 뜯어 연  
자방아에 낚서 방앗돌을 굴려 장만했다고 하면서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415\_저지리\_김태화\_도리깨질소리

어야도 흥아  
요레<sup>254)</sup> 딱리라<sup>255)</sup>  
어야흥 어야도 흥

---

254) 요레: 여기로.

255) 딱리라: 때리라.

## 방아소리

- 제분요-방아질소리: 방아에 곡식을 넣고 찼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675 저지마을회관

조사 일시: 2025. 4. 15.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김태화, 여, 1930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방아 찼을 때는 어떤 소리를 하냐고 물으니 구연하였다. 제보자 김신화는 다섯 사람이 함께하는 ‘다섯꼴방에’를 했다고 한다. 다섯 사람이 서서 방아를 찼어도 될만큼 남방아가 컸다고 한다.

자료 코드: S\_20250415\_저지리\_김태화\_방아소리

이여이여 이여도 허라

이여이여 이여도 허라

## ㄱ레ㄱ는소리1

- 제분요-맷돌질소리: 맷돌에 곡식을 넣고 갈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675 저지마을회관

조사 일시: 2025. 4. 15.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김태화, 여, 1930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ㄱ레 ㄱ는 소리’를 해달라고 요청하니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415\_저지리\_김태화\_ㄱ레ㄱ는소리

이여 이여 이여도 허라

요 ㄱ레야 혼저 굴아지라

노각 ㄱ뜯<sup>256)</sup> 나 어깨 들민

석은낭 무에뜨 무에여진다<sup>257)</sup>

이여 이여 여 이여도 허라

## 걸름내어불리는소리

- 농업요-거름 밟는 소리: 주로 보리농사를 할 때 보리 씨앗을 거름에 섞고, 그 후 소나 말을 이용하여 거름이 씨앗에 골고루 섞이도록 밟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675 저지마을회관

조사 일시: 2025. 5. 1.

조사자: 송정희, 임현정

제보자: 변창식, 남, 1937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보리농사를 지을 때 불렀던 노래를 기억이 나는 것이 있으면 불러달라고 요청하니 구연하였다. 보리씨를 거름에 섞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구연하였다. 보리는 가을에 씨를 뿌려 겨울 넘어 늦봄에 수확하는 농사이다. 긴 겨울을 견디기 위해 보리씨에 거름을 섞어 밭에 뿌린다. 비료가 없던 시절에 농사를 짓는 방법이 었다고 한다. 거름에 보리를 섞은 것을 망태에 담아 소 등에 실어 밭으로 운반한다. 씨가 섞인 거름은 수제비 떠 놓듯이 밭에 한 줍씩 떼어 골고루 밭에 뿌린다. 그 다음에 소를 이용하여 밭을 간다. 제

256) 노각 ㄱ뜯: 뿔 같은.

257) 석은낭 무에뜨 무에여진다: 썩은 나무가 문드러지듯 문드러진다.

보자 변창식은 저지리에서는 논농사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자료 코드:** S\_20250501\_저지리\_변창식\_걸름내어불리는소리

이야흥 어야흥 흥저 흥저 이 걸름 내영 보리씨 서깅<sup>258)</sup> 저 밧  
너른 밧데 몰<sup>259)</sup> 시꺼근에<sup>260)</sup> 흥저 보리 갈앙 수확을 내  
고 에야흥 에야흥 에야흥

어랑 하랑 어랑 하랑 돌돌 요 <sup>261)</sup> 흥저 흥저 걸름<sup>261)</sup> 내영 보  
리씨 서깅 저 들판에 뿌령 농사 지영 우리 먹게 허영 줍서 에야  
흥 에야흥

## 밧갈때부르는소리

- 농업요-밭 가는 소리: 소나 말에 쟁기를 매어 밭을 갈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675 저지마을회관

**조사 일시:** 2025. 5. 1.

**조사자:** 송정희, 임현정

**제보자:** 변창식, 남, 1937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가 '걸름내어 불리는 소리'에 이어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501\_저지리\_변창식\_밧갈때부르는소리

---

258) 서깅: 섞어서.

259) 몰<sup>259)</sup> 말마소로.

260) 시꺼근에: 실어서.

261) 걸름: 거름.

이라 밧 갈러 가자

이라 밧 갈러 가자 저 넓은 들판으로 밧 갈러 가자 어 슷스스  
(허면 소가 빨리빨리 걷는다고)

어 슷스스

(소가 빨리빨리 허면 밧 갈아 가지고. 보리농사.)

## 사데소리2

- 농업요-김매는 소리: 김매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675 저지마을회관

**조사 일시:** 2025. 5. 1.

**조사자:** 송정희, 임현정

**제보자:** 변창식, 남, 1937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김매 때 부르는 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니 구연  
하였다. 제보자 조신자가 '사데소리'를 다시 부를 것을 요청하니 구  
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501\_저지리\_변창식\_사데소리

어기여랑 사데로다

검질 메영(아니)

사데 불르명 요 검질 메자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앞에 가는 놀령새야<sup>262)</sup>

---

262) 놀령새야: 나는새야.

중간에 가는 중간 망태  
조름에 가는 꼴망태야  
흔저 흔저 메어보라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사데 불렁 요 검질메자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 조밧블리는소리1

- 농업요-밭 밟는 소리: 주로 조농사를 할 때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밟을 밟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675 저지마을회관

**조사 일시:** 2025. 5. 1.

**조사자:** 송정희, 임현정

**제보자:** 고인아, 여, 1937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밟 밟을 때 부르는 소리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니 구연하였다. 이십 년쯤 전에 마을 대표로 공설운동장에서 공연을 했다고 하며 '조밧 블리는 소리'를 많이 했다고 한다. 조사자가 재차 불러줄 것을 요청하니 두 번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501\_저지리\_고인아\_조밧블리는소리

어러돌돌 어러돌돌 어러려~허 어~랑 하랑

---

263) 저실: 겨울.

요 믋쉬덜아 저 믋쉬덜아 부지런히 걸으라 저실<sup>263)</sup> 들민 먹을  
양석 헤영 놀 거여 어~랑 하랑  
(젠디 이거 늑영 잘 못허긴 험저. 전에 잘 헤낫인디 저디.(그런데  
이거 늑어서 잘 못하기 한다. 전에 잘 했었는데 저디.))  
어러돌돌 어러~ 어어어어~ 랑 하랑  
요 믋쉬덜 저 믋쉬덜아 부지런히 걸으라 부지런히 걸영 놔두민  
저실 들민 누워둬서 술도 먹고 물도 먹으멍 살아날 거여 어~랑  
하랑

어러돌돌 어러돌돌 어러러어어앙 어어어어어랑 하랑  
요 믋쉬 저 믋쉬덜아 덜랑덜랑 부지런히 걸어라  
부지런히 걸영 놔두민 저슬 들민 7만히 메어둬서  
배 불게 밥 줄게 아니가 부지런히 걸어라  
어어어 어어어허어허랑 하랑

## 도리깨질소리2

- 농업요-마당질소리: 밟 구석이나 마당에서 도리깨를 이용하여 곡식을 타작할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675 저지마을회관

**조사 일시:** 2025. 5. 1.

**조사자:** 송정희, 임현정

**제보자:** 고인아, 여, 1937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마당질소리를 요청하니 도리깨질을 하는 시늉을 하면서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501\_저지리\_고인아\_도리깨질소리

어야흥 어야도흥아

어야흥 어야도흥아

요 놀래 불렁 요거 떼렁

저녁 7심<sup>264)</sup> 허여당 먹엉

어느만이나 살아보리

어야흥 어야도흥

어야흥 어야도흥아

요 놀래 불렁 요 마당질 허영

요거 떼렁 건건<sup>265)</sup> 아기덜 맥영 살려보리

어야흥 어야도흥

### 사데소리3

- 농업요-김매는 소리: 김매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675 저지마을회관

조사 일시: 2025. 5. 1.

조사자: 송정희, 임현정

제보자: 고인아, 여, 1937년생

264) 저녁 7심: 저녁 감. 저녁 식사를 할 곡식 장만.

265) 건건: 건으먼.

구연 상황: 조사자가 김매 때 부르는 소리를 요청하니 구연하였다. 제보

자는 젊을 때 김매러 가면 소리를 일등으로 잘 했다고 한다. 조사자

가 재차 요청하니 세 번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501\_저지리\_고인아\_사데소리

어기여랑 서화데여

앞명에에 들어오라

어야흥 어야도흥

만날 검질 메여 봐도

허는 것이 다 허터기로구나<sup>267)</sup>

사데 불렁 명에에 가게

뒷명에랑 무너나나라

어기여랑 서화데여

요 밧 명에 어떻 허난

앞 명에야 들어오라

어기여랑 서화데여

어기여랑 서화데여

어는제랑 앞명에 가리

뒷명에랑 무너나 나명

요 검질 메영 앞명에 가자

뒷명에랑 무너나나라

어여 시상<sup>266)</sup> 살아봐도

돈도 못 벌고 허여 봐도

어기여랑 서화데여

요 밧 명에야 들어나 오라

어기여랑 서화데여

사데나 불렁 명에에 가게

영 진 명에가 잇이니

뒷 명에랑 무너나명

사데나 불러근 앞명에 가카

앞명에야 들어나오라

어긴여랑 서화데여

266) 시상: 세상.

267) 허터기로구나: 흩어지는구나.

## ㄱ레 ㄱ는소리2

- 제분요-맷돌질소리: 맷돌에 곡식을 넣고 갈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675 저지마을회관

**조사 일시:** 2025. 5. 1.

**조사자:** 송정희, 임현정

**제보자:** 고인아, 여, 1937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ㄱ레 ㄱ는 소리’를 요청하니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501\_저지리\_고인아\_ㄱ레 ㄱ는소리

이여 이여 이여도 헉라

요 ㄱ레야 빙빙 돌라

요 ㄱ레 곶앙 저녁 ㄱ심 곶아근에

아기덜토 허영 맥이고 나도 먹고 허여사

살 거 아니가

이여도 이여도 헉라

어기여랑 이여도 헉여

이여도 헉라 요 ㄱ레야

벙벙 돌앙 부지런히 느려오라<sup>268)</sup>

아기들 강 저녁 허영 주워사 헉 거 아니가

이여이여 이여도 헉라

이여이여 이여도 헉라

---

<sup>268)</sup> 느려오라: 내려오라.

이여 곶아 혼저 곶앙

저녁 ㄱ심 맨들아근<sup>269)</sup>

이 아기들 저녁 허영

맥이고 헉 거주기

이여이여 이여도 헉라

이여이여 이여도

이여이여 이여도 헉라

요 ㄱ레야 벙벙 돌멍 혼저 곶라

저녁 ㄱ심 곶아단

이아기덜 저녁 허영

맥이고 살려사 헉 거 아니가

이여이여 이여도 헉라

이여도 헉라

이여도 헉라

이여도 방에로구나

이여이여 헉라

## 방에소리

- 제분요-방아질소리: 방아에 곡식을 넣고 짚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675 저지마을회관

**조사 일시:** 2025. 5. 1.

---

<sup>269)</sup> 맨들아근: 만들어서.



**조사자:** 송정희, 임현정

**제보자:** 고인아, 여, 1937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방아소리를 요청하니 구연하였다. 조사자가 재차 불러줄 것을 요청하니 두 번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501\_저지리\_고인아\_방에소리

방에 방에 몰방에여  
요 방에 지영 어기 여랑  
요 방에 지영 어느 아기덜 맥영 살저 보리  
이여도 헉라 이여도 헉라

이어 이어 이여도 헉라  
시콜방에<sup>270)</sup> 세도 헉데 맞아서 헉다.  
이야흥 이여도흥  
어는제랑 요방에 지영  
아기덜 쓸 헤영<sup>271)</sup> 밥헤영 주리  
여야흥 여야흥  
어야도 흥아 어야흥

## 조밭불리는소리2

- 농업요-밭 밟는 소리: 주로 조농사를 할 때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밟을 밟으면서

---

270) 시콜방에: 세 명이 돌아가며 짚는 방아.

271) 쓸 헤영: 쌀 (장만)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675 저지마을회관

**조사 일시:** 2025. 5. 1.

**조사자:** 송정희, 임현정

**제보자:** 김태화, 여, 1930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밟을 밟을 때 부르는 소리를 요청하니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501\_저지리\_김태화\_조밭불리는소리

오로로로로로 로로로로로 돌돌  
어로로로로로 로로로로  
어~러러러러러 헉저 걸으라 요 몰덜아 높은 디만 불람시라<sup>272)</sup>  
어~ 어러러러러 돌돌  
어로로로로로로 어로로로로  
어로로로로로로 돌돌  
어로로로로로로  
  
어로로로로로 돌돌 어로로로로  
어러~어~ 러러러 요 몰덜아 높은 디만 불르라  
낭이랑<sup>273)</sup> 너네 주고 구실낭<sup>274)</sup> 으물랑<sup>275)</sup> 우리 먹으키여  
어로로로로로로 어로로로로로 돌돌

---

272) 불람시라: 밟아라.

273) 낭이랑: 나무랑.

274) 구실낭: 구실나무.

275) 으물랑: 알맹이랑.

어로로로로로로 로로로로로 어로로로로로 돌돌

## 사데소리4

-농업요-김매는 소리: 김매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675 저지마을회관

**조사 일시:** 2025. 5. 1.

**조사자:** 송정희, 임현정

**제보자:** 김태화, 여, 1930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김매 때 부르는 소리를 요청하니 구연하였다. 조농사를 지을 때 많이 불렀다고 한다.

**자료 코드:** S\_20250501\_저지리\_김태화\_사데소리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앞이 가는 어영세야

요이 드나 도훼영 들라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우리성제 삼성제들아

(아이고 것도 잊어비었저. 잊어비어서.(아이고 이것도 잊어 버렸어. 잊어 버렸어.))

우리성제 삼성제들아

삼세글로 절긱 주마

## ㄱ레ㄱ는소리3

- 제분요-맷돌질소리: 맷돌에 곡식을 넣고 갈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675 저지마을회관

**조사 일시:** 2025. 5. 1.

**조사자:** 송정희, 임현정

**제보자:** 김태화, 여, 1930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맷돌질하면서 부르는 소리를 요청하니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501\_저지리\_김태화\_ㄱ레ㄱ는소리

이어 이어~ 이어도 ㅎ라

요 ㄱ레야 혼저 돌라          노각 ㄱ튼 나 어깨 들민

석은낭 무에들 허키여          이어 이어~ 이어도 ㅎ라

이어 이어~ 이어도 ㅎ라

이어 이어 이어도 ㅎ라 이어도 ㅎ라

## 방아짚는소리1

- 제분요-방아질소리: 방아에 곡식을 넣고 짚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675 저지마을회관

**조사 일시:** 2025. 5. 1.

**조사자:** 송정희, 임현정

**제보자:** 김태화, 여, 1930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방아 짚으면서 부르는 소리를 요청하니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501\_저지리\_김태화\_방아짚는소리

이어 이어 이어동 헉라  
 이어 이어 이어동 헉라  
 세콜방에 세글럼서라<sup>276)</sup>  
 이어 이어 이어동 헉라  
 이어 이어 이어도 헉라  
 이어 이어 이어도 헉라

### 도리깨질소리3

- 농업요-마당질소리: 밭 구석이나 마당에서 도리깨를 이용하여 곡식을 타작할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675 저지마을회관

**조사 일시:** 2025. 5. 1.

**조사자:** 송정희, 임현정

**제보자:** 김태화, 여, 1930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도리깨질소리를 요청하니 구연하였다.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는 소리라고 하고 한가지 가사로만 불렀다고 한다. 한쪽에서 부르면 반대편 쪽 사람이 똑같이 불렀다고 한다.

**자료 코드:** S\_20250501\_저지리\_김태화\_도리깨질소리

어야도 흥 어야도 흥  
 어야도 흥 어야도 흥  
 어야동 흥 어야동 흥

<sup>276)</sup> 세글럼서라: 사이가 어긋나는구나.

어야동 흥 어야동 흥  
 어야동 흥 어야동 흥  
 (이디서 흥 번 골으민 저쪽 사름 흥 번 곤고 그건 그자 흥가지  
 허영 둘이 곱아서.(여기서 한 번 말하면 저쪽 사람 한 번 말하고 그건 그냥 한가  
 지 해서 둘이 말했어.))

### 사데소리5

- 농업요-김매는 소리: 김매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6. 25.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고인아, 여, 1937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김매 때 부르는 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니 구연하였다. 주로 여름 농사인 조나 콩농사를 할 때 많이 불렀다고 한다. 김매 때 조 짝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더러는 옮겨 심기도 한다. 주로 비가 올 때 했다고 한다. 김은 몇 번 땀나고 물으니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한다고 했다.

**자료 코드:** S\_20250625\_저지리\_고인아\_사데소리

어긴여랑 서와데여  
 사데 불령 요 검질 메영  
 어긴여랑 서와데여  
 사데소리 느직느직 맞어사 한다  
 어긴 (경헌디 짚은 못허켜(그런데 짚은 못하겠어.))

어긴여랑 서와데여  
 사데 불령 요 검질 메게  
 요 검질 메영 저 멩에 가게  
 어긴여랑 서와데여  
 사데소린 산 넘어가고  
 사데소린 물 넘어가고  
 사데 불령 요 검질 메게  
 요 밧 검질~ 굴 앓앙 앓앙<sup>277)</sup>  
 노래소리에 검질이나 메지  
 힘도 들고 더웁도<sup>278)</sup> 허곡  
 물도 그럽고<sup>279)</sup> 버침도 허곡  
 어긴여랑 서와데여

어긴여랑 사데로구나  
 요 밧 검질 골 앓앙 앓앙  
 사데나 불령 저 멩에 갈카  
 날도 덥고 물도 그럽고  
 어긴여랑 서와데여  
 요 밧 검질~ 굴 앓앙 앓앙  
 사데나 불르멍 멩에나 가보카  
 어긴여랑 서와데여

277) 굴 앓앙 앓앙: 고랑이 앓은 데 앓아서.  
 278) 더웁도: 덥기도.  
 279) 그럽고: 그럽고.

어긴 불령 멩에에 가게  
 앞멍에랑 들어나오라  
 뒷멍에랑 무너나라  
 앞멍에에 귀역은 가자  
 어긴여랑 사데로구나

## 밧블리는소리2

- 농업요- 밧 밟는 소리: 주로 조농사를 할 때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밧을 밟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6. 25.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고인아, 여, 1937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밧 밟는 소리는 언제 하냐고 물으니 조농사 할 때 부른다고 하며 구연하였다. 좁씨를 뿌리고 좁씨 뿌리가 땅에 잘 내리게 하기 위해 밧을 밟을 때 불렀다고 한다.

**자료 코드:** S\_20250625\_저지리\_고인아\_밧블리는소리

어러덜덜 어러덜덜 어러러덜덜  
 요 ㅁ쉬 저 ㅁ쉬덜아 ㅁ지런히<sup>280)</sup> 걸으라 저실 들민 누워돔서  
 맥여줄 거 아니가  
 어러~렁 어으어어 어랑 하랑

280) ㅁ지런히: 부지런히.

하랑 하랑 어랑 하랑  
 어러러~렁 어으어어 어으어 어러덜덜  
 어러덜덜 어러덜덜 부지런히 걸으라 으름에<sup>281)</sup> 부지런히 걸엉  
 놔두민  
 ㄱ실 들민 출<sup>282)</sup> 허영 누워둬서 먹을 거 아니가  
 어~어으어 어랑 하랑 어러덜덜덜

어러덜덜 어러덜덜 요 ㅁ쉬 저 ㅁ쉬덜아 부지런히 걸으라  
 흔저 걸엉 불러져사 농사 헤영 먹엉 살거니 하영

#### ㄱ레 ㄱ는소리4

- 제분요-맷돌질소리: 맷돌에 곡식을 넣고 갈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6. 25.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고인아, 여, 1937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ㄱ레 ㄱ는 소리’를 해 달라고 요청하니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625\_저지리\_고인아\_ㄱ레 ㄱ는소리

이여~ 이여~ 이여도허라      요 ㄱ레야 흔저나 둘라  
 흔저 굴앙 떡 허영 먹곡      밥도 허영 먹어사 혈 거여

281) 으름에: 여름에.

282) 출: 꼴.

이여 이여 이여도허라      어기여랑 이여도허라  
 으 ㄱ레야 뱅뱅 돌앙 흔저 굴라  
 흔저 굴아사 즈낙 ㄱ심허영      즈낙도 허영 먹곡  
 아기덜토 밥 허영 ㅎ곡 혈 거여  
 이여 이여 이여도허라

#### 방아짚는소리2

- 제분요-방아질소리: 방아에 곡식을 넣고 짚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6. 25.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고인아, 여, 1937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방아 짚을 때 부르는 소리를 해 달라고 요청하니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625\_저지리\_고인아\_방아짚는소리

이여 이여 이여도허라  
 요 방에야 흔저나 둘라  
 식콜방엔 지어사 한다  
 이여 이여 이여도허라  
 요 방에 짚엉 저 뱃디<sup>283)</sup> 몰루왕<sup>284)</sup>

283) 뱃디: 별에.

284) 몰루왕: 말러서.

ㄱ레에<sup>285)</sup> 곶아사 밥 허영 먹고 혈 거 아니가

이여 이여 이여도허라

이여 이여 이여도허라

## 흑병에부수는소리

- 농업요-곰방메소리: 따비질이나 혹은 밭을 갈고 나서 일어난 커다란 흙덩어리를 곰방메로 내리쳐 두드리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6. 25.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고인아, 여, 1937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흑병에 부수는 소리’라고 말하니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625\_저지리\_고인아\_흑병에부수는소리

흔저 까지라 요거 까져살 거 아니가

안 까지민 우린 어떻 사느니

요거 부지런히 꺼져라 꺼지라

## 마당질소리

- 농업요-마당질소리: 밭 구석이나 마당에서 도리깨를 이용하여 곡식을 타작할 때 부르는 소리.

---

285) ㄱ레에: 맷돌에.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6. 25.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고인아, 여, 1937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콩 갈 때는 어떤 소리를 하냐고 물으니 마당질할 때 냐고 되묻고는 구연하였다. 콩을 벨 때 소리는 하지 않냐고 물으니 낫질할 때라 낫이 무서워서 노래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자료 코드:** S\_20250625\_저지리\_고인아\_마당질소리

어야 흥 어야도 흥아 어야 흥

요 콩아 흔저 까지라 두드렝 즈낙이랑

물랴근에<sup>286)</sup> 곶아근에 국도 끌렝<sup>287)</sup> 먹곡 허게

어야 흥 어야도 흥 어야도 흥

## 밧불리는소리3

- 농업요-밧 밟는 소리: 주로 조농사를 할 때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밧을 밟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청수리)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김옥화, 여, 1937년생

---

286) 물랴근에: 말려서.

287) 끌렝: 끌어서.

**구연 상황:** 조사자가 밭을 밟을 때 부르는 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니  
구연하였다. 조사자가 재차 요청하니 세 번 불렀다. 주로 조농사를  
할 때 많이 부른다고 한다.

**자료 코드:** S\_20250701\_저지리\_김옥화\_밭불리는소리

어러러 어러러 어러러~ 어으어어 어러러 돌돌  
요 몰덜아 노푼 다만 굴리멍 볼르라  
불라사 잎은 청데잎 남은 수리데낭 췌는 췌으름 열곡 허게 불  
르라  
어러러 어러러 어러러~  
어러러 돌돌돌

어러러 어러러 어러러~ 어으어어어 어허~  
요 몰덜아 노푼 다만 굴리멍 볼르라  
어러러 어러 어으어어어 어허~  
경 헤여사 으름은 남은, 남은, 수리데낭, 남은 수리데낭 잎은 청  
데잎 으름은 췌으름난다  
노푼 다만 볼르라  
어러 어러 어러~ 어러어러~ 허허허허

어러러 어러 어러러~ 어으어어어~ 어러러 돌돌  
요 몰덜아 노푼 다만 굴리멍 볼르라 어러러~  
노푼 다만 불라사 남은 수리데낭 나고 잎은 청데잎 나고 으름  
은 췌으름 온다  
어러러 돌돌 어러러러러

어러러 돌돌이로구나 어러러러 어으어어~

## 사데소리6

-농업요-김매는 소리: 김매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청수리)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김옥화, 여, 1937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김매 때 부르는 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니 구연하  
였다. 주로 조농사를 할 때 김을 많이 땀다고 한다. 제보자가 소리  
를 하다 빠른 말로 ‘궐력사데’도 하였다. 어떤 경우 ‘궐력사데’를 하  
는지 물으니 김매는 사람들이 힘이 나게 하려고 부른다고 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701\_저지리\_김옥화\_사데소리

어긴여랑 사데야                      어긴여랑 사데야  
앞명에야 들어나오라              뒷명에랑 무너나나라  
곶은쉐로 (곶은쉐가 요거라.(호미가 이거야.))

곶은쉐로 여의멍 메게  
앞명에랑 들어오라~  
어긴여랑 사데야

(궐력사데)  
땀다땀다 할로산이 땀다



어긴여랑 사데

어긋나랴 사데야

이여도 허랑 이여도 허랑

## 흔저 골루멍 지라

니 세 번 불렀다. 소리가 끝나고 보리 장만하는 것을 설명해주었다. 보리를 수확하면 보리를 흘태를 이용하여 이삭을 떨어낸 다음에 이삭에 물을 묻혀 연자방아로 돌려서 껍질을 벗기거나 절구방아로 찧어서 벗긴다. 절구방아에 찧을 때도 물을 조금 묻혀야 한다. 그렇게 하면 보리쌀이 조금 곱게 나온다. 그 이후 맷돌을 이용하여 보리쌀을 갈아 밥을 해서 먹었다고 한다. 맷돌에 간 보리쌀을 채에 쳐서 가는 쌀과 굵은 쌀을 나눠 밥을 했다고 하고, 주로 가는 쌀로 밥을 했다고 한다. 맷돌질 하는 과정에서 가루로 나온 쌀은 범벅을 해서 먹었다고 한다.

**자료 코드:** S\_20250701\_저지리\_김옥화\_ㄹ레 ㄹ는소리

이여~ 이여~ 이여도 허랑  
이여 이여~ 이여도 허랑  
이 ㄹ레 굴앙 범벅 헤영 아기도 먹곡 나도 먹곡 보리 굴앙

이여도 허랑 이여도 허랑  
이여도 허랑 이여도 허랑  
이 ㄹ레 굴민, 이 보리 굴앙 범벅 헤영  
아기도 먹곡 나도 먹곡 이여도 허랑  
이여도 허랑 이여도 허랑

이여 이여 이여도 허랑~  
이여 이여 이여도 허랑  
흔저 흔저 아기 돌지 말라  
이 보리 굴앙 범벅 헤영

느도 먹곡 나도 먹곡 허게  
이여 이여 이여도 허랑  
이여도 허랑 이여도 허랑  
이여 이여 이여도 허랑  
이여도 허랑 이여도 허랑  
흔저 이 ㄹ레 굴앙 범벅 헤영  
아기도 먹곡 나도 먹곡 흘 거여  
이여도 허랑  
이 보릴 굴아사 먹엉 살 거 아니가  
이여도 허랑  
(아기야 울지 말라! 아기랑 울지 말라이!)  
흔저 ㄹ레 굴아사 범벅 먹을 거 아니가

## 검질메는소리

- 농업요-김매는 소리: 김맬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홍영산, 여, 1944년생. 김옥화, 여, 1937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김맬 때 부르는 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니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701\_저지리\_홍영산 김옥화\_검질메는소리

(홍영산)

어기여랑 사데로다  
사데 불령 으 검질 메게  
어기여랑 서와데야  
사데소린 멀리나 간다  
어기여랑 서와데야  
사데 불령 검질 메게  
앞명에랑 들어나오소  
뒷명에랑 무너나소  
어기여랑 서와데야  
요빳 저꼳 쓸만도 허다  
어기여랑 서와데야  
굽은 (굽은쉐옌 현 건 굴갱이나 낫이라이. (굽은쉐라고 하는 것은 호미  
나 낫이야.))  
굽은쉐로 여의명 메게  
어기여랑 서와데야  
요빳 저꼳 쓸만도 허다  
어기여랑

(꺄력사데)(김옥화)

뻗다 뻗다 한라산이 뻗다

(홍영산)

어기여랑 사데로다  
사데 불령 검질 메게

앞명에랑 들어나 오소

뒷명에랑 무너나소

어기여랑 사데로다

사데 불령 앞명에 가게

앞명에랑 들어나 오소

뒷명에랑 무너나소

어기여랑 서와데야

사데소리 (우리 소리가 듣기나 좋다고)

듣기나 좋다

#### 뵁블리는소리4

- 농업요-뵁 밟는 소리: 주로 조농사를 할 때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밟을 밟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홍영산,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밟 밟을 때 부르는 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니 구연하였다. 제보자는 시아버지가 조농사를 지으려고 말 서너 마리를 데리고 밟을 밟을 때 자주 같이 갔다고 한다. 시아버지는 말을 잘 다루지 못해 말들이 흩어지곤 했다고 하고, 그럴 때마다 본인 직접 밟을 밟았다고 한다. 조사자가 재차 구연할 것을 요청하니 두 번 불렀다.

**자료 코드:** S\_20250701\_저지리\_홍영산\_뵁블리는소리

어러러러~ 어흐어어로로로로로 요 산 중에 놀던 물덜아  
 오로로 오~오~러러러러 둘둘 물이로구낭 아  
 동산 낙려 강 노픈 동산만 불르멍 조팻 불령 자국자국 네와줍서  
 오로로 오~로로 둘둘 물이로구낭 아  
 자국마다 푼릿푼릿 나게 헤여줍서  
 고동산마다 불라줍서 오로로~ 어어어러러 러러러  
 조랑 나건 두 벵 두리만씩<sup>288)</sup> 마께만씩 덩두렁만씩  
 더박더박 올게<sup>289)</sup> 헤줍서 로로 로로 로로 로로 로로 물이로구  
 낭 아  
 요 산 중에 놀던 물덜아 기분풀이 허영 좋게 살랑살랑 불려드라  
 오로로로로 어으어어로로로로로 로로 둘둘 물이로구낭 아  
 겨울 양석<sup>290)</sup> 소복 요 새끼덜 먹을 양석 소복소복 네와드라  
 오로로로로 어으어어롤

어러러러~러러~러러 둘둘 물이로구나 흥아  
 어러러러러러러러~어으어어어어 어러 어러러러  
 조랑 나건 후리데낭 나게 헤여줍서  
 앞이랑 나건 청데앞 나게 헤여줍서  
 어러러 어러러 어러러 어러러 어러  
 으름이랑 나건 주쟁두리만씩 허게 올게  
 마께만씩 두벵두리만씩 드랑드랑 나게 헤줍서

288) 두 벵 두리만씩: 벵 두개 만큼씩.

289) 올게: 열리게.

290) 양석: 양식(糧食).

어러러 어러러 어러러 어러러 어러러 어렐  
 요 산 중에 놀던 물덜아  
 강 조팻<sup>291)</sup> 불령 자국마다 높은 동산만 불르라  
 어러러러러러러 어러러 어러러 어러러  
 소곡소곡 시세왕 소곡소곡 나게 헤줍서  
 어러러 어러러 어러러 어러러 어러러

## 방에짚는소리

- 제분요-방아질소리: 방아에 곡식을 넣고 짚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홍영산,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맷돌질 하는 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방에 짚는 소리’를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701\_저지리\_홍영산\_방에짚는소리

이여도 허라~ 이여도 허라  
 남쿨방에 세글러간다  
 이여도 허라  
 식쿨방에 세 맞아 온다  
 이여도 허라~ 이여도 허랑

291) 조팻: 조밭.

## 밧블리는소리5

- 농업요-밧 밟는 소리: 주로 조농사를 할 때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밧을 밟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675 저지마을회관

**조사 일시:** 2025. 12. 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변창식, 남, 1941년생

**구연 상황:** 콩은 씨를 뿌린 뒤 밧을 갈면 흙이 씨 위로 덮여도 짝이 잘 난다. 이는 콩씨가 크고 힘이 좋아 흙이 두껍게 덮여도 밧아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조는 밧을 먼저 갈아 놓고 좁씨를 뿌린 다음,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밧을 밟아 평평하게 만든다. 여름에 비가 고르게 내리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밧을 밟을 때 하는 소리는 말을 사용할 때와 소를 사용할 때가 서로 다르다. 말은 선두 말의 고삐만 잡고 돌리면 다른 말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뒤에서 사람이 회초리로 물면 더 수월하게 움직인다. 말은 성질이 급해 소리할 때 발음을 빠르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러나 소는 소뿔에 줄을 매어 한 줄로 엮어야 움직였다. 소는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이 세서 선두를 잘 따라가지 않는 편이다. 따라서 소로 밧을 밟을 때와 말로 밟을 때의 소리가 약간 다르다고 한다.

보리, 밀, 콩 등은 밧을 밟지 않고, 조만 밟는다. 조는 씨앗이 작기 때문에 씨를 뿌린 뒤 다시 밧을 갈면 흙이 지나치게 덮여져 짝이 잘 나지 않는다. 그래서 밧을 먼저 갈고 나서 씨를 뿌리고 밧을 밟아 씨에 흙이 약간만 덮이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자료 코드:** S\_20251201\_저지리\_변창식\_밧블리는소리

(소를 대상으로 할 때)

어랑 하랑 어러러러 돌돌이로구나

흔저 흔저 밟아서 오늘 풍년 뒤편에 허라 어랑 하랑

어랑 하랑 이 산 중에 놀던 쉼달아

흔저 흔저 밟아주라 대풍년을 이루게 어랑 하랑

(말을 대상으로 할 때)

어랑 하랑 돌돌이나 밟아보라

어랑 하랑 돌돌이나 밟아보라

노픈 데를 밟아 놓고 야튼 데랑 밟지 말앙 어랑 하랑

어러러러러 돌돌 어러러러러

(성질 급한 거난 물은 발음을 빨리빨리 그추록 해.(성질 급한 것이라 말은 발음을 빨리빨리 그렇게 해.))

어러러러 돌돌 흔저 흔저 밟아보라

어러러러 어러러러

## 출비는소리

- 임업요-꿀 베는 소리: 벌넛, 호미 등을 이용하여 꿀을 베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675 저지마을회관

**조사 일시:** 2025. 12. 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변창식, 남, 1941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출 비는 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니 구연하였다.

벌낮으로 꼴을 벨 때 ‘사르릉 사르릉’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자료 코드:** S\_20251201\_저지리\_변창식\_출비는소리

사르릉 사르릉 잘도 비어지는구나

에에에 에에헤 에에 허야

출비는 소리야 불러보자

일로 절로<sup>292)</sup> 나는 소리는

에에에 에에헤 에에 허야

청출한이<sup>293)</sup> 비는 소리로구나

청출한이가 나는구나

에에에 에에헤 에에 허야

청출한이가 비어지는구나

일로 절로 나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묻지마라

에에에 에에헤 에에 허야

청출 비는 소리로구나

---

292) 일로 절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293) 청출한이: 푸른 꼴을 베는 사람.

## 낭개는소리

- 임업요-나무 쪼개는 소리: 도끼를 이용하여 나무를 쪼갤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675 저지마을회관

**조사 일시:** 2025.12. 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변창식, 남, 1941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나무 쪼갤 때 부르는 소리가 있냐고 물으니 구연하였다. ‘두럼아’라는 말은 도끼를 어깨에 둘러멘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도끼로 나무를 내칠 때 ‘흥’이라고 한다고 설명하면서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1201\_저지리\_변창식\_낭개는소리

어기 두럼아 흥

허기 두럼아 흥

## 사데소리<sup>7)</sup>

- 농업요-김매는 소리: 김매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675 저지마을회관

**조사 일시:** 2025.12. 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변창식, 남, 1941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사데소리’ 불러었냐고 물으니 심심하고 힘들면 불렀다고 하며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1201\_저지리\_변창식\_사데소리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사데 불령 요 검질 메자  
앞명에랑 들어오꼭  
뎡명에랑 물러나가라

앞에 가는 놀령새야<sup>294)</sup>  
중간에 가는 중간 망테  
꼴체 가는 꼴망테야  
흔저 빨리 따라오라  
어기여랑 사데로다  
사데 불령 요 검질 메자

294) 놀령새야: 나는새야. 김멜 때 앞에 가는 사람이 날아가는 새처럼 빠르다는 뜻.

#### 1-4. 저지리 유희요

유희요는 유희적 성격이 강한 민요로 놀이를 위해 부르거나 또는 노래 그 자체를 즐기기에 부르는데 민요를 말한다.

#### 창부타령

- 기타: 경기 민요의 하나로 무당 소리에서 유래되었고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홍영산,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가 앞에 소리를 하고는 어릴 때 노래 잘 했다고 하며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701\_저지리\_홍영산\_창부타령

닐리리~ 닐리리 닐리리 닐리리리 닐리리 닐리리야 (허잇)  
얼씨구씨구씨구씨구씨구 종구나 절~씨구  
아니나 놀지는 못허리로구나  
아니나 아니는 못소리로구나  
아니나 놀지는 못허리로다

얼씨구 얼씨구 지활씨구 아니나 놀지는 못하리라  
새야 새야 파란새야 녹두꽃에나 앓지나 마오



녹두꽃이 뚝 떨어지면 오단 새도나 돌아간다  
얼씨구 얼씨구 지화자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로다

## 1-5. 저지리 전승동요

---

전승동요는 아이들이 놀 때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

### 주열재열

- 유희요: 나무에 있는 매미를 내려오게 하여 잡을 때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675 저지마을회관

**조사 일시:** 2025. 4. 15.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김신화, 여, 1933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 김신화는 ‘주열재열 ㄴ려오라’하면 매미가 나무에서 내려왔다고 한다. 그리고 옛날에는 나무가 숨을 못 쉴 정도로 매미가 달라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 한다.

**자료 코드:** S\_20250415\_저지리\_김신화\_주열재열

주열재열<sup>295)</sup> ㄴ려오라 개똥범벅헤영 주마 쉼범벅헤영 주마  
재열주열 ㄴ려오라 개똥범벅헤영 주마 개똥범벅헤영 주마

주열재열 ㄴ려오라 개똥범벅헤영 주마 쉼범벅헤영 주마

---

295) 주열재열: 매미매미.

## 왕이자랑1

- 자장가: 아기 재울 때 아기 바구니를 흔들면서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청수리)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김옥화, 여, 1937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왕이자랑’을 불러달라고 요청하니 구연하였다. 가사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여러번 불렀다.

**자료 코드:** S\_20250701\_저지리\_김옥화\_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흔저 잠 자라

어멍 아방 일허게

왕이자랑 왕이자랑

검둥개야 검둥개야

우리 애기 재와도라

느네 애기 재와주마

아니 재와 주민

총베로<sup>296)</sup> 손발 무꺼근에

들이첫당 내첫당 허키여

---

296) 총베로: 뿔뿔으로.

왕이자랑 왕이자랑

흔저 누웁 자사

일덜 헐 거 아니가

왕이자랑 왕이자랑

자랑자랑자랑

흔저 누웁 자지 아니허민

검둥개로

검둥개야 검둥개야

우리 애기 흔 발 무껍

돌아메여도라

이 검질 떼게

왕이자랑 왕이자랑

자랑자랑 왕이자랑

자랑자랑 왕이자랑

흔저 누웁 자사

어멍 아방 일헐 거 아니가

검둥개야 검둥개야

우리 아기 재와도라

느네 아기도 재와주마

검둥개야 검둥개야

아니 재와주민

손발 무껍 돌아메여동 일 허키여

## 왕이자랑2

- 자장가: 아기 재울 때 아기 바구니를 흔들면서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7. 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홍영산, 여, 1944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아기 재울 때 부르는 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니  
구연하였다. 처음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곤 잘 못하겠다  
고 하면서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701\_저지리\_홍영산\_왕이자랑

왕이자랑 아기자랑 왕이

(못허키여, 나.(못하겠어, 나.))

자랑 자랑 혼저 누워 잘 자라

아니 자민

(아니 아니)

왕이자랑 왕이자랑

(아니 잊어불언 못허크라.(아니 잊어 버려서 못하겠어.))

은동개야 은동개야 우리 아기 재와줍서

느네<sup>297)</sup> 아기 재와주마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

<sup>297)</sup> 느네: 너네.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혼저 자라 혼저 자라

할망 일 헤사 느네 밥 멕영 살릴 거 아니가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할망 손지 돈밥 멕영 돈줍 자게 허여줍서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허건 돈밥 멕영 돈줍 자게 허여줍서

왕이자랑

할망 즈순 잘 자게 허여줍서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자랑 자랑

(못허크라.(못하겠어.))

## 말이어가기

- 유희요: 언어 유희요로 끝말을 이어가면서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675 저지마을회관

**조사 일시:** 2025. 12. 1.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변창식, 남, 1941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가 자진하여 구연하였다. 두 번을 구연하였는데 처음  
은 제주방언 뜻풀이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자료 코드:** S\_20251201\_저지리\_변창식\_말이어가기

저 앞에 깜빡깜빡 허는 거 뺏고  
 어욱새 꽃이다  
 억새 꽃은 흰다  
 희민 하르방이다  
 하르방은 등 굽나  
 등 굽으민 쉼질멧가지<sup>298)</sup>  
 쉼질멧가진 네 고망<sup>299)</sup> 난다  
 네 고망 나민 시리 검은 떡시리다  
 시리는 검나 검으민 가마귀  
 가마귀 놀아다닌다 놀아다니민 심방  
 심방은 두드린다 두드리민 철쟁이여  
 철쟁이는 별경헌다  
 별경하민 대추여 대추는 돈다  
 돌민 엇이다 엇은 흘튼다<sup>300)</sup>  
 흘트민 기러기<sup>301)</sup> 기러긴 보리 먹나  
 보리 먹으민 쉼여 쉼은 뿔 돈나  
 뿔 돈으민 강록이여<sup>302)</sup> 강록은 막 뛰어댕긴다  
 뛰민 베룩이다 베룩은 문다

---

298) 쉼질멧가지: 소의 등에 얹는 길마.

299) 고망: 구멍.

300) 흘튼다: 액체 따위가 흘러 떨어진다.

301) 흘트민 기러기: 기러기 무리가 날아가는 모습이 무언가 길게 흘러 내리는 듯하다는 뜻.

302) 강록이여: 각록(角鹿)이여. 사슴이여.

물민 개요 개는 주꾼다<sup>303)</sup>

저 앞에 꼬박꼬박 허는 거 뺏나  
 어욱새 꽃이다<sup>304)</sup> 억새 꽃은 흰다  
 희민 하르방 하르방은 등 굽나  
 등 굽으민 쉼질멧가지 쉼질멧가진 네 고망 난다  
 네 고망 나민 시리 시리는 검나  
 검으민 가마귀 가마귀 놀아다닌다  
 놀아다니는 건 심방이여 심방은 두드린다  
 두드리민 철쟁이여 철쟁이는 별경헌다  
 별경하면은 대추여 대추는 돈다  
 돌민 엇이여 엇은 흘튼다  
 흘트민 기러기(좌~ 날아 다니는 거)  
 기러기다 기러긴 보리 먹나  
 보리 먹으민 쉼여 쉼은 뿔 돈나  
 뿔 돈으민 강록이여 강록은 막 뛰어댕긴다  
 뛰민 베룩이다 베룩은 문다  
 물민 개요 (경 허영 꽃나.(그렇게 해서 끝나.))  
 개는 주꾼다

---

303) 주꾼다: 쫓는다.

304) 꽃이다: 꽃이다.

## 2. 한경면 조수1리

### 2-1. 조수1리 마을 소개<sup>305)</sup>

조수1리는 제주시 한경면에 속한 마을로, 월림리, 저지리, 낙천리, 한원리, 금등리, 판포리 등 인근 마을에 둘러싸인 중산간 지역이다. 한경면 중심부에는 한원리가 위치하며, 그 북쪽에 조수리가 자리한다. 마을의 지형은 해발 100~150m 이하의 저지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남북으로 길게 뻗은 형태를 띠고 있다. 남쪽은 지대가 높아 해안까지 조망이 가능하고, 북쪽으로 갈수록 경사가 완만해지는 특징이 있다.

305) 한국문화원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경면 역사문화지』, 경신인쇄사, 2007.; 한경면주민자치위원회, 『한경면 생활문화지』, 일신옵셋인쇄사, 2019.; 조수1리마을회, 『한경면 조수1리 마을 이야기』, 한그루, 2020.; 제주의 마을 한경면 조수1리 (<https://www.jeju.go.kr/vill/josu1/index.htm> 검색일 2025.6.17.); 참조.



그림53 조수1리 마을 입구 전경

조수리는 크게 북쪽의 조수1리와 남쪽의 조수2리로 나뉜다. 조수1리는 한양동·중동·대동·신동 네 개 동(洞)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수1리의 면적은 한경면 전체 면적 79.1㎢ 중 약 8.4%인 6.63㎢이다.

조수리의 옛 지명은 ‘조호물’로 좋은 물이라는 말이다. 조수는 좋은 물의 한자를 그대로 차용하여 표기한 것이다. 『탐라순력도』(1702)의 ‘한라장축’과 ‘비양방목’에는 조호수(造乎水), 조호물(造乎勿)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남환박물』(1703)에는 ‘용선달이(龍先達理)’, 『탐라지도』(1709)에는 ‘조호물촌(造乎勿村)’, 『탐라방영총람』(18세기 중엽)에는 ‘용선리(龍先理)’, ‘구조호수리(舊造乎水里)’, ‘신조호수리(新造乎水里)’라 표기되어 있다. 『제주읍지』(1780)에는 ‘조호수리(造乎水里)’라는 명칭이 등장한다. 이후 조수리라는 명칭은 『제주삼읍전도』(1872), 『제주군읍지-제주지도』, 『삼군호구가간총책』(1904)에 확인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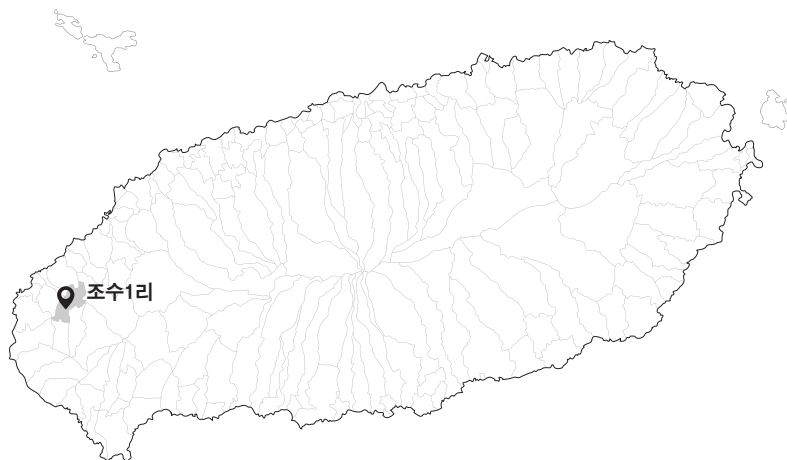


그림54 조수리

으로 조수리로 불리게 되었으며, 1974년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옛 조수리 지역은 조수1리로, 옛 주지동(朱池洞, 속칭 ‘불그뚝’)은 조수2리로 재편되었다.

조수1리 인구는 2024년 기준 429세대에 남자 401명, 여자 399명으로 전체 인구 수는 800명이다.

조수1리 물통은 1988년 발간된 마을지 『조수리향토사』에 보면 43개나 된다. 그 외에 더러 작은 물통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아 잊혀진 곳들도 많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물통은 ‘용선달이물’, ‘돛곶물’, ‘사장밭물’, ‘한양물’, ‘삼백이물’ 등이다.

조수1리는 중산간 농촌 마을로 감귤과 보리가 주요 소득원이며, 콩·감자 등의 재배도 활발하다. 양돈업 또한 농가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조수1리 교육환경은 조수서당이 1961년에 폐설되었고 1924년에 설립된 ‘신성의숙’도 같이 존재하였다. ‘신성의숙’은

‘심상소학교’로 1939년에 바뀌었다. 이후 조수국민학교로 바뀌었는데 1회 졸업생은 1945년에 배출되었다. 다시 학교명이 조수초등학교로 바뀌어 1995년에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되었다. 현재 옛 조수초등학교 건물은 ‘학교시네마’와 ‘조수리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 2-2. 조수1리 제보자

### 2-2-1.

#### 조병출, 여, 1936년생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조수1길 11

제보일시: 2025.5.15. / 9.23.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조병출은 조수1리 중동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역시 조수리 출신이다. 조병출은 22살에 자신보다 한 살 어린 남편과 결혼했으며, 남편도 조수리 한양동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평생 조수리를 떠나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한다.

시집갈 때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걸어서는 가지 않는다고 하고, 조병출은 당시 헌 트럭을 타고 시집을 갔다고 한다. 시집갈 때 앞좌석에는 남편과 본인이 앉고, 뒤 화물칸에는 ‘우시(위요(圍繞))’가 탔다. 시집갈 때 가지고 간 물건은 이불 두 채, 요 두 개, 요강, 세수대야였다.



자녀는 딸만 둘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고 한다. 그러나 두 딸 모두 아들을 낳아 손자가 다섯이고 모두 남자여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생 보리, 콩, 조, 고구마 등을 재배하며 살아왔다. 특히 고구마는 ‘감저빼떼기(절간고구마)’로 만들어 팔았다고 한다. 남편이 52세에 사망한 뒤로는 고구마 농사를 짓지 않았고, 콩과 보리 농사만 하다가 80세에 고관절을 다친 후 농사를 완전히 접었다고 한다. 제보자 김정열과는 사돈지간이다.

#### 제출 파일명

S\_20250515\_조수1리\_조병출 김정열\_아기흥그는소리

S\_20250515\_조수1리\_조병출 김정열\_ㄹ레ㄹ는소리

S\_20250515\_조수1리\_조병출 김정열\_뱃블리는소리

S\_20250515\_조수1리\_조병출 김정열\_남방아소리

S\_20250515\_조수1리\_조병출 김정열\_사데소리

S\_20250515\_조수1리\_조병출 김정열\_밥주리

S\_20250515\_조수1리\_조병출\_예숙제끼

S\_20250923\_조수1리\_조병출 김정열\_쫄른사데소리

S\_20250923\_조수1리\_조병출 김정열\_아기흥그는소리

S\_20250923\_조수1리\_조병출 김정열\_방아소리

S\_20250923\_조수1리\_조병출\_ㄹ레ㄹ는소리

S\_20250923\_조수1리\_조병출\_도깨질소리

S\_20250923\_조수1리\_조병출 김정열\_뱃블리는소리

S\_20250923\_조수1리\_조병출\_밥주리

S\_20250923\_조수1리\_김정열 조병출\_쫄른사데소리



## 2-2-2.

### 김정열, 여. 1938년생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415

제보일시: 2025.5.15.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김정열은 월림리 웃동네에서 태어났다. 남편은 조수 출신으로 그녀보다 네 살 위이다. 4·3 당시 산에 폭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어릴 때 아버지가 밭을 갈다가 날이 저물면 “소를 목장에 데려다 놓고 오라”고 시켰는데, 그때가 그렇게 무서울 수 없었다고 회상한다. 소를 몰고 목장에 다녀올 때면 폭도가 나타날까 봐 주위를 살피며 땀을 흘릴 정도로 두려웠다고 한다. 지금은 그 목장이 모두 골프장이 되었다.



결혼은 중매로 스무 살에 했으며, 당시에는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했다고 한다. 5남 3녀, 8남매를 낳아 조수리에서 ‘아기 부자’로 유명했다. 남편은 50세에 사망하였다.

그는 평생 농사를 지었으며, 주로 조·보리·콩·고구마를 재배했다. 이후 마늘 농사도 하다가 80세가 되기 전에 농사를 완전히 접었다고 한다.

#### 제출 파일명

S\_20250515\_조수1리\_조병출 김정열\_아기홍그는소리

S\_20250515\_조수1리\_조병출 김정열\_ㄹ레 ㄹ는소리

S\_20250515\_조수1리\_조병출 김정열\_밭블 리는소리

S\_20250515\_조수1리\_조병출 김정열\_남방아소리

S\_20250515\_조수1리\_조병출 김정열\_사데소리

S\_20250515\_조수1리\_조병출 김정열\_밥주리

S\_20250923\_조수1리\_조병출 김정열\_쫓른사데소리

S\_20250923\_조수1리\_조병출 김정열\_아기홍그는소리

S\_20250923\_조수1리\_조병출 김정열\_방아소리

S\_20250923\_조수1리\_조병출 김정열\_밭블 리는소리

S\_20250923\_조수1리\_김정열\_물 ㄹ레소리

S\_20250923\_조수1리\_김정열 조병출\_쫓른사데소리

## 2-2-3.

### 임선옥, 여. 1932년생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조수1리

제보일시: 2025.5.15. / 11.27.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임선옥은 조수1리 신동에서 태어났다. 다섯 형제 중 맏이였다. 어린 시절 집에서는 조·보리·콩·고구마 농사를 주로 지었고, 감자는 식량으로 먹을 만큼만 재배하였다. 고구마는 비교적 많이 심었고, 메밀과 밭벼, 목화 농사도 경험했다. 집에 벼들이 있어 무명을 짜곤 했으나, 소개령 이후 벼들은 모두 없어졌다고 한다.

10세에 국민학교에 입학했으나, 15세에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

상을 떠나면서 학교를 졸업하지는 못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병은 급성 맹장이 아니었을까 한다고 회고 했다. 당시에는 아프면 ‘심방(무당)’을 불려 굿을 하고, ‘축문쟁이(뱀사)’가 와서 방법을 쓰는 정도의 처방만 있었다. 어머니는 사흘 밤낮 배가 아프다고 하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때 막내는 생후 8개월이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젖을 먹지 못해 3~4개월 후 세상을 떠났다. 좁쌀과 녹두를 삶아 죽을 쑤어 먹었지만, 모유만 먹던 시기라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16세부터는 옷 만드는 일을 배워 동생들의 옷을 지어 입혔다. 당시에는 옷을 살 형편도, 살 여건도 되지 않아 직접 만들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가 쓰던 베틀로 무명을 짜고, 어머니가 지어주었던 옷을 뜯어 그 모양을 참고해 재단하는 방식으로 배웠다. 어머니는 재봉틀도 다루었고 솜씨가 매우 좋았는데, 그 재능을 물려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결혼 후에는 못 만드는 옷이 없을 정도로 솜씨가 좋아 장례 의복, 혼례 의복, 남자의 도포 등 다양한 의뢰를 받아 제작했다. 품삯은 돈으로 받기도 하고, 쌀로 받거나 나중에 품일로 갚기도 했다고 한다. 옛날에는 정말 가난했다고 회상했다.

옛날 속옷은 아래에 ‘소중기’, 위에는 ‘어깨마리’를 입었다. ‘어깨마리’는 지금의 런닝셔츠와 비슷한 모양이다. 무명을 짜서 하얗게 바래려면 집에서 잣물에 삶아 말린 뒤, 바닷가 용천수에서 빨아 돌담에

널어 말리는 작업을 여러 차례 반복해야 했다. 조수리에서 짠 무명을 들고 바닷가로 가 작업하는 일은 매우 고되었다.

17세 때 소개령이 내려지자 판포리로 소개되었다. 판포리에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남의 집에 얹혀 살았다. 약 1년 뒤 다시 조수 1리로 돌아왔다. 당시 시아버지는 조수 1리 재건 사업의 주도적 인물이었다. 마을로 돌아와 보니 집은 모두 불에 타 하나도 남지 않았고, 네 개 동 주민들이 모두 대동의 성담 안에 움막을 짓고 생활했다. 해가 지면 통행금지령이 내려졌고, 밤에는 정문을 닫고 청년들이 보초를 섰다.

성담을 쌓을 때 여자들은 돌을 저 나르고 남자들이 쌓았다. 불에 탄 집담과 밭담의 돌을 모두 날라 썼으며, 밭담은 경계 정도만 남고 거의 모두 가져왔다고 한다. 청수리와 저지리 등의 다른 마을이 성담을 쌓을 때도 가서 도왔다.

소개 이후 성담 안에서 살며 마을 재건에 힘썼다. 그 시기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대부분 글을 몰랐다. 학교를 먼저 세우고, 글 모르는 주민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선거가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이후 각자 집을 지어 나가면서 성담에 쌓아두었던 돌들은 필요에 따라 가져가 쓰면서 성담은 점차 사라졌고, 지금은 흔적을 찾기 어렵다.

마을이 재건된 후 23세에 조수 1리 대동 출신, 한 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했다. 시집갈 때는 가마를 타고 갔으며, 가마에는 요강 하나, 이불 두 채, 꿇 하나를 실었다. 신랑은 말을 타고 왔다. 자녀는 5남 1녀였으나, 첫째 아들은 초산이라 사산되어 현재는 4남 1녀다.

옛날에는 “삼월 보름에 집이 잇이민 도둑이렌 해서.(삼월 보름에 집에 있으면 도둑이라고 했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삼월 보름이면 마을 사람들이 거의 모두 바닷가로 내려갔다. 월령리의 ‘바르밧’이라는 여에는

오분제기가 많았는데, 손을 넣으면 잡힐 정도였다. 호미로 잘 떼면 떨어지지만, 잘못 떼면 오분제기가 찢어져도 떼기 어려웠다. 잡아 온 오분제기는 참기름을 넣어 죽을 쑀어 아이들에게 먹였다고 한다. 미역과 톳도 많이 채취했다. 봄이면 월령리·금능리·신창리 등 바닷가에는 중산간 사람들로 가득했다. 당시에는 해산물이 풍부하고 풍년이라 해녀들이 중산간 사람들을 막지 않았고, 해녀들은 주로 먼바다에서 물질을 했다고 한다.

결혼 후에도 농사는 계속 지었다. 주로 콩·조·고구마·보리를 재배했다. 누에농사도 하여 밭마다 뽕나무를 심었다. ‘뽕거리(바깥채)’에 창고를 지어 누에를 키웠는데 공간이 부족해 집 마루에서도 키웠다. 누에가 뽕잎을 먹는 소리가 비 오는 소리처럼 ‘와상와상 와상와상’ 들렸다고 한다. 처음 누에를 접했을 때는 무서웠는데 나중에는 손위에 올려도 괜찮았다고 한다. 누에고치는 봉개동에 있는 공장에 팔았다.

누에농사 다음으로 굴 농사를 시작했다. 50세가 되기 전부터 시작해 80세 초반까지 지속했으며, 중만생 굴로 시작해 점차 모든 밭에 굴을 심었다. 누에농사 하느라 굴농사 시작이 늦어졌다고 한다. 자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었지만, 형편이 어려워 육지 대학에 보내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건강 문제로는 51세에 자궁근종 수술을 받았고, 70세에는 중국 여행 중 미끄러져 허리를 다쳐 두 차례 수술을 했다. 85세에는 심장 수술을, 86세에는 갑상선 수술을 받았다. 갑상선 수술 이후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 예전처럼 소리를 내기 어렵다. 85세의 심장 수술 이후 농사는 모두 그만두었다. 남편은 91세에 세상을 떠났다.

## 제출 파일명

S\_20250515\_조수1리\_임선옥\_흔다리인다리  
S\_20251127\_조수1리\_임선옥\_뽕뽕리는소리  
S\_20251127\_조수1리\_임선옥\_사데소리  
S\_20251127\_조수1리\_임선옥\_ㄱ레ㄴ는소리  
S\_20251127\_조수1리\_임선옥\_애기흥그는소리  
S\_20251127\_조수1리\_임선옥\_흔다리인다리  
S\_20251127\_조수1리\_임선옥\_일본국가

## 2-3. 조수1리 노동요

---

노동요는 노동이 수반된 민요로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

### ㄱ레ㄱ는소리1

- 제분요-맷돌질소리: 맷돌에 곡식을 넣고 갈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조수7길 55 조수1리노인회관

**조사 일시:** 2025. 5. 15.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조병출, 여, 1936년생 / 김정열, 여, 1938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맷돌질할 때 부르는 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니 구연하였다. 맷돌을 돌리는 시늉을 하면서 불렀다. 부르다가 노인 회장이 다시 새로 부르라고 하여 다시 불렀다. 부녀자들이 주로 집 안에서 곡식의 껍질을 벗기거나 가루로 만들기 위해 맷돌질할 때 부르는 소리라고 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515\_조수1리\_조병출 김정열\_ㄱ레ㄱ는소리

이여도 허이 이여도 허이 이여도 허라

이여이여 이여도 허라

이여 이여 이여도 허라

ㄱ레 소리 듣기 좋다

이여 이여

이여 이여 이여도 허라

### 밧블리는소리1

- 농업요-밧 밟는 소리: 주로 조농사를 할 때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밧을 밟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조수7길 55 조수1리노인회관

**조사 일시:** 2025. 5. 15.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조병출, 여, 1936년생 / 김정열, 여, 1938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밧 밟을 때 부르는 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니 구연하였다. 제보자 조병출과 김정열 외에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같이 불렀다. 주로 조농사를 할 때 밧을 밟으면서 부르는 소리라고 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515\_조수1리\_조병출 김정열\_밧블리는소리

(조병출, 김정열)

어러러러러러 어러러러 돌돌 어랑 하랑 돌돌이여

돌돌 어러러러러

서산에 해는 지와가고 일은 헐 거 하고<sup>306)</sup>

노푼 다만 돌르멍 올라가라 어러러러러러

노푼 다만 올라가멍 야픈 디랑 \*\* 어러러러러

---

306) 하고: 많고.

(김정열)

어러러러러러러 어러러 어러러

러~ 러러어어어 어~ 돌돌 어러 어러 어러~

서산에 헤는 지와지고 일은 홀 거 한한허고<sup>307)</sup>

요놈으 뭉생이덜 노픈 디만 과락과락 둘루멍 돌아오라 휘~

어러 어러 어러

## 남방아소리

- 제분요-방아질소리: 방아에 곡식을 넣고 찼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조수7길 55 조수1리노인회관

**조사 일시:** 2025. 5. 15.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조병출, 여, 1936년생 / 김정열, 여, 1938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방아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니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515\_조수1리\_조병출 김정열\_남방아소리

이여이여 이여도 허라

식콜방에 세글러간다

이여이여 이여동 허라

잘키나<sup>308)</sup> 닥콜방에 세글러간다

307) 한한허고: 아주 많고.

308) 잘키나: 옳다구나. 부정적인 의미로 잘 안 되는 일에 '잘도 한다'는 비아냥거리는 의미.

이여이여 이여도 허라

## 사데소리1

- 농업요-김매는 소리: 김매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조수7길 55 조수1리노인회관

**조사 일시:** 2025. 5. 15.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조병출, 여, 1936년생 / 김정열, 여, 1938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사데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니 구연하였다. 주로

여름에 조농사를 할 때 많이 불렀다고 한다. 길게 부르는 사데소리

도 있지만 지금은 나이가 많아 숨이 짧아서 부르지 못하겠다고 하

였다. 제보자 조병출과 김정열은 같이 부르기도 하고 따로 부르기도 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515\_조수1리\_조병출 김정열\_사데소리

(조병출, 김정열)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어긴여랑 사데로구나

앞명에야 들어오라

뒷명에야 무너나라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요 밭 검질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뒷명에랑 무너나나라  
어긴여랑 사데로구나  
요 밧 검질 골넘엄구나  
어긴여랑 사데로구나

(조병출)  
사데소리 부르멍 행  
요 밧 검질 골넘엄서라  
어긴여랑 사데로구나

(김정열)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앞명에랑 들어오라  
뒷명에랑 물러나라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골 앓이고 검질 진 밧디  
곶은쉐로 여의멍 메게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조병출)  
사데소리 산 넘영 가라  
사데소리 물 넘영 가라  
어긴여랑 사데로구나

## 쫓른사데소리1

- 농업요-김매는 소리: 김맬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조수1리 김정열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9. 23.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조병출, 여, 1936년생 / 김정열, 여, 1938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김맬 때 부르는 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니 구연하였다. 제보자 김정열과 조병출이 번갈아 가며 불렀다. 여름 농사인 조농사할 때만 김을 땀다고 하고, 보리농사 때는 김을 매지 않았다고 한다. 긴 사데소리도 있는데 숨이 짧아 부를 수 없다고 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923\_조수1리\_조병출 김정열\_쫓른사데소리

(김정열)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검질 짓고 골 앓인 밧디  
곶은쉐로 여이멍 메자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조병출)  
사데소리 부르멍 메게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검질 짓고 골 없는 밧디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앞이 가는 올렁쉐야

조름에 오는 똥차야  
왈각찰각 다 좇아온다  
어기여라아 사데로구나

(김정열)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검질 짓고 골 앓인 밧디  
곶은쉐로 여이멍 메자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조병출)  
(다 잊어불영 모르켜 막 질게 헤낫저만은 아이고 숨 줄랑 진 소  
린 못허켜 그냥 쪼른 소리로이.(다 잊어 버려서 모르겠어. 마구 길게 했었는  
데 아이고 숨 짧아서 긴 소리는 못하겠어. 그냥 짧은 소리로이.))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검질 메고 어둑도록  
검질 메멍 집이덜 가자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해는 지고 다 저문 날에  
대활 왈각찰각 잘도 한다

(김정열)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앞명에랑 무너나나라  
뒷명에랑 들어나오라

곶은쉐로 여이멍 메자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조병출)  
사데소리 물 넘영 간다  
사데소리 산 넘영 간다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앞이 가는 울렁쉐야  
조름에 오는 요 덕덜아  
왈각찰각 다 좇아온다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요 해 지도록 검질 메영  
헌저 헌저 검질 메라  
저산 앞에 다 돌아온다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그만 허 그만 허라(웃음)

(김정열)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앞명에랑 무너나나라  
뒷명에랑 들어나오라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 방아소리

- 제분요-방아질소리: 방아에 곡식을 넣고 찼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조수1리 김정열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9. 23.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조병출, 여, 1936년생 / 김정열, 여, 1938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방아 찼을 부르는 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니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923\_조수1리\_조병출 김정열\_방아소리

(조병출)

이어 이어 이어동 허라

시콜병이 세글럼서라

이어 이어 이어동 허라

(“이어동 허라” 해동.(“어이동 허라” 해놓고.))

나 놀래에 산 넘엉 가라

나 놀래에 물 넘엉 가라

음 음

이어도 허라

이어 이어 이어동 허라

요 방에랑 제게도<sup>309)</sup> 허라

흔 번 두 번 니콜방에 세글럼서라

---

309) 제게도: 빨리.

(김정열)

이어 이어 이어동 허라

니콜 방에 세글러간다

눔이 씨앗으로 들엉

간간 놀젠 눔이 씨앗으로 들었저

이어 이어 이어동 허라

(눔이 씨앗으로 간간 놀젠 눔이 씨앗으로 들었저.(남이 찹으로 한가하게 놀려고 남이 찹으로 들었다.))

(간간 한걸리.(간간은 한가하다.))

이어 이어 이어동 허라

니콜방에 세 글러간다

눔이 씨앗으로 들엉

간간 놀젠 눔이 씨앗 들었저

이어 이어 이어동 허라

## 구레구는소리2

- 제분요-맷돌질소리: 맷돌에 곡식을 넣고 갈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조수1리 김정열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9. 23.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조병출, 여, 1936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맷돌질 할 때 부르는 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니

‘방아소리’와 비슷하다고 하며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923\_조수1리\_조병출\_ㄱ레ㄴ는소리

이어 이어 이어동 허라

ㄱ레 소리가 산 넘영 간다

이어 이어 이어동 허라

## 도깨질소리

- 농업요-마당질소리: 밭 구석이나 마당에서 도리깨를 이용하여 곡식을 타작할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조수1리 김정열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9. 23.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조병출, 여, 1936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마당질할 때 부르는 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니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923\_조수1리\_조병출\_도깨질소리

이야도흥 (다음 사름 이야도흥)

어기야차 (어기야차)

이야도흥 (이야도흥)

## 밧블리는소리2

- 농업요-밧 밟는 소리: 주로 조농사를 할 때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밧을 밟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조수1리 김정열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9. 23.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조병출, 여, 1936년생 / 김정열, 여, 1938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밧을 밟을 때 부르는 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니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923\_조수1리\_조병출 김정열\_밧블리는소리

(김정열)

어러러러러 돌돌 어러러러 어어어어허

어러러러러 돌돌 어러러러 어어어어허

(아이고 잊어불언.(아이고 잊어 버렸어.))

어러러러러 돌돌 어러러러 어어어어허

일 헐 건 한한히고 산에 해는 저 산에 지어가고

노픈 디만 불르멍 돌아오라 휘

어러러러러 돌돌 어러러러 어어어어허

(조병출)

어러러 돌돌이여 요 ㅁ쉬덜아 어러러 돌돌

지픈 디랑

(김정열)

돌아오라 돌아오라 산은 해는 서산에 지어가고

어러러 돌돌 어러러러러 어어어어러러

노픈 디만 와랑와랑 불르멍 돌아오라 휘

어러러롤롤 돌돌 어러러러러 어러

## 물 ㄱ레소리

-제분요-연자방아소리: 소나 말을 이용하여 연자방아를 돌리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조수1리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9. 23.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김정열, 여, 1938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연자방아를 돌릴 때 부르는 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니 구연하였다. 곡식의 껍질을 벗기기 위해 연자방아에 곡식을 놓고 소나 말을 이용하여 돌릴 때 부르는 소리다.

자료 코드: S\_20250923\_조수1리\_김정열\_물 ㄱ레소리

이러 이러 이러 돌아오라 혼저 빙빙 돌라 이러러러러 어야

## 쫓른사데소리(뺏다)2

-농업요-김매는 소리: 김매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조수1리 김정열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9. 23.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김정열, 여, 1938년생 / 조병출, 여, 1936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 김정열이 오름 이름을 말하면서 부르는 사데소리가 있다고 하며 구연하였다. 후렴을 받아달라고 하여 조사자와 제보자 조병출이 같이 소리를 받아주었다.

자료 코드: S\_20250923\_조수1리\_김정열 조병출\_쫓른사데소리

(김정열)

뺏다 뺏다 할로산이 뺏다

뺏다 뺏다 장오리가 뺏다

뺏다 뺏다 눈오름이 뺏다

뺏다 뺏다 도구리오름이 뺏다

뺏다 뺏다 머리어지름이 뺏다

뺏다 뺏다 새벨오름이 뺏다

뺏다 뺏다 정물오름이 뺏다

뺏다 뺏다 족은정물이 뺏다

뺏다 뺏다 감남오름이 뺏다

뺏다 뺏다 돈오오름이 뺏다

뺏다 뺏다 거름오름이 뺏다

뺏다 뺏다 저

뺏다 뺏다 저

뺏다 뺏다 (어느 오름고)

뺏다 뺏다 저지오름이 뺏다

뺏다 뺏다 망오름이 뺏다

뺏다 뺏다 불근오름이 뺏다

떴다 떴다 정어리오름이 떴다  
 떴다 떴다 판포악이 떴다

(응 막 으라이 앓안 게민 조름에 소리가 셔. ‘아아아 에헤요’ 조  
 림에 사름이 그거 해줘사.(응 마구 여럿이 앓아서 그러면 끝에 소리가 있어.  
 ‘아아아 에헤요’ 끝에 사람이 그거 해줘야.))

(선소리 김정열, 훗소리 조병출과 조사자)

떴다 떴다 할로산이 떴다	아아아 에헤요
떴다 떴다 장오리오름이 떴다	아아아 에헤요
떴다 떴다 눈오름이 떴다	아아아 에헤요
떴다 떴다 도고리오름이 떴다	아아아 에헤요
떴다 떴다 머중 머리어진오름이 떴다	아아아 에헤요
떴다 떴다 새벨오름이 떴다	아아아 에헤요
떴다 떴다 정물오름이 떴다	아아아 에헤요
떴다 떴다 당오름이 떴다	아아아 에헤요
떴다 떴다 감낭오름이 떴다	아아아 에헤요
떴다 떴다 돈오오름이 떴다	아아아 에헤요
떴다 떴다 검은오름이 떴다	아아아 에헤요
떴다 떴다 머정오름이 떴다	아아아 에헤요
떴다 떴다 저지오름이 떴다	아아아 에헤요
떴다 떴다 붉은오름이 떴다	아아아 에헤요
떴다 떴다 망오름이 떴다	아아아 에헤요
떴다 떴다 정어리오름이 떴다	아아아 에헤요
떴다 떴다 판포악이 떴다	아아아 에헤요

떴다 떴다 두행이오름이 떴다      아아아 에헤요  
 (끗)

### 밧블리는소리3

- 농업요-밧 밟는 소리: 주로 조농사를 할 때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밧을 밟으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11. 27.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임선옥, 여, 1932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조농사 짓는 것에 대해 질문하니깐 ‘밧 블리는 소리’를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1127\_조수1리\_임선옥\_밧블리는소리

어랑 하랑 돌돌 돌돌 어러러러어어어 어어 어어어~어 하랑  
 어러러러러 어러러 요 송아기 저 송아기 노픈 디만 불고 가라  
 어러러러 어러러러  
 (허멍 탁탁 두드리멍 들어 돌앙 물들이 와랑와랑 와랑와랑 다  
 셋 개씩 니 개씩 메민 선장 물만 하나 심엉 영 돌아가민 빙빙빙  
 빙 돌고 들어 불려 경 행 불려근에 밧 블리주게.(하면 탁탁 두드리면  
 서 들어 돌아서 말들이 와랑와랑 와랑와랑 다섯 개씩 네 개씩 메면 선장말만 하나 잡고  
 이렇게 돌아가면 빙빙빙빙 돌고 들어 밧아 그렇게 해서 밧아서 밧 밧지.))

## 사데소리2

- 농업요-김매는 소리: 김매 때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11. 27.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임선옥, 여, 1932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조농사 짓는 것에 대해 질문하니 ‘땃 불리는 소리’를 구연하였다. 이후 계속 살아온 이야기를 하다가 조농사에 대해 다시 물으니 조는 심어서 5일이면 싹이 난다고 하고 그때부터 김을 맨다고 하였다. 조사자가 ‘검질 때는 소리’를 요청하니 구연하였다. 제보자는 김 매는 소리를 ‘사데소리’라고 하였다. 조사자가 ‘사데소리’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냐고 물으니 이제는 다 잊어버려서 모르겠다고 하며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1127\_조수1리\_임선옥\_사데소리

어기여랑 서아나데야  
어기여랑 서아나데야  
앞명에야 들어나오라  
뒤텁에야 무너나나라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검질 짓고 골 앓인 땃디  
곶은쉐로나 여이명 멘다

나 놀래랑 산 넘영 가고  
나 놀래랑 물 넘영 가라

검질 버친 내 놀래로다  
여기여랑 서아나데야  
우리 어멍 어떤 날에 나를 나근  
검질 땃디 살렘 허영  
여기여랑 서아나데야

## ㄱ레ㄱ는소리3

- 제분요-맷돌질소리: 맷돌에 곡식을 넣고 갈면서 부르는 소리.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11. 27.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임선옥, 여, 1932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사데소리’를 한 번 더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ㄱ레ㄱ는소리’를 구연하였다. 마지막 가사를 ‘사데소리’ 후렴으로 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1127\_조수1리\_임선옥\_ㄱ레ㄱ는소리

이어이어 이어도 허라  
이어이어 이어도 허랑  
어떤 날에 나를 나근  
시집 종수 일만 부실 다 허멍  
요 일 허렌 날 낱던고  
이어이어 이어도 허랑  
서룬 어멍 날 무사 나근

요런 저런 고생 허멍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 2-4. 조수1리 전승동요

---

전승동요는 아이들이 놀 때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

### 아기흥그는소리1

-자장가: 아기 재울 때 아기 바구니를 흔들면서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조수7길 55 조수1리노인회관

**조사 일시:** 2025. 5. 15.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조병출, 여, 1936년생 / 김정열, 여, 1938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아기 재울 때 부는 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니 제  
보자 조병출, 김정열과 다른 사람들도 같이 불렀다. 아기를 기다란  
바구니에 눕혀 재운다. 이때 바구니를 흔들면서 부르는 소리다.

**자료 코드:** S\_20250515\_조수1리\_조병출 김정열\_아기흥그는소리

왕이자랑 왕이자랑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왕이자랑 왕이자랑

느네 아기 재와주민

우리 아기 재와주마

아니 재와주민

깊은 깊은 천지소에 들이췌당 내췌당

(이 할망들 헐 거냐 안 헐 거냐?(이 할머니들 할 거냐? 안 할 거냐?))

든밥<sup>310)</sup> 먹곡 든 줌<sup>311)</sup> 자게 허여줍서

왕이자랑 왕이자랑

## 밥주리<sup>1</sup>

- 유희요: 아이들이 잠자리 잡을 때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조수7길 55 조수1리노인회관

**조사 일시:** 2025. 5. 15.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조병출, 여, 1936년생 / 김정열, 여, 1938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잠자리 잡는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니 구연하였

다. 잠자리를 잡을 때 Y자 모양의 나무에 거미줄을 감아서 들고 다니면서 잠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Y자에서 벌어진 부분에 거미줄을 감아 휘둘르다 보면 잠자리가 그 부분에 앉아 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 조사자가 제보자 김정열에게 ‘돌레짱’이 무슨 말이나고 물으니, ‘밥주리<sup>312)</sup> ㄴ라 돌멍 앓이렌. (잠자리한테 돌면서 앓으라.)’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왕밥주리’, ‘토종밥주리’가 다르다고 하며 ‘왕밥주리’는 파랗고 ‘토종밥주리’는 하얗다고 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515\_조수1리\_조병출 김정열\_밥주리

310) 든밥: 단밥.

311) 든줌: 단잠.

312) 밥주리: 잠자리.

(조병출)

느 건<sup>313)</sup> 수컷 나 건 암컷

(김정열)

돌레짱 돌레짱 앓이라 앓이라

돌레짱 돌레짱 왕밥주리

돌레짱 돌레짱 앓이라 앓이라

## 흔다리인다리<sup>1</sup>

- 유희요: 아이들이 앉아서 다리를 세면서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조수7길 55 조수1리노인회관

**조사 일시:** 2025. 5. 15.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임선옥, 여, 1932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다리세기를 할 때 부르는 노래를 불러달라고 제보자 조병출이 부르다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제보자 임선옥이 구연하였다. 조사자가 재차 요청하니 두 번 불렀다.

**자료 코드:** S\_20250515\_조수1리\_임선옥\_흔다리인다리

흔다리<sup>314)</sup> 인다리<sup>315)</sup> 거청 데청 원님 사사 구월 나월 상남 고도

313) 느 건: 너 건.

314) 흔다리: 넓적다리.

315) 인다리: 넓적다리.



버드나무 월롱달롱 지둥에 척

흔다리 인다리 거청 데청 원님 사사 구월 나월 상남 보름 버드  
나무 월롱달롱 지둥에 척

## 예숙제끼

- 유희요: 언어 유희요로 아이들이 놀 때 문답으로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조수7길 55 조수1리노인회관

**조사 일시:** 2025. 5. 15.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제보자:** 조병출, 여, 1936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말 이어 가며 부르는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니  
‘예숙제끼’<sup>316)</sup>라고 말하며 구연하였다.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515\_조수1리\_조병출\_예숙제끼

저디 돌아 땡기는 거 무시거?

저건 가마귀

저건 메여

소로기여

저건 춤메

나건 암커

---

<sup>316)</sup> 예숙제끼: 수수께끼.

저건 수커

저디 놀아 땡기문

저건 비둘기

돌아 가문

저건 강아지

## 아기흥그는소리2

- 자장가: 아기 재울 때 아기 바구니를 흔들면서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조수1리 김정열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9. 23.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조병출, 여, 1936년생 / 김정열, 여, 1938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아기 재우려면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바구니를 흔  
들면서 재운다고 하고 구연하였다. 발에 김매러 갈 때 아기를 데리  
고 가면 아주 큰 우산처럼 생긴 ‘그늘케’를 만들어 씌워 놓고 아기  
보는 ‘애기업게’가 아기를 보다 젓 먹일 시간이 되면 ‘아기 젓 맥입  
서.(아기 젓 먹이세요.)’ 소리쳤다고 한다.

**자료 코드:** S\_20250923\_조수1리\_조병출 김정열\_아기흥그는소리

(김정열)

왕이자랑 왕이자랑

우리 아기 재와도라

느네 아기 재와주마

아니 재와주민 지픈 지픈 천지수 들이췄다 내췄다 허키여

(조병출)

왕이자랑 왕이자랑

나 놀래에 누윙 자라

왕이자랑

## 밥주리2

- 유희요: 아이들이 잠자리 잡을 때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조수1리 김정열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9. 23.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조병출, 여, 1936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어릴 때 놀면서 부르던 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니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0923\_조수1리\_조병출\_밥주리

돌레 돌레 느 건 암컷 나 건 수컷 돌레 돌레

## 애기흥그는소리

- 자장가: 아기 재울 때 아기 바구니를 흔들면서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11. 27.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임선옥, 여, 1932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애기 흥그는 소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니 구연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1127\_조수1리\_임선옥\_애기흥그는소리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왕이자랑 왕이자랑

돈밥 먹고 돈좁 자게

허여 줍서

철 모른 이 즈순 할마님이

은 ㄱ튼 손으로 금 ㄱ튼 손으로

궤양궤양<sup>317)</sup> 키와 줍서

왕이자랑 왕이자랑

물웨<sup>318)</sup> 크듯 키와 줍서

왕이자랑

돈밥 먹고 돈좁 자게

할마님이 \*\* 족히게 잘 키와 줍서

---

317) 궤양궤양: 고이고이.

318) 물웨: 물외.

## 흔다리인다리2

- 유희요: 아이들이 앉아서 다리를 세면서 부르는 노래.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11. 27.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임선옥, 여, 1932년생.

**구연 상황:** 조사자가 어릴 때 불렀던 노래 기억이 나는지 물으니 ‘흔다리  
인다리’가 기억이 난다고 하며 구연하였다. 구연 후에 조사자가 뜻  
을 물으니 모르겠다고 하였다.

**자료 코드:** S\_20251127\_조수1리\_임선옥\_흔다리인다리

흔다리 인다리 거청 대청 위님 사서 월랑 불랑 지둥에 청

흔다리 인다리 거청 대청 원님 사수 구월 나월 상남 버드 버드  
나무 얼롱 달롱 지둥에 척

흔다리 인다리 거청 대청 위님 사수 상남 버드 버드나무 얼롱  
달롱 지둥에 척

## 2-5 기타

---

### 일본애국가

- 일본노래-일본국가

**조사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제보자 자택

**조사 일시:** 2025. 11. 27.

**조사자:** 송정희, 양인정

**제보자:** 임선옥, 여, 1932년생.

**구연 상황:** 제보자는 국민학교를 일본강점기 때 다녀서 일본이 망할 때  
울었다고 한다. 우리말도 못하게 하고 일본말로 공부했다고 하면  
서 몰라서 울었다고 억울해 했다. 다른 일본 노래는 기억이 나질 않  
는데 일본 국가는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구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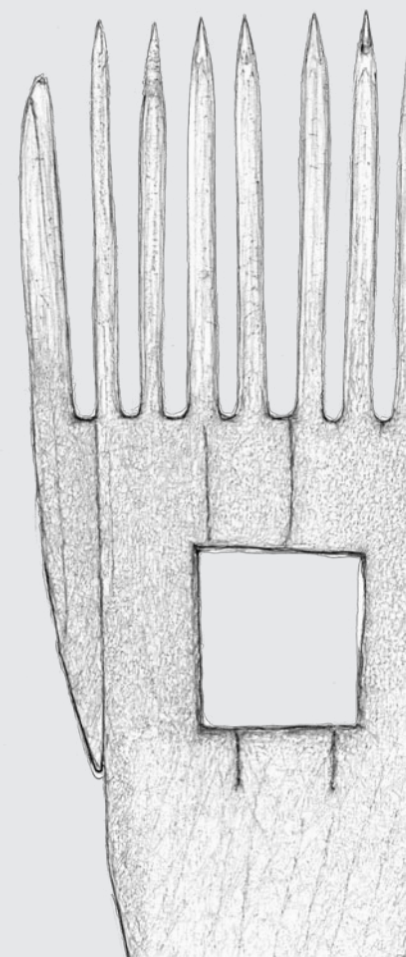
**자료 코드:** S\_20251127\_조수1리\_임선옥\_일본국가

기미가요와지요니야시요니사자레이꾸노니하호도나리데<sup>319)</sup>

---

319) 君が代は千代に八千代にさざれ石の巖となりて

##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김영돈, 『제주도 민요연구-이론편』 하권, 민속원, 2002.
- 김영돈, 『제주도 민요연구-자료편』 상권, 민속원, 2002.
- 김영돈, 『濟州의 民謠』, 도서출판 신아문화사, 1993.
- 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 민요해설집』, 문화방송라디오국, 1992.
- 변성구, 『제주민요의 현장론적 연구』 탐라문화학술총서 5, 민속원, 2007.
- 애월읍 애월리, 『애월리 향토지』, 애월리지 편집위원회, 2022.
- 양영자, 『제주민요의 배경론적 연구』 탐라문화학술총서 6, 민속원, 2007.
- \_\_\_\_\_, 『제주학으로서 제주민요』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총서 31, 민속원, 2017.
- 유수암리지 편찬위원회, 『流水岩里誌: 제주 유수암 마을』, 애월읍 유수암리, 2010.
- 윤치부 편저, 『제주전래동요사전』, 민속원, 1999.
- 이소라, 『나요당 기증 제주민요 자료집』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총서 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2018.
- 저지리지발간추진위원, 『제주의 마을②-저지리』, 도서출판 반석, 2002.
- 제주도·북제주군·애월읍, 『邑誌』, 애월읍지 편찬추진위원회, 1997.
- 제주도·북제주군·한림읍, 『한림읍지』, 한림읍편찬위원회, 1999.
- 제주시, 『濟州의 郷土民謠-濟州市 編』, 濟州市, 200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우리 고장 이야기 제주시Ⅴ 애월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4.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가 떠난 우리 고장 이야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4.
- 조수1리마을회, 『한경면 조수1리 마을 이야기』, 한그루, 2020.

좌혜경 외 8인, 『제주민요채록집 제주민요사전』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총서 15, 하나CNC출판, 2015.

주혜진, 「해방가요와 해방가요운동의 발생과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논문, 1998.

한경면주민자치위원회, 『한경면 생활문화지』, 일신옵셋인쇄사, 2019.

한국문화원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경면 역사문화지』, 경신인쇄사, 200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한국구비문학대계 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한국구비문학대계 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한국구비문학대계 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허남춘·강정식·강소전·송정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한국구비문학대계 9-4』, 역락, 2014.

허남춘·강정식·강소전·송정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한국구비문학대계 9-5』, 역락, 2017.

허남춘·강정식·강소전·송정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한국구비문학대계 9-6』, 역락, 2017.

李有姬, 「明治・昭和軍歌にみる近代の特徴」, 大阪大学大学院 言語文化研究科 博士学位論文, 2016.

## 누리집

국악사전 홈페이지(<https://www.gugak.go.kr/ency/>)

국토정보맵 통합지도검색 (<https://map.ngii.go.kr>)

귀덕3리 디지털제주문화대전 (<https://jeju.grandculture.net>)

나무위키 <https://namu.wiki/w/%E5%A4%95%E7%84%BC%E3%81%91%E5%B0%8F%E7%84%BC%E3%81%91>)

디지털 제주문화대전(<https://jeju.grandculture.net/jeju>)

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 ([https://jeju43peace.or.kr/kor/sub01\\_01\\_01.do](https://jeju43peace.or.kr/kor/sub01_01_01.do))

제주의 마을 애월읍 애월리 (<http://www.jeu.go.kr/vill/aewol/index.htm>)

제주의 마을 유수암리 (<https://www.jeu.go.kr/vill/yusuam/index.htm>)

제주의 마을 제주시 저지예술마을(<https://www.jeu.go.kr/vill/jeoji/intro/history.htm>)

제주의 마을 한경면 조수1리 (<https://www.jeu.go.kr/vill/josu1/index.htm>)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http://jst.re.kr/haenyeo/main.do>)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

해양자료속보, 제3959호, 국립수산물과학원 (<https://nifs.go.kr/board>)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24년 주민등록인구 통계표 ([https://jumin.mois.  
go.kr/](https://jumin.mois.go.kr/))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총서 83  
사라져가는 제주노동요 기록 사업(2025)

# 사라져가는 제주노동요 1

- 애월읍·한림읍·한경면

지은이 송정희, 양인정, 임현정  
발행일 2025년 12월 19일  
펴낸이 김완병  
펴낸곳 제주학연구센터  
632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278 3층  
www.jst.re.kr

제작처 한그루  
출판등록 제651-2008-000003호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1길 21  
www.onetreebook.com

© 제주학연구센터, 2025

ISBN ISBN 979-11-995729-4-2(93810)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혀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비매품